

# 그리스도의 교회

조 동 호 편저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

# **INTRODUCTION TO THE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02, 2008, 2011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 (042)841-9697

# 머리말

## 만일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만일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둘째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 셋째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 넷째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느 목회자가 말하기를, “교회가 성장하려면, 먼저 교회론이 바로 정립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신학과목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론은 세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교회론은 안내표식과 같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회를 배라고 한다면, 그 배가 어디로 갈 배인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떠날 배인지, 승선을 해도 좋을 배인지, 승선을 해서는 안 될 배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식과 같은 것이다. 이점에서 교회론은 배에 오르지 아니한 교회밖에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승선해야 할 사람과 승선해서는 안 될 사람이 나뉘진다. 또 승선하지 아니할 사람이라도 그 배의 성격이나 목적지를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막을 수가 있다.

둘째, 교회는 배의 방향키와 같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을 경우,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배에 오른 사람들은 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승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회항하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불필요한 곳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되고, 목적지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불필요한 설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승선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때

문에 쓴맛을 보지 않아도 된다.

셋째, 교회도 복음도 하나의 상품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굳이 배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천국행 여행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먼저 자기 교회가 파는 상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 상품을 잘 모르 고서는 고객의 마음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먼저 자기 교회 만이 갖는 특성화된 상품 또는 차별화된 상품이 있어야 한다. 남들이 잘 파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쪽에 끌려가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남들이 상품을 잘 파는 이유는 우리 상품보다 질이 좋아서라 기보다, 혹시 그들이 자기 상품에 대한 깊은 지식과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남들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 록 브랜드 이미지는 많이 떨어지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팔지 못하는 데는 자기 상품에 대한 연구나 자긍심이 부족한 탓은 아닐까?

자기 상품에 대한 자긍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것이 좋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인정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동안, 남들은 우리 것의 진가를 알아채고 우리의 것을 가져다가 발전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아마 성만찬일 것이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관리도 잘해야 한다. 작은 일을 소홀히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다. 짚신을 삼아 팔던 부자(父子)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잔털을 제거한 후 에 시장에 내다 잘 팔았고, 아들은 잔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팔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품의 포장, 진열 등은 상품 못지 않게 판매에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시장에 내다 팔면 싸구려 상품으로 취급받게 되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백화점에 내 다 팔면 비싼 상품으로 둔갑되지 않는가? 이런 세 가지 점에서 교회 론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본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재로 꾸며보았다. 본서는 출판을 위한 책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들 가운데서 13번 정도의 강의용으로 짧은 시간

에 편집한 것이어서 내용을 충분히 다듬지도 못했고, 실(實)하게 신지도 못했다. 그럴만한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본서에 신지 못한 내용이라도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kccs.info>)에 접속하면 언제라도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된다. 본서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책을 엮은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

2002년 8월 5일  
황산벌 연구실에서 조동호



# 차례

## 제1장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태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11

- 1. '하나의 교회' 운동 ..... 12
- 2.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 19

## 제2장 발톤 왈렌 스톤(Barton Warren Stone)/23

- 1. 탄생과 초기 생애 ..... 23
- 2. 스톤의 회심 ..... 25
- 3. 케인 릿지 집회 ..... 26
- 4. 스프링필드 장로회 ..... 28
- 5. 캠벨과 통합 ..... 29

## 제3장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33

- 1. 토마스 캠벨: 탄생과 초기 생애 ..... 34
- 2. 미국예로의 이주 ..... 36
- 3. 『선언과 제언』 ..... 37
- 4. 환원운동의 태동 ..... 40

## 제4장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43

- 1. 준비 단계 ..... 43
- 2. 미국예로의 이주 ..... 46
- 3. 방향을 위한 갈등 ..... 47
- 4. 알렉산더 캠벨의 공헌 ..... 49
- 5. 알렉산더 캠벨의 노년기 ..... 51

## 제5장 알렉산더 캠벨의 업적/53

1. 새 출발(Beginnings) .....	54
2. 떠오르는 지도자로서(As Emerging Leader) .....	57
3. 교회 개혁가로서(As Church Reformer) .....	59
4. 인습타파자로서(As Iconoclast) .....	61
5. 토론가로서(As Debater) .....	61
6. 정치가로서(As Politician) .....	63
7. 편집자와 출판가로서(As Editor and Publisher) .....	64
8. 설교가로서(As Preacher) .....	67
9. 교육가로서(As Educator) .....	69
10. 성경학자로서(As Biblical Scholar) .....	71
11. 대중연설가로서(As Public Speaker) .....	71
12. 조직가로서(As Organizer) .....	72
13. 사회개혁가로서(As Social Reformer) .....	73
14. 신학자로서(As Theologian) .....	76
15. 나오는 말(A Final Word) .....	76

## 제6장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전개/81

1.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발 .....	81
2. 광복 후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활동 .....	84
3. 6.25사변 후의 환원운동의 전개 .....	87
4.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한국적 자각 .....	91

## 제7장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의 당위성/97

1. 이 운동의 뜻풀이 .....	97
2. 이 운동의 시작과 발전 .....	98
3. 타 교단에서의 이 운동의 흔적 .....	99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의 당위성 .....	102

## 제8장 조기 외국인 선교사/107

1. 제이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	107
2. 헐 요한 선교사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역사 .....	109

3. 채이스 선교사(John Trawrick Chase) .....	123
4. 래쉬 선교사(Richard & Melba Lash) .....	125
5. 테일러 선교사(Harold & Ada Taylor) .....	126

### 제9장 초기 한국인 목회자/129

1. 성낙소 목사(1890.5.16~1964.11.30) .....	129
2. 최상현 목사(1891~1950?)의 생애와 업적 .....	131
3. 동석기 전도자(1881.4.6~1971.12.26) .....	134
4. 강명석 전도자(1897~1944.5.28) .....	136
5. 김은석 목사(1902.5.14~1963) .....	137
6. 이신 목사(1927.12.25-1981.12.17)의 생애와 신학사상 .....	139

### 제10장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151

1.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	151
2.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대표 .....	153
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	159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	162

### 제11장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론/191

#### 제12장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준/199

1. 교회의 머리와 몸(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	201
2. 교회의 기초(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 .....	206
3. 교회의 지체들(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 .....	210
4. 빛과 생명의 복음(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	215

### 제13장 사도들의 예배전통에로의 회복/223

1. 성만찬 예배 .....	223
2. 믿음과 침례와의 관계 .....	240

### 제14장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서적인 이유/245

1. '신약성경교회'이기를 고집한다. ....	245
---------------------------	-----

2.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한다. ....	245
3. 사도들의 예배전통만을 따른다. ....	246
4.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 명칭만 사용한다. ....	247
5. 인위적인 신조나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	247
6. 신약성경의 명령을 지킨다. ....	248
7. 오직 성경만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다. ....	249
8.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 규정만을 지킨다. ....	249
9.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뿐이다.” ...	250
10. 복음의 본질에는 일치를...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한다. ...	250

### **제15장 3세기에 걸친 스톤-캠벨 운동 역사: 조사와 분석/251**

1. 서론 .....	251
2. 운동사 저술에의 도전 .....	252
3. 초기 역사들 .....	254
4.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기술 .....	255
5.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기술 .....	266
6.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기술 .....	275
7. 미국 종교사 속에서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기술 .....	284
8. 요약과 분석 .....	291
9. 그 운동의 역사기술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상태 .....	295
10. 참고자료 .....	296

### **제16장 환원운동에 관한 오해/303**

1. '환원운동'의 개념에 대한 오해 .....	303
2. '환원운동'의 이슈들에 대한 오해 .....	307

### **제17장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315**

1.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 .....	316
2. 그리스도인의 교회 운동 .....	316
3. 신약성서교회 운동 .....	318
4. 빛과 생명의 복음회복 운동 .....	320

# 제1장

##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태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

글 조동호 목사

### 들어가는 말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태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은 환원운동 1세대가 펼쳤던 두 가지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하나의 교회’ 운동이다. 이 운동은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이전에 시작된 운동이다. 이 운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은 장로교 목사 발톤 스톤이 주축이 돼서 1804년 6월 28일 발표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sup>1)</sup>와 역시 장로교 목사 토마스 캠벨이 주축이 돼서 1809년 9월 7일 발표한 『선언과 제언』<sup>2)</sup>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된 배경이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고 행하는 전통도 이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운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은 1811년 5월 4일 ‘브러시 런(Brush Run) 교회’<sup>3)</sup>를 처음 시작한 알렉산더 캠벨의 신학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

1) 조동호, “2.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 『우리가 이 보배를 절그릇에 가졌으니』(서진출판사, 1994), 39-51쪽.

2) 조동호, “3. 선언과 제언,” *Ibid.*, 53-92쪽.

3) 브러시 런 교회는 알렉산더 캠벨의 저택과 베다니 대학에서 그리 멀지 아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미들톤(West Middleton) 남동쪽 2마일 가량에 위치한 장소에 세워졌으나 지금은 그 터만 보존되어 있다. 캠벨의 저택은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으며, 캠벨이 세운 베다니 대학도 인문대학으로써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

## 1. ‘하나의 교회’ 운동

‘하나의 교회’ 운동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이 그리스도의 교회만의 독특한 운동은 아니다. 이들 운동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운동들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때로부터 역사는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그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주제요, 선교의 과제<sup>4)</sup>이다. 그러나 ‘하나의 교회’ 운동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가들인 마르틴 루터, 츠빙글리, 요한 칼뱅 또는 마르틴 부처와 같은 이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친 이후부터였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운동이 일치보다는 성경의 권위와 진리를 더 중요시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또 종교개혁 자체가 교회를 찢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의 모습은 교리적 야집과 교파주의에 치우친 분열과 분쟁의 연속이었다.<sup>5)</sup> 종교개혁의 이런 부정적인 면을 시정하고 고쳐 나가는 ‘하나의 교회’ 운동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들이 바로 발톤 스톤과 토마스 캠벨이다.

이 운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와 『선언과 제언』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지면관계상 간략하게만 소개하고자 한다.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발톤 스톤(Barton W. Stone)이 시무 하던 교회를 포함해서 미국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 접경지역에 퍼져 있던 15개의 교회들로 구성되고 있었다. 이들 교회들은 모두 체험 중심의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교회들이다. 그들은 냉랭하고 인위적이며 율법주의적인 당시의 장로교조직으로부터 탈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고 성경에 충실하며 민주주의적인 교회로 연합하기 위해서

4) 사도행전과 바울서신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선교과제 중의 하나는 그가 세운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예루살렘교회를 구성하는 유대인들과 합일을 이루는 일이었다.

5) 문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93년 10월말 우리나라 전체 교단(총회)수는 1백 59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1백 개 교회이하로 총회가 구성된 교단이 전체 교단의 33%를 차지하는 52개 교단에 이르고 있다. 또 최근 발표에 의하면, 개신교 교단 수가 전 세계적으로 600여 개에 달하고 있어 그 분열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로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로회 조직 9개월 만에 해체를 선언하였고, 그 해체 성명서가 바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sup>6)</sup>이다.

이 유언서의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교회연합의 당위성, 둘째는 성경의 권위회복, 셋째는 개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넷째는 홀로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이다.

이 유언서 첫 조항은 말하기를, “본 장로회는 죽고, 해체되어, 넓은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침몰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오직 한 몸, 한 성령만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기 때문이다”고 하였고, 이어지는 조항들에서는 “한 주님만이 계시므로 목사에 대한 높임 칭호인 ‘Reverend’를 쓰지 않겠다.”고 하였고,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치리 할 법령이나 위임된 권위로 그들을 처벌할 권한을 영원히 멈춘다.”고 하였다. 다른 조항에서는 말하기를, “복음사역을 위한 후보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열심 있는 기도로 성경을 연구하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으로서 단순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 유언서는 목회자의 선택이나 책임은 물론 교회행정과 치리에 있어서 회중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일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성경 한 권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피차 관용의 정신을 키우고, 기도에 힘쓰며, 분쟁을 줄이고, 시대의 징조를 살펴 구속의 날을 고대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Barton W. Stone,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1804),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먼저(imprimis), 우리는 이 장로회가 죽어 해체되어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한다(will). 오직 한 몸과 한 성령이 있을 뿐이며,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조항(item). 우리는 구별을 위한 명칭 레버랜드(Reverend)란 호칭이 잊혀질 것과 하나님의 유산(God's heritage)에는 오직 한 주(Lord) 뿐이며, 그의 이름은 하나(One)일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교회 치리를 위한 법을 만들고, 대표로 위임된 권위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은 영원히 멈출 것과 사람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택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복음사역을 위한 후보자들은 지금부터는 뜨거운 기도로 성경을 연구할 것과 철학의 혼합이나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어 단순한 복음을 설교할 것을 유언한다(will).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무나 스스로 이 존귀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돌리도록 해야 한다.

조항(item).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치(內治/internal government) 즉 교역을 원하는 후보자들이 믿음은 건전한지, 가르칠 만한 체험적 신앙과 진지함과 또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 볼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증거로 인정하지 말 것을 유언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도록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할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실상은 아닌 자들을 시험할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유언한다.

조항(item). 개개의 교회는 한 몸으로서 같은 정신으로 활동하며, 개교회의 설교자를 선택하며 자유의지로 드리는 헌금으로 사례하며 서명요구나 승낙없이 -- 교인들을 받아 드리며 -- 위법을 제거하며,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인 혹은 다수의 대표에게 교회의 치리권을 위임하지 않을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지금부터 사람들은 성경을 천국에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안내자로 삼을 것과 성경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책들로 피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만큼, 만약 그들이 선택한다면, 그 책들을 불 속에 던져 버릴 것을 유언한다(will). 한 책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책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조항(item). 설교가들과 사람들은 상호 관용의 정신을 배양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논쟁을 피하며, 시대의 징조를 보고 살피며, 구속이 가까웠음을 확고하게 기대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임금 삼으려 했으며, 그것이 현재 되

7). 역자주: Reverend는 목사에 대한 존칭임.

어진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형제들은 만세 반석에게로 가야 할 것과 장래를 위해 예수님을 따를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켄터키 주 노회(Synod of Kentucky)는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Faith)<sup>8)</sup>에서 떠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교인을 조사할 것과 의심되는 그와 같은 모든 이단자를 즉각 정직(停職/suspend)시켜 억압된 자들이 자유롭게 행하며, 복음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최근 렉싱턴(Lexington)에서 발행된 두 문서의 저자인 모씨(Ja--- ---)는 당파주의를 없애고자 하는 그의 열성 때문에 격려를 받기를 유언한다(will). 또한 우리의 과거의 행동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판단 받아야 하며, 일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유언한다.

조항(item).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자매 교단들은 그들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으며, 그들이 성경 안에 결정된 그들의 운명을 보게 되며, 너무 늦기 전에 죽음을 준비할 것을 유언한다(will).

‘하나의 교회’ 운동은 또한 1809년 9월 7일 발표된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에서 비롯되었다. 『선언과 제언』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군에 조직된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총무였던 토마스 캠벨(1763-1854)이 초안하여 재정부장이었던 토마스 아체슨과 공동명으로 발표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헌장이다. 이는 ‘선언’, ‘제언’, ‘부록’ 그리고 ‘후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 56쪽의 소책자이다.

북 아일랜드 출신의 토마스 캠벨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장로교회들의 분열현상을 몸으로 체험했었고,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북 아일랜드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분열의 아픔을 체험하였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캠벨로 하여금 교회일치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던 것이다.

『선언과 제언』에서 강조된 내용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와 마찬가지로 첫째, 성경의 권위회복, 둘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셋째, 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넷째, 신앙양심의 자유이다. ‘선언’에서는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아홉 가지 결의 내용을 적었고, ‘제언’에서는 분열의 무서운 결과들을 지적하면서 분열을 멈추고 연합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연합을 향한 13개조의 명제를 발표하였다.

8). 역자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한다.

‘부록’에서는 ‘제언’에서 주장한 특정 부분을 확대 설명하였으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기’에서는 전도단 발기를 위해서 취해야 할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제언’에 나타난 13개조의 명제(Thirteen Propositions)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 현장이다. 성경을 헌법으로 하는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강조된 ‘제언’에서는 13개 명제가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경대로 모든 일을 그들의 뜻대로 복종하며, 그들의 기질과 행동에서만큼은 같은 것을 표명하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한다. 다른 누구도 참으로 적절하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 질 수 없다.

2.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각별하고 구별된 서로 다른 지역 사회에 떨어져 위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어떠한 분열이나 무차비한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영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같은 법칙으로 보조를 맞추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되어야 한다.

3.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믿음의 조항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제의 시금석으로서 그것들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만을 요구해야 한다. 교회 헌법이나 관리규정에 있어서 아무 것도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의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교회의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분명히 명령된 것 즉 명백한 용어나 승인된 전례(前例)만을 인정해야 한다.

4. 신약성경의 말씀이 불가 분리하게 관련되어 있고, 교회의 덕과 구원을 위해서 둘이 하나님의 뜻이 담지 된 완전하고 통전적인 단 하나의 계시를 만들고 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지만, 직접적이고 적절하게 그들의 즉각적인 목적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약성경이 신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며, 교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인 것은 마치 구약성경이 구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것과 같으며, 구약성도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것과 같다.

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전을 실행함에 있어서, 성경이 분명한 실행의 시간과 방법에 관해서 침묵하는 곳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인위적인 권위도 가정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 교회를 위해 법규를 제정하여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사례들에서 더 이상 아무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될 수 없다. 다만 그들은 그들 제도의 언포(言布)되고 분명한 목적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이들 명령과 예전을 지킨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위적인 권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새로운 명령과 예전을 교회에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신약성경이외에 어떠한 것도 믿음 혹은 교회의 예배에 유입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6. 성경적 전제(前提)로부터 공정하게 추론된 신학적인 해석들이 하나님께의 거룩한 말씀의 교리로 참으로 인정될지라도, 그것들이 맥락을 파악하고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데 사용될 뿐이지,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얽어매는 일에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믿음은 인간의 지혜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성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어떠한 해석도 교제의 시금석이 될 수 없고, 다만 교회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신앙심의 함양에 진정으로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추론된 어떠한 해석이나 진리도 교회의 신앙고백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7. 하나님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크게 체계화시켜 보편적인 오류를 막고 변증하는 것이 크게 필요하고,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더욱 충분하고 명확할수록 더욱 좋다할지라도, 이것들은 대부분이 인간의 논리적 사고의 결과임이 틀림없고, 또한 많은 추론적인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에 반대되는 것 즉 아무도 교회의 교제에 권한을 갖지 아니하고, 매우 분명하고 결정적인 판단을 소유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의 교리적인 지식에 도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한, 그리고 교회는 부형들은 물론이고 유년과 청소년들로 처음부터 구성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8. 사람들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독특한 지식이나 특출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지식보다 더욱 강도 높은 신앙을 고백하도록 요구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이 본성과 행실로 상실되었고 죽어 가고 있다는 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과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서 믿음과 순종의 신앙고백이 동반될 수 있는 정도의 성경적 자기 지식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입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다.

9. 은혜로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기질과 행실로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서로 인정해야 하며, 형제로서, 같은 가족과 성부의 자녀들로서, 같은 성령의

성전들로서, 같은 몸의 구성원들로서, 같은 은혜의 실체들로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같은 피값에 구입되었고, 같은 기업의 공동 상속인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한다.<sup>9)</sup>

10.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열은 많은 악들로 가득한 무서운 죄악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보이는 일치를 파괴하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나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추방시키고 파문시킨다. 분열은 주의 절대 권위로 엄금하고 있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그것은 주의 분명한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다. 분열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경멸하며, 미워하며, 반대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비자연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장 높고 가장 사랑스런 의무로 결합되어 있다. 한마디로, 분열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 낸다.

11. (어떤 경우들에서는)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적인 태만과 (다른 경우들에서는) 인위적인 견해들과 인위적인 창안들의 승인을 교회의 시금석으로 삼고, 그것들을 교회의 헌법, 믿음, 혹은 예배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 권위는 즉각적이고, 분명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사례들, 즉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에 발생된 모든 부패와 분열의 사례들이며, 사례들이었다.

12. 지상의 교회가 가장 완전하고 순수한 상태로 회복되는 길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상기한바와 같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경적 자기 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입교인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그들의 기질과 행실로서 그들이 고백한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교인으로 남을 수 없다. 셋째, 성경적으로 마땅한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계시되고 명령된 믿음과 성결에 대한 조항들 이외는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대로, 초대교회의 전례(前例)대로, 인위적인 견해와 사람의 창안과 같은 어떠한 것으로도 더하지 아니한 채, 모든 하나님의 예전들을 정확하게 지킨다.

13. 마지막으로, 만일에 하나님의 예전들을 준수하는데 필수적인 정황적인 요소들이 계시의 말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목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반드시 그러한 것들에 한해서만 인위적인 방편이란 이름아래서 더욱 성경적이란 주장 없이 채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 따른 준행 여부나 계속되는 변경 또는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9). 역자주: 마태복음 19장 6절.

## 2. ‘성경으로 돌아가자’ 는 운동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태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의 또 다른 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된 배경이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고 행하는 전통도 이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운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은 1811년 5월 4일 ‘브러시 런(Brush Run) 교회’를 처음 시작한 알렉산더 캠벨의 신학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토마스 캠벨과 발톤 스톤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의사가 없었다. 1804년 6월 28일 발톤 스톤은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해산하면서까지 연합운동에 기치를 들었고, 단지 그리스도인으로만 남기를 원하였다. 알렉산더 캠벨도 만일 장로교회나 침례교회가 성경해석상 그와 뜻을 같이했거나,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을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으로 남았을 것이다. 토마스 캠벨이 장로교회를 떠나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1809년 8월 17일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워싱턴군에 그리스도인 협의회를 세운 점이나 1811년 5월 4일 브러시 런(Brush Run) 교회<sup>10)</sup>가 처음 세워진 날 매우 가슴 아파한 사실을 보아 알 수 있다. 토마스 캠벨은 브러시 런 교회의 설립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합운동의 꿈이 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브러시 런 교회가 설립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에는 그리스도인 협의회가 독립교회로서의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압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점에 관해서 알렉산더 캠벨은 말하기를, “우리는 파당을 지어 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고 언제나 비난을 받아 왔다. 또 한편 우리는 진실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을 잡아야 한다는 압력을 언제나 받아 왔다”<sup>11)</sup>고 하였다. 그리고 브러시 런 교

10) 교회체제로써 처음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1811년 5월 4일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프레전트(Mount Pleasant)에 가까운 회관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 토마스 캠벨이 장로로, 그의 아들 알렉산더 캠벨이 설교가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사상 첫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는 그 다음날인 5월 5일 주일날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곧 이어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미들톤(West Middleton) 남동쪽 2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교회당을 건립하고, 이름을 ‘브러시 런’(Brush Run)이라 하였으며, 1811년 6월 19일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11). Alexander Campbell, *The Lunenburg Letter with Attendant Comments*

회의 출범과 함께 알렉산더 캠벨의 당파적<sup>12)</sup> 특성도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환원운동은 교회분열을 뼈아프게 체험한 초대운동가들이 교파교단 속에서 교회연합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권위회복을 부르짖다가 교리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교파교단을 떠나게 되었고, 자체 교회를 세워 성장을 거듭하면서부터는 교리적 진실성 때문에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논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매주 성만찬과 침례가 바로 이런 질문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매주 성만찬의 전통은 그리스도인 협의회가 독립교회로 처음 모인 1811년 5월 5일의 예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속되었는데, 첫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은 매주 성만찬의 시행이 신약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전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2개월 후, 브러시 런 교회는 세 사람<sup>13)</sup>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는데, 이 때 공식적으로 침례의 방법문제가 대두되었다. 토의 결과 교회는 『선언과 제언』의 원칙(명제3,5,12)에 따라 침수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한 줌의 흙으로 시신을 매장할 수 없는 것처럼 몇 방울의 물 뿌림으로 죄인이 장사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로 1811년 7월 4일 버팔로 냇가(Buffalo Creek) 깊은 물에서 최초로 침수세례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집례자였던 토마스 캠벨은 미침수자였기 때문에 첫 침례는 정통성의 시비가 일었다. 그 후 알렉산더 캠벨은 자신의 첫아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헬라이어 성경을 놓고 기도하며 깊은 연구에 몰입하였고, 유아세례가

(Nashville: Th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1955); Bruce R. Parmenter, "What Is the Restoration Movement-A Fellowship or a Church?" *The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18, 1985), pp. 740-741; Alexander Campbell, "Any Christian Among Protestant Parties" And "The Lunenburg Letter," *Millennial Harbinger*(1837),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March 1970, p. 11.

12) 대부분의 교파운동들은 초기 단계에서 강한 당파적 성격을 띄곤 했다. 그 이유는 강한 연대의식과 선민의식 그리고 희생정신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당파성을 드러내놓고 강조했던 운동의 한 예가 민중신학과 민주화운동이다.

13). 결신자 세 사람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Margaret Fullerton, Abraham Altars, and Joseph Bryant.

성경적이 아닌 인위적인 전통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1812년 6월 12일 침례교 목사 마티아스 루스(Mattias Luce)에게 재침례를 받았다.

그 후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1823년부터 1830년까지 7년간 『기독교 침례인』(*Christian Baptist*)지를 출간하였으며, 이 잡지에서 논한 침례에 관한 글들을 모아 『기독교 침례』(*Christian Baptism with Antecedent and Consequents*)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는 침례에 관한 주제로 여러 번의 공개토론을 벌였으며, 그 기록들을 모아 여러 권의 책으로 출간하였다. 그는 또 『기독교 침례인』에 이어서 『천년왕국 예고자』(*Millennial Harbinger*)를 출간하였고, 이 잡지에서도 30년 이상 침례에 관한 글을 쓰고 또 주장하였다.

## 나오는 말

간략하게나마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태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을 환원운동 1세대가 펼쳤던 두 가지 운동, 즉 ‘하나의 교회’ 운동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서 찾아보았다. 첫째, ‘하나의 교회’ 운동은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이전에 나온 발톤 스톤의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와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에서 찾아보았다. 둘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알렉산더 캠벨의 주도로 세워진 ‘브러시 런(Brush Run) 교회’의 설립과 설립 직후 곧바로 실천에 옮긴 성만찬과 침례에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학 사상적 배경은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었다.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 나타난 명칭을 사용하였고,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믿음과 전통을 따랐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 제2장

## 발톤 왈렌 스톤(Barton Warren Stone)

글 모리스 M. 보맥<sup>1)</sup>

번역 조동호 목사



환원운동의 시작과 초기성공을 가져다 준 주요 원동력은 발톤 왈렌 스톤(Barton Warren Stone)과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에서 일반적으로 기인된다. 확실히 이들 개혁가들은 환원운동의 시작과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고, 그밖에 많은 사람들도 기여하였다. 우리가 앞 과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환원운동의 탄생과 걸음마 단계에서 중요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고, 환원운동사를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다른 걸출한 남녀들 또한 환원운동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과에서, 우리들은 이 역사적인 대하드라마에서 주역을 맡았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드라마에 출연한 인물들은 많았다. 그리고 스톤은, 이 자생 종교개혁운동, 즉 짧은 미국역사 속에서 발생한 최초의 종교개혁운동에 기여한 위대한 공적들 때문에 신앙의 영웅이 되었다.

### 1. 탄생과 초기 생애

---

1) Morris M. Womack,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8), pp. 57-65. 모리스 M. 보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페퍼다인 대학교 교수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무) 전도자이다.

발톤 왈렌 스톤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들 중에서 태어났다. 다니엘 산츠(Daniel Schantz)는 다음과 같은 말로 당대의 활기를 기술하였다.

발톤 W. 스톤이 세 살이었을 때, 미국이 탄생하였다.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고 있었고, 다니엘 분(Daniel Boone)은 거친 켄터키주를 길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스페인 선교사들은 캘리포니아주 연안에 정착하고 있었다.<sup>2)</sup>

국토는 대부분 황야였고, 오하이오주와 그 주변지역들은 “서부”나 서부 보류지(개척지)로 생각되었거나 그렇게 불리었다.

스톤은 메릴랜드주 포트 토바코(Port Tobacco)에서 존 스톤(John Stone)과 메리 왈렌 무스그레이브(Mary Warren Musgrave)의 아들로 1772년 12월 24일에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외할아버지를 기념하여 발톤 왈렌(Barton Warren)으로 지어졌다. 삶은 발톤에게 쉽지 않았다. 그는 매우 어렸을 때, 형들이 독립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겨우 세살 때 죽었다. 가렛트(Garret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부는 그와는 거리가 먼 축복이었고, 가난은 그의 젊은 시절 내내 따라다녔다. 그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약간의 재산은 이내 고갈되었고, 그는 마치 학교를 그만둬야만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가능성을 줄곧 지켜본 교장이 그의 등록금납부를 연기해 주었다.<sup>3)</sup>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스톤의 어머니는 가족부양의 책임을 감당하였다. 그녀는 포트 토바코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발톤은 “성장기”를 보냈다.

---

2) Daniel Schantz, *Barton W. Stone: A Bright Star*(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Company, 1984), p. 3.

3) Leroy Garrett, *The Stone-Campbell Movement*(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1), p. 100.

## 2. 스톤의 회심

발톤의 초기 목표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고, 후에는 아마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항상 독서를 즐겼다. 그리고 18세 때인 1790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신앙에 관여하게 된 것은 그곳에서였다.

우리가 그의 회심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발톤 알렌 스톤의 청년기와 초기성년기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세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 가운데 첫째가 위대한 미국의 개척지였다. 미국개척지의 정착과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 사는 것은 스릴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어려운 삶이었다. 육지의 변하기 쉬운 자연뿐만 아니라 대륙의 원주민들로부터 오는 위협들이 있었다. 성공한 자들은 보통 위대한 추진력과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스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오로지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현상은 당대의 영적 기근이었다. 무신론이 토마스 페인(Thomas Paine)과 볼테르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하였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주목했던 대로, 무신론의 전파와 선전에 헌신한 조직들이 있었다. 극소수 사람들만이 성경을 소유할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설사 성경이 있다하더라도, 독서능력이 부족하였다. 몇 년 후 이런 현상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발톤의 초기생애에서는 사실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신앙운동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것이었고, 이것들 중 몇몇은 생명력이 없었다.

스톤이 직면한 세 번째 현상은 칼뱅주의의 존재였다. 미국에서 지배적인 기독교신학은 그것의 배경에서 볼 때 칼뱅주의였다. 칼뱅주의 신학은 예정과 인류의 완전타락과 같은 교리들을 강조하였고, 하나님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유황불 붙는 지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종교적인 생각의 상당부분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사랑의 정신에서보다는 두려움의 정신에서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스톤이 신앙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환

경에서였다. 그는 당시에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웨스트는 스톤의 초기 기독교와의 갈등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룸메이트, 벤 맥레이놀즈(Ben McReynolds)가 자기와 함께 맥그리디(James McGready)의 집회에 참석하자고 하였다. 스톤은 함께 갔다. 메시지는 열정적이었고 강력하였다. 스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일년간 그는 갈등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맥그리디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인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그를 집에 오게 하였고, 감리교회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스톤은 1791년 봄, 알라마스(Alamance)에 가서 노스캐롤라이나주 호필즈(Hawfields)의 윌리엄 핫지(William Hodge)로부터 설교를 들었고, 장로교회에 합류하였다.<sup>4)</sup>

스톤의 친구들 가운데 상당수가 목회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회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삼위일체”를 주제로 오렌지 장로회(Orange Presbytery)에서 설교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스톤에게 설교자격이 주어진 것은 1796년 이후였다.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스톤이 켄터키로 이사하기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1798년 목사시험에서, 스톤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의 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으며 채택하십니까?” 이 질문에 스톤은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스톤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써 성경의 무오설을 믿고 있었다.

### 3. 개인 릿지 집회

스톤의 목회사역의 초기 몇 해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

---

4) Earl I. West, *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I(Nashville, Tenn.: Gospel Advocate Co., 1949), p. 20.

였다. 처음에 그는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쁘자 낙담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곧 바뀌었다. 안수를 받은 해에, 스톤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테네시주를 향해 서부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들 중의 하나를 경험할 켄터키주로 옮겨갔다. 스톤은 장로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한 안수를 아직 받지 못했고, 1792년에 설교자격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스톤은 안수를 받을 당시 많은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1796년 트랜실바니아 장로회(Transylvania Presbytery)의 모임에서 결국 안수를 받았다. 장로회는 켄터키주 케인 릿지에서 모였다.

스톤은 두 번 결혼하였다. 가렛트는 엘리자베트 캠벨(Elizabeth Campbell)과의 첫 번째 결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약 1801년 스톤의 삶에서 가장 큰 일이 케인 릿지 부흥이었다면, 분명히 두 번째 큰 사건은 엘리자베트 캠벨과의 결혼이었다. 그는 이제 28세였고, 이것은 그의 생애에서 맞본 첫 번째 로맨스가 틀림없다. 그는 강도들, 인디언들, 가난, 그리고 칼뱅주의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바빠서 그의 생애에서 젊은 여성들을 만나 사귄만한 시간이 없었다.<sup>5)</sup>

엘리자베트는 9년 후에 죽었고, 그의 아들, 발톤 W. 스톤 2세도 마찬가지로였다. 스톤은 나중에 쉐리아 윌슨 보웬(Celia Wilson Bowen)과 재혼하였다. 그들은 6명의 자녀들과 49명의 손자손녀들을 보았다. 스톤의 손자손녀들 가운데 두 명은 “미주리주 한니발의 거리에서 마크 트윈과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었다”고 가렛트는 또한 진술한다.<sup>6)</sup>

환원운동사에서 가장 큰 사건들 중의 하나와 더불어 스톤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들 중의 하나는 확실하게 케인 릿지 집회였다. 1801년 8월에 수천 명의 사람들은 켄터키주 케인 릿지에 모였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부흥집회들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미국은 큰 신앙부흥을 보도록 되어 있었고, 이것은 이 부흥의 큰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틀림없이 간주되고 있다.

5) Garrett, p. 103.

6) *Ibid*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에 대한 추정은 다양하다. 그러나 20,000명에서 30,000명이었다는 추정이 가장 믿을만한 숫자이며, 참석자들은 포장마차나 말을 타거나 걸어서 집회에 참석하였다. 여러 명의 설교자들이 군데군데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들 앞에서 동시에 설교를 하였다. 스톤은 복음은 보편적이며, 복음을 믿는 믿음이 구원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설교는 장로교회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장로교회의 지도자들을 불쾌하게 하였고, 자기변호를 위해서 소환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기간 동안에 회심하였다. 이 부흥집회와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면, 이 장(章)에 소개되고 있는 참고서적들이나 다른 관련 서적들을 읽어 주기를 바란다.

#### 4. 스프링필드 장로회

워싱턴 장로회(Washington Presbytery)는 스톤을 소환하였고, 그의 변호를 청문한 후에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이 결과로 스톤과 다른 네 명, 즉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 요한 둔라비(John Dunlavy), 리차드 맥네마르(Richard M'Nemar), 존 톰슨(John Thompson)은 워싱턴 장로회를 탈퇴하여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를 설립하였다.

이 시점에서 이들 다섯 명은 장로교회를 떠날 의도를 마음에 전혀 품지 않았다. 느슨하게 조직되고 비공식적인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임원들이나 심지어 “회원” 교회들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그 목적이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믿었던 장로교회의 일부 요소들을 개혁하려고 했던 목회자들의 단체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의 칼뱅주의 신학과 사람들에게 부과된 획일적인 신조의 형태를 공격하고 있었다.

일년도 채 안돼서 그들은 또 다른 장로회를 조직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해체하고 말았다. 그리고 1804년 6월 28일, 그들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를 발표하였다. 다윗 펄비안스(David Purviance)와 더불어 이미 언급한 다섯 명이 1804년 6월 28일에 이 문서에 서명하였다.<sup>7)</sup> 이것이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최후였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해체 후에 그 사람들은 장로교회를 영원히 떠났다. 그것은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가 모든 분파나 교파의 이름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이름을 사용할 것을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ey)에게 제안한지 10년만이였다. 그들이 교회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개 교회가 독립적일 것을 고집하였다. 그들은 얼마동안 성경적인 침례의 형식과 목적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1807년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이 성경적인 침례의 방법이 침수였다고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켰다. 그는 스톤과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켰고, 그들은 1807년 6월에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침례의 형식을 친교의 시금석으로 삼지 않았다.

## 5. 캠벨과 통합

우리가 다음의 두 과에서 공부하게 될, 캠벨 부자에 의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시작된 운동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스톤의 운동과 캠벨의 운동은 수년간 서로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1824년 켄터키주 조지타운에서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웨스트는 말한다.

그 두 운동은 여러 도시들에서, 특히 켄터키주에서, 나란히 활동하면서, 두 그룹 사이에 서서히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결국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케인 릿지에서 가까운 켄터키주 밀러즈버그

7)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 전문은 Earl I. West, *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Nashville, Tenn.: Gospel Advocate Co., 1949), pp. 26-28에 실려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한글 번역문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나 조동호 목사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서진출판사)에 실려 있다.

(Millersburg)에는 두 그룹이 모두 있었는데, 이따금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그들 상호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1831년 4월 24일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그 통합은 곧바로 더 큰 규모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sup>8)</sup>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과들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그 운동이 좀더 분명하고 크게 지평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스톤은 알렉산더 캠벨보다 몇 살 손위였지만, 지속해서 환원운동에 큰 힘을 쏟았다. 스톤은 캠벨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들을 보았고, 캠벨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양보하였다. 스톤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수년 동안 출판하였던 잡지,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를 통해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발톤 W. 스톤은 미주리주 한니발에서 그의 사위, 캡틴 사무엘 보웬(Captain Samuel Bowen)의 집에서 1844년 11월 9일에 소천하였다. 그의 시신은 처음 한니발에 묻혔지만, 나중에 켄터키주 케인 릿지로 이장하였다. 그곳에서 스톤의 위대한 부흥이 진정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에 큰 기념비가 스톤을 기념하여 건립되었다. 그는 그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신약성경 기독교 환원운동의 탐색에 공헌한 대가로 분명히 존경받아 마땅하다.

## 결론

이 과에서, 우리들은 환원운동의 중요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인 발톤 W. 스톤을 공부하였다. 많은 책들이 그와 또 그가 도움을 줘서 시작했던 운동에 대해서 쓰였다. 우리는 스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일련의 인물들보다 먼저 그를 살펴보게 되었다.

스톤은 케인 릿지에서 열린 큰 집회에서 설교하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였다. 그는 많은 교회들이 시작되는데 영향을 끼쳤고, 나중에는 캠벨의 운동과 자신의 노력들을 합

8) West, I, p. 32.

병하였다. 그들과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거의 운동들이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때에, 국가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순결성과 단순성을 회복하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다.

### 토의 주제들

1. 발톤 스톤의 초기 신앙갈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한다.
2. 발톤 스톤이 환원운동에 기여한 중요한 공헌들은 무엇인가?
3. 칼뱅주의의 핵심교리들은 무엇인가?
4. 어떻게 칼뱅주의가 발톤 스톤의 생애와 가르침에 영향을 미쳤는가?
5. 안수이전에 주어지는 설교자격과 목사안수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 교단들이나 교회들에 알아보고 발표한다.
6. 어떤 사건들이 스톤과 캠벨의 운동들에 통합을 가져다주었는가?



# 제3장

## 토마스 캠프벨(Thomas Campbell)

글 모리스 M. 보맥<sup>1)</sup>

번역 조동호 목사



우리는 환원운동이 한두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환원의 원리들은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소속해 있던 여러 개신교 교파들의 속박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환원운동을 잘못 알고 왔던 사람들은 토마스 알렉산더 캠프벨 부자가 환원운동을 시작하였고, 이 끌고 왔으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제임스 오켈리, 라이스 해가드, 아브너 존스, 엘리야스 스미스, 발톤 스톤이 이 운동에 기여했던 공헌들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토마스 알렉산더 캠프벨 부자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높은 학식과 깊은 영성 그리고 특출한 지도력 때문에 환원운동의 중요한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원운동의 시작과 성장을 그들의 공적으로 돌리는 것은 그들의 두드러진 지도력 때문이다.

이 엄청난 임무를 위한 그들의 준비는 그들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딛기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 과와 이어지는 과에서 우리는 하

---

1) Morris M. Womack,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8), pp. 67-76. 모리스 M. 보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페퍼다인 대학교 교수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무) 전도자이다.

나눔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킨 중요한 훈련(공식교육과 “입학이 힘든 학교” 모두에서)의 일부를 소개할 것이다. 지금의 이 과에서는 아버지 토마스 캠벨을 다룰 것이고, 이어지는 과에서는 뛰어난 아들 알렉산더의 생애를 좀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 1. 토마스 캠벨: 탄생과 초기 생애

토마스 캠벨은 아키발드 캠벨(Archibald Campbell)의 장남이었고, 아래로 제임스(James), 아키발드(Archibald), 그리고 에노스(Enos) 세 명의 동생들이 있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토마스 캠벨 장로의 회고록』(*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에서 그의 아버지의 뿌리를 스코틀랜드 아르가일(Argyle)로 추적해 올라간다.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의 할아버지, 아키발드 캠벨은 다이얼레이크 (Dyerlake) 숲 가까운 아일랜드 다운(Down) 군에서 태어난 제임즈 캠벨의 아들이었다. 그는 105살까지 장수하였다.”<sup>2)</sup>

알렉산더는 그의 할아버지가 병역을 마친 후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sup>3)</sup>고 부연하고 있다. 따라서 토마스 캠벨은 아일랜드 다운즈(Downs) 군의 다운(Down) 군에서 1763년 2월 1일 태어났다. 그는 “엄한 비판자요, 친절한 교관이며, 헌신적인 학자”로서 묘사되었다.<sup>4)</sup> 알렉산더는 그의 훈련과 개인적인 영적 활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가족 훈련과 규율은 특별히 교훈적이었고, 성경적이었으며, 엄격하였다. 브라운의 교리문답(Brown’s Catechism)과 함께 성경은 줄곧 몇 명뿐인 그의 가족의 매일의 공부와 매일의 암송 교재였다.<sup>5)</sup>

2) Alexander Campbell, *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Cincinnati, Ohio: H. S. Bosworth, 1861), p. 7.

3) *Ibid*

4) Earl I. West, *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I(Nashville, Tenn.: Gospel Advocate Co., 1949), p. 40.

토마스의 첫 번째 소망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는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그의 목표는 바뀌었고, 목회자가 되는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캠벨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를 믿게 하는 습관적인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웨스트는 진술한다.<sup>6)</sup>

토마스는 잘 훈련된 사람이었다. “캠벨은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1451년에 세워진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대학교를 3년 간 다녔고, 영국교회에서 성장한 후에 가입했던, 반공민파 분리주의자 장로교회 휘트번(Witburn) 신학대학원에서 5년 동안 공부하였다.”고 가렛트는 기술하였다.<sup>7)</sup> 캠벨의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많은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캠벨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과에서 좀더 살펴보게 될 것이다.

토마스는 반공민파 분리주의자 장로교회의 소속이었다고 기술된다. 이 독특한 종교적 변종이 어떻게 유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꽤 복잡하다. 그러나 얼 웨스트(Earl West)가 그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서 우리는 그가 쓴 이 부분에 관한 설명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토마스 캠벨이 그 특이한 장로교회 분파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종교적인 분열들에 대한 염증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웨스트는 그 분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주의 교파에 소속하였다. 그러나 교회내의 지도층은 온건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분열이 조장되고 있었고, 연방의회가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설교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성직임명권을 되찾아갔던 1712년에 고조되었다. 같은 이슈에 관해서, 총회는 빈자리가 장로로 채워져야 했을 때, 선출은 “개신교도 장로들인 후계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포한 결정으로 1731년에 행동을 취하였다. 복음주의

5) Campbell, p. 9.

6) West, I, p. 39.

7) Leroy Garrett, *The Stone-Campbell Movement*(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1), p. 132.

자들은 이것을 그들의 권리들을 사실상 양도하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네제르 에르스킨(Ebenezer Erskine)과 다른 세 사람의 지도아래 강하게 반대하였다. 에르스킨은 즉시 목회사역에서 쫓겨났다. 다음 해에 그와 다른 사람들은 연합 장로회(Associate Presbytery)를 구성하였고, 분열이 태동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운동에 뒤떨어져 있었다. 총회는 분리주의자 교회가 120개 교회당들과 이전에 스코틀랜드의 기성교회에 소속했던 10만 명의 교인들을 갖고 있다고 1765년에 선언하였다. 1800년까지 스코틀랜드에는 200개의 분리주의자 교회들이 있었다. 그러나 분리주의자들의 행운은 오랫동안 길게 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분열은 그들의 특색이었기 때문이다. 1789년에 분리주의자들은 맹세를 하는 시민들의 문제에 관해서 공민파와 반공민파로 나뉘었다. 도시들의 시민들은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종교를 지지하도록 사람들을 묶는 맹세를 요구하였다. 맹세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은 반공민파들이었다. 분리주의자 교회의 양 분파들은 1799년에 다시 신성연맹과 계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이 친교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새 빛(New Lights)파와 옛 빛(Old Lights)파로 나뉘었다. 토마스 캠벨은 옛 빛 반공민파 분리주의자 장로교회에 소속하였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분열에 아주 익숙해 있었다.<sup>8)</sup>

토마스가 분열된 장로교회에서 겪었던 경험은, 그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겪게 되었을 때,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 2. 미국에로의 이주

토마스 캠벨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에게 항해 여행을 권했고, 알렉산더의 권유에 못 이겨 미국으로 건너갔다. 처음에 그는 잠시만 미국에 머물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일랜드로 돌아오세요.” 라고 알렉산더가 아버지에게 부탁했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만약 그의 건강이 호전된다면, 가족도 미국에 건너가 살 것을 기대하였다.

토마스는 44세 때인 1807년 봄에 펜실베이니아주에 도착하였고,

8) West, I, p. 43.

9) *Ibid* I, p. 44.

도착 즉시 그 특유의 소속 장로교 교단의 북미주 노회(Synod of North America)를 찾아갔다. 알렉산더는 “토마스가 펜실베이니아주에 도착했을 때, 노회는 그를 진심으로 영접하였고, 그에게 찰티엘즈 장로회(Presbytery of Chartiers)에 추천하였다.”<sup>10)</sup>고 적고 있다. 토마스는 북미주 노회에 설교자격을 신청하였다. 그는 그의 설교자격증을 서부 펜실베이니아주 찰티엘즈 장로회로부터 받고 설교를 시작하였다. 웨스트는 토마스의 초기 미국에서의 활동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토마스 캠벨의 그 다음 2년간의 삶은 찰티엘즈 장로회의 의사록을 통해서 꽤 쉽게 추적될 수 있다. 의사록들에 캠벨의 이름이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1807년 5월 16일 토요일의 의사록은 캠벨이 처음으로 찰티엘즈 장로회에 가입되었다고 적고 있다. 1807년 6월 30일과 7월 1일 회의에서, 토마스 캠벨은 7월 둘째와 셋째 주일에 버팔로(Buffalo), 넷째 주일에 마운트 프레전트(Mount Pleasant), 그리고 8월 첫 주일에는 피츠버그(Pittsburg)에 설교를 배정받았다. 그래서 캠벨은 일요일마다 설교하느라 바빴다.<sup>11)</sup>

토마스는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하였고,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그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장로교의 특정 교리들을 부인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1808년 9월 13일 장로회로부터 해임되었다. 한편, 토마스는 1808년에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국으로 건너오라고 일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들은 다음 과에서 알렉산더와 나머지 가족들이 아일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토마스가 찰티엘즈 장로회와 갈라서는 초기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 3. 『선언과 제언』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은 환원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10) Alexander Campbell, *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Cincinnati, Ohio: B. S. Bosworth, 1861), p. 10.

11) *Ibid.*, p. 8.

문서였다. 토마스가 장로회와 겪는 갈등은 짧은 글로 다 설명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웨스트의 책에 설명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sup>12)</sup> 1807년 10월 27일, 토마스는 “신조들과 신앙고백서들은 단지 인위적인 권위일 뿐이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이 비난들을 해명하려고 했지만, 그의 고소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1808년 2월 9일, 그는 회의석상에 나타났다. 웨스트는 그의 해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선별된 자료를 제공한다.

믿음에 관해서, 본인은 사람의 영혼이 그것의 주제라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은 그것의 저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의 규칙과 근거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그것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용서, 수용과 도움, 또는 현재의 은혜와 차후의 영광은 그것의 직접적이고 적절한 공식적인 목적이다.

신앙고백서와 증언들에 관해서, 본인은 교회가 진리를 그와 같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장을 모두 받으며, 우리의 신앙고백서와 증언은 그러한 목적을 인증한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들의 증언이 요구하는 한, 그것들을 진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고 보장받을만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나는 결코 그들을 반대해 오지 않았다.<sup>13)</sup>

논쟁은 겨울과 여름 내내 지속되었다. 토마스는 1808년 9월 18일에 찰티엘즈 장로회를 정식으로 탈퇴하였다. 토마스는 그 상황을 놓고 고민하였다. 특히 신앙의 차이가 그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괴로워했다. 캠벨과 그의 활동에 동조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 군에서 가까운 아브라함 알터즈(Abraham Altars)의 집에서 만났고, 토마스는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Where the Bible speaks, we speak;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는 유명한 말로 그의 연설을 마쳤다. 이것은 미래의 환원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슬로건이

12) *Ibid* I, p. 44ff. 웨스트는 토마스가 찰티엘즈 장로회와 갈라서면서 누적되는 수개월간의 사건들을 매우 간결한 방법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 책에 인용된 그의 글들은 허락을 받고 옮긴 것들임을 밝힌다.

13) *Ibid*, I, pp. 45-46.

되었다.

이들 사건들의 결과로서 토마스는 다수의 다른 사람들의 승인과 도움을 받아 교회에서의 분열과 연합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을 정리하려는 일종의 시도로써 『선언과 제언』을 썼다. 이 중요한 문서는 너무 길어서 우리가 여기에 인용할 수 없지만, 알렉산더 캠벨이 그의 아버지를 회고한 글들 가운데 하나만은 많은 곳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다.<sup>14)</sup> 아무도 이 문서가 환원운동의 미래에 줄 충격을 알지 못했다. 또 그것이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 과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 길은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문서의 작성에 관여했던 사람들만큼은 성경만이 그들의 신앙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안내서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였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이 결정은 해가 거듭되는 동안 다툼과 마음의 갈등을 가져다준 원인이 되었다.

레로이 가렛트(Leroy Garrett)는 『선언과 제언』의 주요 원리들을 10가지로 요약하였는데, 그의 요약은 우리가 그 문서의 뜻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가렛트가 요약한 10가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1. 분열은 무서운 죄악이며, 교회의 임무를 방해한다.
2. 교회내의 분열에 좀더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과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일이 극복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3. 분열들은, 대부분, 본질들의 문제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다.
4. 그리스도는 연합의 유일한 근원이며, 그분의 말씀은 유일한 시금석(terms)이다.
5. 교회연합에 대한 소명은 비합리적이지 않고, 그 시기 또한 나쁘지 않다.
6. 예수님께서 교회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수단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
7.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8. 우리는 피차 교제를 시작해야 하며, 우리자신의 당파에 대한 관심을

14) Alexander Campbell, pp. 25-109.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합한다면, 우리들은 승리할 것이다.

9. 전쟁으로 국가들이 황폐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쪼개진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10. 연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단지 작은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한다. 전체 교회의 집단적인 후원들은 우리에게 성공을 보증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5)</sup>

비록 이 요약문들이 『선언과 제언』에 대한 가렛트의 해석들이지만, 그것들은 그 문서의 정신과 의도를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다.

#### 4. 환원운동의 태동

비록 토마스 캠벨이 이 시점에서 환원운동을 실제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사건들은 해가 거듭되는 동안 일어날 사건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스톤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환원운동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가운데서도 알렉산더 캠벨은 눈여겨볼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십 년에 걸쳐 많은 다른 사람들도 환원운동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원운동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해야 참으로 옳을 것이다.

토마스 캠벨은 장수하였고, 환원운동이 지속되는 동안 매우 긴밀하게 일하였다. 토마스 캠벨은, 88세 때인 1851년 6월 1일, 베다니 예배당에서 고별설교를 전하였다. 그때 그는 눈이 멀었는데, 펜들톤(W. K. Pendleton)이 그의 설교를 글로 받아 적었다. 본문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이었다.

토마스 캠벨은, 그의 91세 생일을 단 한 달 남겨놓은 채, 1854년 1월 4일 수요일에 죽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냈다.

그렇게 그분은 평범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자기 위치에 서 자주 더 커지는 것처럼, 그분이 공경했고 찬양 받아 마땅하신 구세주

---

15) Garrett, pp. 146-150.

의 품안에 영혼을 부드럽게 내어 맡길 때까지, 그렇게 그분은 믿음과 희망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났습니다.<sup>16)</sup>

## 결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토마스 캠벨의 생애를 마감한다. 그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는 위대하고 선한 사람이었으며, 주님을 사랑하였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한 분열된 종교적 상황에 처한 설교자 신분에서 사람들이 성경말씀의 유일한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청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오로지 영원하신 분만이 이 사람의 공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주님의 대변자였을 뿐 아니라, 환원운동의 가장 위대한 정신들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냈고, 또 그의 아들 알렉산더의 인품에서 초창기 미국의 가장 날카로운 정신들 가운데 하나를 생산해 냈다. 우리는 다음 장(章)에서 이 사람 알렉산더와 환원운동사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토의 주제들

1. 토마스 캠벨의 초기 생애가 그에게 그와 다른 환원운동 지도자들이 수행하게 될 위대한 임무를 준비하게 한 방법들을 논의하십시오.
2. 토마스 캠벨이 장로교회와 무슨 관계를 가졌으며, 어떻게 장로교회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는가?
3. 찰티엘즈 장로회는 무엇이며, 토마스 캠벨과 무슨 관계에 있었는가?
4. 『선언과 제언』은 무엇이며, 그것의 핵심 내용들은 무엇인가?
5. 토마스 캠벨의 생애가 환원운동의 시작에 무슨 영향을 끼쳤는가?

---

16) Alexander Campbell, pp. 232-233.



# 제4장

##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글 모리스 M. 보맥<sup>1)</sup>  
번역 조동호 목사



앞에서 우리는 토마스 캠벨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얼마간 공부를 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었다 것만큼,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환원운동에서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심지어 더 큰 힘을 발휘할 인물이었다. 이 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 1. 준비 단계

알렉산더 캠벨은 북아일랜드 출생이었다. 그는 토마스 캠벨과 그의 아내, 제인 콜네이글(Jane Corneigle)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토마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제인은 프랑스 위그노(French Huguenots)의 후손이었다. 그녀의 부모들은 토마스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골수 칼뱅주의자들이었다. 가족들이 미국에 건너간 토마스와의 합류하려고 시도한 첫 번째 때에 배가 파선되어 캠벨 가족의 기록들이 상당수 분실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가족사항들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출생한 것은 1786년에서 1788년쯤으로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웨스트

---

1) Morris M. Womack,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8), pp. 77-86. 모리스 M. 보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페퍼다인 대학교 교수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무) 전도자이다.

(West)는 “연도가 결코 확정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 동안에도, 알렉산더 캠벨이 1786년 6월에 태어났다는 사실 쪽에 더 큰 증거의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sup>2)</sup>고 적고 있다.

알렉산더는 심신이 탁월하게 단련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통찰력이 날카로운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며, 우리들의 비할 데 없는 신앙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도록 운명지어졌다. 알렉산더와 같이 명석한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의 삶의 모두를 학업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경우는 다르다. 사실은, 그가 읽고 공부하고픈 욕망을 실제로 발현하기까지 수년이 흘렀다. 데이비드 샐츠(David Schantz)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젊은 알렉산더는 책이나 학교에 별 관심이 없었다. 시골의 암소는 그가 나무 아래서 졸고 있는 동안 그의 프랑스어 책을 먹어 치어 버렸다. 오히려, 그는 낚시와 수영과 새 사냥과 같은 야외활동을 좋아했다. . . .

알렉산더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책과 사상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매일 좋은 책들을 읽고 깨우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노트에 옮겨 적곤 했다. 그는 일분에 한 구절의 비율로 시들과 성경말씀들을 암송하였다. . . .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는 학교수업에서 그의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풀이 무성한 들판을 걷기도 하고, 명상도 하며, 영적인 경험을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기 시작하였다.<sup>3)</sup>

알렉산더의 부모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을 그에게 시켰다. “알렉산더 캠벨의 위대함은 결코 적지 아니한 부분이 그의 훌륭한 부모에게서 찾아질 수 있다. 토마스 캠벨은 엄한 비판자요, 친절한 교관이며, 헌신적인 학자였다.”<sup>4)</sup>고 웨스트는 적고 있다. 알렉산더가 그와 같이 예리한 지력을 발현한 것은 이와 같은 훈련에서 비

2) Earl I. West, *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Nashville, Tenn.: Gospel Advocate Co., 1949), p. 39.

3) Daniel Schantz, *Alexander Campbell: Restoration Nobleman*(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Co., 1984), pp. 4-5.

4) West, I, p. 40.

롯된 것이었다. 그는 비범한 암기력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그에게 해가 거듭되는 동안 엄청난 보상을 주었다. 그는 성경구절과 문학작품의 훌륭한 문구들을 암기하였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습득한 엄청난 폭넓은 지식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될 것이었다.

알렉산더의 사상에 적지 아니 영향을 준 사람들 가운데는 할데인들(Haldanes)과 그레빌 어빙(Greville Ewing)이 있었다. 우리는 이들 위대한 사상가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들은 이들 초기 환원가들의 사상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가렛트와 웨스트 및 다른 많은 환원운동사의 저자들은 이들과 당대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영국교회를 떠났고, 교파적 배타주의의 흐름과 그들이 비성경적인 사상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지하려는 노력에 새롭게 헌신하였다. 제임스와 로버트 할데인(James and Robert Haldane) 그리고 존 그라스(John Glas)와 그레빌 어빙(Greville Ewing)은 알렉산더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가렛트는 이것이 알렉산더에게 영향을 준 많은 분야들을 열거한다.

매주 성만찬에 대한 강조 외에, 캠벨에게 준 어빙의 영향은 이들 개혁의 요소들, 즉 그들의 시대에는 참으로 흔치 않았던 다음과 같은 모든 것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사제들의 신경강조보다는 성경말씀 그 자체에 대한 헌신; (2)교회정치의 독립적이거나 회중적인 형태; (3)사제들의 특권들과 위엄들의 거절과 더불어 평신도 목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강조; (4)개교회의 복수 장로제; (5)상호 나눔과 덕세움의 실천(어빙의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매주일 모임을 가졌다); (6)믿음이 초자연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견해, 사람의 마음은 물론 그의 지성에 있는 호소.<sup>5)</sup>

따라서 캠벨은 일찍이 미국에 있는 아버지와 합류하기 전에, 그의 사상의 상당부분이 “성경에의 복귀”로 귀착될 그와 같은 운동을 향해서 이미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 건너오기 전에 사실상 장로교회를 떠났다.

---

5) Leroy Garrett, *The Stone-Campbell Movement*(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1), p. 169.

## 2. 미국으로의 이주

우리가 앞 과에서 지적한대로, 토마스 캠벨이 미국에 먼저 오긴 했지만, 알렉산더는 이미 그의 아버지에게 그 당시 미국으로 이주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따라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토마스는 건강이 나빴고, 그런 이유로, 의사들은 그에게 항해여행을 권했고, 알렉산더도 강권함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만일이 여행이 그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다면, 되돌아 올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만약 건강상태가 호전된다면, 그는 가족들이 차후에 미국에 건너오기를 원했다.

앞 과에서 설명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후, 토마스는 1808년에 가족들에게 미국으로 건너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아일랜드에서의 상태들이 그의 가족들의 항해를 6개월이나 지연시켰다. 천연두가 번졌다.

1808년 9월 28일, 그들은 배를 탔지만, 큰 폭풍으로 출발이 지연되었고, 드디어 그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는 파선으로 고통을 겪었다. 알렉산더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미국으로 건너갈 다른 기회들을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알렉산더는 글라스고우(Glasgow)대학교에 입학하여 헬라어와 논리학 그리고 다른 교양 과목들을 공부하였다. 이 시기는 그에게 매우 유익했다. 왜냐하면, 그는 생애의 이 전환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로 인해서, 그의 사상이 진일보하였기 때문이다.

웨스트는 “1809년 7월 31일, 캠벨은 글라스고우를 떠나 그린노크(Greenock)로 갔다. 4일 후, 그와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떠나는 라토니아(Latonia)호에 승선하였다. 이때의 여행은 순조로웠고, 배는 9월 29일 금요일에 뉴욕에 도착했다.”<sup>6)</sup>고 적고 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뉴욕 구경을 하면서 머물다가 토마스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필라델피아를 지나 그들이 살게 될 워싱턴 군을 향해서 갔다. “토마스 캠벨은 그들의 목적지에서 대략 3일 정도 걸리는

6) West, I, p. 52.

곳에서 가족들이 탈 말들을 준비해 가지고 2년 만에 그의 가족을 만났다.”<sup>7)</sup>

### 3. 방향을 위한 갈등

토마스 와 알렉산더는 그들이 다시 만난 후에 많은 것을 논의하였다. 두 사람 모두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들에서 급격한 변화들을 겪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모르고 지냈다.

알렉산더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는 『워싱턴군 그리스도인 협회회의 선언과 제안』으로 알려진 문서를 작성해 놓고 있었다. 교정본들이 인쇄소에서 막 찍혀 나왔고, 토마스는 그것들을 알렉산더에게 보여 주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일랜드에서 알렉산더는 그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다다랐던 것과 동일한 결론들의 많은 부분에 도달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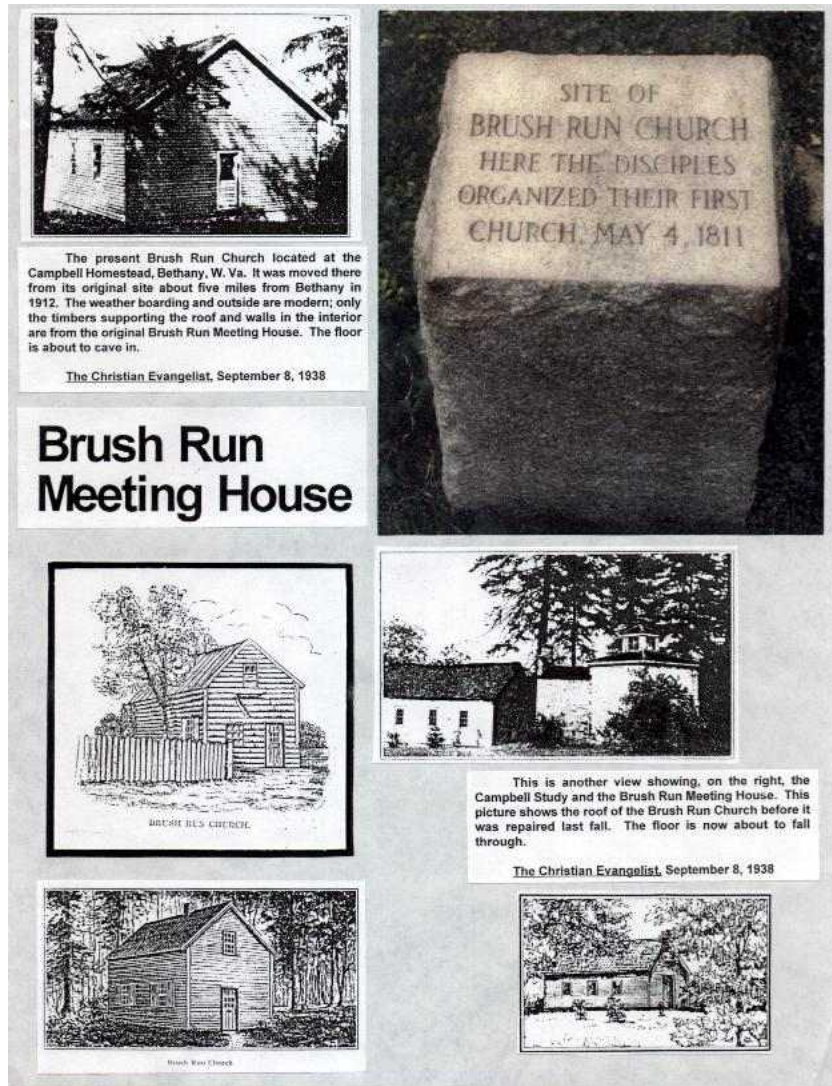
토마스의 『선언과 제안』을 읽고 난 후, 알렉산더는 평생을 설교가로 살겠다는 그의 결심을 그의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1809년까지 캠벨 부자는 환원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계단들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선언과 제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토마스가 알게 된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알렉산더는 브러쉬 런 교회가 들어설 자리에서 1810년 9월 16일 첫 설교를 하였다. 1811년 3월 12일, 알렉산더는, 꽤 유복한 사람의 딸, 마가렛 브라운(Margaret Brown)과 결혼하였고, 그들의 첫 딸이 1812년 3월 13일에 태어났다. 알렉산더의 장인 존 브라운(John Brown)은 알렉산더와 마가렛에게 그들의 집으로 저택을 물려주었는데, 나중에 그 집에서 “버팔로 신학원”(Buffalo Seminary)이 개교되었고, 폐교되었다가 나중에 베다니 대학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딸, 제인(Jane)의 출생은 알렉산더에게 유아세례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는 곧 유아세례의 비성경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1812년 6월 12일, 알렉산더와 다른 여섯 사람들은 침례교 설

7) Garrett, p. 174.

교가, 마티아스 루스(Mattias Luce)에게 죄사함을 위한 침수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이미 브러쉬 런 교회를 언급했다. 그곳에서 알렉산더는 1810년 9월 16일 처음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들은 그곳에 통나무로 교회당을 지었고, 그곳은 환원운동의 시작을 위한 집회소가 되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캠벨 부자와 그들과 뜻을 같이했던 동지들이 1813년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이 협의회와의 관계는 몇 년 지속되지 못했다. 1816년 알렉산더는 친구약 두 전서의 관계를 상당히 연구한 끝에 그의 유명한 “율법에 관한 설교”를 발표하였다. 이 설교는 성장하는 환원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웨스트는 “그 설교의 영향을 침례교 주둔지에 떨어진 포탄”<sup>8)</sup>에 비교하였다.

1823년 여름에, 그들은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서 탈퇴하였다. 1820년 8월 30일 마호닝 침례교회 협의회(Mahoning Baptist Association)가 태동했다. 알렉산더 캠벨이 새로운 교파의 시작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캠벨과 그와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은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에 가입하였고, 1830년 어느 시점에까지 이 협의회에 회원들로 남아 있었다.

이것이 신약성경으로 환원을 촉구하는 자들을 위한 마지막 탈퇴가 되었다. 이들 20년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의 환원운동은 상당히 성숙하여졌다. 그러나 이후의 운동은 훨씬 더 성숙해 지도록 되어 있었다.

#### 4. 알렉산더 캠벨의 공헌

이 기간에 이루어진 환원운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캠벨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유능한 작가들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왔다. 우리는 다만 19세기 초기 절반 동안에 이루어진 환원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알렉산더 캠벨의 주요 공헌들을 요약하고자 하며, 이 과의 나머지 부분에서 알렉산더가 공헌한 특별한 업적들과 특징들에 관해서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으로서의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뛰어난 학자요, 저술가요, 사상가였다. 그는 근면하게 일하였고, “매일 아침 4시부터 밤 10시까지 꾸준하게 일하였다.”<sup>9)</sup>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그에게 배웠던 학

8) West, I, p. 63.

생들은 한결같이 교수로써 설교가로서 그의 명석한 지력과 그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

**토론가로서의 알렉산더.** 캠벨은 매우 능숙하고 성공적인 토론가였다. 환원운동의 초기 성공의 상당부분이 그가 주관했던 대 토론들 덕분이었다. 다섯 번의 대 토론들은 그의 공적이었다. 1820년 6월 19-20일, 캠벨은 장로교 목사인 존 워커(John Walker)와 침례를 주제로 토론대회를 열었다. 이 토론은 침례의 주제에 관한 가르침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1823년 그는 침례를 주제로 유아세례의 비적절성을 강조하면서 또 한 번 장로교인 맥칼라(M. L. McCalla)와 만났다. 세 번째 토론은 명석한 무신론자, 존 오웬(John Owen)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토론은 1828년 2월에 열렸다. 네 번째 토론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교 퍼셀(Purcell)과 있었다. 그들은 캠벨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기초와 그것의 성직위계제정치와 교리들을 공격했던 총 7가지 명제들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1843년 캠벨은 장로교 목사, 라이스(N. L. Rice)와의 또 다른 토론을 주관하였다.

저자와 편집자로서의 알렉산더 캠벨은 매우 다작한 저술가요 유명한 편집인이었다. 그는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그의 책들을 여기에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들은 아마도 그가 1820대 초부터 편집도 하고 대단히 많은 글을 쓰기도 했던 신앙지들이었을 것이다. 1823-1829년, 그는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지를 편집하였다. 이 월간지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었으나, 사람들은 그가 탈퇴한 교파의 침례교인들과 그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크리스천 뱍티스트』지는 폐간되었다. 1830년부터 1866년까지 그는 그 자체로 놀라운 저널리즘의 시도인 『밀레니얼 하빈저』(Millennial Harbinger)를 편집하였다. 이 월간지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환원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캠벨은 이 월간지에 매우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글을 썼다.

**교육가로서의 알렉산더.** 우리는 이미 알렉산더 캠벨이 1818년 1월에

---

9) *Ibid.*, I. p. 57.

그의 저택에서 버팔로 신학원을 개교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나중에 1841년에, 그는 베다니 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베다니 대학 또한 그의 저택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였다. 지금도 이 대학은 존재하며, 제자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자파는 이 운동에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교단이다.

## 5. 알렉산더 캠벨의 노년기

알렉산더 캠벨이 한만큼 중요하게 환원운동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미국 크리스천 선교사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의 시작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 부분은 다음의 두 장(章)에서 좀 더 설명되어질 것이다. 그는 교회를 세우며, 이 위대한 운동에 참여한 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하였다. 그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훈련시켜 그가 자신의 생애를 바쳐 헌신한 임무를 계속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종파들의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높이 추앙 받았고, 폭넓고 다양한 사회, 정치, 종교 문제들에 관해서 연설할 수 있었다. 아마도 알렉산더 캠벨이 환원운동에서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들과 공헌들 가운데 한 가지는 캠벨 부자와 발톤 스톤이, 그들 모두가 누렸던 성장을 크게 강화시켰던, 그들의 위대한 운동들을 통합했을 때 인식되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1866년 3월 4일 일요일에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죽었다. 그의 서거는 그가 발전을 위해서 도왔던 전역의 형제들을 슬픔에 빠뜨렸다. 비록 그가 설교가로서 그의 사역의 대가로 결코 어떠한 사례금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놓고 죽었다.

## 결론

이 장(章)에서 우리는 알렉산더 캠벨의 삶과 사역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혼신의 힘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교회운동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다 썼다. 그는 위대한 인간이었으며, 그가 믿었던 것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었다.

우리는 그의 사역이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어 미국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하기를 원했던 헌신한 다른 지도자들과 합류하였다. 오로지 영원하신 분만이 그의 영향력을 영원토록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토의 주제들

1. 할데인에 관해서 읽고, 그들이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이유들을 수업시간에 발표한다.
2. 알렉산더가 미국으로 항해를 시도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주변 사건들을 논의하시오.
3. 알렉산더와 그의 아버지 토마스가 피차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도달했던 종교사상의 변화들은 무엇인가?
4.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는 무엇이며, 왜 그것은 캠벨 부자에게 중요하였는가?
5. 알렉산더 캠벨이 환원운동에 기여했던 주요 공헌들을 논의하시오.

# 제5장

## 알렉산더 캠벨의 업적

글 레스터 G. 맥알리스터<sup>1)</sup>

번역 조동호 목사

돌이켜 볼 때, 알렉산더 캠벨(1788-1866)은 행동의 사람이었다. 캠벨은 장수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래서 캠벨은 기독교 안에서 뿐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도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설교가로써, 개혁가로써, 출판가로써 혹은 교육가로써, 캠벨은 미국 개척지대에서 기독교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필요한 정력과 재능을 가졌고, 자력사업과 자발행동을 결합하여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 토마스 캠벨(1763-1854)은 젊은 시절을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보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대륙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했다. 캠벨은 미국에서 태어나 개척지에서 자란 발톤 W. 스톤(1772-1844)과 같지 않았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인격과 개성이 굳어지기 전인 젊은 시절에 북아일랜드에서 서부 펜실베니아주 개척지로 옮겨왔다. 그는 영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의 가장 좋은 점들을 결합할 수 있었다.

캠벨은 1811년 3월 12일 마가렛 브라운(Margaret Brown/1791-1827)과 결혼한 이후, 그의 부인과 함께 펜실베니아주 워싱턴군(郡)에서 그리 멀지 아니한 북서 버지니아주(지금은 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장인의 농장에 보금자리를 정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캠벨은 개척

---

1) Lester G. McAllister ed., *An Alexander Campbell Reader*(St. Louis, Missouri: CBP Press, 1988).

지의 기독교 문제에 관심 하였고, 그의 넘치는 에너지를 수없이 많은 일들에 쏟아 부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사회와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다.

캠벨의 농장개발은 그 자체가 하나의 화젯거리이다. 그가 살던 지역이름이 원래 하 버팔로(Lower Buffalo)였는데, 캠벨은 이름을 베다니로 바꾸었다. 그의 부동산은 300에이커(약 367,264평)와 작은 집 한 채에서 시작하여 1,500에이커(약 1,836,318평) 이상과 방 20개짜리 저택으로 불어났다.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많았다. 따라서 그 수입금으로 목회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가 있었고, 후에는 자신의 자금으로 출판사를 발전시켰고, 대학을 세웠으며, 마을을 세웠다.

감정주의와 부흥이 기독교인의 경험을 지배하던 때에 알렉산더 캠벨은 상식과 이성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칼뱅주의의 예정론이 불필요하며, 구원으로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특별경험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믿음은 성경말씀의 "합리성"(reasonableness)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었고, 구원은 복음을 듣는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믿고, 회개하고, 복종하는 것이었다. 구원은 이처럼 단순하고 분명하였다. 그의 강조는 개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었고, 그 생각은 개척지의 자립정신과 일치하였다.

## 1. 새 출발(Beginnings)

발톤 W. 스톤에도 불구하고<sup>2)</sup> 1909년에 100주년을 기념한 것은 논리적이고 고무적인 일이었다. 1809년에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이 나왔고, 같은 해에 알렉산더와 그와 가족이 아버지 토마스와 만난 해였기 때문에 기념할만한 이유가 충분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2년 이상을 떨어져 살았으나, 그들은 피차 독립적으로 장로교와 개혁전통과의 관계를 끊고 있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탐구, 그것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는, 새로운 탐구 중에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2) 역자 주: 「스프링필드 유언서」가 1804년 6월 28일에 나옴.

1809년 미국은 헌법제정<sup>3)</sup> 이후 두 번째 10년을 막 끝낸 해였다. 해안지역의 과밀한 인구,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한정된 토지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콤버랜드(Cumberland) 도로를 따라 피츠버그(Pittsburgh)의 앨리게이니(Allegheny)와 모농가헬라(Monongahela) 강이 합류하는 서쪽을 향해 콤버랜드 협곡을 따라 켄터키주 중부 블루그래스(bluegrass) 지대로 옮겨갔다.

유럽의 전통들과 선입견들에 기초하여 동부해안에 세워진 도시들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에서 이주민들은 새 출발의 꿈을 꾸었다. 교회생활의 새로운 형태들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심지어 바람직한 것 같았다. 공공업무에서는 물론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결정과 관리에 있어서 큰 몫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캠벨 가족이 서 펜실베이니아주의 개척지에 도착했을 때에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신 서부 개척지에서는 전도, 혁신, 종교적 실험에 대한 무제한의 기회가 있었다. 종교의 자유가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남서부 펜실베이니아주의 레드스톤 지역으로 알려진 곳에서는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 감리교회가 가장 늦게(1780년) 그 지역에 들어갔고, 레드스톤 순회구역에서 의사록이 처음 나온 것은 1784년이였다. 최초의 침례교회는 1780년에 세워진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장로교회는 1766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레드스톤 장로회가 1781년에 만들어졌고 서 펜실베이니아주를 섬기는 교단들 가운데 가장 규모도 컸다.

불행하게도 장로교회는 이민 오기 전 옛 대륙에서 다뤘던 쟁점들을 신대륙으로 옮겨왔다. 예외 없이 레드스톤 지역도 대부분의 장로교 분파교회들이 세워졌다. 분파들은 탈퇴파(Seceder), 반탈퇴파(Anti-Seceder), 개혁파(Reformed) 그리고 1812년 이후에는 스코틀랜드 교

3) 역사 주: 1788년에 발효하여 1789년에 개최된 제1회 연방의회에서 헌법 수정안이 심의·가결되었고 수정 1조에서 수정 10조까지의 권리장전의 여러 조항은, 1791년에 발효되었다.

회인 “보통” 장로교회와 준 개혁파(Associate Reformed)가 있었다. 이 복잡한 교회분열의 문제가 바로 토마스 캠벨이 교회분열을 막고 연합할 방법을 찾게된 주된 이유였다.<sup>4)</sup>

이것이 토마스 와 후에 알렉산더가 기독교인 연합에 필요한 몇 가지 방법들을 주장하게 한 정황이었다. 캠벨 부자는 연합의 기초를 성경말씀이라고 믿었으며, 그 위에서 하나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당시 이 제안은 넓고 자유롭고 상식적인 관점을 나타낸 것이었다.

성경말씀에서 발견되는 믿음에의 본질들이 넓게 수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캠벨 부자는 그들이 모든 사람이 수용하게될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제안이 반드시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으나 적어도 서 펜실베니아주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었다. 확실히 연합은 개척지의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전도를 도울 것이었다.

칼뱅주의 교리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거의 필연적인 것이었다. 저항의 토대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발전되었고, 그 저항은 많은 복음주의 그룹들이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의 전통을 재발견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자유로 인해서 얻어진 한 가지 큰 결과는 종교에 입문하는 신선한 통찰의 원천이 신약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운동들의 탄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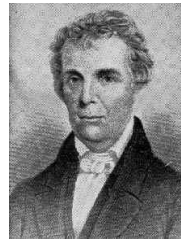
Elias Smith, Born in 1769



Abner Jones, 1772-1841



Alexander Campbell



알렉산더 캠벨이 서 펜실베니아주에 왔을 즈음에 그와 같은 운동들이 뉴잉글랜드주에서 엘리야스 스미스(Elias Smith, 1769-1846)와 아브너 존스(Abner Jones, 1772-1841)의 지도력아래 나타났고, 남버지

4) 역자 주: 탈퇴파와 반탈퇴파는 각각 옛 빛과 새 빛파로 다시 나뉘어져 있었다.

니아주와 북 캐롤라이나주에서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 1735?-826)의 가르침아래 나타났고, 중앙 켄터키주에서는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 1772-1844)의 설교아래 나타났다. 이들 지도자들은 거의 동일한 생각들을 했고, 그 생각들은 “신약성경에 기초한 단순한 믿음”이 성서적이라는 믿음이였다. 그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채택하는 것이 기독교인 연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다.

1809년 토마스 와 알렉산더 캠벨이 그들의 새로운 고국의 문제를 숙고하면서 미국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으로 결론지은 것은 분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였다. 몇 개의 큰 교단들이 있었고, 많은 군소 교단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의 임무는 대단히 컸다. 기독교의 영향력의 분열은 교단이 교단과 경쟁하는 곳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였다. 헌법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처럼 국가 교회의 강제적인 연합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기독교인 연합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경연구, 교리논의, 설득 그리고 자발적 행동에 의해서 그들 자신들 사이에서 풀어야할 분명한 문제였다. 캠벨 부자가 신약성경 기독교 회복(a restoration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의 기초 위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연합운동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들에서 비롯되었다. 가능하다면, 그들은 16세기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개혁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랐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19세기 교회개혁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 2. 떠오르는 지도자로서(As Emerging Leader)

미국에 도착한 후, 알렉산더 캠벨은 목회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기독교인 연합을 진작하는 목적에 투신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토마스의 지도아래 즉시 학업을 시작하였고, 글래스고우 대학교에서 겨울학기 동안에 배운 지식을 불려나갔다. 착실하게 학업을 마친 후에 캠벨은 그의 22번째 생일을 두 달 앞둔 1810년 7월 15일 매주 모이는 이웃 사람들의 집회에서 그의 첫 설교

를 하였다.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은 신자들의 친교를 도모하고 설교나 다른 기독교인의 일을 할 목적으로 워싱턴군(郡) 기독교인 협의회로 조직되었는데 널리 수용되지를 않았다. 1810년 가을까지 알렉산더와 그의 아버지가 주창했던 원칙들 위에서 교회들의 개혁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졌다.<sup>5)</sup>

다음 해인 1811년 초에 장로 캠벨은 협의회가 그리스도인 친교의 기능들과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1811년 5월 4일에 열린 협의회에서 그 다음 모임에서 구성원들은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로 알려진 교회를 조직하였다.

이 모임에서 토마스 캠벨은 장로로 선출되었고, 알렉산더는 복음을 설교할 자격을 얻었다. 독립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중요한 단계를 밟았는데, 그것은, 만일 이전 교회와의 관계들에 긴장이 초래된다면, 지금 그 모임을 해체해 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립자들의 염원과는 반대로 그들은 하나의 별개의 운동이 되었다.

교회로 조직한 후 첫 주일에 구성원들은 처음으로 주의 만찬을 축하하였다. 그로부터 매주일 성도들은 떡과 잔에 참여하였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침례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끝에 토마스 캠벨은 침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침수라고 선포함으로써 교회를 이끌었고, 그로부터 침수는 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되었다.

1812년 1월 3일 브러시 런 교회는 알렉산더 캠벨을 목사로 안수하였다. 이때가 23세 때였다. 그와 마가렛(Margaret)의 첫 아이 제인(Jane)이 1812년 3월 13일에 태어났다. 그녀의 출생으로 알렉산더는 침례에 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였다. 그 결과 1812년 6월 12일 캠벨과 그의 부인 마가렛, 토마스과 그의 부인 제인(Jane), 그리고 장로 캠벨의 딸 도로티아(Dorothea)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버팔로 개울(Buffalo Creek)에서 침례교 목사에 의해 침수세례를 받았다. 출발한

5) 역자 주: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교단의 벽을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 일 년밖에 되지 아니한 이 운동은 이제 침수에 의한 신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 by immersion)에 헌신하였다.

침수문제에 있어서 젊은 알렉산더는 선도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환원운동의 지도력은 어느 사이에 토마스 캠벨에서 알렉산더 캠벨의 손으로 넘어갔다. 수년이 흐른 후 알렉산더는 기독교 사상과 실천에 있어서 분명한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제자들을 이끌었다. 이 행동의 사람이 1866년 죽을 때까지 참여했던 수많은 활동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는 알렉산더 캠벨이 왜 그리고 어떻게 것처럼 위대한 영향력을 미국의 종교생활에 강력히 발휘할 수 있었는가를 살피게 될 것이다.

### 3. 교회 개혁가로서 (As Church Reformer)

“개혁가들”-그들은 곧 이렇게 불리어졌다.-이 침수세례를 채택하자 그들과 다른 교회들 사이에 장애물이 생겼다. 그들과 이웃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장로교인들이었다. 특히 목사들은 유아세례와 교권에 대한 도전을 받자 바짝 긴장하였다.

1812-13년 겨울 내내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는 정규적으로 집회를 가졌다. 침수세례의 채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침례교회들과 더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모논가헬라 (Monongahela) 강과 앨리게이니 (Allegheny)의 산기슭에 다수의 침례 교회들이 있었다. 그들은 1776년 친교를 목적으로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 (Redstone Baptist Association)를 만들었다. 1812년 당시 협의회에 소속된 교회가 33개, 목회자가 20명, 그리고 교인이 1300명이었다.

그 지방 이곳저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설교하면서 토마스 와 알렉산더 캠벨은 곧바로 여러 침례교회들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침례교회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레드스톤 협의회에 가입할 것을 계속해서 권하였다. 캠벨 부자는 망설였다. 협의회가 필라델피아 침례교 협의회가 사용하는 칼뱅주의 신앙고백서(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비슷함)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치

명적인 결점은 신앙고백서가 친교의 시금석으로 사용된다는 점이었다. 신앙고백서를 받아드리지 아니하면 교인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침례교인들이 신약성경 기독교로 환원하려하는 그들의 계획에 전적으로 찬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캠벨 부자는 기존의 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걱정스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15년 9월에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 가입권유를 받아드렸다. 그러나 그들은 가입권유를 받아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에서 배운 것만을 가르치고 설교하겠다는 그들의 목적을 명시한 진술서를 마련하였다.

1816년 8월에 열린 협의회에 모임이 베다니(Bethany)에서 멀지 아니한 크로스 개울(Cross Creek)에서 열렸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 모임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아마도 침례교 목회자들이 알렉산더에 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알렉산더는 로마서 8장 3절을 근거로 제목을 “율법에 관한 설교”로 정하였고, 그 설교에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들을 강조하였다. 당시 레드스톤 침례교 목회자들은 신구약 구별 없이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캠벨 부자가 침례교 협의회에 가입한 해에 그들의 가입을 막는 반대자들이 몇 있었는데, 율법에 관한 알렉산더의 설교가 있고 난 후부터는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후 15년 동안 알렉산더 캠벨과 그의 아버지는 침례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긴장만 쌓여갔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완전히 침례교단에 합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선교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에 캠벨 부자와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은 “개혁가들”이었을 뿐 아니라, “침례교회를 개혁하는 자들”이었으며, 나중에는 “제자”(Disciples)라고 떨어져 나왔다.

알렉산더는 전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버지니아주, 켄터키주에 산재한 많은 침례교 협의회들에서 설교를 하였고, 그 때마다 개혁을 촉구하였으나 개혁은 고사하고 거의 언제나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 협의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알렉산더의 견해를 단죄하였고, 그 결과 침례교인들과 제자들 사이에 분열만 커져갔다. 1830년

대 초까지 침례교인들은 알렉산더 캠벨에게 철저하게 환멸을 느꼈다. 그러나 환멸은 두 가지로 작용하였다. 분열의 과정에서 침례교회는 수천 명의 교인들과 더불어 많은 교회들을 잃었다.

#### 4. 인습타파자로서 (As Iconoclast)

1820년대 초, 많은 침례교회들과 협의회들이 알렉산더 캠벨을 받아드리고 있을 무렵, 알렉산더는 “개혁”에 관한 자기 생각을 더 널리 유포하기 위해서 월간지를 발행할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크리스천 뱃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지가 1823년부터 1830년 사이에 발행되었고, 알렉산더는 이 월간지에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을 권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일치와 교회의 정화와 왕국의 승리를 가능케 하였다.

불행히도, 이것은 추정된 교회의 권력찬탈과 비성경적 실행들의 제거를 요구하였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전통들”(accretions of the centuries)을 제거해야 할 필요는 만약 새롭게 세워야 할 기초가 있다면 피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알렉산더 캠벨은 인습타파자가 되었다. 그는 열정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의 열정은 일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조차 괴로움을 끼쳤고, 자기 자신의 더 성숙한 판단조차 찬성하지 않았던 범위에까지 그를 끌고 갔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에로의 회복”(Restoration of the ancient of order of things)은 궁극적 목적(ideal)이 되었고,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초대교회에 없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선교단체들이 있어서는 안되었다. 목사들은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 하고 설교는 자원해서 해야 한다. 성경을 공급하는 단체들도 존재해야 할지 의심스러웠다. 성경의 권위가 인가하지 아니한 것을 교회가 실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멈춰야 한다. 후에 그가 교회들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어, 그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할 때에 그는 이들 문제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

#### 5. 토론가로서 (As Debater)

알렉산더 캠벨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몇 차례에 걸친 그의 토론들 즉 그가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공개적인 발표형태에 대한 검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론은 개척지대(frontier)에서 인기가 있었다. 토론이 어느 정도 지적인 자극과 재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캠벨은 토론이 자신의 견해를 알리고 개혁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매체임을 알았다.

그의 첫 토론은 1820년 6월에 있었다. 토론의 대상자는 오하이오주 마운트 프레전트(Mt. Pleasant)에 거주하는 탈퇴파 장로교(Seceder Presbyterian) 목사, 존 워커(John Walker)였다. 침례의 문제가 그 날의 쟁점이었다. 이 날의 토론내용이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제목은 『인위적 전통임이 입증된 유아 약식세례: 기독교 침례에 관한 토론내용이 되다』<sup>6)</sup>이었다.

캠벨의 두 번째 토론의 대상자는 “보통” 장로교인 윌리엄 L. 맥칼라(William L. Maccalla/1788-1859)였다. 그들은 1823년 10월에 켄터키주 메이스빌(Maysville)에서 가까운 워싱턴에서 토론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토론의 결과는 1824년 책으로 출판되었고, 제목은 『침례에 관한 토론』<sup>7)</sup>이었다. 이 책은 널리 배포되었다.

세 번째 토론의 대상자는 스코틀랜드 뉴 래나르크(New Lanark)와 미국 인디애나주 뉴 하모니(New Harmony)의 유명한 19세기 사회개혁가 로버트 오웬(Robert Owen/1771-1858)이었다. 토론은 1829년 4월에 신시내티(Cincinnati)에서 열렸고, 동년 베다니(Bethany)에서 알렉산더 캠벨에 의해 『기독교 증거들에 관한 토론』(*A Debate on the Evidences of Christianity*)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토론에서의 이슈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오웬의 “사회 체제”(Social System)에 관한 것이었다. 캠벨은 이 토론을 기독교 신앙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를 변호할 기회로 삼았다.

1930년대까지 오하이오 벨리(Ohio Valley)에 산재한 개신교 교인들은 천주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었

6) *Infant Sprinkling Proved to Be A Human Tradition: Being The Substance of A Debate on Christian Baptism*(Steubenville, Ohio: printed by James Wilson, 1820)

7) *A Debate on Christian Baptism*(Buffalo, Va., Campbell and Sala).

다. 천주교인들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많은 이주자들 때문이었다. 캠벨의 네 번째 토론의 대상자는 신시내티 로마 가톨릭 주교인 존 B. 퍼셀(John B. Purcell/1800-1883)이었다. 토론은 1837년에 있었다. 캠벨은 가톨릭주의에 대항해서 개신교의 유산을 확고하게 방어하였다. 토론의 내용은 신시내티의 J. A. 제임스 앤 주식회사(J. A. James and Company)에 의해서 『천주교에 관한 토론』(*A Debate on The Roman Religion*)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의 대상자는 켄터키주 파리스(Paris) 지방의 장로교 목사 나단 L. 라이스(Nathan L. Rice/1807-1877)였고, 토론내용은 침례의 끝없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토론은 1843년 11월 켄터키주 렉싱턴(Lexington)에서 개최되었다. 헨리 클레이(Henry Clay)가 의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갔다. 토마스 카터(Thomas Carter)가 1844년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양자의 주장을 모두 실어 『기독교 침례의 행위, 대상, 목적과 관리자에 관한 . . . 토론』<sup>8)</sup>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침수와 약식에 관한 문제로 장로교인들과 벌린 토론들은 단순히 시대적인 특징으로 보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 토론들은 더 이상 지속적인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오웬과 벌린 토론에서 캠벨의 기독교변호와 퍼셀 주교와 벌린 토론에서 개신교 입장변호는 개척지대에서 알렉산더 캠벨을 개신교의 위대한 챔피언으로 위치를 굳혔다. 이들 토론들로 인해서 캠벨은 유명세를 탔고, 그의 명성은 가까운 추종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전국적인 것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일상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되었다. 교회연합의 목표를 좀더 진행시켜 가는 한편, 이 토론들은 신약성경의 실천으로 교회들이 환원할 것을 부르짖었던 캠벨의 입장을 널리 유포시켜 주었다.

## 6. 정치가로써 (As Politician)

알렉산더 캠벨은 1829년 버지니아주 헌법을 새로 쓰기 위해서 대

---

8) *A Debate . . . on The Action, Subject, Design and Administrator of Christian Baptism*

표자를 뽑는 선거 때에 브룩크 군(Brooke county)의 대표로 출마하여 주(州) 대표자들 96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알렉산더는 주(州) 수도 리치몬드(Richmond)에서 3개월 간 속개(續開)된 의사 일정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대표단 가운데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과 제임스 몬로(James Monroe), 그리고 미합중국 최고재판소의 부장판사를 지낸 존 마셜(John Marshall)도 포함되어 있었다.

캠벨은 버지니아주에서 노예제도를 종식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동부 저지대를 소유한 많은 유력한 인사들이 캠벨의 안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캠벨은 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이끌었다.

인쇄된 의사록에는 캠벨의 제안 설명들이나 연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대표의 근거 위에서 참정권과 군(郡)재판소제도에 관한 캠벨의 연설들은 그의 분석적 지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사록은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캠벨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동의안들은 통과되지 못했고, 부유한 토지소유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 7. 편집자와 출판가로써(As Editor and Publisher)

1820년에 열린 캠벨과 워커와의 토론이 책으로 출판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자, 캠벨은 출판의 위력에 눈이 뜨였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월간지 『크리스천 뱃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지가 1823년에 시작되었고, 편집자는 캠벨이었다.

잡지발행을 추진시키고 가능하다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알렉산더 캠벨은 농장으로 이어지는 다리 가까운 버팔로 개울(Buffalo Creek) 방죽 위에 작은 인쇄소를 짓고, 자기 소유의 인쇄기들을 설치하였으며, 인쇄공을 채용하였다. 이 새로운 사업은 환원운동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결코 이익이 나지는 않았다. 캠벨은 일년에 1,000불 정도의 손실액을 보상해야 했다.

『크리스천 뱃티스트』지의 발행은 환원운동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

을 마련해 주었고, 알렉산더는 인습타파를 위한 기사들을 실을 수 있었다.

인구가 적고 우편업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월간지의 발행부수가 상당했다. 발행된 잡지는 거의 미국 전역과 캐나다, 심지어는 영국에까지 보내어졌다. 비판자가 되는 것에서 조직된 기독교의 주창자로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캠벨로 하여금 일곱 권을 찍어낸 후 즉 칠 년 만에 『크리스천 배티스트』지를 폐간토록 하였다.

이제 제자들(Disciples)로 불리어지는 개혁가들이 침례교인들로부터 어쩔 수 없이 분리해야 되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또 크리스천 배티스트(Christian Baptist)란 이름으로 그들의 운동이 불려질 것을 우려하면서, 1830년 1월 4일, 알렉산더 캠벨은 새로운 잡지, 『밀레니얼 하빈저』(*The Millennial Harbinger*)를 시작하였다. 이 월간지는 캠벨이 1866년 죽고 난 다음에도 1870년 12월까지 계속 발행되었다. 이 잡지는 폐간되기 전 몇 년 동안만을 제외하고는 40여년 줄곧 환원운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월간지였음을 증명하였다.

잡지의 쪽수를 늘리고 다른 인쇄 작업을 겸할 수 있도록, 베다니 마을에 새로운 인쇄소를 짓고, 인쇄기들을 더 주문하여 시설하였다. 『밀레니얼 하빈저』는 48쪽에서 60쪽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일 년치를 모으면 두터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었다. “엑스트라즈”(Extras)라는 이름의 특별부록은 정기 구독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었는데, 최근의 관심을 단독 주제로 다룬 것이었다.

캠벨의 편집지시아래 잡지는 다른 신문잡지가 할 수 없는 환원운동이 신약성경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연합하는 것임을 대변하였다. 거의 이익을 보지 못했고, 종종 캠벨이 손실액을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는 환원운동의 안정과 형성에 기여하였다. 책장에 『밀레니얼 하빈저』 전집을 갖고 살았던 제자들 목회자들이 수 세대에 걸쳐 있었다.

알렉산더 캠벨에게 신약성경을 읽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의미였다. 캠벨은 킹 제임스 신약성경에 수정 보완될 곳들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개역판을 출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같은 새 번역성경을 만드는 토대로써 캠벨은 이미 50년 전

에 출판된 번역본들을 사용하였는데, 세 명의 스코틀랜드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된 것들이었다. 조지 캠벨(George Campbell)이 복음서들을, 제임스 맥나이트(James MacKnight)가 서신들을, 그리고 필립 닷드릿지(Philip Doddridge)가 사도행전과 계시록을 번역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들의 번역본들을 다른 번역본들과 그리고 헬라이어 본문과 비교하였다. 한 구절씩 모든 가능한 의미들을 찾아본 다음에 캠벨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택하였다.

번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거룩한 글들, 평이한 형식의 신약성경』<sup>9)</sup>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알렉산더 역시 초기 작업에서 “여러 가지 교정”을 하였고, 매 부분마다 머리말과 많은 비평각주와 부록을 첨부하였다. 캠벨이 새 번역 성경을 만든 주된 이유들은 근대 본문비평학자들이 더 나은 성경본문을 만들어냈고, 고대언어에 대한 지식이 17세기 때보다 지금이 더 철저하였고, “살아 있는 언어는 지속적으로 변천하기” 때문이었다.

캠벨은 모든 헬라이어 단어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어떤 단어도 단순히 음역(音譯)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 개역성경들에서 헬라이어 단어를 단순히 음역하여 "baptize"(침례하다)로 한 것을 "immerse"(침수하다)로 고쳤고, 따라서 "세례 요한"(John the Baptist)을 "침례 요한"(John the Immerser)으로 고쳤다.

캠벨의 새 번역성경은 종종 “살아있는 말씀”(The Living Oracles)이란 호평을 들으면서 추종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따라서 여러쇄를 거듭하여 출판되었다. 그러나 캠벨의 신약성경이 약식세례를 베푸는 교단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은 예상된 것이었다. 놀랍게도 침례교인들조차도 화를 냈고, 여러 장소에서 화난 군중들이 캠벨의 새 번역을 불태웠다.<sup>10)</sup>

침례교회와 분리된 후 1830년대까지, 환원운동은 성장하였고, 자체 찬송가의 필요성이 커졌다. 1835년 캠벨은 『제자들 찬송가』(*The*

9) *The Sacred Writings of the Apostles and the Evangelists of Jesus Christ, Commonly Styled New Testament*(Bethany, Brooke Co., Va.: A. Campbell, 1826.

10) 역자 주: 새 번역은 캠벨이 침례교단에서 분리되기 4년 전에 출판되었다.

*Disciples Hymn Book*)란 제목으로 찬송가를 편집 출판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찬송가는 아마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과 다른 지도자들과도 협동으로 마련된 것 같다. 그러나 스톤은 단지 간접적으로 내용에 관해서만 문의를 받았고, 제목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결국 스톤의 항의에 부딪쳐 제목이 『그리스도인 찬송가』(*The Christian Hymn Book*)로 바꿨다.

해가 거듭되면서 찬송가는 실질적인 이익을 냈다. 캠벨은 이익금을 찬송가를 구입해준 미국교회들을 돕는데 사용하였다. 캠벨은 말년에 저작권을 미국 크리스천 선교사협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에 넘겼다. 그때부터 19세기 말엽 절판될 때까지 찬송가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협회의 선교사업에 쓰였다.

캠벨은 시시 때때로 다른 책들도 인쇄하였다. 그 가운데는 『크리스천 시스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초대 기독교에로의 환원에 관해서, 현대개혁에서 간청된 것으로써』<sup>11)</sup>가 있다. 『크리스천 시스템』은 이전에 발행된 것의 수정판이었고, 『크리스천 시스템』과 『크리스천 뱃티즘』 모두는 이전에 출판된 기사들로 만들어졌다.

## 8. 설교가로서(As Preacher)

알렉산더 캠벨이 1810년 7월 주일에 행한 첫 설교 때에 메시지 전달을 아주 잘해서 많은 교인들이 “왜 그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낫은 설교가인가”라고 말하게 되어 있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캠벨은 훌륭한 설교가였다. 첫 해에 캠벨은 106번을 설교했는데, 많은 주제와 본문들이 그의 일기에서 발견되어지고 있고, 그의 『여러 주제들에 관한 소년소녀를 위한 에세이』<sup>12)</sup>에 실려 있다.

11) *The Christian System, in Reference to the Union of Christians and a Restoration of Primitive Christianity, as Plead in the Current Reformation*(Bethany Va.: Printed by A. Campbell, 1839)와 『크리스천 뱃티즘, 그 전례와 결과』(<*Christian Baptism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Bethany Va.: Printed by A. Campbell, 1851).

12) *Juvenile Essays on Various Subjects*(Alexander Campbell at Glasgow University, Nashvill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1971).

캠벨의 설교들은 본문해설도 아니고, 엄격한 주제설교들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형태에 있어서 논리적이었고, 잘 요약된 것들이었다. 캠벨의 전기를 써서 유명해진 리차드슨(Richardson)은 캠벨의 능력이 상당부분 주제선택과 성경의 권위와 큰 인기를 모으는 호소력(appeal)을 잘 결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캠벨은 논쟁적인 스타일로 말씀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제스처는 거의 쓰지 않았다. 캠벨의 설교는 단순성이 특징이었고, 대체적으로 청중들은 그런 인상을 받았다.

캠벨의 설교의 효과는 전달을 강조한데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는 개념들을 하나로 엮음과 사고의 논리적 전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알렉산더 캠벨은 설교가라기보다는 설교가의 설교가였다고 전해져 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기를 원하는 모델이었다.

그랜빌 T. 워커(Granville T. Walker)는 그의 훌륭한 저술, 『알렉산더 캠벨의 설교원리』<sup>13)</sup>에서, 급격히 팽창하는 미국의 개척지에서 제자들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 설교의 모범을 환원운동에 제공한 것은 캠벨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캠벨은 복음을 설교할 때에 논증한 신약성경 믿음에 대한 분명하고 간결한 진술과 기독교의 합리적 개념을 환원운동에 제공하였다. 그것은 단번에 또 동시에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어서 그것의 내포된 뜻들이 무진장하였고, 그러면서도 매우 단순해서 가장 비천한 청중이라도 큰 감화를 받게 될 것이었다.

캠벨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제시하되 이성과 상식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은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었다. 성경은 보통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러므로, 그것이 적절하게만 제시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더 이상의 것은 필요치 않았다. 이런 형식의 설교는 감정에 호소하던 부흥시대에는 흔치 않았던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었다.

13) *Preaching in the Thought of Alexander Campbell*(Bethany Press, St. Louis, 1954).

## 9. 교육가로서 (As Educator)

교육에 대한 알렉산더 캠벨의 초기 관심은 목회를 시작한지 채 십년도 안 된 1818년에 버팔로 신학교(Buffalo Seminary)를 개교한데서 입증되었다. 그의 특별한 목적은 젊은이들을 찾아내서 교육시켜 출범한 운동의 설교가들과 지도자들로 키워내는 것이었다. 알렉산더가 부인 마가렛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컸다. 그는 학생들을 그의 집에 기숙시키면서 개인적으로 가르쳤고, 때로는 아버지 토마스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다. 기숙사비는 일주일에 1불 50센트였고, 학비는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강습비를 포함해서 3개월 한 쿼터에 5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팔로 신학교는 의도된 목적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1823년에 폐교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설교보다는 사업을 더 선호하였다. 그러나 짧은 존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육에 대한 캠벨의 초기 관심을 입증하는 증표로 남게 된다.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캠벨의 집 지하실 방들에는 아주 오래된 벽지가 붙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벽지가 183년(2000년 기준으로) 이상 그곳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다. 캠벨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지하실 방으로 옮겼던 것이다.

1823년과 1840년 사이에 캠벨은 교육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공립학교들에 대한 국가체계가 그때 형성과정에 있었다. 캠벨은 종종 나라 여러 곳의 교사들 협의회들이나 다른 교육단체들 앞에서 그 주제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캠벨은 1839년 『밀레니얼 하빙저』(*Millennial Harbinger*)에 “하나의 새로운 교육기관”(A New Institution)이란 제목의 중요한 기사들을 시리즈 형태로 실었는데, 이 때 캠벨은 그의 교육철학을 좀더 충분하게 발전시켰다.

드디어 1840년 알렉산더 캠벨은 4년제 베다니(Bethany)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버지니아주 의회로부터 인가를 획득하였다. 샬로츠빌(Charlottesville)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버지니아 대학교를 보고 크게 감탄한 캠벨은 커리큘럼과 학생생활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베다니를 그 교육기관처럼 만들기를 원했다. 그는 첫 건물들이 들어설 자

리로 자기 농장의 땅을 내놓았고, 작지만 능력 있는 교수들을 초빙하여 대학을 만들었다. 그는 1841년 실질적인 대학개교 후 20년 이상을 학장으로 봉직하였다.

베다니는 빠르게 제자들 운동의 설교가들과 전도자들을 위한 최고의 장소로, 평신도를 위한 교육센터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자들을 위한 “대학들의 모체”(mother of colleges)가 되었다. 오늘날 몇몇 유명한 최고 교육기관들이 그들의 시작을 베다니에서 찾고 있다.

캠벨은 기독교 사회를 위한 대학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베다니 대학은 문명사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에 기초한 유일한 대학이다. 이 대학은 인위적 신학에 기초한 신학교(a theological school)가 아니며, 성경에 기초한 신학교(a school of divinity)도 아니며, 모든 참된 학문과 참된 학업의 기초가 되는 성경 위에 세워진 인문과학 교육 기관이다.

우리는 진실로 성경을 대학에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교단이며 백성이다. 그리고 기독교계의 모든 교파가 무시하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소중히 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가르친다.<sup>14)</sup>

설립자의 기독교 연합에 대한 관심은 대학 강당(College Hall)이 주일마다 “여러 교단의 훌륭한 목회자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신앙강좌와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였다.

베다니 대학은 개교초기부터 제자들 목회자들과 평신도 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로 급속히 부각되었다. 많은 가정들이 그들의 아들들을 베다니에 보내 존경하는 알렉산더 캠벨 밑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이끄는 리더십에서 베다니 졸업생들의 영향력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상당하였고, 이런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14) *The Millennial Harbinger*, 1850, p. 291ff.

## 10. 성경학자로서 (As Biblical Scholar)

대학에서 학장으로 봉직하는 것 말고도 캠벨은 교수로써 정기적으로 일련의 아침 성경강좌와 다른 과목들의 강좌를 맡아 가르쳤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명성이 높았다. 그의 학식은 성경연구와 역사 그리고 기독교사상 분야에서 완벽하였다. 캠벨이 미국에서는 물론 영국에서 출판된 관련 과목들에 관한 근간서적들을 대부분 읽었고 또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역사비평의 적용을 통한 성경해석에의 알렉산더 캠벨의 공헌은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서 1816년에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설교에서 캠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법칙으로써 신약성경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였고,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주된 권위들이어야 함을 진술하였다.

캠벨은 그리스도인의 주된 교과서로써 항상 신약성경을 생각하였고, 열린 마음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성경말씀을 해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성경책의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에 독자는 저자, 연대, 장소와 기록시기, 수신자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알렉산더 캠벨이 이렇게 젊은 시기에 그와 같은 방법들을 성경해석에 기꺼이 적용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캠벨은 성경을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더 큰 지식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이 가득한 책으로 보았다.

캠벨은 국내의 성경공회(American and Foreign Bible Society)에서 활동적이었으나 1850년 한 단체가 떨어져 나와 미국 성경연합(American Bible Union)을 만들었을 때에 캠벨은 이 성경연합에 가입하였다. 캠벨은 1854년 겨울과 1855년 초까지 성경연합이 그에게 맡겨준 사도행전의 개역작업에 참여하였다. 그것은 새 번역 성경의 일부로써 1855년에 출판되었다.

## 11. 대중연설가로서 (As Public Speaker)

종교운동의 지도자로서 또 대학의 학장으로써 캠벨은 그의 남다른 능력 때문에 다른 대학들과 종합대학교들, 그리고 학식 있는 단체들로부터 강연요청을 많이 받았다. 그는 다양한 주제들로 연설하였다. 한 가지는 “앵글로색슨 언어, 그것의 기원과 특성 그리고 운명”(The Anglo-Saxon Language: Its Origin, Character, and Destiny)이었다.<sup>15)</sup> 다른 주제들은 “사형제도에 관한 연설,” “사회 상태 개선에 관한 연설,” 그리고 “천재의 책임들”이었다. 언제나 이들 강연들은 조심스럽게 준비된 사고체계들이었다. 그가 행한 많은 강연들과 연설들이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제목은 『인기 있는 강연들과 연설들』<sup>16)</sup>이었다.

## 12. 조직가로서 (As Organizer)

1840년대 초기에 알렉산더의 추종자들은 전국대회와 선교사협회와 같은 조직들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쏟아냈다. 그와 같은 조직들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1842년 알렉산더는 『밀렌니얼 하빈저』에 전국규모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1849년 10월 22-27일 신시내티에서 드디어 전국대회가 소집되었을 때, 알렉산더 캠벨은 참석할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 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멀리서 보고 싶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어느 행사에서든 그는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정기적으로 회장에 재선출되었다.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1866년 캠벨이 사망할 때까지, 전국대회가 만들어낸 미국 크리스천 선교사협회 (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국대회들과 선교사협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꾸준히 조직들을 옹호하였다. 실제로 그는 주(州)대회와 전국대회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긴 기사들을 『밀

15) 이 강연은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1960년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16) Popular Lectures and Addresses(Philadelphia: James Challen and Son, 1863).

렌니얼 하빈저』에 실었다. 그는 전국대회들이 친교와 영감에 필요할 뿐 아니라, 더 큰 교회의 업무취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13. 사회개혁가로서 (As Social Reformer)

알렉산더 캠벨은 사회개혁을 교회개혁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으로 신약성경의 기초 위에서 교회들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사회불의의 뿌리를 뽑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 일의 성공은 연합된 교회를 이루기까지 지연될 것이라고 믿었다. 요약하면, 연합된 교회는 신약성경 기독교어로 환원할 때 가능할 것이고, 연합된 교회는 사회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다.

그러나 캠벨은 그러한 변화가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연합된 교회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당시의 이슈들 가운데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금주, 사형, 공립학교, 노예 제도와 전쟁에 관해서 피력할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당대에 가장 첨예한 이슈들이었던 노예제도의 불의와 전쟁의 사악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캠벨은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선택이 침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주단체들의 문제와 술 판매금지에 관해서 처음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캠벨은 입장을 바꿔 술 판매금지를 적극 후원하였다. 그는 오직 살인자에 한해서만 사형시키는 것이 주(州)에게 맡겨진 신성한 권위라고 믿었다. 그는 공립학교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후원자였다. 공립학교는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고, 도덕적으로 강하고, 배움을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민을 키워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1840년대까지 많은 미국사람들은 노예제도에 관한 이슈가 국민의 삶에서 점점 더 불화를 일으키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주제가 너무 폭발적이어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뉘어졌고, 교회들이 찢어졌으며, 주요 교단들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다. 이런 긴장들과 더불어 무력

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위협이 있었다. 캠벨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들을 용감히 선포하였다.

캠벨은 그가 참석했던 1829년과 1849년 버지니아주 헌법제정의회 때에 그리고 켄터키주에 넓게 배포된 소책자에서 점진적인 노예해방 방안을 제안하였다. 『밀레니얼 하빈저』지에서도 캠벨은 노예제도에 관한 주제로 여러 차례 사설과 평론을 실었다.

그의 저술들로 볼 때, 캠벨은 신약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도덕성을 동일시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는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을 철저히 연구한 끝에 구약에서나 신약성경에서도 노예제도를 직접적으로 단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캠벨 부자는 노예제도는 부도덕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비록 그가 개인적으로 노예제도를 강하게 반대하였지만, 캠벨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도를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선언할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믿었다. 동시에 캠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노예들을 소유물이 아닌 동료 인간들로 다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실행된 노예제도가 심한 인권침해라고 선포하였다.

캠벨은 또한 노예제도가 미국인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게다가 그의 의견에 따르면 노예노동은 남부의 경제에도 이롭지 못한 것이었다. 캠벨은 자신의 금전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했거나 다루었던 모든 노예들을 풀어줌으로써 노예제도에 관한 확신들을 자신의 사생활에서 실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자신의 모범적인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점진적 노예해방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독교 공동체가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캠벨은 노예들을 소유하는 것이 교회징계의 문제나 친교의 시금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확고히 지켰다. 결국 캠벨은 그 유명한 사설에서 “노예제도는 견해의 문제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노예를 소유하고 안하고는 믿음의 본질이 아님을 밝혔다.

노예제도 문제로 긴장들이 고조되면서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은

남과 북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예측불허의 사태를 내다보면서 알렉산더 캠벨은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였다. 그는 멕시코 전쟁에 반대했었고, 『밀레니얼 하빈저』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다.

캠벨이 전쟁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힌 것은 멕시코 전쟁이 끝난 지 3개월이 된 1848년 5월 버지니아주(현재 웨스트버지니아주) 라이시엄(=문화회관), 휠링(Wheeling) 앞에서였다. 반전에 대한 그의 논쟁이 매우 힘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몇몇 지도자들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돌이킬 수 없이 말려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미주리주 출신 하원의원 조셉 B. 샤논(Joseph B. Shannon)은 1937년 11월 22일자 하원 의사록에 캠벨의 이 연설문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이 연설에서 캠벨은 전쟁은 비록 구약성경에서 허락되었고 또 실시되었지만, 신약성경의 문자와 정신 모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금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양심적으로 전쟁을 허락하거나 종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방어전쟁과 공격전쟁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한다면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을 캠벨은 궤변가들이라고 일축하였다. 그는 전쟁이 정의를 세우는 수단일 수 없으며, 전쟁은 논쟁을 종식시키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결국 전쟁이 종식되는 것은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평화회담장에서 이므로, 평화회담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비극적으로 잃고 나서 열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열려야한다고 믿었다. 캠벨은 오늘날의 국제연합이나 세계재판소가 하는 것과 비슷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국제연맹과 세계재판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진실로 타협을 모르는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 앉아 그들의 난제들을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과 모든 설득력을 사용해야 한다.

기독교 복음을 오늘날의 사회이슈들에 적용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그들이 알렉산더 캠벨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서 위

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신약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자기 시대의 도덕과 정의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과감히 적용하였다.

#### 14. 신학자로서 (As Theologian)

캠벨은 신학이 수세기에 걸쳐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체계로써 교회를 망쳤다고 믿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신약성경의 실천에로 교회를 환원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말씀을 단순하게 읽고, 그 말씀들 속에서 배워지는 것을 교리와 실천으로 수용하는 것이 본질적이었다. 소위 신학은 성경말씀의 근거 위에서 캠벨의 연합의 계획 속에 어떠한 직접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캠벨은 자기 자신을 신학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성경말씀의 연구 위에 근거해서 교리 질문들에 관한 개인적인 판단을 강하게 믿었다. 캠벨은 신학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술이나 사역의 성격으로 봐서 신학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알렉산더 캠벨의 신학은 그것 자체로써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글에서 그것을 충분히 다루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로알럼버트(Royal Humbert)는 수많은 기사들, 논평들, 토론들, 강연들, 그밖에 다른 저술들로부터 캠벨의 사상을 수집하였고, 캠벨의 신학 내용을 두꺼운 책으로 제시하였다. 『알렉산더 캠벨 신학의 요약』<sup>17)</sup>에서 우리는 캠벨의 믿음과 이성,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경, 계시, 교회, 종말론, 그밖에 많은 신학질문들에 관한 견해들을 발견하게 된다.

#### 15. 나오는 말 (A Final Word)

행동의 사람으로서 알렉산더 캠벨의 인상은 다 같은 하루 24시간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물

17) *A Compend of Alexander Campbell's Theology*(St. Louis: Bethany Press, 1961).

음을 던지게 한다. 물론 대답은 철저한 시간관리와 남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기 때문이다. 캠벨은 규칙적으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일했다. 그의 하루의 일과는 인쇄공들이 일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손님을 접대하고, 책을 읽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언제나 아침과 저녁에 그는 자신과 가족과 자기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여행하고, 저술하고, 편집하는 것 이외에도, 캠벨은 여전히 농장과 많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알렉산더 캠벨의 두 번째 부인 세리나 캠벨(Selina Campbell)은 그녀가 쓴 책, 『부인이 쓴 알렉산더 캠벨의 가정생활과 회고록』<sup>18)</sup>에서 자기 남편의 폭넓은 관심사들에 관해서 말하였다. 그녀는 캠벨이 공공복지, 도로개선, 농업경작에 관심을 보였다고 적었다. 그녀는 캠벨이 웰스버그(Wellsburg)에 이르는 도로건설과 지역에서 가장 우수했던 양떼의 품질개선에 보인 노력들을 예로 들었다.

알렉산더의 관심들은 실로 끝이 없었다. 캠벨은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들을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에 관계없이 언제나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캠벨의 집은, 나이에 관계없이, 멀고 가까운 곳에 관계없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휴양지가 되었다. 한번은 캠벨이 아이오와(Iowa) 부족의 인디언 소년을 8~9년 동안이나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킨 일도 있었다. 그 후 소년은 고향에 돌아가 그의 부족을 도왔다. 또 다른 경우에는 꽤 중요한 인물인 어느 멕시코 장군이 캠벨의 집에서 잠시 머물다 갔는데, 후에 그는 자기의 두 아들들을 베다니 대학에 입학시켰다.<sup>19)</sup>

알렉산더 캠벨은 그의 생애를 자기 아버지 토마스의 생각들을 실행하고 확대시키는데 헌신하였다. 그 생각들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 종교독립선언문이었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 속에

18) *Home Life and Reminiscences of Alexander Campbell by His Wife*(St. Louis: John Burns, 1882).

19) 역자 주: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알렉산더 캠벨의 저택에 잠시 머물렀다. 지금도 캠벨의 저택에는 가필드 대통령이 머물렀던 침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아주 잘 나타나 있었다. 마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몇 년 전에 새 공화국의 국민들에게 자치에 모험을 하도록 도전했던 것처럼, 캠벨 부자는 그들에게 기독교 발전에 모험을 하도록 도전하였다.

기독교인들은 과거 유럽의 해묵은 다툼의 장애물들을 던져버리고, 사도교회의 일치, 자유, 단순성 그리고 순수성으로 옮겨가야 했다. 알렉산더 캠벨은 강단과 편집책상에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관심사를 심사숙고하였다.

비록 캠벨이 우리 사회의 끝없는 복잡성을 관망했다라도, 그는 실망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 쉬운 낙관주의를 포기하거나 사회가 교육, 기술, 경제경영과 정부의 힘에 의해서 그 자체를 완전히 재생시킬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때에도, 알렉산더는 우리들을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캠벨은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 우리의 죄 많은 본성의 정복과 우리의 영적 삶의 발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었다. 신약성경 약속들에 확고하게 기초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목적들 속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 목적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행동의 사람이었다.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은 많다. 가장 도움이 될만한 책들 가운데는 로버트 리차드슨(Robert Richardson)의 『알렉산더 캠벨의 회고록』<sup>20)</sup>, D. 레이 린드레이(D. Ray Lindley)의 『자유의 사도』<sup>21)</sup>, 해롤드 L. 룡거(Harold L. Lunger)의 『알렉산더 캠벨의 정치윤리』<sup>22)</sup> 그리고 편집자 페리 E. 그레샴(Perry E. Gresham)의 『베다니의 현자: 광복피륙 속의 개척자』<sup>23)</sup>가

20)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Philadelphia: J. Lippincott, 1868, 1870).

21) *Apostle of Freedom*(St. Louis: Bethany Press, 1958).

22) *The Political Ethics of Alexander Campbell*(St. Louis: Bethany Press, 1954).

있다. 또 다른 자료는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 『크리스천 스탠더드』(*The Christian Standard*), 『크리스천 에반젤리스트』(*The Christian-Evangelists*) 그리고 『제자들』(*The Disciple*)과 같은 잡지들이 가끔씩 실리는 캠벨에 관해 쓴 중요한 기사들 속에서 발견된다.

---

23) *The Sage of Bethany: A Pioneer in Broadcloth*(St. Louis: Bethany Press, 1960).



# 제6장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전개

글 이신 목사

### 1.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발

한국에 들어온 가톨릭교회의 시작이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한국 학자들이 진리 탐구의 학구열에 의해서 그 관계의 서적을 읽는 중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그 교리가 가르치는 대로 실행하다가 그것을 알고 훗날에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교세가 확장되어 나갔는데, 이 과정을 한국 교회사를 읽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 기독교의 출발은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고 한국 선각자들의 진리 탐구열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의 출발도 처음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 초기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환원운동'을 전개한 주도적 인물 세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동석기(董錫祺) 목사, 강명석(姜明錫) 목사, 성낙소(成樂紹) 목사 등이 바로 그들이다.

동석기 목사(1881-1972)는 함경도 북청 출신으로 1904년에 하와이로 이민 길에 올랐는데 그 후 미국 일리노이 주의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에 가서 공부하였고, 또 게레트 신학교(Garrett Biblical Institute)에 가서 수학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 귀국하였다. 이때가 1913년이었는데, 그 후 14년간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1927년에 다시 도미하여 순회하던 중 미국 그리스도의 교

회를 알게 되었고 또 신시내티 성서 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 가서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에 관한 교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거기서 대오각성하고 귀국하여 자기 고향 북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럿 개척하였다(초리 함전교회, 덕성 서흥리 교회, 수동리 교회, 수서리 교회, 하거서면 입장동 교회, 맹경시 교회, 증산리 교회 등). 또 그는 광복후 서울에 환원운동의 기지 교회의 설립을 절감하고 내수동(內需洞)에 교회를 개척하였으니 오늘날의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그 밖에도 외국의 환원운동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선교 활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6.25사변 당시 수난의 교회를 돕는 데 크게 활약하였다. 그러다가 1972년 90세의 고령에 이르러 타계하였다.

강명석 목사(1897-1944)는 경남 밀양출신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후일에 독일하여 관서학원(關西學院) 신학부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귀국 후 향리인 밀양에서 감리교 목사로서 목회하던 중 감리교의 감독을 지낸 양주삼 박사의 주선으로 도미하여 테네시 주 내시빌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부(Vanderbilt University, Department of Religion)에서 공부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접촉하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은 다양한 교파의 교회나 신조에 따르기 보다는 성서로 돌아가서 초대 교회의 순수성과 단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일 년을 더 머무르면서 프리드 하드만 대학(Freed-Hardman College)에서 '환원운동'에 관해서 예의 연구하였다.

그는 1936년 귀국하여 울산 등지에서 그리스도 교회를 개척하였고 경주, 진양 등지에까지 나가서 곳곳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 그는 인천에 이르러 송림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그는 광복 일 년을 앞두고 아직 한참 일할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 이때가 그의 나이 47세였다.

성낙소 목사는 젊은 시절에 동학당(東學黨)에 가담하여 활동하던 중 일본의 침략으로 조국의 주권이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쓰라림을 경험했다. 그는 심중에 생각하기를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관계의 훈련이 거국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던 차, 미국인들이 주동이 된 구세군(救世軍)의 활동을 보고 어떤 군사 수련의 기회로 생각하고 구세군에 입대하여 사관학교에서 수업하였다. 거기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깨닫게 되었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 전도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백인 사관들의 인종 차별 대우에 항거하다가 드디어 구세군 활동에 의아심을 갖게 되어 구세군을 탈퇴하고 향리인 부여에 돌아와 교회를 개척하였으니, 그때 생각에 여러 가지 교과로 나누어 분열된 교회보다는 단순히 교회명을 '기독교회'(基督敎會)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으며, 또 신앙도 성서적인 교훈을 고수하는 순수한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그런 방면으로 목회를 하였다. 그러던 중 자기와 같은 신앙 경향의 선교 활동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는 도일을 결심하였다. 이것이 1930년 5월의 일이었다. 그는 동경에 건너가서 당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파송한 커닝햄(Cunningham) 선교회와 접촉하였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환원운동의 교리를 습득하는 한편 한국인 거류민들에게 전도를 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난 후 하루속히 조국에 돌아가서 성서에서 발견되는 초대 교회의 원형을 따라 신약교회를 세워야 하겠다는 것을 절감하고 1931년 귀국하여 서울의 계정(桂町), 공덕정(孔德町), 청파적(靑坡町), 내수정(內需町) 등지에서 전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7년에 이르러 성낙소 목사는 그의 주선으로 일본 커닝햄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던 존 채이스(John Chase) 선교사를 입국케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교리 강습회'(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전신)를 개최케 함으로써 교역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후 성낙소 목사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교수하였으며, 필운동(彌雲洞) 교회에 계속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였다. 광복 후에는 타교단을 향하여 "基督의 敎會 合同 宣言文"이라는 것을 작성하여 교회의 일치와 신약성서적 근거에 의한 초대 교회로의 환원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하다가 그는 1964년에 타계하였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교역자는 최상현(崔相鉉) 목사다. 그는 존 채이스 선교사의 내한으로 그의 통역과 신학교의 교수로서 활약한 분인데, 그는 일찍이 연전(延專)을 졸업하고 3.1독립운동이 벌어지자 중국으로 건너가 일시 머물다가 귀국 후 감리교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감리교회에서 일하던 중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에 접하고 6.25전란시 납북될 때까지 돈암동(敦岩洞) 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앞서 존 체이스 선교사의 내한을 말하였거니와 1939년에 내한한 존 힐(John J. Hill) 선교사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성품이 온후하고 동정심이 많아서 자못 한국인과 잘 동화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 습득하여 곧잘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임자를 도와 활약하였다. 그러자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기독교 탄압은 가중되어 1940년에 이르러 두 선교사들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교회에 대한 일제의 핍박은 날로 심해 가는 가운데 교회들은 일대 수난기를 당했다. 특히 일제의 신도(神道)를 한국민에게 강요하는 바람에 한국교회는 여기에 항거하여 순교를 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묵종하여 신앙의 지조를 신도의 천조대신(天照大神) 앞에 버리느냐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대교단의 지도자들 중에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일제의 정책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자들도 생겼다.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개체 교회의 독립이라는 것 때문에 집단적으로 일제의 강요에 끌려가는 일은 면할 수가 있었다. 몇몇 교회가 문을 닫는 비운도 있었지만 잔존하는 교회들은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일제 말기의 조선총독부의 기록을 보면, 경기도에 2개처, 경북에 1개처, 경남에 3개처, 함남에 7개처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전도자의 수는 5명으로 되어 있으며, 신도의 수는 1937년에는 236명으로 된 것이 1941년에는 겨우 140명으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심했던가 하는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역사하게 하신다.

## 2. 광복 후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활동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전으로 한국민은 일제의 쇄사슬에서 풀려나 '해방'을 맞이했다. 전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사실이

지만, 그 중에서도 탄압받고 피흘린 한국 교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런 날이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을 연합군이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섭리라고 믿고 기뻐하였다. 각처에서 억압받던 성도들이 옥문을 깨치고 또는 동굴과 은신처를 박차고 나오면서 교회는 크게 신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제의 선교 탄압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체교회의 독립 체제(Local Autonomy) 때문에 집단적인 신도(神道)의 강요를 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있었다.

광복 후 일 년이 지난 1946년 8월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시기야말로 교회의 순결과 일치에 주창할 절호의 기회로 알고 “기독교의 교회 합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환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신 교회로 돌아와서 각각 분열된 기독교에게 신약시대의 기독교 교회로 같이 돌아오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聖旨)를 순응하여 합동 통일 운동을 선언하노라. 신자는 말씀에 비추어 각각 교파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단체의 헌법규칙을 존중시하고 분열됨으로 다투고 있으니 성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구구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 . . 다시 조선 교회의 실정을 살펴보면 우리 조선 각교파가 악마 왜정시대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日本基督教 朝鮮教團)이라는 명칭으로 합동 통일의 사실이 있었다. 이는 마귀에게 굴복하여 신사참배의 합동 통일은 하면서도 주님 말씀인 성경의 교훈대로 각교파 신도의 통일을 부인할 수 있을까. 만일 부인한다면 성경 말씀인 주님의 성지를 반역하는 일이다. 삼가 조심하라. 그런즉 합동 통일함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자. 신약시대의 교회를 찾으면 신약성경에서 찾자”고 선언하면서 전 한국 교회에 교회의 일치와 신약성서가 제시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창시자와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마 16:18; 엡 5:23) 모든 종파적인 기원과 인간적인 교권적 권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파의 분열의 통일을 기(期)하는 데 지

름길은 교단의 인위적인 명칭을 지양하는 것인데, 그것도 신약적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롬 16:16)라는 초대 교회의 명칭으로 전교회를 부르자는 것이다. 그리고 성례전(聖禮典)의 성서적인 원형을 회복하기를 호소하면서 세례는 초대교회가 실행하던 대로 침수 세례(浸水洗禮, baptisma)를 주장하였고(마 3:16; 롬 6:3-11; 행 8:36-39), 성만찬은 초대 교회가 실행하던 대로 거행할 것을 호소하였다(행 20:7).

해방 직후의 한국 교회는 일시적으로 일제의 억압에서 풀려난 데 대한 감격도 가시기 전에 일제의 신도(神道)의 강요를 물리치고 박해를 감수했던 기독교인들과 박해에 못 이겨 신도(神道)에 굴종했던 지도자 신자들 둘로 나뉘지기 시작하여 각 교단마다 상당한 물의를 빚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단의 분열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런 혼란의 와중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환원운동의 호소는 뜻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특히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신도의 신사참배의 강요를 거부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모여들었다. 그리고 무엇인가 순수하고 진실한 태도로 신앙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하였다.

1947년 일제에 의해서 축출되었던 선교사 존 체이스가 재입국하였고, 1949년 3월 5일에는 존 힐 선교사가 재입국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는 다시 문을 열게 되었는데, 처음 1947년에는 필운동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는 송월동(松月洞)에서 계속되었다. 그동안 앞서 말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에 호응한 사람들이 이 신학교에 들어와 공부하였다. 당대의 교수로는 존 체이스, 존 힐 선교사, 성낙소(成樂紹), 최상현(崔相鉉), 신현창(申鉉昌), 서병렬(徐丙烈), 목사들이었으며, 학생들 가운데 후일에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김은석(金銀石), 구광서(具光書), 이흥식(李興植), 정희건(鄭熙建), 함창현(咸唱滋), 김광수(金光洙), 한현태, 이종만(李鐘萬), 김동환, 김재건, 김봉섭, 조국형(趙國衡), 최병권(崔炳權), 성수경(成守慶), 강병천(姜病天) 등이었다. 해방후 짧은 기간이었으나 이들 신학생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각지에 나가서 전도하여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때에 서울에서만도 10여 곳의 새로운 집회처가 생기고 지방에서도

충남북에 번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선교 활동은 잠시였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군이 남침함으로써 중단되고 남한 일대는 전쟁의 참화 중에 휩싸이게 되었다.

### 3. 6.25사변 후의 환원운동의 전개

공산군의 남침으로 남한 일대는 전쟁의 참화 속에 싸였으나 유엔군의 협공작전에 의하여 공산군은 물러가고 그 후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일단 평온을 회복하였다. 전쟁 중에 수많은 전쟁고아와 과부와 이재민이 생겨났고 민가와 공공시설이 파괴되는 등 그 참상은 형언하기 어려웠다. 특히 전란 중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많은 교회당이 파괴되었다. 이런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교회는 시기를 만난 듯 고아와 과부 이재민의 구호에 힘썼고 상처입고 멍든 영혼들을 위로하며 신앙의 힘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戰禍)의 잿더미 속에서도 찬송가 소리는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복음 전도의 외침소리는 방방곡곡에 전파되었다. 그러므로 전전(戰前) 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건립되었고 더 절실한 심령의 요구로 신앙의 열기는 뜨거워져서 한국 교회의 신자의 수는 급증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환원운동은 서울에서보다 지방에서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서울에서는 전란을 피했던 존 힐 선교사가 1954년 재입국함으로써 구호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1.4후퇴 이후에 전국이 평온해짐에 따라 교회 지도자들의 양성기관인 신학교는 또다시 문을 열고 계속하였다. 이 무렵 경기도 부평에 보육원이 생겼고 인천에는 이종만(李鍾萬)이 경영하는 인천 보육원이 생겼으며 대전과 대구에 각각 보육원이 생겨서 전쟁고아들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의 선교 활동이 주로 구호 사업과 신학 교육에 주력하고 있을 때, 지방에서는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에 주력하는 운동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이 지방 운동의 중심적인 인물이 김은석(金銀石)

목사였다. 그는 일찍이 기독교 신앙에 입교하면서 중국 등지에서 전도하였고 또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도일하여 탄광 등지에서 노동하면서 전도하였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영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탐구했다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독하면서 영감에 통하여 체득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활동하려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경원(研經院)이라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수학하였지만 거기서 가르치는 환원운동의 교리적인 가르침이 그의 영적인 요구에 만족을 주지는 못하였다. 그는 도중에서 학업을 그만두고 지방에서 전도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그러던 중 앞서 언급한 신학교 교수인 신현창(申鉉昌) 목사와 의견의 일치점을 발견하고 그와 더불어 협력하여 충북 부강(美江)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였다.

그들은 부강 장로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던 중 그 교회의 대다수의 인원이 신약교회로 환원할 것을 원하므로 그들에게 침수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연구회'를 열어 뜻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이것이 그 원근의 교회에 전문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는데 때로는 그 수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그들의 성경 가르침은 성경의 영감에 육박하려는 것이어서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거기서는 단순히 성서의 지식보다도 참여하는 자들로 하여금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며 전도의 사명 의식을 불어넣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뜨거운 체험한 무리들이 충청남북도 전라도지방에 나가서 전도함으로써 많은 지방 개척지가 생겼고, 다른 교단에서 교회 전체가 환원운동에 참여하는 일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존하는 교회 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부분이 이 운동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이다.

이 운동은 그 후에 광주를 중심해서 전개되었는데, 광주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연구회'를 열었고 거기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를 조직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최초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안수 받은 사람들은 김재순(金在順), 함창현(咸唱滋), 장주열(張周悅), 최요한(崔要漢), 이신(李信) 등의 목사들이

다. 이것이 1951년 봄의 일이었다. 그 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로 옮겨가서 동일한 '성경연구회'를 열었고 1954년에는 목포에서 '성경연구회'를 열어서 전남 지방의 환원운동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이 지방의 '성경연구회'는 1955년에 존 힐 선교사가 재입국 함으로써 14후퇴시 일본으로 철수하여 중단했던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다시 개강하자 이에 합류하여 '서울 성서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칭하고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때 신학교의 교장은 존 힐 선교사였고, 교수로는 조국형(趙國衡), 이신(李信), 김동렬(金東烈), 김동수(金東洙), 김태수(金台洙), 김은석(金銀石) 목사 등이 있었다.

이 무렵 한국의 환원운동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내한한 선교사들로는 폴 잉그램(Paul Ingram), 미스 톰슨(Miss Thompson), 재인 킨네트(Jane Kinnet), 미스 반힐(Miss Banhill), 등의 제씨였다. 재인 킨네트 씨는 후일에 존 힐 선교사의 후처가 되었다. 그 후 1955년에 이르러 존 힐 선교사는 귀국하였고 그 후임으로 헤럴드 테일러(Harald Taylor) 선교사가 일본 선교에서 손을 떼고 내한하여 힐 선교사의 일을 계승하였다. 그는 오자마자 선교 본부와 신학교사를 서대문구 송월동에서 신사동으로 옮겼으며 또 『한길』(One Way)이라는 월간지를 발간하였다.

한편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최초로 1954년 5월에 데일 리차드슨(Dale Richardson)이 내한하였는데, 이 사람이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내한한 선교사였다. 그 다음으로 10월에는 헤스케일 체시얼(L. Haskiel Cheshir) 선교사가 내한하였는데, 이들은 다 동석기 목사의 주선에 의한 것이었다.

리차드슨 씨는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강의하면서 타고파와 유대를 통하여 전도하였고, 체시얼 씨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 6번지에 선교 본부를 정하고 교역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한국 기독교 학원'을 설립하여 교육 사업에 역점을 두었는데, 그의 포부는 장래 아시아 환원운동의 역군들을 기르자는 데 있었다. 이 교육기관은 그 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가 되었고, 오늘날의 '그리스도 신학 대학'의 전신이 된 것이다. 그리고 체시얼 선교사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6.25사변 직후의 한국의 사정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산적 식량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낙농 사업을 펼 생각으로 젓소 백여 마리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것으로 파주에 신학대학 목장을 만들고(Cow for Korea Program, Paju Country) 일반 농가에게 보급함으로써 영양가 높은 식량원의 확보에 노력하였다. 그는 강조하기를 일정량의 식량을 곤란할 때 원조한다 해도 그것을 소비한 다음에는 또다시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생산성 있는 젓소와 같은 식량원과 생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항구적인 식량 대책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낙농 선교를 위해서 아랜 선교사를 초치(招致) 했다. 그 후 그리스도 신학 대학의 학장이 된 하딩 박사(Dr. Harding)가 내한하여 체시얼 선교사와 더불어 신학대학의 설립에 공헌하였다. 빌 램지 선교사는 내한하여 '통신 교육원'을 설립하고 통신으로 환원운동을 전하는데 종사하였다.

한편 테일러 선교사는 자기의 동역자로 미국으로부터 패튼 선교사를 초치하고 문서 출판사업을 일임케 하였다. 테일러 선교사는 1972년에 한국을 떠나면서 자기의 후계자로 패튼 씨를 지정하였다. 부산 지방에서는 1967년에 알렉스 빌(Alex Bill) 선교사가 내한하여 '기독교 방송 선교회'를 설립하고 2년 후에는 버트 엘리스(Bert Ellis), 조 세걸키(Joe Segarki) 선교사 등이 내한하여 방송 선교의 일을 도왔다. 또 그리스도교 선교 연구원과 구호소의 일을 하던 말콤 파스리와 『참빛』이라는 월간지를 낸 이철신 선교사 등이 있었다.

1958년에 존 힐 선교사는 또다시 내한하여 대전에 머물면서 '한국 성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역자를 양성했으며, 이 학교 출신자들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지방 개척에 주력하였다. 이 사업은 힐 선교사가 1971년 귀국하면서 그 후계자인, 미국 존슨 성서대학에서 수학한 김찬영 목사에 의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장성만 목사가 미국 신시내티 성서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1964년 귀국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동서실업학교'를 경영하여 전도자 양성과 기술 교육을 시행하더니 지금은 발전하여 '경남 공업 전문대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sup>1)</sup>

한편 서울에서는 1961년 미국 산호세 성서대학(San Jose Bible

College)과 링컨 기독교 신학교(Lincoln Christian Seminary)를 마치고 귀국한 최윤권 목사가 한동안 '서울 성서 신학교'에서 테일러 선교사와 같이 일하다니 서울의 도원동 교회를 담임하면서 한국의 교역자들과 같이 처음 서울 원효로에 집을 얻어(구 오산학교 자리) '대한 기독교 신학교'를 1965년에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또 『환원』이라는 신앙지를 발간하였다. 미국 링컨 기독교 신학교와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대학원(Vanderbilt University, Divinity School)에서 수학한 최순국 목사는 1966년에 일시 귀국하여 필운동 교회에서 시무 하면서 대한 기독교 신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있다가 다시 도미하였다. 1970년에 미국 링컨 기독교 신학교를 마치고 귀국한 안재관 목사는 대한 기독교 신학교에서 교수하다가 다시 1973년 도미하였다. 이 무렵의 교회의 수는 100여 개에 불과하였다.

#### 4.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한국적 짚각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환원운동은 외국인의 선교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열의와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려는 진실성이 그 선각자들로 하여금 성서적인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을 접하게 했으며, 이들이 이러한 신앙을 이 땅에 심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외국의 선교사와 외국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접한 다음부터는 성서해석과 기독교 이해를 무비판적으로 묵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미국의 환원운동자들의 주장을 아무런 반성 없이 그대로 한국인들에게 도입하기에 힘썼다. 초기 한국 지도자들 가운데는 어느 선교사가 가르친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바른 성서적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교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오늘날 외국의 학자들 가운데는 초기의 미국 환원운동 지도자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 경남공업대학은 오늘날 경남정보대학으로 발전하고 있고, 장성만 목사는 5공화국 때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후, 부산에 또 다른 대학인 동서대학교를 설립하여 이사장 및 총장직에 취임하였다.

서 초기 환원운동자들 가운데는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의 한 사람인 존 로크(John Locke)의 영향 하에서 “말씀과 논외에 신자들 속에 실제적으로 성령의 내적 임재를 불신하거나”(to disbelieve the Holy Spirit in Believers)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든지 인도하심이나 기도의 효능 등을 부정하는”(to deny special providence and guiding and the efficacy of prayer)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환원운동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성서적 근거에서 그 순수성과 단일성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교회의 초대 교회의 원형으로의 환원을 부르짖은 데는 공헌했으나, 역시 기독교 신앙의 영감적인 면이나 성령으로 인한 현재적인 역사 등에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미국적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런 기독교 이해를 그대로 한국에 이식시키려는 초기의 한국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주력하면서 성령의 영감적인 면을 추구하는 전도자들이 지방 교회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김은석, 신현창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 ‘성서연구회’에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한국적 자각을 불러일으킨 것은 1974년 3월 25일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을 선포한 때부터 일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네브라스카 기독교 대학(Nebraska Christian College)과 드레이크 대학교(Drake University) 그리고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대학원(Vanderbilt University, Divinity School)에서 수학하고 1971년에 귀국한 이신 박사가 1973년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회장이 되면서 뜻있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규합해서(김태수, 김정만, 김철수, 김용웅, 김길홍 등)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의견을 모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 선언문에는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래 짧은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갖는 어떤 특이성의 양상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정말 이것이 한국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뚜렷한 모습이 신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한국적 자각 밑에서 복음이 수용되었다기보다는 외국 교회가 자기네들의 성서 해석과 신앙 양식을 한국 교회에 이식시켜 놓은 것에 불

과하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우리 나름의 자각으로 복음의 씨를 우리의 풍토에 심고 특이한 신앙 형태로 발전한 것 같지 않다. 다만 외국 교회의 흉내 아니면 무자각한 외국 교회의 전통과 성서 해석의 묵수 이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한민족의 역사가 정치적으로 외세에 의해서 억압과 침략을 당하는 동안 이 민족의 정신적 자세가 무자각한 사대주의에 기울어져 그 시정책이 국민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신앙마저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극단의 반발로 무조건 외국의 것은 나쁘다고 하는 배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지만 우리는 과거에 한국 교회가 걸어온 무자각한 외국 것의 모방이나 묵수 등은 삼가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초기 한국 교회의 발전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었으나 상당히 역사가 경과한 오늘날에 와서도 한국 교회가 지속해야 할 태도로 우리는 보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체교회의 독립성(local church autonomy)을 지나치게 고조한 나머지 전체적 조직체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타교회 또는 전체 한국 그리스도 교회간의 유기적인 관계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지장이 있다고 보았으며, 또 이것은 초대교회가 “교리와 신앙상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교회의 신앙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공의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던” 것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기하는 성서적 조직체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환원운동자들이 성서의 자구적 해석을 고집한 나머지 메마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적 신앙에 기울어져 있는데, 그 한 예로 기사 이적이나 성령 세례는 사도시대에 국한되는 것이지 오늘날은 종식된 것으로 믿는다는지, 또 세례나 성만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 예전 자체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 인양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선언문에서는 “초대 교회에로의 환원은 세례와 성만찬과 교회 이름 등의 외면적인 환원에만 주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특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선언문은 덧붙이기를 “그렇다고 우리는 어느 주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앙의 형식적인 면을 포기하고 그

내면적인 면만을 주장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교파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명칭이나 성례전의 간편주의를 채택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보는 겸전(兼全)한 신앙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의 독자적인 해석 아래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질서 있는 교회로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적인 조직체의 형성과 성례전의 재인식 그리고 신앙 내용의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을 절감하는 바이다. 그래서 명실공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그리고 성서적 신앙이 이 땅에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하였다.

이렇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에 선교사들과 외국의 교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 주체적인 자리가 흔들리는 듯 하는 시기가 있었으나, 오늘날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것을 극복하고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독자적인 신앙의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자각 있는 성서 이해로써 성서의 영감적인 말씀을 믿으며 오늘날도 초대 교회와 같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교회 발전에 주동적인 힘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전체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와 신앙의 순결과 질서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전체 교회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의 후신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인 것이다. 여기서 성직자의 임직과 선교 정책의 협의 및 재정적인 뒷받침 또는 교육 사업과 구호 사업 등 제반 교회의 필요한 문제들을 협의하며 집행하고 있다. 이런 전체 교회의 유기적인 활동에 의해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오늘날은 전국적으로 교회 수가 2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교육 기관으로는 대학이 돌이요(그리스도 신학 대학, 경남 공업 전문대학), 신학교가 셋이 있는데(대학 기독교 신학교, 서울 성서 신학교, 한국 성서 신학교) 이 기관에서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장차 한국의 ‘환원운동’을 위한 일꾼으로 양성되고 있다.<sup>2)</sup>

## 참고도서

1. 「기독교 연감」 1964년도.
2. 「종교편람」 1979년도 문공부 간행.
3. 「조선의종교급형축요람」 소화(昭和) 16년도 조선총독부 간행.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1967년, 김세복 저(연대 연합신학대학원 논문).
5.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사」 1979년 안병호 저(베뢰안 대학원 논문).
6. 「기독교의 교회 선언문」 1946년, 경성 사직 공원 내 그리스도의 교회 간행.
7.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 1974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간행.
8. *Christian Baptism*(Bethany V.A. 1851) by Alexander Campbell.
9. *Christians Only :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Standard Publishing Co., 1962) by James DeForst Murch.
10. "Holy Spirit in the Thought and Life of Disciple of Christ" (an Article in Panel Scholars Vol. II. 1959) by Stephen J. England.
11. *A History of the Church of Korea*(Korean Literature Co., Seoul) by A. D. Clark.
12. *The Church of Christ*(Funk & Wagnalls Co., 1907) by A. Layman.

---

2) 오늘날에는 교회가 4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대학교육기관으로는 서울에 그리스도신학대학교와 서울기독교대학교, 대전에 한민대학, 부산에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이 있다.



# 제7장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의 당위성

글 조동호 목사

### 1. 이 운동의 뜻풀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자로 ‘기독교회’란 뜻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Church of Christ)란 뜻이고, 둘째는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을 주체로 삼는 교회(Christian Church)란 뜻이다. 이렇게 교단명칭을 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전 세계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란 통일된 이름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전 세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통일된 이름아래서 일체가 되는 모범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범을 바르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동지침이 필요한데 그것이 신약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가지 운동을 펼친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 Movement)이요, 둘째는 ‘신약성경교회 운동’(New Testament Christianity Movement)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믿어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이라고 부른다. 200년전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미국과 캐나다에는 2만3천여 교회와 4백만 성도들이 있고,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켄터키 주 루이빌 시에 있는 주일평균 2만 명 이상 최고 3만 명까지도 모이는 ‘사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Southeast Christian Church)가 대표적인 교회이다. 우리나라에는 5백여 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서

울에 그리스도대학교와 서울기독교대학교, 등촌 중학교, 대전에 한민대학교(구 한성 신학교), 부산에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 등이 있다.

## 2. 이 운동의 시작과 발전

이 운동에 소속된 자로서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일본주재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이다. 그는 1907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선교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 간 것이 전부지만, 이후 한국 선교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최초의 인물이다.

1911년 일본인 성도가 요츠야 선교회(Yotsuya Mission)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을 위해서 15엔 70전을 맡겼고, 커닝햄은 일본 거주 한국인을 한국에 보내서 이 돈을 쓰게 하였다. 1916년 동경주재 커닝햄 선교부가 한국 선교의 거점 확보를 위해서 힘썼고, 1923년에 일본 요코하마시 미야다쵸 조선인 교회(横浜市 宮田町 朝鮮人教會)를 설립하였으며, 1924년 10월에 이원균을 한국에 파송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구세군 사관 출신의 성낙소 목사가 1927년 1월 1일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처가(妻家) 사랑방에 '기독지교회'(基督之教會)를 자발적으로 세웠고, 기독지교회 출신 일본 유학생의 소개로 커닝햄과 연결되어 1930년 5월에 미야다쵸 조선인 교회에 부임하였으며, 1931년 9월 하순에 귀국하여 1932년까지 일 년여 동안 커닝햄 선교부의 조선포교책임자로 일하였다. 이후로는 이인범이 조선포교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35년에는 최초로 미국인 제이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가 선교사로 입국하여 일 년 남짓 머물렀고, 1936년에는 커닝햄 선교부에서 일하던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입국하여 4년간 머물면서 선교의 기반을 다졌으며, 1939년에는 힐 요한(John Hill) 선교사 부부가 입국하여 채이스 선교사의 뒤를 이어 1971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다른 한편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이자, 후에 독립 운동에 참여

했던 동석기(무악기)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게레트 신학교를 졸업한 후 감리교 목사로 귀국하여 활동하다가 재차 도미하여 1929년 신시내티 기독교대학교를 졸업한 후 1930년에 귀국하여 그해 11월부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역시 감리교 출신이자, 일본 관서학원 신학부와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한 강명석(무악기)이 1936년 귀국하여 합세하였고, 연희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이며, 한 때 『신학세계』의 편집을 맡아보았던 최상현 목사가 채이스 선교사의 동역자로 가세하였다.

50년대 이후에는 감신대학교와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부를 마친 이신 박사가 합세하여 활동하였으나 왜정말기의 어려운 정세와 6.25사변으로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등 발전하지 못하다가 50년대에는 장로교 목사였던 김은석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지방의 교역자들이 합세하여 남부지방에 큰 부흥의 역사를 자생적으로 이뤘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힐 요한(John Hill),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최수열(L. Haskell Chesshir, 무악기), 말콤 파수리(Malcolm E. Parsley, 무악기), 배도은(Gorden Patten), 미국에서 공부한 최윤권 목사, 이신 목사, 장성만(전 국회부의장) 목사 그리고 70년대에는 역시 미국에서 공부한 김찬영 목사 등이 가세하여 대학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배출함으로써 비로소 발전의 기회를 타게 되었다. 70년대에는 또한 수많은 유능한 목회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우기도 하였다.

### 3. 타 교단에서의 이 운동의 흔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이 상기한 인물들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밖에도 여기에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인물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서, 곧 한국의 타 교단에서 이 운동이 한국인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미 이 운동에 눈을 뜬 소수의 선각자들이 있었다.

국내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1889년 7월에 입국한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이었다. 펜윅은

침례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자신은 교파의식을 떠나서 사역하였으며 그가 관계한 교회들은 ‘대한기독교회’로 알려져 있었다. 다음은 펜윅이 쓴 자서전(The Church of Christi in Corea)의 일부 내용이다.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셨고,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 지자 감독자들을 임명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간결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어로는 ‘대한기독교회’(Dai Han Kitock Kyouhay)였으며, 그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i in Corea)란 의미였습니다.<sup>1)</sup>

1891년 마펏에게 세례를 받고 장로교회 목사로 시무했던 한석진은 ‘교파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자생적 환원운동가였다. 한석진 목사는 기회만 있으면 교파구별이 없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는 1909년 일본 도쿄에 유학생들의 한인교회를 설립할 때에 초교파적인 연합교회로 세울 것을 주장하였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본국교회를 설득하여 “일본에서만 큼은 장로교나 감리교가 아닌 연합교회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냈고, 1915년에는, 물론 부결됐지만, 자신이 속한 경기총청노회에 ‘조선예수교장로회’란 교단명칭을 “조선기독교회로 바꿀 것”을 헌의 하였으며, 1930년 금강산에 세워진 2층짜리 돌집 수양관의 이름을 ‘장로교 수양관’이 아닌 ‘기독교 수양관’으로 불러야 한다고 고집하여 관철시켰다.<sup>2)</sup>

10대 후반 수원농림학교 재학시절 기숙사에서 처음 기독교신앙을 접한 최태용은 어느 날 침상에 누우려 할 때에 홀연히 광명한 빛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치라”는 가슴에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20대에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는 묵시를 얻게 되었다. 27살에 박동완, 전영택, 송창근, 강명석, 최상현, 채필근 등이 동인지처럼 펴내던 『신생명』(新生命)에 글을 발표

1) 허건, 『대한기독교회사: 펜윅 선교사의 자서전적 이야기』.

2) .이덕주, “한국교회의 자존심, 한석진 목사”.

하다가 28살에는 스스로 『천래지성』(天來之聲)을 펴냈다.<sup>3)</sup> 그는 이 신앙지에서 “사람은 다만 그리스찬이란 일흠 외에 무삼 째 일흠으로써 신자를 부르기 십혀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리스찬 이외의 일흠으로써 여배(余輩)를 부르랴거든 여배(余輩) 또한 한 일흠을 제공 하리라.... 여배(余輩)는 교회주의라는 것이 비진리오 악마의 오묘(奧妙)임을 주창한다.”<sup>4)</sup>고 하여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을 주창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의 한국인 선구자가 되었다. 36살이던 1933년 9월 어느 날에는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물살이 센 큰 강을 건너는 꿈을 꾸고서 “소(小)하고 순(純)한 교회”를 세우라는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여 1935년 12월 22일 ‘기독교 조선 복음교회’를 창설하였다. 이 때 그가 제창한 표어가 “1)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 이여라. 2)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여라. 3)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 여여라.”였다.<sup>5)</sup>

성낙소(成樂紹) 목사는 1890년 5월 16일에 태어나 1964년 11월 30일 74세로 소천 하였다. 그는 일찍이 구국의 일념으로 홍주성 의병군에 가담하여 왜적을 물리치려 하였으나 기회를 놓치자, 구세군에 가입하여 이를 실현하려 하였으며,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던 애국지사였다. 이 시기에 처가가 있던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곳 사랑채에서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를 시작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낙소 목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27년 정월 초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서 성낙소 자신이 기독교계를 시찰한바 기독교 각파가 기독교 정신의 골자인 박애(博愛)로 속죄구령의 목적을 충각(忠覺)하고 각기 자파(自派)의 교세만 확장하려는 동시

3) 강명석(관서학원과 밴더빌트대학 졸업)과 최상현(연희전문과 협성신학 졸업, 『신학세계』 편집)은 본래 감리교 목회자들이었으나 1930년 중반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공헌함.

4) “비교회주의자”, 『天來之聲』 17호, 1926. 10.

5) “우리의 표어”, 『영과 진리』 81호, 1935. 12.

에 자파가 아닌 교회는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농후함으로 상대하는 입장에 소원(疏遠)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성서 중 에베소서 4장 3~6절 말씀과 같이 칠종(七種)을 통일하자는 신앙으로, 첫째 몸도 하나요 하였으니, 몸은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킴이라(엡 1:23; 골 1:24). 교회의 명칭을 기독교의 교회라고 통일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복음으로 동민에게 전하였다.<sup>6)</sup>

####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의 당위성

서두에서 밝혔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가지 운동을 펼친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 Movement)이요, 둘째는 '신약성경 교회 운동'(New Testament Christianity Movement)이다.

'그리스도인의 운동'은 교회가 '하나 되자'는 운동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의 이름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인'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인 것이다. 다른 모든 이름들을 버릴 때 지상의 주님의 교회들은 한 이름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신약성경교회 운동'은 진리 운동이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의 올바른 표현이다. '성서로 돌아가자'는 표어에는 수많은 교회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있고, 실제로 이단교회들이 즐겨 쓰는 표어가 '성서로 돌아가자' 또는 '성서가 표준이다'와 같은 표어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미 200년 전부터 이 운동을 펼쳐왔지만, 침례와 성만찬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 역시 오늘날에는 타 교단의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구약성서에 대한 신약성서 저자들의 입장은 유대교의 입장과 명백하게 다르다. 유대교에서는 구약성서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모든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구약성서를 모형론 또는 유형론(Typology)으로 이해했고, 영적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을 일컬어 구약

6) 성낙소, 『자서전』 제2장.

성서에 대한 '구속사적 성서이해'라고 말한다. 이런 해석의 차이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아주 다른 종교인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해석을 유대교 랍비들과 달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운동인 것이다. 이점을 16세기의 종교 개혁가들이 바르게 지적하지 못한 채 '성서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찢어졌고, 문제점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이나 분열의 아픔이 치유되지 못했고, 유전병처럼 후대에까지 대물림되어 왔던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말관과 메시아관에서 나타난다. 기독교가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을 믿고 있는 반면, 유대교는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futuristic eschatology)을 믿고 있다. 유대교에는 영적구원이 없고, 오직 육적구원만 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구원과 그의 재림 때에 육적 완성이 이뤄질 것을 말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大)구원이 이뤄졌고, 제2의 출애굽사건을 주도할 메시아(왕)가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본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실현된 구원의 확신, 곧 재림(종말) 때에 주어질 축복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영적 축복이 있는 반면, 유대교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대교인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유대교인들은 2500여 년 전부터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었다. 첫 번째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메시아가 가져올 '올람 하바'(Olam Ha-Ba)이다. '올람 하바'란 '메시아 시대' 혹은 '다가올 세계'(World to Come)를 뜻한다. 이 '올람 하바' 곧 '다가올 메시아 세계'는 흔히 말하는 '종말시대' 또는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다가올 마지막 세계'가 2천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활동은 다가올 마지막 세

계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올람 하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성령님의 '중생과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올람 하바'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여 년간 몹시 고대하던 그 마지막 세계 혹은 종말시대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라는 새 언약 공동체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영적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시대를 교회시대, 혹은 성령시대라고 부른다. 또 이 시대를 다른 말로는 시작된 종말시대 또는 실현된 종말시대라고 부른다.

시작된 종말이나 실현된 종말이란 말은 영적인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종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말, 혹은 '칭의'나 '중생'이란 말은 종말이 완성되는 때에 주어질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성령님으로 보증 받고, 인침 받고, 그 축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치료하심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대표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 평화가 있는 곳에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끝' 곧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뤄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다. 그들에게는 시작된 종말이나 실현된 종말의 축복이 없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뿐이고, 성령님으로 보증 받고, 인침 받고, 그 축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치료하심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시작된 종말의 축복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다가올 시대'란 그들 민족만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올람 하바'는 유대인의 제2의 출애굽 사건, 곧 유대인의 대 구원 사건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 육적인 사건이다. 문자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었는데, 건국된 지 60여년이 흘렀어도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믿는 유대인은 없다. 아직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계를 통합할만한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은 메시아관(觀)에서도 나타난다.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세주'(救世主)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삼위일체 신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다윗과 같은 영웅이자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이끌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고 본다. 그 같은 인물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킴으로써 정치적 영적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에 한 정부를 세울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전 세계 정부의 중심에 세울 것이며,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전예배를 다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종교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라 법으로써 유대법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큰 차이 때문에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아'란 말을 쓰지 않고, '모쉬아크'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펼치는 '그리스도인 운동'과 '신약성경교회 운동'은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운동이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는 운동이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신앙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내리 사랑으로 항상 먼저 인간을 찾으신다. 인간을 위해서 대안을 갖고 찾아오시고 손수 문제해결의 길을 마련하신다.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겠다는 판단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지시하신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복

을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서의 지시대로 하는 교회가 참 교회이고, 그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이다. 인간이 좋아하는 방법과 인간의 생각에 좋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드러서는 안 된다. 그런 예배는 인간의 감각과 즐거움을 위한 예배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따라 이 땅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아질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운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 제8장

## 초기 외국인 선교사

정리 조동호 목사

### 1. 제이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제이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가 부인과 성장한 미혼 딸을 데리고 선교지 한국을 향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을 떠난 것이 1935년 2월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35년 3월 중하순경이었다. 그가 미국 오레곤주, 바이다에서 1963년 1월 23일에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에게 쓴 편

지에 동봉된 사진을 보면, "셀리 목사 환영기념, 1935년 3월 24일"이라는 글씨가 새겨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sup>

셀리 선교사의 한국에서의 사역은 그가 테일러 선교사에게 보낸 영문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셀리 가족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되어 한국에 온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체재한 기간은 1년이 채 못 된다. 그들은 선교본부를 서울에 두고, 북한지역에서 2개월가량 사역하였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제하에서 정부에 최초로 법적으로 등록하였다. 또 셀리는 성경공부 반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쳤다.

셀리와 그의 가족이 그 해 11월에 한국을 떠난 것은 커닝햄 선교부의 감독아래 허락된 부정직하고 비기독교인다운 행위들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은 매우 유감스런 상태에 있었고, 그들 자신의 건강문제 때문이었다. 셀리는 폐병에 걸려 3년간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의 딸, 레이첼이 혈우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셀리는 한국 선교에 관해서 영문편지 한 통을 남겨놓았다. 이 편지는 셀리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에게 답장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님께,

선교사님께서 내 아들 진에게 보낸 편지는 크리스마스 경에 내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매우 바빴기 때문에 며칠 이내에 답장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한쪽으로 치워두었는데, 그만 그것을 잘못 두게 되어 오늘에야 비로소 그 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국에 건너간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드러난바 대로 도쿄 주재 커닝햄 선교부의 감독아래 허락된 부정직과 비기독교인다운 행위들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은 매우 유감스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때의 일을 되돌아본다 해서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본국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중대한 사유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유는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꼬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1) 영문편지와 셀리 가족의 사진은 배도은(Gorden Patten)선교사가 김찬영 목사에게 제공한 것이다.

우리는 1935년 2월에 샌프란시스코를 배로 출발했고, 그해 11월에 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지역에서 2개월가량을 보냈지만, 선교본부는 서울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몇몇 설교자 자료를 찾게 되기를 바라면서 매우 훌륭한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여 가르쳤습니다. 이 성경공부 반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세 명이 서울 변두리 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울과 도쿄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을 문서형태로 미국에 가져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커닝햄이 존 체이스의 이력에 깔아 놓은 먹구름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줄을 권 자들에게(후원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던 후원을 체이스에게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이스는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채로 독립적으로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 일로 여기서 일 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설교했던 회중(group)의 사진을 동봉합니다. 제 처인 쉐리 부인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김 선생으로서 제주도 많이 교육도 많이 받은 기독교인이었으며 저를 얼마간 도왔던 분입니다. 그는 그곳 공립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제 왼쪽에 앉은 사람은 지금은 죽고 없는 딸 레이첼입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앉은 사람이 이인범입니다. 이인범은 커닝햄의 요즈야 선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설교자였습니다. 목사(Rev.)라는 말은 사진을 만든 한국 사람이 생각해서 쓴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서 진행되는 선교사역에 대해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풍성하게 복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바이다 오레곤에서 1963년 1월 23일  
제이 마이클 쉐리 드림<sup>2)</sup>

## 2. 힐 요한 선교사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역사<sup>3)</sup>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를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지난 수년간 느끼고 있었고, 또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된 그 어느 선교사보다 한국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비록 있어서 좋을 자료를 손

2)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3) 글: 존 J. 힐, 再譯: 조동호(1999.3), 初譯: 『세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필자와 선교사부부 (재인물)

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이 일을 지금부터 나는 내 기억에 의존해서 짧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아마 나중에 좀더 정확한 교회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은 필자가 한국인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다는 미국 선교사의 한 관점에서 기록한다는 점을 또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교회사에 적어갈 사실들을 언급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솔직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었을 당시, 아마 1939년이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일본 동경에서 활동했던 W. D. 커닝햄 선교사 부부의 일생기(一生記)를 적은 책, 『타오르는 횃불』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 책은 커닝햄 선교사의 한국 선교에 관한 부분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커닝햄의 부인과 오웬 W. 스틸의 부인이 그 책을 쓴 것 같습니다. 『타오르는 횃불』은 일본 거주 "독립"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초기, 적어도 아주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커닝햄 선교사가 어떻게 해서 1907년에 일종의 선교사 대회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을 여행하게 되었는가와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들러서 아마 몇몇 그룹에서 설교하게 되었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온 한 한국인 젊은이가 한국 서울에 있는 YMCA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부부 필자와 커닝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첫 전담 전도자는 동경주재 커닝햄 선교부(또한 요츠야 크리스찬 미션이라고 부름)와 손을 잡고 일해 왔던 어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1924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왔고, 곧이어 한국에 일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필자가 1939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들 일곱 교회 가운데서 인천에 있는 두 개 교회와 서울에 있는 한 개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인범은 한국인 전도자였으며, 커닝햄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분 같았습니다. 그분이 앞에서 언급된 일곱 교회를 세운 초기

전도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1939년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사역한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는 마이클 셸리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셸리는 1934년경에 그의 아내와 딸과 함께 한국에 와서 9개월간 머문 것으로 압니다. 셸리 가족이 그렇게 빨리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딸의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셸리 형제는 오리건 주 메드포드에서 목회활동을 해왔으며, 아마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1939년 이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또 다른 가족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출신의 토마스 G. 히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세워진 커닝햄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1939년 6월경, 필자의 가족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히치와 그의 부인 그리고 딸 엘리스를 만났지만, 그 당시 그들은 한국을 떠날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39년 여름이나 가을에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압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이인범이 매우 정직하지 못했으나 그 사실을 일본 동경의 선교부는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이거나 후에 이인범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버리고 장로교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국에 크게 공을 세운 선교사는 1936부터 1940년까지 약 4년 동안 사역했던 요한 T. 채이스였습니다. 채이스는 일본 동경에 있는 커닝햄 선교부에서 약 7년간 일해 왔었는데, 커닝햄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해고를 당한 후 그의 선교부를 떠났습니다. 1939년 필자를 한국 선교사로 발탁한 분이 바로 채이스였습니다. 채이스 부부는 1936년에 세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서 1940년 5월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아이 한 명을 더 낳았습니다. 채이스는 서울 게이조 쇼계추조 32-6번지에 위치한 큰 고가와 대지를 영국해외성서공회로부터 사들여 그곳에서 "기독교회 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선교부 지하실에서 성경학교를 열었고, 1939년에 약 10여명의 남학생이 등록하였습니다.

채이스와 함께 일했고, 그를 도와 서울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던

초기 한국인 지도자들은 최상현, 김요한, 성낙소, 박관조, 김문화였습니다. 1939년 필자 부부가 한국에 왔을 때, 기독교회 선교부에 서울 전역에 걸쳐 교회가 다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일 년 안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 초기 교회들은 돈암동, 신당정, 내수정, 청량리, 산돈암동에 있었으며, 나중에 백낙중 목사가 시무했던 왕십리에 하나가 더 세워졌습니다. 1940년 여름, 필자와 김요한에 의해서 새롭게 침례 받고 교인이 된 33인과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가 북한 동해안 초도리에 세워졌습니다. 후에 최상현이 협력하였습니다.

1939년과 1940년 필자는 처음으로 세 명의 한국인 소년을 알게 되었는데, 후에 한국교회와 고아원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수경, 최윤권, 노봉욱이었습니다.

1940년 가을, 채이스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필자가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다시 열었으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일본인 경찰이 선교부 마당에 들어서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경학교를 폐쇄하라고 시달하였습니다. 폐쇄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1월까지, 일본은 미국인 선교사들을 점점 더 탄압하였고, 그들의 특권을 박탈하였으며, 감시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940년 11월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짐을 꾸려 미국으로 돌아가도록 충고하였습니다. 필자 가족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11월 8일경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일 년이 조금 지난 후인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까지는 전쟁이 발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채이스는 1941년 봄에 한국에 건너와 몇 주간 머무는 동안 선교부 소유지를 전향섭에게 임대하였고, 전씨는 그곳에 난로공장을 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전씨에게 그 부지를 매입토록 강요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한국에서 모두 쫓겨 나갔습니다. 따라서 전씨는 그 부지를 선교부에 반환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채이스는 몇 차례에 걸쳐서 잠깐씩 한국을 방문하였지만, 그 부지를 되돌려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후 선교부 산하 초기 교회들은 단지 두 곳만이 남게 되었는데, 돈암교회와 후에 필운동 교회가 된 내수교회뿐이었습니다.

필자 가족은 1949년 2월 18일에 한국으로 되돌아왔고, 서울 연지



1949 한국기독교성서신학교

동에 살았으며, 세 자녀 즉 브루스, 버지니아, 수잔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서 신학교는 1949년 3월 15일 필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필자를 도와 신학교 교수로 봉직했던 분들이 최상현, 성낙소, 백낙중이었습니다. 수업은 연지동 집에서 이루어졌지만, 곧 이어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사직동 앞에 있는 필운동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70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새로 세워지기도 했고, 인간이 세운 교파 교단들로부터 신약성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남으로 동으로 서로 번져 나갔고, 우이동, 김포, 미아리, 신탄진, 부강, 심지어는 광주, 목포, 부산에까지 세워졌습니다. 김은석 목사는 나중에 세워진 이들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를 세우는데 공헌하였고, 미 공군 군목, 할 마르틴 목사를 통해서도 교육과 계몽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의 출석 인원은 60-70명 정도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한 침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쟁발발로 인해서 필자 가족을 포함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서울과 남쪽에 있는 그들 재산의 거의 모든 것을 갑작스럽게 버려야 했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필자 가족은 처음에 일본 후쿠오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바로 동경으로 옮겼고, 그 후에는 카루이자와와 센다이를 거쳐 동경 세타가야에 다시 돌아와 추루마키초에 있는 오래된 일본집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필자 가족은 한국에서 건너온 다른 많은 선교사들이 머무는 카루이카와에서 약 일 년 가량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필자는 1950년 11월 한국에 돌아와 5주 동안 머물렀고, 서울 장충동에 있는 임대 건물에서 성경학교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12월에 일본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중공군이 북한 공산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가하였고, 전투가 치열해졌으며, 수천 또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 7월 3일까지 남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필자도 바로 그 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필자는 부산에서 고아원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 뵈려고 갔었을 때, 그분은 필자더러 서울에서 시작하도록 권유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필자의 오랜 친구,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성수경을 찾았으며, 서대문 근처 송월동 32번지에 있었던 구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동행하였습니다. 전향섭은 탄환이 장전된 연발권총을 들고 우리를 쫓아왔으나 우리가 합법적인 재산 소유자임을 알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향섭도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약 일 년 후에 미국 대사관과 영국 해외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전씨를 몰아냈습니다. 그 대신 전씨는 정부가 일본인 자산에서 지불한 정착금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필자는 끝내 재산을 되찾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으며, 전쟁중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구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1951년 8월 4일 "크리스천 미션 고아원"으로 불린 첫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 없는 소년 소녀들 19명을 서울시 송월동 32번지에 위치한 부서진 선교부 건물에 수용하였습니다. 곧 이어 수용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성낙소 목사의 아들이었던 성수경과 최윤권의 누이를 불러 돕도록 했고, 나중에 대전 판암동 고아원의 총무가 된 박중현, 낸시홍, 안나, 안 여사, 김동수, 한길자, 요리사 신 여사 등 다른 사람들도 와서 도왔습니다.

우리의 서울 고아원이 시작된 지 얼마 못되어 이종만 형제가 인천에 고아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필자는 일정한 액수를 돕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한 힘껏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낡은 2층 학교건물에 수용하고 있어서 아주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세워진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90명가량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우리 선교부는 송씨의 감독아래 있는 대전 판암동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고아원을 더 세우는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그들 고아원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쟁 중에 4개의 고아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제로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그들은 몇 곳의 미군부대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필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일본에 가 있는 동안, 도날드 캠프스라는 한 공군병사가 서울 고아원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고향에서 발행되는 신문, [미네아폴리스 스타]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신문에 그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편지가 신문에 실리고 난 다음부터 고아들을 위한 헌옷 새 옷 보따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1천 보따리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전혀 새 옷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헌옷 가지 하나라도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선교부 건물 3층 넓은 다락에 쌓아두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분류해서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에 있던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인의리류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난 1955년까지도 옷 보따리의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1955년 한국을 떠나 1959년에 돌아

왔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필자는 미시간,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등지에서 목회를 했고, 미 육군 군목(중위, 후엔 대위)으로 미국, 필리핀, 일본에서 복무했습니다. 필자는 또한 버틀러 대학교 신과대학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중 또는 전쟁직후에 많은 수의 단기 선교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로버트 웨스트, 알렉스 빌즈, 제인 키넬트가 일본에서 왔고, 폴 잉그램(나중에 전 가족이 합류함)이 일본에서 왔고, 젊은 미혼 여성 두 명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리라 톰슨과 메리 루이즈 반힐 부인이 그들입니다. 리라 톰슨은 대부분 우리의 서울 고아원에서 일했습니다. 후에 부평으로 옮겨 그곳 고아원에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히람 힐러라는 상처한 미군과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아들을 한 명 낳았지만 미국에서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진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성이었습니다. 메리 루이즈 반힐은 대전으로 갔고, 그곳 판암동 고아원에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판암동 고아원은 송씨가 총무로 있었고, 나중에는 박중현이 총무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전염성 간염에 걸렸고, 요양하기 위해서 서울 선교부로 불리어 왔습니다. 리라 톰슨이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녀 또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 때문에 반힐 부인은 1955년 가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인 키넬트도 반힐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폴 잉그램 가족은 1953년에 한국에 건너와서 1954년말까지 있다가 한국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필자의 가족은 1953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1954년 여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신학교 건물이 보기 좋은 3층 건물로 송월동 선교부 건물 옆에 세워졌습니다. 미군 부대가 자재와 건축의 큰 부분을 맡아 주었습니다.

필자는 1955년 봄에 첫 부인을 비통하게 잃고 세 자녀들과 함께 1955년 7월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필자는 1956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제인 키넬트와 재혼을 했습니다. 제인은 중국, 미얀마, 일본에서 활동했던 노련한 선교사였습니다.

제인은 몰리 찬이라는 중국 고아 소녀를 비공식으로 입양하여 데

리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건너와 필자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현재는 결혼해서 인디애나 주에서 동독출신의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해롤드 테일러 부부와 두 아들이 중국을 떠나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1955년말 경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서울에서의 필자 가족의 선교사역을 인수받았습니다. 테일러는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해서 송월동의 선교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때문에 북서울 역천동에 새로운 부지와 건물을 구입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신학교가 거의 폐쇄상태에 있었습니다.

필자 가족이 한국을 떠난 후, 1957년에 리차드 래쉬 가족이 한국에 와서 서울의 테일러 부부와 함께 일했습니다. 수개월 후 그들은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수년간 머물면서 전도사역을 하고 있었고, 한국의 형제들이 그 지역에 몇 개의 새로운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63년경에 부산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 장성만 목사가 젊은 남녀 학생들에게 기술과 성경교육을 위해서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결정을 내린 후에, 자신들의 모든 일을 장성만 목사에게 넘기고 1971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알렉스 빌즈 가족은 1956년에 한국에 와서 부산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음악과 설교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려고 시도했고, 몇 채의 건물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라디오 사역을 돕도록 미국에서 몇몇 가족들을 데려 왔습니다. 1959년에 버어트 엘리스 가족과 조 세켈케 가족이 왔고, 플로라 매 구른지 양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크리스천 라디오 미션"의 심한 내분과 버어트 엘리스와 조 세켈케의 반대로 인해서 빌즈 가족은 한국정부로부터 결코 허가를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그들은 1961년에 미국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른지 양과 세켈케 가족도 벌써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버어트 엘리스 가족만이, 래시 가족과 장목사의 사역지로부터 꽤 떨어진 곳에 있긴 해도, 부산에 남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959년 여름에, 현재의 힐 제인과 거의 두 살이 된 아기 대니로 구성된 필자의 새로운 가족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두 달 동안 부산의 빌즈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대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9년 12월 1일, 대전 성서 신학교가 힐 요한과 힐 제인에 의해서 태어났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일 년 가량 후에 한국 성서 신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십중팔구 지속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한국 성서 신학교가 한국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였습니다. 서울 성서 신학교는 이전을 위해서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필자의 가족은 한국에 5년간 머물렀는데, 생애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성서 신학교 교수들로는 최요열, 이은수, 버지니아 힐, 딕 래시, 이신(이만수에서 이신으로 고침), 김이영(후에 김찬영으로 부름), 소교민, 김태수, 심영진, 김은석, 김치연, 김희영, 임춘봉, 박태규, 최용호, 김성철, 천명화, 프레드 호프만, 힐 제인 그리고 힐 요한(1959-1971년까지 교장 역임)이었습니다.

1959년 개교이래 한국 성서 신학교는 90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1969년 봄에, 대전에 새로운 신학교 건물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오는 (대부분의) 자금과 한국의 친구들로부터 오는 약간의 자금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1972년 늦은 봄이나 초여름까지는 완공되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한국 선교 30주년 기념일에 필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조 가맨으로부터 상당한 도움도 받았지만, 결국 김찬영과 그의 넉넉한 미국인 후원자들의 힘 있는 도움으로 1972년에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크게 성공적으로 사역한 또 한 분의 선교사는 조 가맨이었습니다. 조 가맨은 1967년 가을에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8년 초까지 김희영 통역과 함께 한국에서 많은 부흥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이 회심하고 조 가맨 형제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필리핀, 인도, 일본 등지에서 좀더 많은 집회들을 갖기 위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969년에 그의 새 부인 린다와 친구 폴 코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고,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간 필자의 가족을 대신해서 사역했습니다. 또 다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 가맨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으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전도팀은 조 가맨, 김희영, 심영진, 폴 코모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27,000불을 모금하였고, 심하게 화상을 입은 소녀를 미국으로 보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얼굴과 많은 피부이식들을 통해서 보기 좋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 가맨은 또한 새로운 신학교 건물을 위해서 5,000불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부인 린다와 어린 딸과 함께 선교사로써 이스라엘에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과 고아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1960년, 필자의 나이든 두 딸, 버지니아와 수잔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왔습니다. 오정리에 있는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버지니아와 수잔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지니아와 그녀의 형제 브루스는 미주리주 조플린에 있는 오자크 성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지니아는 1966년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아원은 "버지니아의 고아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대전 고아원에서 22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아들과 네 명의 교사 또는 보모들과 얼마간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버지니아를 위해서 일층짜리 건물이 보기 좋게 지어졌습니다. 필자 가족이 1969년에 안식년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버지니아도 이때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고, 미국에 남아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1971년 10월 7일 하비 벤저와 결혼하였고, 미주리 주 아스베리 루트 1번지에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관리하는 현지 에이전트로 지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1969년 11월 29일, 필자 부부는 엄마가 죽은 세 쌍둥이 한국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한 아이는 후에 죽었고, 나머지 링컨과 더그는 필자 부부가 양자로 입적하였습니다.

1963년 2월 20일에 딸인 티나 메이가 대전 선교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필자는 미국에 있는 한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필자 부부는 1964년 여름 안식년을 맞아 유럽으로 경유하여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가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유럽 여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파리에서 심카라는 작은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걸 타고 북유럽의 여러 곳을 관광하였고, 8월에 배로 미국에 부쳤습니다. 미국에서 일 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그 차를 이용하였습니다. 필자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국에 관해서 미국 교회들에 알리는 동안, 필자의 처와 네 자녀들은 미주리 주 조플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필자 부부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부산에서 딕 래시가 대전에 올라와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으며, 교수들과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업무를 살폈습니다. 그는 대전뿐 아니라, 부산과 강릉의 일을 모두 잘 해냈습니다.

필자 가족의 고아원 사역은 대전에 있는 "버지니아 고아원"의 설립과 유지뿐 아니라, 1959년 이후 세 곳의 다른 고아원들, 즉 88명의 어린이를 수용한 부산 흥 여사의 성광원, 현재는 영아원이지만, 90명에서 145명까지 수용했던 연무대의 에덴 보육원, 1951년 이후 인천에 세워진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고아원에 주는 지속적인 후원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필자 부부는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서울과 인천과 대전과 대구를 이어지는 네 개의 도시에서 고아원을 세우도록 도왔거나 운영하였고,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인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네 곳의 고아원을 세우도록 도왔거나 운영하였습니다. 많은 미국의 후원자들이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확보되었고, 그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전과 연무대의 에덴 보육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미국에 보내어져 새로운 미국인 양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매우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1962년 고든 패턴 가족이 서울의 해롤드 테일러 가족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서울 성서 신학교의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고든 패턴은 새로운 믿음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성서주석과 같은 많은 종교서적들과 많은 전도용 전단들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출판하고,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그의 한국에서의 가장 큰 업적일 것입니다.

프레드와 엘리 호프만 부부는 필자 가족과 김찬영 가족 그리고 한국 크리스천 미션 산하 한국 교회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1971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엘리는 오정동 미국 유치원에서 가르칩니다. 프레드는 한국 성서 신학교에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일과 고아원의 많은 일과 건물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그와 엘리는 한국어를 매우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대학과 종합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그들 자신의 민족을 섬기는 미국 선교사들로써 뿐



김찬영 목사와 패트 선교사

아니라, 본토 교회의 지도자들로써 섬기는 많은 한국인 젊은이들에 관해서 지면을 할애하고 마땅한 점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의 최윤권, 최순국, 안재관이 포함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우리 교단 신학교인 대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서울에 세운 이들입니다. 미국인 부인 패트와 두 아들 피터와 필립을 데리고

1970년에 한국에 돌아온 대전의 김찬영은 1972년 1월 21일 이후 지금 한국 성서 신학교의 새로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한국에 돌아온 이만수 혹은 이신은 대한 신학교, 이화 여자대학교, 연세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한국학생들은 신영기, 유근희 김희영 같은 이들이며, 부산의 장성만 목사도 신시내티 성서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부산에서 재학생 340명 규모의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산, 풍산, 장호원, 충주에 세워졌던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이들 가운데 두 곳이 자금부족으로 문을 닫아야 했지만, 수백 명의 가난한 소년 소녀들이 이곳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필자의 가족은 1939년부터 시작된 한국에서의 역사(歷史)를 마치고, 1972년 6월에 한국의 선교사역에서 은퇴하고, 모든 것을 본토 한국인들과 한국에 보내어질 젊은 선교사들, 만약에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 발견되고 모집되어 질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인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3. 췌이스 선교사(John Trawrick Chase)



1896년 한국에 온 췌이스 선교사 부부

췌이스는 1905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Louisville)에서 출생하여 다섯 살에 고아가 되어 숙모 집에서 양육되었다. 15세에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으며, 17세 때 존슨성서대학(Johnson Bible College)에 입학하여 신학을 시작하였지만, 1924년 신시나티 성서 대학으로 전학하여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그곳에서 와네타 스미스(Wahnetta Smith)양을 만나 결혼하였고,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1927년 3월에 일본에 도착한 췌이스 가족은 카닝햄 선교사 가족과 같이 7년 동안 일본에서 성경 공부 반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며 교회개척에 많은 힘을 쏟았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도 접촉이 잦았으며 카닝햄 선교사가 개척한 동경 한인 교회에서도 일을 했다. 췌이스는 카닝햄 선교부에서 사례비를 받고 일을 했는데, 일본에 온 지 7년만에 카닝햄 선교사와 사례비 문제로 다툰 후 면직되어 카닝햄 선교부와 결별하게 되었다.

카닝햄과 췌이스의 분열은 많은 파문을 던졌다. 선교부내에서는 미혼 선교사들(Farnham, Lemon, Schnen)이 사표를 냈고, 10개 처의 일본교회들은 선교부와 단절을 선언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한국에 파송된 초대 선교사인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y)는 카닝햄 선교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췌이스 쪽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췌이스가 한국에 선교사로 올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1963년 1월 23일에 해롤드 테일러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다.

1936년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 게이조 쇼게추조 32-6번지에 위치한 큰 고가와 대지를 영국 해외성서공회로부터 사들여 그곳에서 기독교회 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를 설립하였고, 지하실 방을 이용하여 성경공부 반을 열어 지도자들을 육성하였다.

미국에서의 목회경험으로는 루이지애나주 바톤 루지(Baton Rouge)

와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 도우니 레몬 그로브(Inglewood Downey, Lemon Grove)에서 목회활동을 했다. 은퇴한 후에도 필리핀 세부(Cebu)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미국에서는 설교자가 없는 교회를 찾아 말씀을 전하였다.

채이스는 세계 제2차 대전과 6.25동란과 같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 건너와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특히 그는 성낙소, 성수경, 최상현과 같은 분들을 환원시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지도자들 로써 평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39년에는 힐 요한을 발탁하여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하였으며, 김요한, 박판조, 김문화와도 함께 사역하였다.

1936년 10월 11일 한국에 도착해서 1940년 5월 떠나기까지 채이스 선교사가 한국에서 4년 동안(1936~1940)에 이룩한 선교 업적은 다음과 같다.

1. 선교부 설립 - 1936년 서울 게이조 쇼계추조 32-6번지에 위치한 큰 고가와 대지를 영국해외성서공회로부터 사들여 그곳에 '기독교 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를 설립하였다. 선교부를 설립함으로써 대내외적인 활동을 쉽게 할 수 있었다.

2. 성경공부 반 개설 - 채이스는 선교부 지하실에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였는데, 1939년에 약 10여명의 남학생이 등록하였다.

3. 가족의 증가 - 채이스는 한국에 와서 아이 한 명을 더 낳았다.

4. 구호품 전달 - 당시의 한국은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때였다. 미국의 성도들이 정성껏 모아 보낸 구호품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

5. 교회개척 - 1939년 힐 요한 선교사 내외가 한국에 왔을 때, 기독교회 선교부 산하 교회들이 서울에 다섯 개가 있었다. 또 채이스는 "한국에 교회당을!"(Chapels for Korea) 이라는 모금운동을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 주간지와 공동으로 벌렸는데, 성과가 좋아 1949년에 약 5만 불이 모금되었다. 이 돈은 교회 개척과 교회당 수리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채이스는 이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테일러 선교사에게 인계하였는데, 1957년 6월 미국에 보고 된 것에 의하면, 39교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채이스는 1941년 봄에 한국에 건너와 몇 주간 머무는 동안 선교부 소유지를 전항섭에게 임대하였고, 전씨는 그곳에 난로공장을 세웠다. 그 후로 채이스는 몇 차례 더 잠깐씩 한국을 방문하였다.

채이스는 전국 선교사 대회(National Missionary Convention)를 만든 창설 멤버들 중의 한 사람이며, 대회장직을 역임했다. 그는 또 교회연금제도(Church Development Fund)를 만든 창설이사였고, 산 요세 성서 대학(San Jose Bible College)의 이사였으며, 북미주 기독교인 대회(NACC)의 유지회원이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NACC로부터 감사패와 1984년 신시나티 성서 대학 및 대학원에서 동문회상을 수상했으며, 도우니(Downey) 시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시의 시의원직도 맡았다. 채이스는 1987년 12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로디(Lodi)에서 8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였다.

#### 4. 래쉬 선교사(Richard & Melba Lash)



래쉬 선교사

래쉬 선교사는 1957년 한국에 도착해서 약 1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테일러 선교사의 주선으로 한국말을 공부했고, 테일러 선교사가 교장으로 재직했던 서울 성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58년 5월 10일 강릉으로 선교지를 옮겼다. 당시는 도로 사정이나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자동차로 17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강릉에서 래쉬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고생이 많았고 자녀들과 부인도 병으로 고생이 많았다.

래쉬는 1958년 8월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장소를 마련하고 복음전도를 시작하였으며, 초등, 중등,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그 당시 대전에서 이름을 떨치던 김은석 목사가 강릉에서 집회를 열어 래쉬의 선교 일을 도왔다. 주문진 교회는 서울 성서 신학교에 다녔던 어느 여학생에 의해서 설립되어 자립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영동교회는 어느 석탄 광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1960년 래쉬의 선교보고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남자의 수가 70명이었고, 학생들이 약 150명 정도였다고 한다. 또 래쉬는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였으며, 부인 멜바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에 힘썼다. 래쉬의 통역은 최종목 씨가 맡아 수고를 했는데, 그는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 이후 래쉬 가족은 부산으로 선교지를 옮겨 장성만 목사와 함께 부산 주례동에 실업학교를 설립하였고, 이 학교가 나중에 경남공업전문대학과 동서대학교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결정을 내린 후에, 자신들의 모든 일을 장성만 목사에게 넘기고 1971년에 한국을 떠났다.

## 5. 테일러 선교사(Harold & Ada Taylor)



테일러 선교사 부부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오기 전, 1945~1946년경에 티벳(Tibet)족의 선교로 유명한 러셀 몰스(Russell Morses)를 도와 중국에서 선교한 경험이 있었고, 존 힐 선교사가 가정문제로 1955년 귀국하면서 테일러 부부와 두 아들이 일본에서 하던 선교를 그만두고 그 해 말에 내한하여 힐 선교사의 일을 이어 받았다. 그는 오자마자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해서 서대문구 송월동의 선교부 재산을 모두 팔았고, 그 때문에 북서울 역천동(현재 신사동)에 새로운 부지와 건물을 구입할 때까지 수년 동안 신학교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1955년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해서 미국에 보고한 한국교회 현황을 보면 교회가 65개, 교수가 1명, 고아원이 3개(서울, 대전, 부평)로 나타나 있다. 교인들의 교회 출석은 침례를 받은 사람보다 침례를 받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했다.

테일러는 신사동에서 다시 시작한 서울 성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역자를 양성하였고, 대전과 부평 고아원을 경제적으로 후원하였으며, 교회개척에도 힘썼다. 그는 또 그리스도의 교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선교부 재산을 관리하였고, 1957년에는 월간 『한길』(One Way)

을 창간하였다.

체이스가 『크리스천 스탠더드』와 함께 모금한 한국 교회당 설립을 위한 기금은 체이스가 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기금을 은퇴 때에 테일러에게 넘겼으며, 테일러는 이 기금으로 11개 처의 교회를 개척했고, 1개 처는 장로교회 건물을 매입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용했으며, 34개 교회가 신축 및 수리 보조금을 받았다고 테일러 선교사는 1957년 6월 미국에 보고하였다.

테일러는 1955년 이후 19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활동을 하였고, 모든 선교부 일을 후임자인 배도은(Gorden Pattern) 선교사에게 넘기고 1974년 은퇴하였으며, 미국에서 1976년 5월 15일 교회 제직소풍 중에 심장마디로 쓰러진 후, 오후 8시 13분에 별세하였다.



# 제9장

## 초기 한국인 목회자

정리 조동호 목사

### 1. 성낙소 목사(1890.5.16~1964.11.30)



성낙소 목사

성낙소(成樂紹) 목사는 1890년 5월 16일에 태어나 1964년 11월 30일 74세로 소천 하였다. 그는 일찍이 구국의 일념으로 홍주성 의병군에 가담하여 왜적을 물리치려 하였으나 기회를 놓치자, 구세군에 가입하여 이를 실현하려 하였으며,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던 애국지사였다.

성낙소 목사는 1927년 1월 1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 기독교회(基督之教會)를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1930년 5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커닝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요코하마시 미야다쵸 조선인 교회(横浜市 宮田町 朝鮮人 教會)를 섬겼으며, 1931년 9월 하순에 커닝햄 선교부로부터 조선 전 지역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고 귀국하여, 한 달 가량 고향에서 쉬고, 그 해 11월 15일에 서울로 상경하였고, 1932년 초, 조선 총독부 종교과 포교계에 교파를 '동경사곡 선교회 기독교의 교회'로 등록한 후, 각 지방에 교회를 설립하는 동시에 화수리 기독교회는 매월 순회하여 돌보았다. 동년(1932) 서울 종로구 내수정 106-1번지에 내수정 기독교회를 개척하였고, 1937년에는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9번지에 대지 42평 초가를 매입하여 필운동 기독교회를 시작하였으며, 그곳에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개설하여 이중만 목사, 강병천 목사, 설하운 목사, 성수경 목

사, 최순국 목사, 김규상 목사, 조충연 목사, 김종기 목사 등 많은 인재들을 교역자로 양성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맥을 잇게 하였다.<sup>1)</sup>

1940년 일제가 모든 신교 교파들을 일본기독교조선교단(日本基督教朝鮮教團)아래 통합하려 할 때에 모든 교단들이 이에 가입하고 신궁참배까지 하였으나, 성낙소 목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항거하신 분이요, 이에 모진 고문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의 가입과 신사참배로부터 건져내신 분이요, 한국동란 중에는 목숨을 걸고 공산군의 기독교민주동맹 가입강요를 물리치신 분이요, 남한의 한국기독교연맹에 조차 가입을 막음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치권에 이용당하는 것을 막고 신약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신 분이다. 1946년 8월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합동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함과 동시에 남한 각 교회에 발송하여 20여 개 교파의 30~50여명의 교역자들을 회집하여 6개월 동안 합동통일운동을 펼친 한국의 토마스 캠벨이요, 발톤 스톤이며, 신약교회의 순수성을 고수하고 지키고자 함에는 한국의 알렉산더 캠벨이라 할 수 있다.

성낙소 목사는 일찍이 한문과 역리학을 습득하신 분으로 육효(六爻), 사과(四課), 삼전(三傳), 기문(奇門), 태을(太乙), 홍기(洪奇), 골상학(骨相學), 한의학 등에 통달하였고, 뛰어난 의술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특히 사상의학에 능통하였다. 그는 환자의 표정과 음성, 눈빛, 외모와 성격을 통하여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였으며, 처방한 약을 약국에서 조제해 먹으면 영락없이 낫곤 하였다.

그는 찾아온 환자들을 천천히 진맥하는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교회 이야기, 일정 때 동방요배나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교계 지도자들이 버젓이 교권을 쥐고 휘두르는 반면, 이를 거부하다가 고문당하고 투옥되었거나 숨어 지내다가 해방을 맞이한 우국지사들은 오히려 소외당한다는 비판의 말썽을 하셨고, 구원을 받으려거든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1) 참고 :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역 및 성낙소 목사 자서전 제2~5장.

성낙소 목사는 성품이 강직하고 불의를 용납지 않는 정의로운 분이었으며, 작은 체구에서 품어 나오는 단단함이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와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보기 드문 달변가였다.

성낙소 목사는 목회자로서 자신의 가족보다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였다. 먹을 것이 없어 궁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약국을 부업하셨고, 식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성도들을 염려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베풀었다.

성낙소 목사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직도 역임하였다.

이렇게 성낙소 목사는 독립지사로, 한의사로, 자선가로, 교회개혁자로, 환원신학자로, 목회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 2. 최상현 목사(1891~1950?)의 생애와 업적<sup>2)</sup>



최상현 목사

최상현(崔相鉉) 목사. 문필가, 수난자, 호는 청송(靑松). 평남 용강군 신녕면 신덕리에서 생원(生員)시에 합격한 최치우(崔致祐)의 아들로 출생.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였고 진남포의 삼숭(三崇)학교를 거쳐 1912년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 1919년 3월 제1회로 졸업하였다(3월 25일이 졸업예정일이었으나 3.1운동으로 졸업식은 거행치 못했다). 졸업 후 동대문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여 1년간 시무하였는데, 이 무렵 그는 연희전문학교 조교수 및 동창회장을 겸임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영역하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 일로 일경에 체포되어 얼마간 구속되었다가 풀려 난 후 중국으로 망명, 북경의 연경대학에서 수학하다가 미국에 건너가기 위해 상해까지 갔으나 일경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그는 한동안 실의에 빠져 있다가 서울 협성신학교 하층 방을 얻어 종교서적을 탐독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1921년 3월 <동아일보>에

2) 『기독교대백과』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겨 온 것임.

<인물평정(人物評定)의 표준론(標準論)>이란 논문을 연재하면서 문필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특히 세계 위인들의 생애와 사상 연구에 심취하여 3권으로 된 『세계위인전』을 펴냈다. 감리교 협성신학교에서 펴내는 <신학세계>의 편집을 맡으면서 이를 통해 신앙 및 역사 교양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으며 1923년부터는 시 <고독으로 비애에>, <새로운 희망>,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소설 <타락자>, <목사의 흑색 너울>, <어떤 수요일 밤> 등을 발표해 최남선, 방인근, 전영택, 이은상, 임영빈 등과 함께 1920년대 기독교 문학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 사이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였고, 1929년 본처 사역자로 미감리회 조선연회에서 집사목사안수를 받았으며 궁정교회에 부임하여 목회를 시작하였다. 1931년 체부동교회로 옮겼으며 1935년 목회를 사임하고 성서공회 관계 일을 보던 중 1936년 일본에서 나온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체이스(John T. Chase)를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겨 체이스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서 환원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송월정(松月町)에 교리강습소를 개설하고 교설자(敎說者)양성에 착수하였으며 돈암동, 왕십리 그리스도의 교회(당시는 기독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했다. 일제 말기 요시찰 인물로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고 지하교회로 변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끌어 나갔다.



해방 후 미군정 아놀드 장관의 고문직을 맡았었고 공보과장으로 2년간 복무하였으며 1947년 돈암동교회를 다시 재건하여 시무하였다. 1950년 6.25사변이 터지고 그해 8월 공산군에 의해 납치된 후 행방 불명이 되었다. 유족으로는 윤모(潤模, 돈암동교회 장로), 윤권(潤權, 대한기독교대학교 총장, 목사), 윤환(潤桓, 장로), 윤기(潤基, 집사) 등 4남과 윤희(潤熙, 집사), 윤숙(潤淑, 집사), 윤옥(潤玉), 윤정(潤貞, 집사), 윤남(潤南, 집사) 등 5녀가 있다.

1981년 서울기독교대학교 내에 그를 기념하는 <최상현 목사관>이 건립되었다.

[주요저서]

경험의 종교; 近代之偉人近代之成功者, 1932; 조선청년의 활로, 삼광서림, 1930.

[역서]

죄인전도의 원칙, 1926; 대부흥가 핀니자서전, 1935; 기독교사회사상(공역), 1927; 신약전서총론(공역), 1932.

[논문]

인물평정의 표준론, 동아일보, 1921.3.31-4.5; 신앙의 표준, 신학세계 7.6(1922.12); 常識一叢, 신학세계 8.1-6(1923.1-12); 나의 묵은 일기와 경성지방교역자특별기도회, 신학세계 8.3(1923.6); 歐州宗教의 戰史, 신학세계 9.1-6(1924.1-12); 하늘의 뜻, 신학세계 10.1(1925.1); 인도의 성웅 간디의 성격과 그 주의주장, 신학세계 10.4-5(1925.8-10); 현대의 婦人文題, 신학세계, 11.1-4(1926.1-9); 유대인의 세계적 공헌, 신학세계 11.3(1926.4); 체코슬로바키아의 제 일대 대통령 마사릭, 신학세계 11.3(1926.7); 세계적 위인 아나톨 프란스, 신학세계 11.4(1926.9); 신앙의 위인, 신학세계 11.6(1926.12); 구도덕과 신도덕, 신학세계 12.2(1927.4); 오락과 노동, 신학세계 12.3(1927.6); 진리를 찾아서, 신학세계 14.2-5(1929.12); 현대인의 신앙, 신학세계 15.1(1930.1); 현대적 신앙, 신학세계 15.2(1930.3); 인생과 종교, 신학세계 15.3(1930.5); 요한 칼빈의 생애와 基事業, 신학세계 15.4-5(1930.7-9); 예수의 노동생활, 신학세계 16.1(1931.1); 찰스 핀니의 略史, 신학세계 16.2(1931.4); 무디 略史, 신학세계 16.3(1931.6); 조지몰러의 약사, 신학세계 16.4(1931.8), 나의 기독교관, 신학세계 17.1-5(1932.1-9); 종교와 이적, 신학세계 17.3(1932.5); 名葉詩篇講話, 신학세계 17.3-18.4(1932.5-1933.7); 종교와 기도, 신학세계 17.4(1932.7); 낙관주의론, 신학세계 17.5(1932.9); 歐米의 偉人婦人들, 신학세계 18.2(1933.3); 眞자유론, 신학세계, 18.4(1933.7); 인격과 기독교, 신학세계 18.4(1933.7); 자연미와 정신미, 신학세계 18.5(1933.9);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고 나서, 신학세계 18.5(1933.9); 감사절 설교, 신학세계 18.6(1933.11); 사도행전강해, 신

학세계 18.6(1933.11); 예수傳通俗講話, 신학세계 18.6-19.1(1933.11-1934.1); 예수의 목공생활, 신학세계 19.2(1934.3).

#### [참고문헌]

감신대사, 감리교회사, I; 감중년, 1931-34; 신학세계, 1921-34; 동아일보, 1921-35. 기독교사연구; 최윤권, 내가 본 아버지, 크리스찬신문, 1963.8.19; 한국복음신보, 1981.11.1; 최윤권 목사의 증언, 1984; 미감리회조선년회론, 1920.

### 3. 동석기 전도자(1881.4.6~1971.12.26)



동석기 목사

동석기 전도자는 1881년 4월 6일 함경도 북청에서 유교집안의 4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일찍이 서당교육을 받았으며 17세에 결혼하였다. 1904년 23세 때에 우연한 기회로 미국 하와이로 이민하였고,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과 게레트 신학교(Garrett Biblical Institute)에서 공부하였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 1913년 12월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14년간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3.1운동에 적극 가담한 죄로 복역한 바 있다. 그는 귀국 후 원주지방 순행 목사로 교역을 시작하였고, 이듬해에 인천 내리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여 교회당 안팎과 목사관 등을 수리하고 부속학교의 운동장을 확장했으며, 열성적인 목회로 교회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1917년에는 서울 마포교회, 1919년에는 수원의 남양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이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박희도와 수원지역 독립운동 책임자였던 김세환과 친분을 맺고 자주 조선의 독립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동석기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경력으로 영국과 미국의 외교관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고 세계정세에도 밝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 물결이 일어나는 상황 등을 박희도 등에 전달하는 구미 소식통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인물이 많지 않았던 터라 동석기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었다. 동석기는 자신의 관할 지역인 사강, 비봉 등지를 순회하며 교회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한편, 교인들에게 민족정신과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그가 목회하였던 수원지방이 3.1운동의 성역이 된 데는 그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던 것이다.

동석기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3.1운동 민족대표로 서명하였으나, 이후 33인의 일원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는 3월 1일 상경하여 오후 2시에 회집된 파고다 공원의 학생대열에 참가하였고, 선언식을 마친 다음에는 만세를 부르며 남대문으로부터 의주로, 정동 미국 영사관 앞, 대한문 앞, 광화문, 서대문을 거쳐 프랑스 영사관등지를 돌며 시위를 하였고, 미국 총영사관에 가서 당시 일어나고 있는 민족자결운동의 상황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전을 의뢰하다 검거되어 1919년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다.

동석기는 3.1운동의 참가로 1920년 부득이 남양교회를 사임하고 충남 청양교회에서 1922년까지 시무하였고, 자유로운 독립운동을 위하여 만주로 가서 봉천의 영고탑교회에서 1년간 목회하였다.

1927년에 다시 도미하여 순회하던 중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게 되었고, 신시내티 성서 대학원(Cincinnati Bible Seminary)에 입학하여 연구하면서 '환원운동사'와 교리를 명확히 파악코자 하였으며, "미국 환원운동의 초기 역사"(The Early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를 연구하여 1929년 졸업논문으로 제출하였다. 그는 거기서 대오각성하고 1930년 11월에 귀국하여 자기 고향 북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하였다(초리 함전교회, 덕성면 시흥리 교회, 수동리 교회, 수서리 교회, 하거서면 입자동 교회, 맹경시 교회, 증산리 교회 등).

그는 1935년 재차 도미하여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모금운동을 벌였다. 귀국 후 1939년 9월 서울 내수동 106번지에 작은 가정집을 교회로 마련하였다. 이것이 현재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이다. 해방 후 이북에 개척하였던 교회를 모두 잃자 남한에서의 환원운동과 교회 설립에 주력하였다. 6.25사변 이후에는 부산지방에서 활동하였고, 그밖에 지역의 교

회들을 후원하였다.

한편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최초로 1954년 5월에 데일 리차드슨(Dale Richardson)이 내한하였는데, 이 사람이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내한한 선교사였다. 그 다음으로 10월에는 헤스케일 체시얼(L. Haskiel Cheshir) 선교사가 내한하였는데, 이들은 다 동석기 목사의 주선에 의한 것이었다.

은퇴 후 말년에는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1971년 12월 26일 90세의 고령으로 소천하였다.

#### 4. 강명석 전도자(1897~1944.5.28)



강명석 목사

강명석 전도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후일 독일하여 관서학원(關西學院) 신학부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귀국 후 향리인 밀양에서 감리교 목사로 목회하던 중 감리교의 감독을 지낸 양주삼 박사의 주선으로 도미하여 테네시 주 내시빌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부(Vanderbilt University, Department of Religion)에서 공부하였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접촉하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은 다양한 교파의 교회나 신조에 따르기보다는 성서로 돌아가서 초대 교회의 순수성과 단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일 년을 더 머무르면서 프리드-하드만 대학(Freed-Hardman College)에서 '환원운동'에 관해서 예의 연구하였다.

강명석은 1936년 귀국 후,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아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 경주 그리스도의 교회, 경북 월성군의 동방 그리스도의 교회, 울산군 수동면 반천의 진양 반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1937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신당동, 동교정, 대현정 등에서 활발하게 개척을 하였고, 그 후 인천에 이르러 송림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열심 있는 복음 사역에도 불구하고 1944년 감리교회에서 시무하던 목회자가 찾아와서 교육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했으나

“미국에서 오는 선교 자금은 교회 개척”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그가 미국에서 오는 학교의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고 모함을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함한 목회자와 심한 언쟁을 한 후에 몸져 누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 때가 1944년 5월 28일 광복 일 년을 앞둔 때였으며,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 47세에 세상을 떠났다.

## 5. 김은석 목사(1902.5.14~1963)



김은석 목사

김은석(金銀石) 목사는 황해도 평산군 평산면 당구리 출생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성경을 학문적으로 탐구했다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독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체득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활동하며 전도할 때에 어느 누구고 간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 생겨 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크게 활약한 사람이

였다.

김은석은 원래 장로교 출신으로 중국등지에서 전도하다가 신사참배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자, 다시 한국에서 장로교 전도자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피해 왔다가 한국에서 더욱 압박이 가해지자, 증명 없이 일본에 들어가 노동판을 전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때부터 복음이 발산되기 시작하였다.

증명 없이 일본 땅을 밟았다는 이유로 늘 쫓겨 다니면서도 주일이 되면 교회나 교인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이 때 김명석 전도사와 박점상 목사를 만났고, 산구현 도구야마시 가스가조 8032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김명석이 25세 때에 일본에 건너가 탄광과 노동판을 전전하며 5년 동안 벌여 모은 돈으로 집을 한 채 사서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300명가량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는데, 일본 순사가 김은석 목사를 체포하여 관시청에 끌고 가서 문기를 가미사마가 더 높으냐, 그리스도가 더 높으냐고 물었고, 김은석은 가미

사마는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높다고 하여 무지한 고문을 당하였다.

김은석은 석방 후에도 항일 선동을 하며 전도를 하였고, 한번은 관시청으로부터 체포되기 직전에 교회순회를 나가버려 체포를 모면하였고, 또 한번은 1944년 초 고국에 계신 모친의 위독 소식을 듣고 귀국하는 바람에 체포를 모면하였다. 그 후 해방이 되었고, 한일해협이 봉쇄되는 바람에 일본에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전도하다가 장로교 청주노회로부터 부강교회를 파송받아 부임하면서 100회 집회를 선언하고 시작하여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일으키며 교회를 부흥시켰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노회로부터 자제하라는 명령이 시달되었다. 그러나 김은석은 자신의 부흥운동이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흥운동을 지속하였고, 결국 노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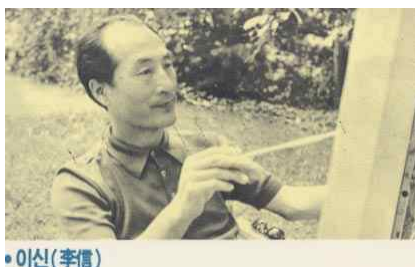
제명 이후 김은석과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김규상 목사의 모친 구집사의 집 대청마루로 예배처를 옮겨 수개월 모이다가 60평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김은석은 힐 요한 선교사가 서울 송월동에 세운 연경원(研經院)이라 부른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공부하였으나 성령론에 뜻이 맞지 않아 도중에 학업을 그만두고, 의견이 일치하는 신현창(申鉉昌) 장로와 협력하여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열어 뜻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이것이 그 원근의 교회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때로는 그 수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말씀은 영감적인 것이어서 배우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전도의 사명이 불붙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뜨거움을 체험한 사람들이 충청도 전라도지방에 나가 전도함으로써 충북 부강교회, 수리교회, 수룡교회 등 많은 개척교회가 생겼고, 타 교단에서 교회 전체가 환원운동에 참여하는 일도 많이 나타나 김은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된 교회들이 무려 80여 개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활동을 하다가 1963년 초반에 충남 여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946-1955년 초까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던 목회자들로는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심영진, 박점상, 김규상, 이원로, 김정만, 함창현, 김동렬 등이 있다. 이 밖에 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태수, 김철수, 김명석 전도사의 아들이자, 김은석 목사의 수양아들 김성철 등이 부강교회 출신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이며, 이신도 6.25때 광주에서 김은석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다. 이처럼 많은 인재들이 김은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목회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 6. 이신 목사(1927.12.25-1981.12.17)의 생애와 신학사상<sup>3)</sup>

### 1) 고독과 켄향의 신학자 이신(李信)



• 이신(李信)

『이신의 술리어리즘과 영의 신학』(이은선, 이경 위음. 종로서적, 1992)은 우리의 아버지요 스승이셨고,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한 술리어리스트 화가로서 그렇게 길지 않았던 생을 사셨던 고 이신(李信) 박사의 유고집이다. 1981년 12월 17일 오산리 순복음기도원의 한 좁고 쓸쓸한 방에서 운명하신 후 벌써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여전히 그분을 아프게 기리는 마음에서 이 책을 준비하였다.

그는 1927년 12월 25일 전라남도 돌산에서 아버지 이봉선 씨와 어머니 유금옥 씨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철저한 유교선비였던 그의 할아버지께서 이미 기독교에 입교하셨다고 하니 2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신 것이다. 그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소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으로 나와서 지금의 부산상고의 전신인 '부산초량상업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살아생전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때부터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당시 일본 사람

그는 1927년 12월 25일 전라남도 돌산에서 아버지 이봉선 씨와 어머니 유금옥 씨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철저한 유교선비였던 그의 할아버지께서 이미 기독교에 입교하셨다고 하니 2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신 것이다. 그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소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으로 나와서 지금의 부산상고의 전신인 '부산초량상업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살아생전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때부터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당시 일본 사람

3) 『이신의 술리어리즘과 영의 신학』(이은선, 이경 위음. 종로서적, 1992).

들에 의해서 세워진 부산시립도서관의 미술에 관한 책을 거의 다 읽으셨다고 한다. 해방을 맞던 해에 우리 어머니(정애)과 만나서 혼인을 맺으셨다.

우리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방 이듬해에 한 커다란 결정을 하였는데, 즉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신 것이다. 예술에 대한 탐구에서 얻어진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구는 그를 안정된 은행원의 자리에 묶어 둘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그는 가지고 있는 미술 도구를 모두 팔아서 서울로 향하였다고 한다. 1946년 봄 냉천동의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해서 1950년 6.25가 발발되기 직전에 어렵게 졸업할 수가 있었다.

졸업 후 그는 먼저 한국감리교회의 전도사로서 충청도 전의로 첫 부임을 떠났다. 그러나 곧 이은 6.25의 발발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 시기에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전환이라고 할 한 사건을 겪게 된다. 즉 그는 당시 충청남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여 뜨거운 성령의 바람으로 전개되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을 접하게 된 것이다. 모든 교파의 분열을 거두고 신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교회의 순결과 일치 운동에 깊이 공감하여 1951년 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된 것이다.

1980년 경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집자 측의 청탁에 의해서 쓰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전개"라는 글에서 보면, 그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발을 한국에서의 가톨릭교회의 출발과 비슷한 것으로 본다. 즉 전자는 후자가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이 선각자적인 한국 학자들(이벽 등)의 진리 탐구열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코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닌 바로 한국의 선각자적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 환원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로서, 1930년대 미국 시카고의 게레트(Garrett Biblical Institute)에서 공부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 고국에서 목회하던 중 다시 미국 순회 여행을 통해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을 접하게 되어 큰 깨달음으로 한국에서의 환원운동을 시작한 동석기 목사(1881-1972), 일본 관서신학교

에서 공부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 경남 밀양 등지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에 유학하던 중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하게 된 강명석 목사(1897-1944), 그리고 동학당과 구세군에로의 입교를 거쳐 거기서 백인 사관의 인종차별에 항거하여 탈퇴한 후 순수한 '기독교회'의 운동을 하다가 자신의 취지와 비슷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나게 된 성낙소 목사 등 3인을 들고 있다. 그의 '그리스도의 교회'에로의 환원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즉 모든 인간적인 종파와 교권적 권위를 버리고 본래적이고 순수한 것으로 돌아가자는 그의 순수함과 근원적인 것에로의 열망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열망과 환원은 그 이후로의 그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삶이 되게 한 주원인이 되었다. 이 환원과 더불어 그는 자신의 이름을 종래의 '이만수'(李萬修)에서 '이신'(李信)으로 고쳤다.

이상과 같은 역사를 가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을 50년대 초 광주 지방에서 김은석(金銀石) 목사 등의 뜨거운 '성경 연구회' 운동을 통해 만나게 된 아버지는 그 후 부여로 부임하신다(1955년 경). 그러나 거기서 그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의 성령 이해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즉 미국의 환원운동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과 단일성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에로의 환원을 위해 노력하긴 했지만 그들이 서구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너무 합리적으로 신앙의 영감적인 면이나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 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 환원하게 된 그로서는 동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미국에서 돌아오신 후 1974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계실 때 선포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에 보면, 이 부여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한국적" 교회, 선교사들의 외국 교회의 전통과 성서해석을 맹종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읽고 깨달은 대로 성서가 정말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신앙과 교회의 원형태를 추구하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 노력을 뚜렷이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에 물든 미국 그리스도 교회의 개교회주의와 메마른 형식주의에 반대하고 "유기체적 교회론"과 '성령 중심의 신학'을 추구한 그 나름의 기독교의 '한국 토착화' 운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 이후 잠깐 동안의 '서울 성서 신학교'에서의 활동, 그의 제2의 고향이 된 충북 괴산군 소수면에서의 목회 생활, 부산에서의 방송 선교 활동, 그리고 서울 돈암동에서의 목회와 대전 '한국 성서 신학교'와의 관계 등이 그가 1967년 미국으로 뒤늦은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의 활동이었다.

미국에서는 '네브라스카(Nebraska) 크리스천 대학'에서 신학사를 다시 취득하였고, '드레이크(Drake) 대학원을 거쳐 한국 감리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수학했던 내쉬빌의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원에서 1971년 8월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때 쓰셨던 논문이 "전위 목시문학 현상 - 목시문학 해석을 위한 현상학적 고찰"(The Phenomenon of Avant-garde Apocalyptic: Phenomenological Research for the Interpretation of Apocalyptic)로서 바로 자신의 모습과도 닮은 친구약 중간기의 창조적 소수인 '목시문학자'들에 대한 연구였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미국에서의 5년여 간의 시간이 그에게서 제일 안정된 시간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물론 부인과 네 명의 어린 자식들을 고국에 놓아두고 그들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했던 고된 시간이었기는 했지만 그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그림 창작도 할 수 있었고, 여러 번의 개인 전람회를 통해서 학비와 생활비도 조달하면서 커다란 경제적인 위협 없이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때 그린 그림들이 그의 귀국 후의 분실로 오늘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귀국 후 어려운 상황에서 그린 그림들과 도미 이전의 작품들이 남아 있다.

1971년 여름 한국 교회와 가족에 대한 강한 염려와 그리움으로 학위를 끝마치자마자 곧바로 고국으로 향하였지만,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후 10년 뒤 운명하기까지 철저히 겪었던 주변의 몰이해와 배척,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가난과 고독이었다. 처음 한국에 오서서는 미국 유학시 밴더빌트 대학에서 인연을 맺었던 이화여대 서광선 교수의 주선으로 이화 여자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였고, 중앙신학교, 그리스도 신학대학에도 나가셨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인연을 맺었던 해천 윤성범님의 '한국종교사학회'의 연구위

원으로 관계를 갖기도 했고, 또한 그분의 배려로 몇몇 대학에 전임의 가능성이 타진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의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아 위에서 밝힌 한국적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향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는 곧 무산되었고, 귀국한 후 첫 부임한 삼선동의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임원들로부터의 철저한 배신, 그리고 1965년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효창동의 '대한 기독교 신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간 강사 정도의 대우만 받으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직하셨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 장례식 절차에서 당시 그 학교에서는 그가 정식교수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학교장으로 모시는 것도 거절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 1975년 여름 설상가상으로 이제까지 우리와 그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명륜동 산동네의 무허가 집이 시(市)에 의해서 철거되자 그와 어머니는 결국 다시 그들 젊은 시절의 개척지였던 충청도 산골의 소수교회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집이 철거된 후 비를 피하기 위해 열기설기 판자를 엮어 묶었던 그 자리에서도 조그만 상을 펴놓고 책을 읽으셨다. 소수로 내려간 후 그는 부산으로 서울로 먼 길을 다니며 강의를 하였고, 그 극심한 수고로 당시 언니와 내가 이화 여자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가르치고 설교를 하셨다. 명륜동 산꼭대기의 가난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모아 놓고도, 뒤쳐진 시골 교회의 교역자들과 변방 교단의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서도, 또 돌아가시기 전 해에는 안양의 가난한 부녀자들과 노인들을 모아 놓고도 지성을 다해 설교하고 가르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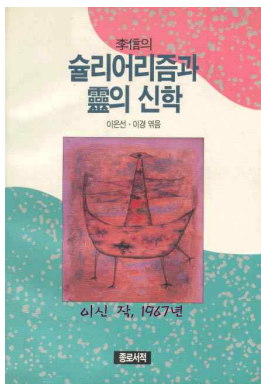
시골로 내려가셨다가 3년 여 만에 가까스로 서울 원효로의 고모네 집을 거쳐로 삼아 이사하신 후 돌아가시기까지의 3년 반의 시간은 그에게 무척 소중한 것이었다. 1979년에 그가 참으로 존경하던 러시아 사상가 니콜라이 베르자이예프(N. Berdyaev)의 『노예냐 자유냐』가 '인간사'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1980년에는 그가 60년대 초 부산에서 방송 선교하셨던 원고들이 『산다는 것, 믿는 다는 것』으로 묶

여져 나왔으며, 또한 당시 옛 동료였던 '하나님의 성회'의 한 목사님을 통해 '순복음 신학교'와도 인연을 맺어 거기서도 가르치셨으며 그 교회 청년 선교지 『카리스마』에 "카리스마적 신학"이란 제목으로 그분의 일생 동안의 삶과 사고로 영글은 참으로 독창적인 성령의 신학을 그나마 표현할 수 있었다. 1981년 여름방학 동안 20여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충청남도 논산군의 산골 독방이 마을로 여름캠프를 떠나셨는데, 거기서 자신의 모든 혼을 살라 넣는 것 같은 희랍어 강의와 설교, 그리고 그가 당시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던 베르자이에프의 또 다른 저서 『인간의 운명』의 번역 등으로 열악한 식사와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행군을 하여 거기서 병이 발발되었다.



그 후 운명하시기까지 4개월 동안 YMCA에서의 여러 번의 공개강의, 극동방송에서의 설교,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글들인 "삶과 죽음," "이단이란 무엇인가" 등을 남기셨다. 베르자이에프의 『인간의 운명』은 그 후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환 학장님의 수고로 완역되어 '기독교서회'에서 출간되었고, 그는 1981년 12월 17일 너무도 기이하게도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그의 장례 날에는 무척 많은 눈이 내렸고 오늘 일산 기독교 공원묘지에 누워 계신다.

## 2) 이신의 술리어리즘과 영의 신학



『이신의 술리어리즘과 영의 신학』(이은선, 이경 위음, 종로서적, 1992)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편의 부록이 첨가되었다. 제1부는 그의 학위 논문, "전위 목시문학 현상 - 목시문학 해석을 위한 현상학적 고찰"이 동생 경에 의해서 완역된 것이다. 이 제목이 잘 말하여 주듯이 이 논문은 우리에게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종의 비전문학적인 신구약 중간기의 '목시 또는 계시문학'(The

Apocalyptic)의 의식 세계를 현상학적으로 탐구한 것이다. 저자는 서론에서 "묵시문학은 모든 기독교신학의 모체였다"라고 한 독일 포스트 볼트마니언 신약학자 E. 케제만(E. Kasemann)의 말을 인용하면서 후세에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거나 단지 주로 '외경'으로 분류되어 비의적인 문서로서 전달되어진 '묵시문학' 안에야 말로 기독교 등장의 열쇠가 담겨져 있으며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적 역동성이 여기에서 근원되었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 즉 유대 묵시문학이란 바빌론 유수 이후 세계사적인 대변동의 시기였던 B.C 2세기경부터 형성된 것인데, 당시 정치적, 문화 종교적으로 더 이상의 희망을 포기한 소수의 히브리인들이 '에세네 공동체'나 '열심당' 등의 모습으로 섹트화 되고 '하시드 운동'이나 '마카비 전쟁' 등에서 자신들의 강한 현실 부정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절망적인 역사관을 표현한 것이고 또한 그 역사를 뛰어 넘어 도래할 '전혀 새로운 것' '초역사적인 것' '메시아적인 것'에 대한 초의식적 환상을 그려낸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소수들의 전위 의식과 저항의식 속에 후일 예수의 '인자'의식, '메시아 왕국'의식 등에서 표현된 기독교 신앙의 원형과 '원초적인 상'(premodial type)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묵시(계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한국 신학계에서 이 논문의 의의는 여러 가지로 생각될 수 있겠다. 오늘날 특히 종교다원주의의 상황에서 기독교 토착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때에 기독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묵시문학이 당시 유대의 유일신론, 바빌로니아의 우주론, 인도의 이원론과 헬레니즘, 그리고 특히 영지주의와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배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의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의 배타적 기독교 이해에 대해 좋은 반증이 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예수의 의식도 그 독특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묵시문학적 환경에서 영글은 것이라는 사실은 좀더 열려진 기독교 이해를 위해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와 함께 또한 중요한 의의는 저자가 이 논문의 목적으로 밝혔듯이 오늘날 세속화와 신의 죽음의 시대에 모두 퇴색해 버린 것 같은 '기독교의 역동성'을 그 모체의 탐색을 통해 재발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권위와 가치를

의문시하고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이라는 원형적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초월적 환상으로 표현된 묵시문학의 저항정신에서 기독교 예수의 원초적 메시지를 보고 그 지적을 통해 오늘날의 상황에서의 기독교의 동질성 회복을 추구한 것이다.

'술리어리즘의 신학'(Theology of Surrealism)이라는 제목하에서 엮어진 제2부는 이러한 저자의 기독교 신앙 이해가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확장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기록들의 모음이다. 위에서 소개한 논문의 후반부가 어떻게 현대의 신학과 문화현상에서 그 직접적인 연관성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묵시문학의 원형적 모습을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탐구일진대, "고독과 저항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키에르케고르와 본회퍼 연구는 바로 그들을 현대의 묵시문학자로 보려는 것이고, "전위 예술과 신학"은 원래 『기독교사상』지에 1972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그림이 있는 에세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인데 현대 전위회화(한국의 이중섭, 서양의 미래파, 초현실주의 등)와 기독교의 전위 의식을 접목시킨 전혀 독특한 작업이다. 1장의 "환상의 신학"은 1973년 9월의 『기독교 사상』 특집 "묵시와 상징"을 위해서 정리한 그의 학위 논문 발췌이다.

그러나 이 2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글은 그가 "술리어리즘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써내려 간 마지막의 두 편이다. 첫 번째 것은 저자가 미국에서 귀국한 후 2년여 후인 1974년에 1월 14일의 날짜 표시와 함께 기록된 것이다. 그의 독특한 필체로 백지의 두툽한 노트에 시작한 것을 보면 저자는 이 글을 계속 전개할 의도였던 것 같으나 애석하게도 겨우 시작에 불과한 "의식의 둔화"에 관한 몇 장의 글뿐 남겨져 있지 않다. 이 당시 그의 상황은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갈등으로 심한 고통의 시간이었으므로 그 전개가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저자는 그 몇 년 후 또 한 번 이번에는 다른 노트에 같은 제목의 글을 시도한다.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70년대 말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분량도 훨씬 더 많이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가 전개하고자 한 '술리어리즘의 신학' (Theology of Surrealism)이란 어떤 것일까? 그의 두 번째 글 초두에 그는 그것을

한 마디로 '영의 신학'이라고 규정한다. 그것은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의 말"이고, '영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술리어리즘의 신학이 이렇게 종전의 신학에서처럼 논리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언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영의 목소리'를 붙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의 합리적 신학방법으로는 안되고 먼저 회화나 문학에서 그 초현실과 초의식을 표현하려는 한 '술리어리즘'의 방법론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신학의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술리어리즘'이란 결코 한 '-주의'(主義, 이즘)이나 '방법론'(methode)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끊어 버리려는 것인데, 그리하여 그것을 오히려 일찍이 동양의 현자들이 깨달은 "無爲不言無爲無聲의 教" "不言之教"의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러나 그것은 동양과 서양, 무와 유의 구별도 초월하지는 것이고, 그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초월적인 또는 보다 더 본질적인 세계, 무의식의 세계라고 할까, 이때지네이션의 영역이라고 할까, 또는 '계시'의 영역인 영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그가 젊었을 때부터 관심하던 현대 회화나 A. 브르통(Andre Breton) 등의 시각을 매개로 하여 구축하려고 한 영과 초현실의 '술리어리즘의 신학'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가 세상을 뜬 후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서구 현대의 논리주의와 합리주의를 세차게 비판하는 '현대이후주의'(Postmodernism)의 논의가 불붙었고, 전통적 로고스 중심적인 신학에서의 신과 자아, 역사와 논리(책)를 모두 부셔 버리자는 '포스트모던적 반신학'(反神學, A Postmodern Atheology)이 등장한 이 때에 그의 '영의 신학'에로의 추구는 참으로 전위적이고 창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애석하게도 그러나 그의 이러한 '술리어리즘의 신학'은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전개되고 표현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책의 제3부에서 '성령의 신학'으로 묶어진 그의 마지막 때의 글들이 남겨졌다는 것이다.

이 3부의 두 번째 글 "카리스마적 신학"은 1980년 6월부터 그분이 돌아가신 1981년 12월까지 당시 '순복음신학교'를 통해 관계를 맺게 된 순복음교회 청년 선교지 『카리스마』지에 연재된 글들이다. 이제

까지 신학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독창적이고 전위적인 글이 당시 세인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던 한 이름 없는 잡지에 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아이러니는 어쩌면 오늘날에는 이 글의 의미를 더해 주는 것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신의 술리어리즘과 영의 신학』(이은선, 이경 역음. 종로서적, 1992)을 준비하는 동안에 필자는 이제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 글들이야말로 그가 시도했던 '술리어리즘의 신학'의 한 통일된 결정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조직신학이 아닌 '영의 신학'으로서의 '카리스마적 신학'은 그러나 그 안에 4단계의 구별을 보이는데, 즉 전통신학에서의 인식론에 해당되는 '카리스마적 해석학'의 3편, 그 다음 신론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의 3편, 이어서 기독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신뢰의 그루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과 교회론을 읽을 수 있는 '삶과 죽음'의 두 편이다. 이 글들은 또한 당시 의도적으로 띄어쓰기 문법을 거부한 형태로 쓰였는데, 이러한 파격에 대한 단순한 몰이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연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돌아가시는 12월에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게 되었다. 이 3부에서의 세 번째 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그분의 평생의 작업인 '영의 신학'을 향한 추구가 잘 드러나는 글이라 그 다음에 실었다.

이 3부의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그가 진정으로 평생을 거쳐 추구한 작업은 한 새로운 '영의 신학' '카리스마적 신학'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는 이 새 술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인 '카리스마적 해석학' 즉 그가 "원래 오랜 옛날 동양에서 짝 뜨고 후일에 서양 예술인들에 의해서 재인식되었다"고 파악한 '술리어리즘'의 방법론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그의 신학이 추구한 '초현실'과 '영'의 세계가 결코 단순히 이 세상 너머의 저 세상이 아니고, 역사를 부정하고 모든 현실의 갈등

과 분리를 없는 것으로 해 버리는 유아적이고 퇴폐적인 의식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유대 묵시문학 등에서 원형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초월의 선재적 성취를 확연히 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초월과 현실, 초월과 역사의 구분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 신학이란 바로 그 초월의 현재적 실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언어 사건의 더욱 더 지극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초월이 있기는 있으나 그 전(前) 모양으로 먼데 있는 초월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초월이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없는 세계에의 초월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면서도 우리가 의식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 눈 앞에 보고 있는 사물 가운데서 그 절대의 세계를 의식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하는 그런 경지인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의 주(主)이신 예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뢰의 그루터기'가 되신다는 것이다.

오늘날 전위 작가들의 '이벤트'(event)로서의 예술 활동이나 '포스트모던니즘'의 평범성, 일상성, 실천성으로의 방향 전환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의 이러한 '술리어리즘적 영의 신학'은 그러므로 그 성령 중심적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순복음 교회 등에서 일어났던 성령 운동의 오해와 위험성을 뚜렷이 지적하였고, 그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려는 신학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3부의 첫 번째 글로 실린 "현대신학과 성령론"은 1979년 5월 '순복음신학교 제27회 개교 기념 초청 강연회'에서 행한 연설의 기록인데, 여기서 그는 현대신학의 역사적 탐구를 통해 이제 신학이 과거 서구의 이론적이고 분석적이고 차갑고 정적인 '로고스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성령 중심의 신학'(Spirit-oriented Theology)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오늘의 성령 운동이 마치 성령을 한 방법론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세속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유물 내지는 알팍한 감정의 자극쯤으로 생각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이 3부의 마지막 글 "이단이란 무엇인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두 주전의 고통의 상황에서 마련된 것

인데, 여기서야말로 바로 그의 이와 같은 '정론'(orthodoxy)의 이론으로서가 아닌 '정행'(orthopraxis)의 가르침으로서의 '영의 신학'의 지향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이단의 문제는 바로 '실천의 문제'이며 오늘의 이단이란 예수의 화해 정신과 화해의 사건을 떠나서 분열과 분당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때 그분은 병이 다 나면 환자촌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되뇌어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전지구촌의 화합을 얘기하고 기독교회에서의 에큐메니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모든 기존의 갈등과 분리, 교리적인 싸움과 구분 등을 지양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교회를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가 되지 않겠는가? 단순히 기존하는 교단들 중의 한 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원형적 모습으로서의 한국 기독교회, 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바로 부록으로 엮어진 두 편의 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전개"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문"에 표현되어 있다. 그가 젊은 시절 그 마음속에 품었던 순수함과 본질적인 것에 대한 염원, 그 염원을 따라서 그는 '한국적 교회'를 시도하면서 한국 초유의 포스트모던니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조직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성서 원전에의 관심으로 '한국 원전 연구소'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삶과 사상은 한마디로 '고독과 저항'의 그것이었다.

# 제10장

##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

정리 조동호 목사

### 1.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이후 개신교 안에 분열이 심각해지면서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자각이 18세기 말엽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을 본궤도에 오르게 한 시발점은 미국 켄터키주(州) 부르본(Bourbon) 카운티(County) 케인릿지(Caneridge)를 중심으로 일어난 발톤 스톤(Barton W. Stone)의 운동과 펜실베니아주 워싱턴군을 중심으로 일어난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의 운동이다.

발톤 스톤의 운동은 1804년 6월 28일, 스톤과 그의 동역자들이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 접경지역에 흩어져 있던 15개의 교회들로 구성된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해체 선언하는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를



낭독하면서 시작되었고, 토마스 캠벨의 운동은 5년 뒤인 1809년 9월 7일, 캠벨이 56쪽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이란 문서를 낭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토마스 캠벨의 아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1788-1866)은 이 두 개의 운동을 하나로 묶고 발전시키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뛰어난 신학자요, 교육가요, 저술가요, 사업가요, 변론가였으며, 환원운동을 주창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최초의 목사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성서번역 사업

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을 남긴 신학자요, 베다니 대학을 세우고 가르친 교육가요, 출판사와 농장을 경영한 사업가요, 양의 품종을 개량한 영농가였으며, 무신론자이며 협동조합의 창시자인 영국인 로버트 오웬과의 토론을 비롯해서 천주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의 유력인사들과 모두 다섯 차례나 공개토론회를 가졌던 변론가였다.



이들 개혁가들이 활동했던 곳에는 지금도 그들의 유물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발톤 스톤 목사가 시무했던 케인릿지 예배당은 실내에 2층 발코니가 있는 통나무집으로써 1791년에 지어졌으며, 211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튼튼한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독방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통나무집이며,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견학장소이기도 하다.

유서 깊은 베다니 대학교 근처에 있는 캠벨 부자의 저택은 제20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당선 전에 한동안 유숙했던 곳으로 알렉산더 캠벨의 연구실 서재와 함께 보존이 잘 되어 있다. 특히 토마스 캠벨이 북아일랜드 리치 힐 소재 아호리 교회에서 사용했던 강대상은 1786년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탄탄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후 200년간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와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 그리고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총 3만여 개로 늘어났고, 이들 교회들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6백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가운데는 매주일 평균 2만 명 이상이 출석하는 거대한 규모의 '사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인의 교회'(Southeast Christian Church)를 비롯해서 1천명 이상 모이

는 대형교회들이 2백 개가 넘는다.<sup>4)</sup>

제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W. Reagan)과 제36대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Lyndon Baines Johnson)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배출한 인물들이며, 한국의 목회자들이 설교 때 예화로 자주 소개하는 제20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James A. Garfield)는 앞의 두 대통령보다 더 깊숙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120여권의 신앙서적의 저술가로서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맥스 루카도는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 목사로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저자이다. 그가 저술한 책들 가운데 100여권이 한국어로 출판되었고 인기리에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 2.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대표<sup>5)</sup>

번역 조동호 목사

### 1) 스톤(Stone)

1772년 12월 24일,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 출생.

1796년 봄, 설교자격증 취득, 오렌지 장로회(Orange Presbytery).

1798년 봄, 케인 릿지와 콘코드(Cane Ridge & Concord)에 부임.  
10월 4일, 트랜실베이니아 장로회(Presbytery of Transylvania)에서 목사 안수 받음.

1801년 케인 릿지(Cane Ridge) 대부흥회.

1803년 9월 10일, 켄터키 노회(Synod of Kentucky)에서 다섯 명 탈퇴.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 조직.

1804년 1월, 변증서(Apology) 인쇄. 6월 28일,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 발표.

4)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http://kccs.info>)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형교회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5) 출처: "Chronology,"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1824년 스톤(Stone)과 캠벨(Campbell)의 회동.

1826년 스톤의 *크리스천 메신저(Christian Messenger)* 창간.

## 2) 캠벨(Campbell)

1763년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탄생.

1788년 9월 12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탄생.

1796년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탄생.

1807년 5월 13일, 토마스 캠벨 필라델피아에 도착.

1809년 9월 29일, 알렉산더 캠벨 뉴욕에 상륙. *선언과 제언(Declaration & Address)* 출판.

1811년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 조직. 6월 12일 캠벨 가족 침수세례 받음

1813년 가을, 브러시 런 교회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

1823년 알렉산더 캠벨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 발간 시작.

1824년 조지타운(Georgetown)에서 알렉산더 캠벨과 스톤의 회동.

1824(-1829) 알렉산더 캠벨 '옛 질서(사도전통)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기사 연재 시작.

1827년 월터 스코트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Mahoning Baptist Association) 소속 복음전도자가 되다.

1829년 캠벨과 오웬의 토론대회(Campbell-Owen Debate).

1830년 12월 25일,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 해체되다.

1830년 알렉산더 캠벨 *새천년 왕국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 발간 시작.

## 3) 연합운동(The United Movement)

1831년 12월 렉싱턴(Lexington)에서 스톤의 그리스도인들(Christians)과 캠벨의 개혁가들(Reformers)이 연합 회동. 1832년 1월 1일 연합.

1836년 영국 노팅햄(Nottingham)에 제임스 윌리스(James Wallis)가

그리스도의 교회(a Church of Christ) 설립. 베이컨 대학(Bacon College) 설립.

1837년 1월 13-17일, 캠벨과 퍼셀의 토론대회(Campbell-Purcell Debate).

1840년 베다니 대학(Bethany College) 설립.

1841년 베다니 대학 개교.

1843년 캠벨과 라이스 토론대회(Campbell-Rice Debate).

1844년 11월 9일, 미주리 주 하니발(Hannibal, Missouri)에서 스톤 사망

1849년 오하이오 주 신시나티(Cincinnati, Ohio)에서 제1회 전국 대회 개최. 미국 크리스천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캠벨 회장에 피선.

1851년 최초의 선교사 제임스 T. 바클레이(Dr. James T. Barclay) 박사 예루살렘에 도착.

1854년 토마스 캠벨 베다니에서 사망.

1855년 톨버트 웨닝(Tolbert Fanning)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 출판 시작.

1856년 *아메리칸 크리스천 리뷰(American Christian Review)* 시작.

1863년 *가스펠 에코(Gospel Echo)* 시작. (후에 *크리스천 에반젤리스트(Christian Evangelist)*로 개명.)

1866년 알렉산더 캠벨 베다니에서 사망.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 시작.

1874년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위원회(Christian Woman's Board of Missions) 조직.

1875년 해외 그리스도인 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조직.

1884년 오스틴 맥게리(Austin McGary) 텍사스 주 오스틴(Texas Austin)에서 *견고한 토대(Firm Foundation)* 발간 시작.

1889년 샌드 크릭(Sand Creek)의 '제언과 선언'(Address and Declaration).

1891년 제이 엠 맥칼랩(J. M. McCaleb) 선교사 일본에서 장기 사

역 시작.

1891년 내쉬빌 성서학교(Nashville Bible School) 설립. 후에 데이비드 립스콤 대학교(David Lipscomb University)로 개명.

#### 4)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es/ Disciples of Christ)

1907년 제자들은 연방 교회 협의회(Federal Council of Churches) 창립 멤버가 되다. 후에 전국 교회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로 개명.

1909년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백주년 대회 개최.

1910년 그리스도인 연합 위원회(Commission on Christian Union) 창립. 후에 그리스도인 일치 협의회(Council on Christian Unity)로 개명.

1917년 국제 그리스도의 제자들 대회(International Convention of Disciples of Christ) 및 전국 그리스도인 선교대회(National Christian Missionary Convention) 조직.

1919년 연합 그리스도인 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회들 통합.

1920년 개방 멤버십 논쟁(open membership controversy) 시작.

1921년 전(全) 캐나다 위원회(All-Canada Committee) 형성.

1925년 그리스도인 환원 협의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창립.

1927년 제1회 북미주 그리스도인 대회(First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개최.

1930년 그리스도의 교회 세계 대회(World Convention of Churches of Christ) 조직.

1934년 그리스도의 제자들 재연구 위원회(Commission on Restudy of the Disciples of Christ). 1949년 종결.

1941년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사학회(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설립.

5)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Churches of Christ)

1947년 버리스 버틀러(Burriss Butler)가 편집자로 있던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가 “신실한 자들의 명예 명부”(Honor Roll of the Faithful, 의견을 달리하는 보수주의 제자들 교회들의 명부) 작성 시작.

1955년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위한 개별 목회 주소록 발행.

1959년 내부 일치 협의(Consultations on Internal Unity) 시작.  
1966년까지 지속됨.

1971년 *미국 교회 연감(Yearbook of American Churches)*에 하나의 종교단체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및 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로 개별 목록 등록.

1984년 제1회 환원 포럼을 미주리 주 조플린(Joplin, Missouri)에서 개최.

1999년 스톤-캠벨 회담(Stone-Campbell dialogue) 시작.

6)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 Churches of Christ)

1959년 내부 일치 협의(Consultations on Internal Unity) 시작.  
1966년까지 지속됨.

1960년 형제애 재구성 위원회 공인(Authorization of Commission on Brotherhood Restructure).

1962년 교회 일치 협의회에 제자들 가입(Entrance of Disciples into Consultation on Church Unity/COCU).

1963년 학자들 패널 보고서 발간(Publication of the Panel of Scholars Reports).

1968년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를 위한 가(假)계획(Provisional Design) 채택.

1996년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동 글로벌 교역 위원회(Common Global Ministries Board) 결성.

1999년 스톤-캠벨 회담(Stone-Campbell dialogue) 시작.

### 7)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1902년 조지 필립 바우어(George Phillip Bower) *크리스천 에코* (*Christian Echo*) 시작.

1906년 1906년 종교통계조사(Religious Census)에서 개별 종교 단체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인정. 차일더즈 고전 대학(Childers Classical Institute) 설립. 후에 아빌린 크리스천 대학교(Abilene Christian University)로 개명.

1916년 R. H. 볼(Boll) *말씀과 사역*(*Word and Work*) 편집 시작 (전 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대변하던 정기 간행물).

1938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와 클라우드 위티(Claude F. Witty)에 의해서 조직된 일치 모임 시작. 1947년까지 지속됨.

1941 내쉬빌 크리스천 대학(Nashville Christian Institute) 운영 시작.

1943 올랜 히스(Olan Hicks) *크리스천 크로니클*(*Christian Chronicle*) 출간 시작.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선교에 대한 붐이 일기 시작. 교회 설립 후원을 위해서 재원 조정을 허락(sponsoring church plan allows coordination of resources).

1949년 로이 코그딜(Roy E. Cogdill) 비제도 운동을 불러일으킨 (cause of the noninstitutional movement) *가스펠 가디언*(*Gospel Guardian*) 출간 시작.

1950년 텍사스 주 터렐(Terrell, Texas)에 흑인 그리스도의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사우스웨스턴 크리스천 대학'(Southwestern Christian College) 설립.

1952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전국 라디오 방송 '진리의 전령'(Herald of Truth) 시작.

1960년 칼 스페인(Carl Spain)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운영되는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정죄하는 연설함.

1963년 최초의 "엑서더스"(Exodus) 교회가 뉴욕 주 웨스트 이스립

(West Islip, New York)에 세워짐.

1964-65년 그리스도의 교회들 '뉴욕 세계 박람회'(New York World's Fair)에서 홍보 활동.

1967년 *선교(Mission)*지(誌) 출간 시작.

1984년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과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간에 '환원 수뇌 회의'(Restoration Summit)로써 환원 포럼(Restoration Forums) 시작.

1992년 *와인스킨즈(Wineskins)* 출판 시작.

1999년 스톤-캠벨 회담(Stone-Campbell dialogue) 시작.

### 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낙소 목사

한국에서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은 구세군 사관 출신의 애국지사 성낙소 목사(1937~1964)가 1927년 1월 1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 '기독교회'(基督之教會=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자생적으로 발생되었고, 1930년에는 일본에서 사역하던 미국인 선교사 커닝햄이 그곳 한국 유학생을 통해서 성낙소의 '기독교회'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성낙소를 일본에 초청하여 일년 반 동안 사역하게 함으로써 미국 그리스도인의 교회 소속 선교사 커닝햄과 채이스를 만나게 된다. 그 후 1931년 11월 15일 성낙소는 서울로 상경하였고, 다음 해 초에 조선 총독부 종교과 포교계에 교파를 '동경 사곡 선교회 기독교회'로 등록한 후, 각 지방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1932)에 서울 종로구 내수정 106-1번지에 '내수정 기독교회'를 개척하였고, 1937년에는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9번지에 대지 42평 초가를 매입하여 '필운동 기독교회'를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과 게레트 신학교(Garrett Biblical Institute)를 마치고 귀국하여 감리교회 목사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동석기(董錫祺)는 1927년에 재차 도미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신시내티 성서 대학원

(Cincinnati Bible Seminary)에 입학하여 환원운동을 연구하였다.

또 일본 관서학원(關西學院) 신학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감리교회 목사로 목회하던 강명석은 도미하여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부(Vanderbilt University, Department of Religion)에서 수학하였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접촉하게 되었고, 일년간 프리드-하드만 대학(Freed-Hardman College)에서 환원운동을 연구하였다. 이 두 사람이 귀국하여 '기독교교회'운동에 합류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발전의 물결을 타게 되었다.



동석기 목사

1930년 11월 8일 미국에서 돌아온 동석기 전도자는 그의 고향 함경도 북청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북청 주변 이곡면 초리에 함전교회, 덕흥면 시흥리교회, 수동리교회, 하거서면 임자동교회, 수서리교회, 맹경리교회, 진산리교회 등을 개척하였다.

1936년 미국에서 돌아온 강명석 전도자도 울산교회, 경주교회, 월성의 동방교회, 진양반성교회 등, 여러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웠고, 1937년에는 서울로 상경하여 신당정, 동교정, 대현정, 인천의 송현정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강명석 목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외국인 선교사가 입국한 것은 1935년 3월이었다. 그러나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 제이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은 딸 레이첼의 지병으로 그 해 11월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36년에 제이 마이클 셸리의 추천으로 일본의 커닝햄 선교부에서 사역하던 존 채이스 선교사 부부가 두 번째로 입국하여 선교사다운 사역을 감당하였다.

이후 70여 년간 교회는 400여개로 성장하였고,<sup>6)</sup> 서울에 그리스도 대학교와 서울기독교대학교, 대전에 한성신학교, 부산에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이 설립되어 교파를 초월한 많은 일군들을 배출하였

6)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2001년도 현황으로 보아 무악기 110여개, 유악기 290여개(협의회 230여개와 총회 60여개) 모두 합해서 400여개 교회가 된다.

다.7) 이밖에도 다수의 교육기관,8) 복지시설,9) 법인10) 등11)이 설립되었으며, 다수의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고 있다.

6.25동란 중에는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가 공산당원들에게 신덕철 전도사를 포함하여 25명의 소속 성도들이 교회당 근처 낮은 야산에서 총칼과 죽창 등에 찔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벧전 4:16) 순교하였다.



도미하여 신시내티 성서 대학원을 마치고 귀국한 장성만 목사는 부산에 경남정보대학과 동서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정계에도 진출하여 제11대, 제1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2대 국회에서는 부의장을 지냈다

지금은 뉴욕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정춘석 목사는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책 50여권을 집필하였으며,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와 "종이비행기"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교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권오정 목사는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에 속하여 민주화 투쟁에 몸담아 오던 80년대 중반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평화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무의탁 노인의 집인 평화의 집과 평화 영성수련원을 부인 오혜령(작가) 전도사와 함께 공동 운영하고 있다.



7) 그리스도대학교(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서울기독대학교(학교법인 환원학원), 경남정보대학(학교법인 동서학원), 동서대학교(학교법인 동서학원), 한성신학교(2000.12.21 학교법인 성령학원이 한민족학원으로, 교명이 한민학교로 변경됨. 교육부 인정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2학년 마치고 일반대학 3학에 편입 및 졸업 후에 대학원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4년제 학력인정대학).

8) 이광실업학교(유악기), 등촌중학교(무악기), 성경통신교육원(무악기), 한국목회연구원(협의회), 한성신학연구원(총회).

9) 지은어린이집, 에넌보육원, 인천보육원, 부평보육원, 필운어린이집.

10)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복음유지재단,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11) 평화의 집, 평화영성수련원, 평화의 전화상담소.



그밖에도 배구인 송만덕, 송만기, 박미희 성도, 연예인 현미, 조정희, 하청일, 김학준 성도, 예술인 조승미 교수, 이진경, 서차영, 한진섭 성도, 텔런트 김수미 성도, 발레리나 서채영 교수, 소프라노 강미자, 김경애 교수 등이 이강평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 영동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강평 목사는 배구선수 출신으로써 미국에 유학하여 운동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유학중에 미국 국가대표 여자 배구팀의 감독을 맡기도 하였다. 한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서울기독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글 조동호 목사

##### A. 1930년대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사

1930년대까지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사는 가장 초기에 속하는 운동사다. 이 시기의 운동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첫째, 자생적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들; 둘째, 일본 주재 커닝햄 선교사의 한국 선교를 위한 노력들; 셋째, 미국 유학파들의 활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국 선교사들의 활동들을 차례대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 1) 자생적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들

###### (1) 말콤 펜윅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으로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은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이었다. 그가 한국에 온 것은 1889년 7월이었다. 그는 캐나다에서 철물상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예배인도자 윌더(Wilder)로부터 사막에서 물을 구하다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선교사가 되었다. 윌더는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훌륭한 유리병에 물

을 담아와 유리잔에 부어서 그에게 준다면 그는 감사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낡고 녹슨 찌그러진 강통 밖에 없어서 그 속에 물을 담아다준다 하더라도 그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아 날 것이다.”고 하였다.

펜웁은 침례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자신은 교파의식을 떠나서 사역하였으며 그가 관계한 교회들은 ‘대한기독교회’로 알려져 있었다.

미국을 방문한 펜웁이 1893-95년 사이에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크라렌든가(街) 침례교회에서 얼마간 지냈는데, 썩(S. B. Thing)이란 집사가 외동딸을 추모하기 위한 뜻으로 선교회를 만들어 1895년에 6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였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선교자금 부족으로 1900년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이 하던 사역을 원산에 있던 펜웁이 넘겨받게 되었다. 펜웁의 노력으로 250여 개 교회가 설립되었고 만주와 시베리아에까지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1936년 펜웁이 죽은 이후로 1950년까지도 침례교와는 어떤 연관도 없었다. 다음은 펜웁이 쓴 자서전(The Church of Christi in Corea)의 일부내용이다.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셨고,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 지자 감독자들을 임명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간결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어로는 ‘대한기독교회’(Dai Han Kitock Kyouhay)였으며, 그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i in Corea)란 의미였습니다.<sup>12)</sup>

## (2) 한석진

한석진 목사는 1868년 평북 의주출생으로써 동향인(同鄉人) 백홍준과 서상륜의 전도를 받고 처음 기독교를 알게 됐고, 1891년 마펫에게 세례 받았다.

한석진은 자주의식이 강해 마펫의 조사(助事)로 일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감격하여 그 진리를 내 동족에게 전하는데 외국인에게 돈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로 선교사가 주는 봉급을 거절

12) 허긴, 『대한기독교회사: 펜웁 선교사의 자서전적 이야기』.

했고, 평양 장대현교회, 서울 안동교회, 마산 문창교회, 신의주 제일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한국인의 교회는 한국인의 힘으로 건축한다.”는 원칙을 고집했다고 한다. 또 1910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신문인 『예수교회보』 사장이 되어서는 신문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한국인들의 현금만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선교부 자금의 유입을 차단시켰다.

한석진은 200년 전 미국에서 토마스 캠벨과 발톤 스톤이 펼쳤던 운동과 마찬가지로 ‘교파주의’를 극복하려고 한 자생적 환원운동가였다.

한석진은 1909년 일본 도쿄에 유학생들의 한인교회를 설립할 때에 초교파적인 연합교회로 세울 것을 주장하였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본국교회를 설득하여 “일본에서만큼은 장로교나 감리교가 아닌 연합교회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만들어냈다.

한석진은 기회만 있으면 교파구별이 없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구체적인 예로 1915년 자신이 속한 경기총청노회에 ‘조선예수교장로회’란 교단명칭을 “조선기독교회로 바꿀 것”을 헌의하였다. 교단명칭에서 ‘장로’자를 빼고 보편적인 ‘기독교’ 명칭을 사용하자는 그의 헌의는 물론 부결되었다.

한석진은 목회말년에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 건립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1926년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1930년에 2층짜리 웅장한 돌집 수양관을 건립하였다. 기금은 한석진이 장로교회들을 순방하여 모은 것이었다. 수양관 간판을 달 때, 사람들은 당연히 ‘장로교 수양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모금은 장로교인들이 했지만 공간은 다른 교파 사람들에게도 공개하자.”며 ‘기독교 수양관’을 고집했고 결국 그대로 되었다.<sup>13)</sup>

### (3) 취택용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고

13) 이덕주, “한국교회의 자존심, 한석진 목사.”

전 1:24)는 목시를 얻었다면, 최태용(1897-1950) 목사는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는 목시를 얻었다.

10대 후반 수원농림학교 재학시절 기숙사에서 처음 기독교신앙을 접한 최태용은 어느 날 침상에 누우려 할 때에 홀연히 광명한 빛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네 몸을 바치라”는 가슴에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20대에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는 목시를 얻게 된다. 27살에 박동완, 전영택, 송창근, 강명석, 최상현, 채필근 등이 동인지처럼 펴내던 『신생명』(新生命)에 글을 발표하다가 28살에는 스스로 『천래지성』(天來之聲)을 펴냈다.<sup>14)</sup> 그는 이 신앙지에서 “사람은 다만 그리스찬이란 일흠 외에 무삼 딴 일흠으로써 신자를 부르기 십허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리스찬 이외의 일흠으로써 여배(余輩)를 부르라거든 여배(余輩) 또한 한 일흠을 제공하리라.... 여배(余輩)는 교회주의라는 것이 비진리오 악마의 오묘(奧妙)임을 주창한다.”<sup>15)</sup>고 하여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을 주창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의 한국인 선구자라 할 수 있다. 36살이던 1933년 9월 어느 날에는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물살이 센 큰 강을 건너는 꿈을 꾸고서 “소(小)하고 순(純)한 교회”를 세우라는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여 1935년 12월 22일 ‘기독교 조선 복음교회’를 창설하였다. 이 때 그가 제창한 표어가 “1)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어라. 2)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3)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여라.”였다.<sup>16)</sup>

#### (4)성낙소

성낙소(成樂紹) 목사는 1890년 5월 16일에 태어나 1964년 11월 30일 74세로 소천 하였다. 그는 일찍이 구국의 일념으로 홍주성 의병군에 가담하여 왜적을 물리치려 하였으나 기회를 놓치자, 구세군에

14) 강명석(관서학원과 밴더빌트대학 졸업)과 최상현(연희전문과 협성신학 졸업, 『신학세계』 편집)은 본래 감리교 목회자들이었으나 1930년 중반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공헌함.

15) “비교회주의자”, 『天來之聲』 17호, 1926. 10.

16) “우리의 표어”, 『영과 진리』 81호, 1935. 12.

가입하여 이를 실현하려 하였으며,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던 애국지사였다. 이 시기에 처가가 있던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곳 사랑채에서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를 시작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낙소 목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27년 정월 초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서 성낙소 자신이 기독교계를 시찰한바 기독교 각파가 기독교 정신의 골자인 박애(博愛)로 속죄구령의 목적을 충각(忠覺)하고 각기 자파(自派)의 교세만 확장하려는 동시에 자파가 아닌 교회는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농후함으로 상대하는 입장에 소원(疏遠)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성서 중 에베소서 4장 3~6절 말씀과 같이 칠종(七種)을 통일하자는 신앙으로, 첫째 몸도 하나요 하였으니, 몸은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킴이라(엡 1:23; 골 1:24). 교회의 명칭을 기독교의 교회라고 통일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복음으로 동민에게 전하였다.<sup>17)</sup>

그러나 안타깝게도 화수리에 세워진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는 그 소중한 역사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담임자 성낙소 목사가 서울로 옮겨가고, 처가도 세도면 해촌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만 문을 닫고 말았다. 성낙소의 처가가 이사 간 다음, 화수장로교회(기장)의 조용희 장로가 그 집에서 살았으나 지금은 헐리고 공터로 남아 있다.

## 2) 일본 주재 커닝햄 선교사의 한국 선교를 위한 노력들

### (1) 윌리엄 커닝햄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1864-1936)은 1901년 10월 1일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1902년에는 도쿄에 요츠야 선교회(Yotsuya Mission)를 설립하였고, 1903년 7월 5일, 1905년 4월 8일, 1906년 6월 9일에 각각 한 개씩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다섯 곳에 성경공부 반

17) 성낙소, 『자서전』 제2장.

을 운영하면서 300여명을 가르쳤고, 미국에서 들여온 인쇄기로 『도쿄 크리스천』(Tokyo Christian)이란 선교지를 발행하였다. 1930년까지 도쿄에는 10개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가 재일본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커닝햄이 한국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1907년 4월에 중국 상해에서 열린 선교사대회에 참석차 가고오던 길에 한국에 들리게 되고, 오던 길에는 몇 개 교회에서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1911년에 일본성도가 요츠야 선교회(Yotsuya Mission)에 한국교회 설립을 위해서 15엔 70전을 맡기자, 커닝햄은 일본 거주 한국인을 한국에 보내 이 돈을 쓰게 하였다.

1916년 커닝햄 선교부는 한국 선교의 거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며, 1923년(같은 해 9월 1일에 관동지역 대지진 피해로 사상자 2만, 가옥피해 6만, 일주간 조선인 6661명이 피살됨)에는 일본 요코하마시 미야다쵸 조선인 교회(橫濱市 宮田町 朝鮮人 教會)를 설립하게 된다.

1924년 10월에는 한국인 이원균을 한국에 파송하게 되는데, 힐 요한 선교사의 회고에 따르면, 1924년 일본에서 한국에 건너온 사람에 의해서 일곱 교회가 세워졌고(『타오르는 횃불』이나 『도쿄 크리스천』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힐 요한 선교사가 1939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들 일곱 교회 가운데서 인천에 있는 두 개 교회와 서울에 있는 한 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1930년 5월에는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를 시무하던 성낙소가 요코하마시 미야다쵸 조선인 교회(橫濱市 宮田町 朝鮮人 教會)에 부임하게 된다. 그리고 1931년에는 한국에 2개의 교회가 임대건물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한다.<sup>18)</sup>

『크리스천 온리-환원운동사』를 쓴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는 커닝

18)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한성신학교.

함 선교사의 한국선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짝막한 내용을 그의 책 204쪽과 340쪽에 실고 있다.

한국: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일본 주재 커닝함의 직접-지원 선교로 한국인들에 의해서 한국에 설립되었다. 12개의 교회들이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동란 중에 사라져버렸다. 한국에서의 현재의 사역은 800명가량의 교인과 7개의 교회들을 세운 존 채이스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9)</sup>

## (2) 이원균과 이인범

이원균(Li, Won Kyun)과 이인범(I. P. Lee)은 본래 교파 교인들이었으며, 커닝함이 1907년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친해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커닝함을 통해서 일본에 건너가 커닝함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으며, 한국에 파송되었다. 이원균은 1924년 10월에 한국으로 파송되었고, 이인범은 1932년에 파송되었다. 이인범은 한국 YMCA에서 일을 했는데, 한국에 머무는 동안 100여명에게 침례를 주었고, 몇 군데에 교회도 개척하였다. 커닝함은 이 일에 관해서 『도쿄 크리스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고, 한국 사람들은 와서 도와 달라고 간청해 오고 있으며, 우리들도 가고 싶다.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기를 절대적으로 원한다.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달렸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신약교회의 설립의 때가 왔다. 한국에는 2개의 큰 교파의 교회가 있는데, 이들은 성공하고 있지만, 이인범에 의하면, 인간적인 신조를 벗어나서 성경만 믿으려고 하는 무리가 증가하고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인범을 두 번이나 한국에 보냈다. 한국교회는 두 가지가 유명하다. 성경공부와 기도이다. 내가 한국에 가서 한번은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모인 숫자가 1,200명이었다. 참석한 자들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sup>20)</sup>

19)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pp. 304, 340.

20)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한성신학교.

**(3) 존 채이스**

7년간 커닝햄 선교부에서 일하던 선교사 존 채이스(John T. Chase)는 1930년 일본에 체류하는 성낙소 목사를 도왔으며, 1936년에는 성낙소의 목사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건너와 선교하였다.

**(4) 성낙소**

기독교교회가 창설된 지 3년이 지난 1930년에 기독교교회 출신의 한 청년이 일본 동경신학교에 유학하였는데, 커닝햄이 동경에서 30년째 기독교교회란 동일한 명칭으로 선교하는 것을 보고는 성낙소 목사를 그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커닝햄은 성낙소 목사에게 도항증(渡航證)과 배삐를 보냈고, 성낙소 목사는 1930년 5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커닝햄이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요코하마시 미야다쵸 조선인교회(横浜市 宮田町 朝鮮人 教會)를 섬겼으며, 이 기간에 존 채이스와 커닝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1931년 9월 하순에 커닝햄 선교부로부터 조선 전 지역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고 귀국하였다.

다음 해인 1932년 초에 조선 총독부 종교과 포교계에 교파를 '동경 사곡 선교회 기독교 교회'로 등록을 필한 후, 서울에 상주하면서, 각 지방에 교회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에 세운 기독교교회를 매월 순회하였는데, 이로써 화수리 기독교교회는 소속이 불분명한 자생교회란 옷을 벗고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옷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성낙소 목사는 1932년에 서울 종로구 내수정(혹시 106-1번지의 내수정 기독교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음), 계동, 공덕동, 청엽동, 인천 송현동 외 2곳과 평북 구성(平北 龜城)에 기독교교회를 1년 반 동안 7개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1937년에는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9번지에 대지 42평 초가를 매입하여 필운동 기독교교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인 1932년, 일본 커닝햄 선교부는 일방적으로 성낙소 목사를 해임하고 이인범(李寅範)을 조선포교책임자로 임명하였다.<sup>21)</sup>

### 3) 미국 유학파들의 활동(무악기)

#### (1) 동석기

동석기(1881-1972) 전도자는 1881년 4월 6일 함경도 북청에서 유교 집안의 4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일찍이 서당교육을 받았으며 17세에 결혼하였다. 1904년 23세 때에 우연한 기회로 미국 하와이로 이민하였고,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웨스턴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과 게레트 신학교(Garrett Biblical Institute)에서 공부하였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 1913년 12월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14년간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3.1운동에 적극 가담한 죄로 복역한 바 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3.1운동민족대표로서 명하였으나, 이후 33인의 일원이 되지는 못하였다.

1927년에 다시 도미하여 순회하던 중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게 되었고, 신시내티 성서 신학대학원(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에 입학하여 1929년에 "미국 환원운동의 초기 역사"(The Early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란 제목의 졸업논문을 쓰고 졸업하였다. 그는 거기서 대오각성하고 1930년 11월에 귀국하여 고향인 함경남도 북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개척하였다.

1930년 11월 29일 함경남도 북청에 「합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된다.

1931년 5월 14일 함경남도 북청에 「시흥리 교회」 설립가 되다.

1931년 5월 22일 일본에 있던 메칼렘 선교사가 내한하여 동석기 전도자를 도와 일하다. 31명에게 침수세례를 베풀다.

1932년 5월 22일 함경남도 북청에 「수동리 교회」가 설립되다.

1936년 10월 11일 함경남도 북청에 「임자동 교회」가 설립되다.

1936년 9월 서울에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다. 동석기 전도자는 1935년 도미하여 선교모금을 한 후 귀국하여 1936년 9월 서울 내수동 106-1번지에 작은 가정집을 교회로 마련한다. 이것이 내

21) 1960년대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후보 및 성낙소 목사 자서전 제2~5장.

수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이다. 초대교역자로 성낙소 목사가 부임하여 7명의 교인으로 출발하다. 다음 해인 1937년 성낙소 목사는 동석기 전도자와 갈라서 필운동 289번지의 대지 42평 초가를 매입하여 옮기고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를 열다.

동석기 전도자는 은퇴 후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1972년 90세의 고령으로 소천하였다.

## (2) 강문석

강문석(본명은 강명석/1897-1944) 전도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후일 독일하여 관서학원(關西學院) 신학부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귀국 후 향리인 밀양에서 감리교 목사로 목회하던 중 감리교의 감독을 지낸 양주삼 박사의 주선으로 도미하여 테네시 주 내시빌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부(Vanderbilt University, Department of Religion)에서 공부하였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접촉하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은 다양한 교파의 교회나 신조에 따르기보다는 성서로 돌아가서 초대 교회의 순수성과 단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일년을 더 머무르면서 프리드 하드만 대학(Freed-Hardman College)에서 '환원운동'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강문석 전도자는 1936년 11월 귀국 이후 1944년 5월 28일 47세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아래와 같은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1936년 12월 강명석 전도자의 장모되시는 전남 성도의 집에서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창립되다.(지금의 예배당부지는 1951년 12월 전남 성도가 자신의 사유 여관 10칸을 울산교회에 헌납하여 형성되다).

1937년 5월 서울에 「동교 교회」, 10월에 「경주 교회」와 서울 「대현교회」가 설립되다.

1937년 4월 14일자 [기독신보]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다.

1938년 3월 경남 진양에 「반성 교회」가 설립되다.

1940년 3월 인천에 「송림 교회」, 6월에 경북에 「동방 교회」가 설

립되다.

#### 4) 입국 선교사들의 활동과 협력자

##### (1) 마이클 셸리

제이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는 1935년 3월 중하순경에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이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같은 해 11월에 귀국하고 만다. 셸리는 선교본부를 서울에 두고, 북한지역에서 2개월가량 사역하였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제하에서 정부에 최초로 법적으로 등록하였으며, 성경공부 반을 만들어 가르쳤다.

아래의 글은 제이 마이클 셸리가 1963년 1월 23일에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에게 답장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님께,

선교사님께서 내 아들 진에게 보낸 편지는 크리스마스 경에 내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매우 바빴기 때문에 며칠 이내에 답장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한쪽으로 치워두었는데, 그만 그것을 잘못 두게 되어 오늘에야 비로소 그 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국에 건너간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드러난바 대로 도쿄 주재 커닝햄 선교부의 감독아래 허락된 부정직과 비기독교인다운 행위들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은 매우 유감스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때의 일을 되돌아본다 해서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본국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중대한 사유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유는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꼬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1935년 2월에 샌프란시스코를 배로 출발했고, 그해 11월에 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지역에서 2개월가량을 보냈지만, 선교본부는 서울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몇몇 설교자 자료를 찾게 되기를 바라면서 매우 훌륭한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여 가르쳤습니다. 이 성경공부 반에 참석했던 사

람들 가운데서 세 명이 서울 변두리 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울과 도쿄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을 문서형태로 미국에 가져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커닝햄이 존 채이스의 이력에 깔아 놓은 먹구름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줄을 권 자들에게(후원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던 후원을 채이스에게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이스는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채로 독립적으로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 일로 여기서 일 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바이다 오레곤에서 1963년 1월 23일

제이 마이클 셸리 드림.<sup>22)</sup>

## (2) 존 채이스

채이스(John Trawrick Chase)는 1905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Louisville)에서 출생하여 다섯 살에 고아가 되어 숙모 집에서 양육되었다. 15세에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으며, 17세 때 존슨 성서 대학(Johnson Bible College)에 입학하여 신학을 시작하였지만, 1924년 신시나티 성서 대학으로 전학하여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그곳에서 와네타 스미스(Wahneta Smith)양을 만나 결혼하였고,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1927년 3월에 일본에 도착한 채이스 가족은 일본 주재 커닝햄 선교사와 7년간 함께 일했으며, 한국에 파송된 초대 선교사인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y)의 지원과 성낙소 목사의 초청으로 한국 선교사로 옮기게 되었다.

1936년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시 송월동 32-6번지에 위치한 큰 고가와 대지를 영국 해외성서공회로부터 사들여 그곳에서 기독교회 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를 설립하였고, 지하실 방을 이용하여 성경공부 반을 열어 지도자들을 육성하였다.

채이스는 세계 제2차 대전과 6.25동란과 같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22)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한성신학교. 편지내용 번역은 조동호 목사의 것임.

한국에 건너와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특히 그는 성낙소(일본에서), 성수경, 최상현과 같은 분들을 환원시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지도자들로써 평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39년에는 힐 요한을 발탁하여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하였으며, 김요한, 박판조, 김문화화도 함께 사역하였다.

1936년 10월 11일 한국에 도착해서 1940년 5월 떠나기까지 채이스 선교사가 한국에서 4년 동안(1936~1940)에 이룩한 선교 업적은 다음과 같다.

- 선교부 설립 - 1936년 서울 게이조 쇼계추조 32-6번지에 위치한 큰 고가와 대지를 영국해외성서공회로부터 사들여 그곳에 '기독교 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를 설립하였다. 선교부를 설립함으로써 대내외적인 활동을 쉽게 할 수 있었다.

- 성경공부 반 개설 - 채이스는 선교부 지하실에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였는데, 1939년에 약 10여명의 남학생이 등록하였다.

- 가족의 증가 - 채이스는 한국에 와서 아이 한 명을 더 낳았다.

- 구호품 전달 - 당시의 한국은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때였다. 미국의 성도들이 정성껏 모아 보낸 구호품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

- 교회개척 - 1939년 힐 요한 선교사 내외가 한국에 왔을 때, 기독교회 선교부 산하 교회들이 서울에 다섯 개가 있었다. 또 채이스는 "한국에 교회당을!"(Chapels for Korea)이라는 모금운동을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 주간지와 공동으로 벌렸는데, 성과가 좋아 1949년에 약 5만 불이 모금되었다. 이 돈은 교회 개척과 교회당 수리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채이스는 이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테일러 선교사에게 인계하였는데, 1957년 6월 미국에 보고된 것에 의하면, 39교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채이스는 1987년 12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로디(Lodi)에서 8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였다.

### (3) 힐 요한(John Hill)

1939년 6월 힐 요한(John & Easter Hill) 선교사 부부가 입국하기

전인 1936년에 호주 멜버른 출신의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가 입국하여 동년에 귀국하였고, 1937년에는 오웬 스틸(Owen & Shirley Still) 부부가 입국하여 1941년 귀국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교사들은 크게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귀국하고 말았고 알려진 바도 많지 않다.

그러나 힐 요한 선교사는 1939년에 입국하여 1972년 6월에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귀국 직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약사(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를 기록의 남겼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커닝햄 선교사 부부의 일생기(一生記)를 적은 책, 『타오르는 횃불』을 읽고,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 또 그 책 속에 언급된 한국선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여기서 힐 선교사는 한국 선교의 시점을 1907년으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1924년에는 커닝햄이 보낸 한국인에 의해서 일곱 교회가 세워졌고, 힐 선교사 자신은 1939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들 일곱 교회 가운데서 인천에 있는 두 개 교회와 서울에 있는 한 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 교회들을 세운 사람은 이원균이지만, 힐 선교사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으며, 이인범은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커닝햄 선교부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이인범은 정직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실망으로 1935년 마이클 쉘리 가족과 1939년 호주 멜버른 출신의 토마스 G. 히치 가족이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힐 선교사의 회고에 의하면, 이인범은 세계 제 2차 대전 중이거나 그 후에 장로교단으로 넘어가 버렸다.

#### (4) 최상현

최상현(1891~1950?) 수난자이다. 호는 청송(靑松). 평남 용강군 신녕면 신덕리에서 생원(生員)시에 합격한 최치우(崔致祐)의 아들로 출생.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였고 진남포의 삼송(三崇)학교를 거쳐 1912년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 1919년 3월 제1회로 졸업하였다(3월 25일이 졸업예정일이었으나 3.1운동으로 졸업식은 거행치 못했다). 졸업 후 동대문교회 전

도사로 부임하여 1년간 시무하였는데, 이 무렵 그는 연희전문학교 조교수 및 동창회장을 겸임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영역하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 일로 일경에 체포되어 얼마간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후 중국으로 망명, 북경의 연경대학에서 수학하다가 미국에 건너가기 위해 상해까지 갔으나 일경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그는 한동안 실의에 빠져 있다가 서울 협성신학교 하층 방을 얻어 종교서적을 탐독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1921년 3월 <동아일보>에 <인물평정(人物評定)의 표준론(標準論)>이란 논문을 연재하면서 문필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특히 세계 위인들의 생애와 사상 연구에 심취하여 3권으로 된 『세계위인전』을 펴냈다. 감리교 협성신학교에서 펴내는 <신학세계>의 편집을 맡으면서 이를 통해 신앙 및 역사 교양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으며 1923년부터는 시 <고독으로 비애에>, <새로운 희망>,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소설 <타락자>, <목사의 흑색 너울>, <어떤 수요일 밤> 등을 발표해 최남선, 방인근, 전영택, 이은상, 임영빈 등과 함께 1920년대 기독교 문학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 사이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였고, 1929년 본처사역자로 미감리회 조선연회에서 집사목사안수를 받았으며 궁정교회에 부임하여 목회를 시작하였다. 1931년 체부동교회로 옮겼으며 1935년 목회를 사임하고 성서공회 관계 일을 보던 중 1936년 일본에서 나온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채이스(John T. Chase)를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겨 채이스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서 환원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송월정(松月町)에 교리강습소를 개설하고 교설자(敎說者)양성에 착수하였으며, 1937년 10월 15일 돈암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왕십리 그리스도의 교회(당시는 기독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했다. 일제 말기 요시찰 인물로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고 지하교회로 변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끌어 나갔다. 이 시기인 1937년에 조선총독부 관보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선기독교회」로 소개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 아놀드 장관의 고문직을 맡았었고 공보과장으로 2

년간 복무하였으며 1947년 돈암동교회를 다시 재건하여 시무하였다. 1950년 6.25사변이 터지고 그해 8월 공산군에 의해 납치된 후 행방 불명이 되었다.

## B. 1940년대 이후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1940년 3월 25일 김요한(金約翰/與範), 최상현(崔相鉉), 김문화(金文和), 성낙소(成樂紹), 박판조(朴判祚) 5명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졸업하다.

1940년 3월 인천에 「송림 교회」, 6월에 경북에 「동방 교회」가 설립되다(강명석, 교역자회).

1940년 가을. 힐 요한이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일본 경찰이 무허가를 이유로 폐쇄조치하다.

1940년 교회 명칭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기로 결정하다(성낙소, 강명석). <한학자(漢學者)였던 성낙소는 처음부터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란 명칭을 쓰고 있었고, 미국에서 공부한 강명석 전도자는 1936년 12월에 세운 「울산 교회」, 1937년 5월 서울에 세운 「동교 교회」, 1937년 10월 「경주 교회」와 서울 「대현 교회」, 1938년 3월에 세운 경남 「진양 교회」 등에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다. 미국에서 공부한 동석기 전도자도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라는 명칭을 썼다. 그러나 현 협의회와 총회가 소속된 미국의 독립 그리스도의 교회인 경우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1941년 채이스가 일제에 추방되면서 선교부 소유지를 난로공장 사장 전항섭에게 임대하다.

일제 말엽 조선총독부기록에 따르면, 경기도에 2개, 경북에 1개, 경남에 3개, 함남에 7개 교회들이 있었고, 교역자 5명, 신도 수가 1937년에 236명이던 것이 1941년에는 14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을 반대하고 받은 박해 때문이었다. 1940년 가을에 일제가 모든 신교 교파들을 「일본기독교조선교단」(日本基督教朝鮮教團)아래 통합시키려고 교파 수뇌들을 경

성 서대문 2정목(현 신문로 2가) 「피어선 성경신학교」 내 장로교 총회장 사무실에 모이게 하였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대표로 김문화, 최상현, 성낙소가 참석하였다. 모든 교단이 여기에 가입하고 신공참배까지 하였으나, 「그리스도의 교회」 대표들은 끝까지 가입을 반대함으로써 포교계를 취소당하고 고등형사실에 두 차례나 불려가 심문을 받고 구타당하였다.)

김득중 저, [한국종교사]에는 1943년 12월말까지 교회 6개, 교역자 6명, 신도 909명으로 기록되다.

1945년 김은석 목사 「부강장로교회」에 부임하다. 곧 이어 김교인 장로를 비롯한 일부 교인들이 김은석 목사와 함께 부강교회에서 나와 김규상 목사의 모친 구집사의 집으로 옮겼고, 수개월 후 옛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터로 옮기다. 1946-1955년 초까지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작된 「성경연구원」에서 공부하였던 목회자들로는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심영진, 박점상, 김규상, 이원로, 김정만, 함창현, 김동렬 등이 있다. 이밖에 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태수, 김철수, 김명석 전도사의 아들이자, 김은석 목사의 수양아들 김성철 등이 부강교회 출신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이며, 이신도 6.25때 광주에서 김은석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리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신학자겸 목사이다.

1946년 8월 「그리스도의 교회 합동선언문」을 발표하다(성낙소).

1949년 2월 18일 힐 요한 선교사 재입국하여 서울 연지동에 거주하다.

1949년 3월 15일 힐 요한 선교사는 중단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를 연지동 자신의 집에서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Korea Christian Bible Seminary)로 개교하다. (일제말 선교사들의 추방으로 송월동 선교부 재산이 체이스에 의해서 난로공장 사장 전항섭에게 임대되었고, 일본은 전항섭에게 강제 매각한 상태에서 재산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었다. 힐 요한, 최상현, 성낙소, 백낙중이 교수로 섬겼고, 동년에 학생들이 7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필운동 교회」로 옮겼다. 이종만, 강병천, 설하운, 성수경, 최순국, 김규상, 조충연, 김종기 등이 당시의 학생들이었다.)

1950년 11월 동란으로 중단되었던 신학교를 장충동 임대 건물에서 개교하다. (선교부 건물에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교회 수는 42개였다.

1951년 2월 제주시 삼도리 해변가에 「제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다(김광수).

1951년 2월 4일 부산 용두산 일대에 「부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신인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다(교역자회). (이 즈음에 울산읍 「태극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헌당예배를 드리다.)

1951년 봄.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를 조직하여 초대회장에 김은석 목사를 선출하다. 이 때 김재순(金在順), 창현 함태영(唱滋 咸泰英), 장주열(張周悅), 최요한(崔要漢), 이신(李信) 등이 최초로 목사안수를 받다.

1951년 함태영(창현) 목사가 사재를 들여 광주 사직동 공원입구(KBS방송국 앞, 2000년 1월 현재 치과병원이 들어 있음)에 일본의 적산가옥 2층집 을 매입하여 그리스도의교회를 개척하고 시무하다. 같은 교회건물에 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를 개설하여 김은석 목사, 이신 목사, 김태수 목사 등이 협력하여 환원운동신학강좌를 실시하다. 함태영 목사의 3제 함태중의 재정적 후원으로 신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다.

1951년 가을 함태영(창현) 목사가 충남 논산군 부적면으로 이주하여 충곡리그리스도의교회를 개척 시무하다. 같은 시기에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그리스도의교회를 개척 시무하다. 11월 15일, 신교리의 마을회관을 빌어 복음중학교(후일 후배 이춘식 목사가 인수하여 대명중학교로 개칭)를 설립, 피폐한 농촌 2세들을 교육하다. 3제 함태중과 계제 함태욱이 교회와 학교 일에 적극 협력하다. 복음중학교교사들의 식사문제 등으로 인해서 가족의 거소를 충곡리교회에서 신교리교회로 옮기다.

1951년 7월 전향섭으로부터 만 10년 만에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을 되찾다.

1951년 8월 4일 「크리스천 미션 고아원」으로 불린 첫 고아원을 선교부에서 시작하다. (1953년 이후에 부평으로 옮겨갔다.)

1951년 6.25동란 중에 대전 판암동(백청현)과 대구에 고아원(1954년에 폐쇄)이 설립되다.

1952년 2월 20일 「수정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되다(김광수).

1952년 4월 20일 부산 「염주동 그리스도의 교회」 헌당식을 갖다(교역자회).

1952년 7월 13일 강순명 전도자가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에 「천혜경로원」을 설립하다(교역자회).

1952년 8월 1일 이종만 목사가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인천보육원을 설립하다.

1952년 이신 목사는 부여 합송리로 이주하여 합송리그리스도의 교회에 시무하며 광주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를 이곳에 옮겨와 김은석 목사, 함태영 목사 등과 함께 신학강좌를 하며 기독교환원운동을 전개하다. 김확실 전도사, 정찬성 목사 등 많은 환원신학도를 배출하다. 부여 합송리 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에서는 <로고스(Λογος)>라는 환원운동신학잡지를 간행 전국 환원교회에 배포하다. 신학교는 1954년 전남 목포로 잠시 옮겨갔다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에서 개원되었다.

1953년 울산에 「신흥동 그리스도의 교회」(현,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되다(교역자회).

1953년 9월 16일 힐 요한 선교사가 돌아와 장충동에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를 재개교하다. 학생으로는 김종기, 최홍철, 김규상, 최순국 등 24명이었다.

1953년 가을 「도마기독교회」(대전 그리스도의 교회)가 손중심씨 집안방에서 개척되다.

1953년 9월 13일 김광수 등이 목사 안수를 받다.

1953년 영주동 그리스도의교회 부설 「승리모자원」이 부산에 설립되다(교역자회).

1953년 폴 잉그람(Paul Ingram) 선교사가 입국하여 1955년 귀국하다.

1953년 로버트 웨스트(Robert West) 선교사가 장충동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 교수로 입국하다.

1953년 제인 키넛(Jane Kinnett) 선교사가 장충동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 교수로 입국하여 1955년에 귀국하였다가 1959년 힐 요한 선교사와 결혼한 후 재입국하다.

1953년 하워드 데이비스(Howard Davis) 선교사가 신학교육을 위해 입국하다.

1953년 리라 힐러(Lila Hiller) 선교사가 입국하여 1956년에 귀국하다.

1954년 메리 루이즈 반힐(Marry Louise Barnhill) 선교사가 입국하여 1955년에 귀국하다.

1954년 5월 데일 리차드슨(Dale Richardson) 선교사가 입국하다(교역자회 최초 선교사).

1954년 6월 25일 성낙소 교감이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를 휴교조치하다. (1953년 5월경에 힐 요한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귀국하면서 폴 잉그람 선교사에게 제반업무를 인계하였는데, 연소하고 경협이 부족했던 잉그람은 힐 선교사 부인의 비행과 힐 선교사 개인의 결점까지 채이스에게 발설함으로써 분쟁이 일었고, 1954년 9월 하순 채이스 선교사가 내한하여 두 선교사 모두를 귀국 조치하였기 때문이다. 폴 잉그람은 1955년 1월 8일, 힐선교사는 1955년 7월 5일에 각각 귀국 길에 올랐다.)

1954년 6월 14일 유·무악기과의 연합 추진 모임이 개최되다(성낙소, 김진영).

1954년 후반기에 송월동 선교부 건물 옆에 신학교 건물이 3층으로 건축되다(힐 요한).

1954년 10월 헤스켈 체시어(L. Haskell Chesshir, 한국명 최수열) 선교사가 입국하다(교역자회).

1954-1955년 배도은(Gorden & Sharon Patten)이 미군으로 한국에 근무하다.

1955년 조국형, 성수경, 이종균, 함창현, 정희건, 최병권, 김태수, 김현숙이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를 졸업하다.

1955년 「한국 기독교 성서 신학교」를 「서울 성서 신학교」로 개명하다. 교장에 힐 요한, 교수에 조국형(趙國衡), 이신(李信), 김동렬(金

東烈), 김동수(金東洙), 김태수(金台洙), 김은석(金銀石) 등이 섬기다.

1955년 딸 테일러 선교사(Harold & Ada Taylor)가 힐 요한 선교사를 대신해서 입국하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송월동 재산을 처분하여 신사동(구 역촌동)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서울성서신학교」를 계속했으나 교사(校舍)문제로 1959년에는 휴교 조치하였다.

1955년 테일러가 미국에 보고한 한국교회 현황을 보면, 교회가 65개, 교수가 1명, 고아원이 3개(서울, 대전, 부평)로 나타나 있다.

1955 「그리스도의교역자회」(유약기)가 조직되고 매년 「그리스도인 대회」를 열다.

1955년 11월 20일 「광주 교회」(강순명 전도자)가 신축기념예배를 드리다(교역자회).

1956년 알렉스 빌즈(Alex & Betty Bills) 부부가 입국하여 부산에 라디오 방송국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허가취득실패와 선교사들간의 내분으로 귀국하다. 비록 방송국설립은 실패했으나 방송시간을 사서하는 선교방송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1956년 [기독교연감]에 실린 유약기 그리스도의 교회 수는 51개, 교역자 38명, 신도 1,905명이다.

1957년 래쉬 선교사(Richard & Melba Lash)가 입국하여 강릉과 부산지역(장성만 목사)에서 사역하다가 1971년 귀국하다.

1957년 4월 월간 [한길](One Way)을 창간하다(테일러).

1957년 플로라 매 구른시(Flora Mae Guernsey)가 「크리스천 라디오 미션」을 위해서 입국하다.

1957년 설하운, 채원석, 강순덕이 「서울 성서 신학교」를 졸업하다.

1958. 4. 19 체시어(L. Haskell Chesshir)가 「그리스도 신학 대학교」의 전신인 「한국기독교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원장에 홀튼(A. R. Holton) 선교사를 취임시키다. 신학과, 기독교사회사업학과 및 기독교교육학과를 두고 학생 19명을 선발하였다. 그 후 그리스도 신학대학의 학장이 된 하딩 박사(Dr. Harding)가 내한하여 체시어와 더불어 신학대학의 설립에 공헌하였다(교역자회).

1958년 주한 미국 중위였던 이철선은 최수열(체시어) 선교사의 설

득으로 동년 8월 31일 가족들을 입국시켜 「그리스도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한국기독학원」의 발전에 전념하다(교역자회).

1958년 박형후, 이성학, 신성우, 김정희, 강경자, 조춘자가 「서울 성서 신학교」를 졸업하다.

1958년 조 세겔케(Joe & Maxine Seggelke), 버어트 엘리스(Bert & Marjorie Ellis), 레이 굿드맨(Ray Goodman), 로버트 클레멘스(Robert Clemens)가 「크리스천 라디오 미션」을 위해서 부산에 입국하다.

1959년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축되다.

1959년 조충연, 김규상, 김진문, 박재관이 「서울 성서 신학교」를 졸업하다.

1959년 「서울 성서 신학교」가 임시휴교하다(태일러).

1959년 12월 1일 「대전신학교」가 개교되다(힐 요한). 1962년 9월 3일에 「한국 성서 신학교」로 개명되었다. 이 당시 이 신학교가 한국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였다. 역대 교수들은 최요열, 이은수, 버지니아 힐, 딕 래시, 이신, 김찬영, 소교민, 김태수, 심영진, 김은석, 김치연, 김희영, 임춘봉, 박태규, 최용호, 김성철, 천명화, 프레드 호프만, 힐 제인 그리고 힐 요한 등이었다.

1959년 부산 성광원(홍경채), 연무대의 에텐 보육원(노봉욱, 10월 15일 설립)이 설립되다.

1960. 4. 체시어 선교사가 6.25사변 직후의 어려운 한국사정을 직시하고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5만여평의 학교법인 직영 목장을 설립하여 젃소 141마리를 도입하였다. 알렌이 낙농선교사로 입국하였다(교역자회).

1960년 10월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회」와 「구호소」의 일을 했던 말콤 이 파수리(Malcolm E. Parsley) 선교사가 입국하다(교역자회).

1961년 빌 램지(Bill Ramsey,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 선교사가 입국하다(교역자회).

1961년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되다(함태영).

1962년 5월 25일 배도은(Gorden & Sharon Patten)가족이 선교사로 입국하다. 영문서적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일에 힘을 썼다.

1963년 3월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04번지에 교지 6만 4천평 매입하다(교역자회).

1963년 8월 23일 재단법인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학교명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로 개명하다(교역자회).

1963년 「서울성서신학교」가 재개교하다. 태일라, 최윤권, 배도은, 박두진 등이 교수로 수고하다.

1964년 김연신, 함명덕, 오덕근, 유봉현, 김수자 등이 「서울성서신학교」를 졸업하다.

1964년 재단법인 「크리스찬 밋손」이 설립인가를 받다(힐 요한).

1964년 7월 15일 「성경통신교육원」(Bible Correspondence Center)이 설립되다(교역자회).

1964년 6월 「지온 보육원」이 설립되다(최윤권, 민지은).

1964년 8월 1일 월간 [참빛]이 창간되다(발행인 겸 편집인 이영진). 1966년 2월 16일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었다. 언론통폐합으로 몇 년간 정간되었다가 1988년 5월 17일에 복간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교역자회).

1965년 2월 5일 학교법인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다(교역자회).

1965년 2월 1일 장성만 목사가 리처드 래쉬(Richard Rash) 선교사와 더불어 동래 온천장에 작은 2층 건물을 세 얻어 「동서 기독교 실업학교」로 2년제 대학과정을 출범시키다.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부산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부락에 땅을 임대하여 이층건물 「알과홀」(후에 래쉬기념관으로 변경)을 건축하고 1966년 4월 2일 이곳으로 이사하다. 1970년 5월 28일에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인가를,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부산실업전문학교」의 인가를 받아내다. 이렇게 해서 「부산실업전문학교」가 1971년 3월 1일 정식 개교되었다. 이후 「부산실업전문학교」는 1979년 1월 1일 「경남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91년 11월 15일에는 4년제 「동서공과대학」 설립인가를 획득하여 1992년 3월 3일 개교하다.

1965년 3월 18일 「대한 기독교 신학교」가 설립되다(최윤권). 통신신학개설하다. 교장에 최윤권, 교수로는 구광서, 강병천, 성수경, 심

영진, 이신, 김진문, 최윤희, 김규상 등이 섬기다.

1965년 월간 [환원]지를 발간하다(최윤희).

1966년 [깨어진 십자가](최윤희)가 출판되다.

1966년 3월 23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가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다(교역자회).

1966년 힐 요한 선교사의 딸 버지니아(Virginia Bendure)가 힐 선교사의 일곱 번째인 「버지니아의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1969년에 귀국하다.

1967년 메리 하딩(Mary Harding) 선교사가 입국하여 동년에 귀국하다(교역자회).

1967년 조 가맨(Joe Garman) 목사가 입국하여 1968년 초까지 김희영 통역과 함께 한국에서 많은 부흥집회를 열다. 1969년에 그의 새 부인 린다와 친구 폴 코모(Paul Comeaux)가 한국에 재입국하다.

1968년부터 매년 1월에 「BCC 동계대학」을 개설하다(교역자회).

1969 기독교방송, 극동방송을 통하여 대북방송시작하다.

1970년 11월 15일 김찬영 페츄리사(Patricia A. Kim) 부부가 입국하여 1972년 1월 21일 이후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장과 선교사의 일을 하다.

1971년 프레드와 엘리 호프만(Fred & Ellie Hoffman) 부부가 내한하여 「한국 크리스천 미션」에서 일하다.

1972년 12월 22일 「대한기독교신학교」가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다.

1973년 12월 29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가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 인가받다(교역자회).

1973년 이신 목사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회장이 되면서 뜻있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규합하다(김태수, 김정만, 김철수, 김용웅, 김길홍 등).

1974년 1월 8일 학교법인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학원」으로 변경하다(교역자회).

1974년 클라우디아 라제레쉬(Claudia Lazzereschi) 선교사가 입국하여 1978년 귀국하다.

1973 「그리스도의 교역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로 확대 조직하다.

1974년 3월 25일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을 선포하다.

1974년 김찬영, 김규상목사 등이 대전에서 연합 총회를 구성하다.

1975년 3월 4일 김찬영, 김규상목사의 연합 총회와 이신 목사의 연합회가 통합하여 「한국 그리스도 의 교회 총회」로 발족하다.

1975년 3월 5일 「대한기독교신학교」 졸업생들로 「한국 그리스도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다.

1975년 「이광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다.

1977년 밥 워릭(Bob & Joyce Warrick) 선교사가 입국하여 1978년에 귀국하다.

1978년 찰스 배어(Charles Baer) 선교사가 입국하여 1979년에 귀국하다.

1978년 10월 분열의 갈등을 극복하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재통합하다.

1978년 데보라 햄(Deborah Ham)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하다.

1979년 델로이 브라운(Delroy Brown)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2년에 귀국하다.

1979년 데이브 워너(David & Loretta Warner) 가족이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하다

1980 「태광 출판사」가 설립되다(배도은).

1980년 클레런스 리태너(Clarence Rittenour)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하다.

1981년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가 통합하다.

1981년 2월 16일 「한국 성서 신학교」가 이름을 「한성 신학교」로 개명하고, 학교법인 「성령학원」으로 각종학교의 인가를 득하다.

1981년 케리 옥스버그(Keri Augsburg)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3년에 귀국하다.

1982년 마이크 노엘(Mike & Joan Loel)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4년

에 귀국하다.

1983년 비키 존스(Vicki Jones)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하다.

1983년 티모퍼 채임버스(Timothy Chambers)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4년에 귀국하다.

1983년 3월 「유·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울 유스호텔에서 통합을 선언하다.

1983년 6월 27일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교역자회」가 「유·무악기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다.

1983년 10월 5일 「한성 신학교」가 학력인정 대학으로 지정되다.

1984년 배도은 선교사의 선교부 건물이 완공되다.

1984년 11월 26일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서울 지방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쇄신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다.

1985년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숫자가 286개에 이른다.

1985년 2월 2일 「대한 기독교 신학교」가 학력인정 대학으로 지정되다.

1987년 짐 몽고메리(Jim & Suzy Montgomery)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9년 귀국하다.

1987년 코리 프리(Kori Frye) 선교사가 입국하여 1989년에 귀국하다.

1989년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제54차 총회에서 「기독교회」와 「한성교역자회」 간의 갈등이 표출하다.

1989년 「한성신학교」가 대전 가장동에서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로 이전하다.

1990년 캐런 터르훈(Karen Terhune) 선교사가 입국하여 1992년에 귀국하다.

1990년 2월 5일 「한성교역자회」를 주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창립총회를 열다.

1990년 7월 12일 총회측 임역원회의에서 「한성신학연구원」 개설을 가결하다.

1992년 4월 3일 협의회측 심의위원회 가결로 「그리스도의 교회 총

회」 가입회원들을 제명처리하다.

1992년 4월 30일 [환원]지에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가 분리되었음을 공고하다.

1992년 9월 1일 「한성 신학교」 출신 일부가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에 재통합하다.

1992년 3월 3일 「동서대학교」 개교 및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다.

1993년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다.

1994년 8월 9일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일교단 3체제 통합추진을 가결하다.

1997년 2월 5일 「그리스도 신학 대학」이 「그리스도 신학 대학교」로 개명하다(교역자회).

1997년 12월 5일 「대한 기독교 신학교」가 「대한 기독교 대학교」로 승인받다.

1998년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숫자가 364개에 이른다.

1999년 12월 28일 「대한 기독교 대학교」가 「서울 기독 대학교」로 승인받다.

2000년 12월 21일 학교법인 「성령학원」이 「한민족학원」으로, 「한성신학교」에서 「한민학교」로 개명되다.

2003년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숫자가 405개에 이른다.

2005년 12월 「그리스도 신학대학교」가 「그리스도대학교」로 승인되다.

## 나오는 말

이제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간략하긴 했지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유익한 정보들도 있었다고 본다. 그 몇 가지 것들을 정리하고 마치려 한다.

첫째, 말콤 펜윅이나 한석진 목사의 기독지교회 운동과 최태용 목사의 그리스도인 운동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의 시점으로 불

수는 없다. 비록 펜윅과 한석진 목사가 자생적이면서 최초로 기독교회 운동을 펼쳤더라도, 펜윅이 세운 교회들은 침례교회들이 되었고, 한석진은 장로교회 목사로 끝까지 남았으며, 최태용은 복음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둘째, 성낙소 목사의 화수리 기독교회는 커닝함을 만나기전까지 3년간 자생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였으며, 부인의 병환으로 인해서 휴가를 얻어 잠시 귀국했던 1930년 이후 혹은 일본에서 완전히 돌아온 1931년 이후부터는,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였으므로 1927년을 화수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커닝함의 동역자들이 세운 다수의 교회들이 타 교단으로 돌아갔거나 남아 있는 교회가 없더라도, 그들이 세운 교회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었으며, 그와 같은 교회들이 존재했었다는 증인들의 증거가 있으므로 이원균이 일곱 개의 교회를 세운 1924년 혹은 일본인 성도의 헌금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그 돈을 사용한 1911년으로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1907년은 미국 선교사인 커닝함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던 해이다. 이 해에 그가 한국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나 세운 것은 아닐지라도,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록 교파교회들이었지만, 복음을 선포했으므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점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기 시작한 때는 일제가 발악을 하던 왜정말기였는데다가 추방까지 있었고, 장기적으로 체류한 선교사들이 거의 없었으며, 곧이어 한국동란으로 인해서 다시금 선교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으므로, 제대로 선교사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때는 신학교들이 세워진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커닝함이 한국 땅을 밟은 지가 100여년이 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50여년밖에 되지 않는다.

여섯째, 현존하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회는 1932년 혹은 1936년에 시작된 내수동 교회와 울산교회 그리고 1937년 시작된 필

운동 교회와 돈암동(삼선) 교회가 될 것이다.

# 제11장

##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론

글 조동호 목사

탱크주의'란 광고 전략을 채택하여 선풍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자 대우전자 회장(91-97) 및 KAIST교수(72-74)를 역임한 배순훈 박사는 평소의 지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이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평소의 지론은 무엇인가? '단순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Simple New Testament)이다. 이는 잘못된 교회전통을 고치고, 기독교의 기본인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배순훈 박사는 KAIST에 '탱크강의실-기본으로 돌아가자'란 문구가 새겨진 현판을 걸었다고 한다. 우리도 '00 그리스도의 교회-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라 새긴 현판을 걸어보면 어떨까?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은 뜻이다.

데모테후서 3장 14-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테에게 권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배워서 확신한 것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그것을 누구한테 배웠는가를 알아야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배워서 알고 확신한 근거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고, 확신을 가져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디모데가 그 성경말씀을 뉘게서 배웠는가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것을 뉘게서 배웠는가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 어느 목사에게서 배웠는가? 어느 신학자한테서 배웠는가? 어느 교단에서 배웠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들인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에서 “배운 것”이란 말과 “전한 것”이란 말을 여러 차례 쓰고 있다. 복음의 말씀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와 누가 전하였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 고린도 전서 11장 23-25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의 전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올바른 계보요,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주께 받아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외의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

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요한도, 사도의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자를 일컬어, 거짓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한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하였다. 후대의 교회들이 신약성경 27권의 정경성 여부를 결정할 때에 기록으로 남은 문서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과 일치하는가를 보고 결정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교회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성경 27권이 주께 받은 것을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요, 전통이요, 계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은 어떤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성경’이란 단어는 십중팔구 구약성경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이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27권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구약성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며; 셋째,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 세 가지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구약성경이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조건은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해석방법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해석방법이었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해석방법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의 범위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1장 8-9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다른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배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단이요,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평소의 지론이 무엇인가? ‘단순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이다. 이는 잘못된 교회전통을 고치고, 기독교의 기본인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크다고 참된 교회일까?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참된 교회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친 때에 이미 기독교는 1,5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고, 지중해와 흑해 연안의 온 동·서방 세

계가 천주교회와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하는 거대한 교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급히 요구됐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열쇠가 교회의 크기나 역사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생활이나 신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겼다고 했을 때에 누구한테 물어야 하겠는가? 당연히 신약성경에 물어야 할 것이다. 신약성경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예배를 '주의 날'인 주일에 드리는 것이 옳은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드리는 것이 옳은가? 누구한테 물어야겠는가? 당연히 신약성경에 물어야 한다. 신약성경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모여 예배드렸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가를 신약성경에 물어보면 올바른 해답이 나올 것이다. 신약성경의 해답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다. 그들은 그 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불렀다.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 교회는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이 장차 올 '주일'의 모형이란 점을 믿지 않는 것은 사도들의 예배전통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바울이 저주한 '다른 복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도들의 전통에는 침례와 성만찬이 있다. 사도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일년에 몇 차례나 시행하였는가? 신약성경의 해답은 사도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였다 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고, 20장 7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교부들의 글이나 기독교 역사는 매주 성만찬이 사도들의 전통이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물세례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약식세례를 받으셨는가? 침수세례를 받으셨는가? 유아세례는 성서적인가? 신약성경에서

침례는 누가 받았는가?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받았는가, 부모나 대부나 대모의 믿음으로 받았는가?

예수님은 침수세례를 받았다. 성경에는 유아세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유아세례나 약식세례는 교회전통이지 사도들의 전통은 아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가? 침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든 아니든, 매주일 거행하는 성만찬이 은혜롭든, 은혜롭지 못하든, 사람들은 왜 그런 이유들을 들어가며 주께 받아 전한 사도들의 전통을 외면하려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성만찬을 자주하면 너무 혼한 일이 된다고 말한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혼한 일이 아닌가? 매주일 하는 설교는 혼한 일이 아닌가? 매주일 하는 헌금은 혼한 일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론은 교리적인데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하자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였는지 아는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7-13절에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셨는지 아는가?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고 하셨고,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셨고, 또 13절에서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하셨다. 또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셨다.

여기서 “사람의 유전”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세운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교회전통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을 아는 지식과 행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대했고, 생각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분을 일컬어 ‘귀신들린 자’(요 7:20; 마 12:24)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요 7:24)고 하였고, 마태복음 7장 21-23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다.

교회전통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크다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니다. 역사가 오래다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경대론가 아닌 전통이 있다면, 아무리 크고, 또한 그 전통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 되었다하더라도 성도의 기본인 신약성경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교회이기를 원한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한다. 사도들의 예배전통을 따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여 놓으신 성경의 명칭만을 사용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신약성경의 명령들을 지킨다. 오직 성경만을 성도의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다. 오직 하나님이 제정하여 놓으신 규정만을 지키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들의 전통대로 해석하며, 신약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며,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일들은 사랑으로 성도들의 견해의 차이를 피차에 인정하려고 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과 예배 전통으로 돌아가 그 순수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 제12장

##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준

글 조동호 목사

만일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둘째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 셋째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 넷째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느 목회자가 말하기를, “교회가 성장하려면, 먼저 교회론이 바로 정립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신학과목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론은 세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교회론은 안내표식과 같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회를 배라고 한다면, 그 배가 어디로 갈 배인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배인지, 승선을 해도 좋을 배인지, 승선을 해서 안 될 배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안내표식과 같은 것이다. 이점에서 교회론은 배에 오르지 아니한 교회밖에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승선해야 할 사람과 승선해서는 안 될 사람이 나뉘진다. 또 승선하지 아니할 사람이라도 그 배의 성격이나 목적지를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막을 수가 있다.

둘째, 교회는 배의 방향키와 같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을 경우,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배에 오른 사람들은 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승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회항하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불필요한 곳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되고, 목적지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불필요한 설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승선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쓴맛을 보지 않아도 된다.

셋째, 교회도 복음도 하나의 상품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굳이 배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천국행 여행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먼저 자기 교회가 파는 상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 상품을 잘 모르고서는 고객의 마음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먼저 자기 교회만이 갖는 특성화된 상품 또는 차별화된 상품이 있어야 한다. 남들이 잘 파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쪽에 끌려가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남들이 상품을 잘 파는 이유는 우리 상품보다 질이 좋아서라기보다, 혹시 그들이 자기 상품에 대한 깊은 지식과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록 브랜드 이미지는 많이 떨어지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팔지 못하는 데는 자기 상품에 대한 연구나 자긍심이 부족한 탓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기 상품에 대한 자긍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것이 좋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동안, 남들은 우리 것의 진가를 알아채고 우리의 것을 가져다가 발전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아마 성만찬일 것이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관리도 잘해야 한다. 작은 일을 소홀히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짚신을 삼아 팔던 부자(父子)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잔털을 제거한 후에 시장에 내다 잘 팔았고, 아들은 잔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팔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품의 포장, 진열 등은 상품 못지않게 판매에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남대문 시장에 내다 팔면 싸구려 상품으로 취급받게 되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백화점에 내다 팔면 비싼 상품으로 둔갑되지 않는가?

이런 세 가지 점에서 교회론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서두에서 말한 네 가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 1. 교회의 머리와 몸(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이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깔고 말씀의 주제인 '교회의 머리와 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회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옳을까? 이 점에 대해서 고민했던 선배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 교회분열의 상처에 민감했던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랬다. 1927년 1월에 성낙소라는 구세군 사관이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구세군교회라 하지 않고,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라 하였는데,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던 선배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이든 단체든 이름이 없는 경우는 없다. 작명철학이 성행하고 있고, 또 이름대로 된다는 속설이 있듯이 이름은 중요하다. 개인의 이름은 아버지의 성씨와 향렬(行列)에 좌우된다. 그러나 단체의 이름은 그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원들에 따라 결정된다.

교회는 자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의 모임하고 어느 정도는 성격이 비슷하다. 낚시인회, 축구인회, 테니스인회 등과 같이 모이는 사람들의 성격에 비교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회'가 된다. 실제로 '그리스도인회' 즉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라 부르는 독립교회들이 미국에만 10,000개가 넘는다. 동호인 성격의 교회 이름들은 이밖에도 '침례인의 교회'(Baptist Church), '방법론자의 교회'(Methodist Church), '장로의 교회'(Presbyterian Church), '메노나이트인의 교회'(Mennonite Church), '재림론자의 교회'(Adventist Church)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이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분열된 교파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일 뿐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내쫓기고, 교파의 창설자가 주인노릇을 하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교단의 교리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이름들이 아니다. 성서적인 이름들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교회는 동호인들의 모임하고는 달리 모임의 소유주인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로도 불릴 수가 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리는 독립교회들이 미국에만 20,000개가 넘는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의 교회’이거나 ‘그리스도의 교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소유자의 개념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사셨고,

둘째, 설립자의 개념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며,

셋째, 통치자의 개념에서 볼 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넷째, 공동체의 특성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다섯째, 사도시대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렀다.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즉 신앙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모이는 토지나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건물은 교회공동체가 모이는 집회소 또는 예배당이지, 교회 그 자체는 아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란 말이 일상적으로 예배당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의 모임 그 자체를 말한다.

먼저, 소유자의 개념부터 알아보겠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과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였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에서 “너희”란 말은 교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값으로 샀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어떤 값으로 샀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피 값”이라고 대답해 준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기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밝힌 대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말한다. 이 그리스도

의 피 곧 언약의 피로 인하여 교회는 언약공동체 또는 선민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유자의 개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들의 이 모임 또는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둘째, 설립자의 개념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온다. 이 신앙고백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듣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부활 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요 21:16)고 세 번씩이나 부탁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명령하셨다. 이들 말씀들은 교회의 설립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인간이 설립자가 아니다. 목사가 설립자가 아니다. 장로가 설립자가 아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설립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군들에 불과하다. 일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충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우리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약속하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길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 주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으로 믿는다.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스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치자의 개념에서 볼 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였다.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머리가 너무 많지 않나 쉽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주인인 경우도 많고, 장로집사가 주인인 경우도 많아서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의 주인들이 많다보니, 교회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이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

넷째, 공동체의 특성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고 하였다. 골로새서 1장 24절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들(구성원들)”이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말씀하였다.

이 몸과 지체들에 관해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의 직분과 지체들이 갖는 다양한 기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12장 45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2장 12-20절 까지를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하였다.

여기서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한 말이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지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목사, 장로, 집사, 성도일 수도 있고, 신체의 기능들이 다 각기 다른 것처럼 교회의 지체들은 다양한 직분과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능들은 다 상호보완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몸인 그리스도에 붙은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맡은 기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각자는 교회의 몸이 아니고, 그 몸의 지체라는 점을 겸손하게 생각해야겠고, 각자가 제 기능을 건강하게 발휘할 때, 온몸이 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서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다. 신약성경에 언급된 교회 호칭들, 예를 들면,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로마교회, 갈라디아교회 등은 지역 이름 다음에 소유격 명사 ‘그리스도의’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다. 신령한 복들 가운데서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절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7절 :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셨다.

9절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뜻을 알게 하셨다.

11절 :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13절 :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을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 2. 교회의 기초(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

왜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이어야 하는가? 왜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교회의 기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밝힌 대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정의 한식구가 되었다.

교회란 바로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밝힌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가정에 찾아온 손님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3장 6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가정, 즉 교회의 설립을 거룩한 성전건축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래 교회란 ‘따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란 뜻이다. 교회당을 교회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권속을 일컬어 교회라 부른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가정을 성전에 비교해서 그 기초와 건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교회를 거룩한 성전에 비교했을 때, 그 건물의 기초는 사도(예수님의 제자)들과 선지자(예언자)들이라고 말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기초부분에 놓이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한다. 모퉁이 돌은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에서 집이 들어설 네 모서리에 놓는 거대한 돌을 말

한다. 이 돌을 중심으로 집의 방향과 각도가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춧돌에 해당된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이루어져간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벽돌 한 장 한 장이 놓여져서 건물이 형성되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장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다. 이 말씀으로 보아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규범이자 표준임을 알 수 있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전통들은 오늘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신약성경이라 해서 그분들의 가르침과 전통들이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서 강조될 필요성이 있었던 특별한 부분들만 골라진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런데도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경의 가르침이나 인위적인 교회전통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이는 분명코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이점을 엄히 꾸짖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고 하셨고,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셨으며, 또 13절에서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책망하셨다.

바울은 계시(갈 1:11-12; 고전 11:23-25; 엡 3:1-6)를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바 교훈만을 가르치면서 사도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서 엄하게 꾸짖었다.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사도의 가르침과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다. 그 사실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비밀인데, 이 비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밝힌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한 몸 교회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신비한 비밀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어졌고, 다른 세대들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란 점이다.

사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을 입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전통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한 신약성경이 교회의 기초요 믿음과 실천의 규범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성경을 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위한 예표와 모형 또는 그림자로 보았다. 바꿔서 말하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교회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것의 그림자나 모형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바르게 서야 한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제자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온다. 이 신앙고백 위에, 바꿔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듣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설립과 관련된 특별한 권세를 주셨고 또 그들의 가르침과 전통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다. 소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Christian Church)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라 부르는 것이 성서적이고 옳은 명칭이다.

또 하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완성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란 점이다. 바꿔서 말하면, 교회는 완전한 흠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고 세움을 받고 지어져 가는 공동체란 점이다.

에베소서 1장 13-14절의 말씀대로, 교회는 성령의 보증과 인감 찍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공동체이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이다. 그 어느 공동체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여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서술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교회이기를 고집한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한다. 사도들의 예배전통을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여 놓으신 신약성경의 명칭만을 사용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견해를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 신약성경의 명령들을 지키려 한다. 오직 성경만을 성도의 믿음과 실천의 표준으로 삼는다. 오직 하나님이 제정하여 놓으신 규정만을 지키려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집하지는 않는다(We are not the only Christians). 다만 그리스도인뿐(but Christians only)이라고 생각한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들의 전통대로 해석하며, 신약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며,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일들은 사랑으로 성도들의 견해의 차이를 피차에 인정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으로 돌아가 그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바른 교회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주의 정신이요 신본주의 정신이다.

### 3. 교회의 지체들(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

왜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이어야 하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교회의 지체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지체들이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에 딸린 각 기관들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란 뜻을 갖는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Christian)은 아름다운 이름이요, 오래 전에 예언된 이름이며, 그 예언대로 성취된 이름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성서시대에 사용된 이름이며 천거된 이름이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다.

야고보서 2장 7절을 보면,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란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서 "너희"란 말은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리고 "저희"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억누르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부자(아마도 고리대금업자)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은 부자에게 아침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을 외모만 보고 편애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부자들은 그들의 아침을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야고보서 2장 7절의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바"란 글의 뜻은 "너희가 그 이름으로 불리는"이란 뜻이다. 그런데 그들은,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성서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호칭되었다.

이 이름을 야고보서 2장 7절은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란 말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또는 '고상한'이란 뜻이다. 우리는 이 말을 '신성한'이란 단어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 이름이 "여호와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째,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예언되어진 이름이다.

이사야 62장 2절을 보면, "~ 너는 여호와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서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사야 62장에서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다. 3절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으로, 4절에서는 "헷시바"라 하였는데, 이는 '내 기쁨이 그 나라 안에 있다'는 뜻

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신부로, 12절에서는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자, 찾은바 된 자, 더 이상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장차 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한 예언의 말씀인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적고 있다.

셋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이름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사야 62장 2절에 예언된 “새 이름”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사용된 이름이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아그립바 왕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이 시기에 벌써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천거된 이름이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지체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다. 침례교인도 아니고, 감리교인도 아니고, 장로교인도 아니고, 성결교인도 아니고, 안식일교인도 아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름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말고 다른 호칭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성도”(롬 1:7), “형제들”(약 1:2), “자녀들”(갈 3:26), “제자들”(요 15:8), “친구들”(요 15:15)이다. 그러나 이들 호칭들은 전혀 새로운 이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 오직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

장 1-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첫째,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들이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풍속 곧 이 생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좇고, 사단을 좇아 살았기 때문이었다. 또 죄의 성질을 지닌 육체의 욕구들을 채우려 했고, 육체의 욕망과 생각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죄인이었을 때에 죽음에 해당되는 일, 죽이는 일, 또는 죽임의 일에 힘썼던 것이다.

둘째, 에베소서 2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죽임의 일과는 달리, 언제나 충만한 사랑으로 살리는 일, 곧 살림의 일을 하셨다.

4-5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또 육체의 욕망을 좇아 죽임의 일만을 일삼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6-7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는 특권을 주셨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조찬기도회에만 초청되어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물며 천국 보좌방에 초청되어 하나님께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영광에 참여할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또 8-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며, 진노의 대상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셋째,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큰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셨을까?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 하였다. 분열은 죄악이다. 에베소서 4장 4-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분이시오,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분이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가 아닌 것은 분열이요, 분열은 죄악이다. 분열이 죄라면, 마땅히 기독교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기독교를 통일시키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이다. 교회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하고, 성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만일 장로교회나 장로교인, 감리교회나 감리교인, 침례교회나 침례교인, 성결교회나 성결교인 등으로 통일을 시도한다면 결코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켜 가야한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을 보면,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쪼개어 분열시키고 있다.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이외의 침례교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 안식교인 등은 한 몸 그리스도를 쪼개어 분열시킨 결과이다. 성경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지, 분열시키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에베소서 4장 13-14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또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

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이들 말씀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기초인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이 쪼개질 수는 없다. 교회의 머리는 한분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여럿일 수는 없다. 교회의 헌법은 한 권 성경책이다. 성경이외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규범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름이며, 성서시대에 불려진 이름이다. 그러나 다른 이름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이외의 이름으로 성도를 부르거나 자랑하거나 자긍심을 갖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행위이자 죄를 범하는 일이다.

#### 4. 빛과 생명의 복음(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왜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어야 하는가? 왜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을 바탕에 깔고 말씀의 주제인 ‘빛과 생명의 복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을 뜻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소식을 말한다. 이 복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 값을 받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으로써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흑암에 처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셨고,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살려내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성화사역이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칭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인도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의 목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빛과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요한복음 20장 31 절에서 요한은 복음서의 기록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20:31)고 하였다.

요한이 밝힌 이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하다. 흑암에 사는 사람에게 빛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보다 더 기쁜 것은 없을 것이다.

호롱불이나 촛불에 의존하던 시절, 집집마다 전기시설을 마치고, 백열등에 빛이 밝혀지던 날, 온 마을이 축제분위기에 휩싸여 덩실덩실 춤을 추던 때가 있었다. 1998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구의 작품 가운데 『눈먼 사람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눈이 멀고, 눈먼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눈이 멀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시민들이 다 눈이 멀어버리는 비극과 눈먼 상황에서 벌어지는 참혹함을 그렸다.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육체적인 장애이든, 영적인 장애이든, 사회적인 병폐이든 간에 흑암에 있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고, 흑암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죽음에 직면했던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소식 또한 기쁜 일이다. 그 상황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간에 죽어간다는 현실은 비참한 것이고, 죽음의 현실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른다는 소식은 그 자체가 큰 기쁨이요 안도이다.

이 복음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주제들,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또는 존재하는 방법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존재목적을 분명하게 알리는 표어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온 땅에 빛과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또한 온 땅에 빛과 생명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변화이다. 이 변화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하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일컬어 '로고스'라 하였는데, 로고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서도 스스로는 결코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한다. 요한복음은 이 불변의 진리 '로고스'를 빛과 생명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요 1:18)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불변의 진리 로고스가 흑암과 죽음의 세계에 주는 변화 또는 불변의 진리 로고스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일컬어 빛과 생명이라고 하였다.

빛과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은 어둠과 죽음이다. 어둠과 죽음은 세상의 특징이다. 세상은 자연의 법칙이 지배한다. 자연의 법칙은 혼돈의 법칙이요, 죽음의 법칙이요, 엔트로피(entropy)의 법칙이다.

요한복음은 이 마법의 굴레를 벗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그 길은 빛과 생명 되시며, 변화의 주체이면서도 자신은 변치 않는 '로고스'요,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변화이다. 이 변화의 출발은 회개이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에서 던진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다. 여기서 '천국'이란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한다. 이 천국은 또한 '교회'를 뜻하기도 한다.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란 말은 '새 시대가 열렸다.' '교회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회개'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를 주제로 말씀하고 있다.

제2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맹물은 고급 포도주로 바뀐다. 제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다. 제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혼혈인 사마리아 여성은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 헤롯 안디바의 신하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난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의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세상에 대한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의 아들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

제5장에서는 율법의 희생자였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질병의 고통과 율법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변화를 겪게 되고, 제6장에서는 굶주린 민중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없음'이 '있음'이 되는 창조를 체험하게 된다. 또 어두운 밤에 폭풍을 만나 죽음에 직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어둠'이 '빛'이 되고, '죽음'이 '삶'이 되는 변화를 경험한다.

이제 요한복음의 총체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건이 남았는데, 제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빛을 보게 되고, 제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일컬어 “세상의 빛”(8:12)이라고 하셨고, 생명을 주는 “사람들의 빛”(1:4)이라고 하였다. 흑암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분”(9:33) 또는 “주님”(9:38)으로 고백할 수 있다.

제9장의 소경치유이야기를 제5장의 38년 된 병자치유와 비교해보면, 이 두 명의 장애인들이 모두 안식일 날에 각각 베데스다와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을 받고 있고, 이 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며, 38년 된 병자치유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맹인치유에서는 “빛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인도되고, 죽음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에 앞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씀은 또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하다. 이 사명에 따라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

첫째,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막 16:15; 행 8:4). 둘째, 제자를 삼아야 한다(마 28:19). 셋째,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 침례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마 28:19). 넷째,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한다(행 5:20; 마 28:20). 이는 에베소서 4장 12-14절의 말씀대로,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며,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전달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2002년 8월 7일 『크리스치안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지가 보낸 이메일 내용에 다음과 같은 질문과 반응들이 실려 있었다. 그 내용을 여기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써 마치려고 한다.

[질문]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답]

제임스 : 모든 사람에게 백만 달러처럼 대우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돈보다 무한히 더 큰 가치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알렌 박사 : 그리스도의 특성을 성실히 실행하라.

게리 : 누군가가 당신에게 못되게 할 때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친절을 베풀라.

렐리 : 언제 어느 곳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미소 짓고, 사랑하며, 복이 되라.

데일 : 극도의 겸손과 환대를 보이라.

비크 :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고 투명하며 참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윌리엄 : 말은 언제나 많은 것을 전달하지 못하지만, 행위는 많은 것을 말한다.

헬런 : 순수하게 영향을 끼칠 기쁨의 일관된 태도를 지니라. 결국 우리는 기뻐할만한 많은 것을 갖지 않았는가!

로우리 :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라. 그리고 결코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나는 죄를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을 사랑하겠다.

데이빗 : 불의를 대항하여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상처받은 이들을 돌본다든지, 우리 자신의 눈에 낀 들보를 지적한다든지, 우리들의 이웃들과 원수들을 위한 삶을 영위한다든가하여 원수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행위들.

리자 : 나는 직장동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리석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 성경 따위가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궁금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변진 표정, 눈가에 띠 미소, 티 없는 기쁨이었다. 그리스도인의 표정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때때로 당신이 행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몰라도, 당신이 그것을 행할 때 보이는 얼굴 표정은 대단한 것이다.

글렌딘 : 가까스로 또는 보통이 아닌 언제나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요구사항 이상을 들어주라. 그러면 그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저 세상과 다르게 처신하라.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어떤 사람은 앞서 소개한 모든 대답들을 간결하게 요약해주는 말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당신은 마치 어떤 이들이 읽게 될 유일한 성경인 것처럼 매일을

살라(Live each day as if you are the only Bible some people will read).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모델인가? 당신은 당신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열심히 본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위에 언급된 그 어느 것도 진정으로 해 내지 못할 것이다.



# 제13장

## 사도들의 예배전통에로의 회복

글 조동호 목사

### 1. 성만찬 예배

#### 1) 들어가는 말

일찍이 중앙신학교의 정용섭 교수는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불구의 예배요, 불완전한 예배<sup>1)</sup>라고 했고, 한신대학교의 이장식 교수는 기독교 예배에서 성만찬을 제외시키고 나면 유대교의 회당예배로 전락되면서 기독교 예배의 특성이 상실되고 만다<sup>2)</sup>고 했다. 성만찬 예배가 참된 교회의 올바른 예배에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져 있는가를 밝혀주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와 관련해서 성만찬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성만찬 예배가 참된 교회의 올바른 예배와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는가를 밝히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에로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되어야 할 예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 2) 사도성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크다고 참된 교회인가? 역사가 길다

---

1). 정용섭,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 말씀과 성례전의 신학적 균형을 위하여,” 『기독교 사상』 제 22권 12호(1978년 12월), pp. 137-138.

2). 이장식, “예배와 성찬 의식,” 『기독교 사상』 제 23권 제 2호(1979년 2월), pp. 63-65.

고 참된 교회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친 때에 이미 기독교는 1,5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었고, 지중해와 흑해 연안의 온 동·서방 세계가 서방가톨릭교회와 동방정통교회를 국교로 하는 거대한 교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급히 요구됐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열쇠가 교회의 크기나 역사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통과 비정통의 잣대가 교회의 크기나 역사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참된 교회는 사도성에 있다. 사도성은 처음부터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잣대였을 뿐 아니라, 정경과 외경을 구별하는 잣대였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였다.

이들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모퉁이 돌은 이스라엘의 건축에서 방향과 각도를 잡기 위해서 네 모퉁이에 놓이는 커다란 돌이다. 교회를 건물에 비교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이 교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반석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만찬과 관련해서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매우 분명하고도 심각한 어조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이 교회를 형성하는 네 모퉁이 돌들의 하나가 된다.

그리고 네 모퉁이 돌들 사이에 놓이는 기초석들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들이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의 방향과 각도는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제한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가르침에는 교리, 전통에는 예배전통 즉 예배순서나 예식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네 모퉁이 돌들에 해당되는 가르침과 전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말씀이 나온다. 오순절 성령강림이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들이 전적으로 헌신했던 일은 네 가지였다. 이 네 가지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들 네 가지는 모두가 서로 동일하게 중요한 동등한 요소들이다. 사도들이 어느 것을 더 힘쓰고 어느 것은 덜 힘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동일하고 동등하게 힘썼던 예배의 내용들이며,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배를 완성시키는 네 모퉁이 돌들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fellowship.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breaking of bread.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NIV]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교제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떡 떼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통제를 받은 제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이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배를 완성시키는 네 모퉁이 돌들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들 네 가지 요소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예배에서 소홀히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만찬이 빠진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성만찬을 자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주 하니까 경건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미국 사람들은 “too common” 하다고 말한다. 매주일 설교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인가? 매주일 헌금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인가? 매주일 기도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인가?

### 3) 사도들의 예배전통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은 어디에 보존되어 있는가? 신약성경 27권에 보존되어 있다.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정할 때 사도성이 있는가를 보고 결정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남겨진 성만찬과 관련된 사도들의 전통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후 30년경 사도들이 인도했던 예루살렘교회는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가정에 모여 성만찬을 행하였다(행 2:46; 5:12, 42; 20:7).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누가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전하고 있고, 46절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는 애찬 혹은 공동식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시대의 성만찬이 아직 애찬과 구분되기 이전임을 감안할 때 누가의 이 보고는 예루살렘교회가 매우 자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한된 지면에 “떡 뽀”에 관한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은 그것이 하루 세끼 먹는 보통의 식사와 구별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주후 57년에 드로아교회는 바울 일행과 함께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는 모임을 가졌다(행 20:6-12). 주님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믿었던 이방인교회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 성만찬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이다.

셋째, 주후 56년경 고린도교회는 자주 성만찬을 먹기 위해 모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주의 만찬을 질서 있고 성별 되게 행할 것에 대해서 33절에서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 데, 이 모임은 언제나 “안식 후 첫날”(행 20:7) 혹은 “주의 날”(계 1:10)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관해 충고할 때에 “매주일 첫날에”(고전 16:1-4)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보 할 때가 매주일 첫날이라면, 먹으러 모일 때도 매주일 첫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보를 주 첫날에 했다면, 예배가 주일날에 있었다는 증거이다.

넷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바울은 헬라어가 아닌 ‘마라나타’(μαρανατα / Μαρανα θα: Lord, come: Our Lord is come)라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말이 성만찬 기도문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말하는 회중에게 완전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채 아람어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말한다.<sup>3)</sup>

‘마라나타’는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나타나고 있다.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 10장 6절에도 성만찬 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사용되고 있다. 그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디다케 10:6]--100년경

만일 어느 누가 거룩하면 오고, 거룩하지 못하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sup>4)</sup>

[고린도전서 16:22]--56년경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찌어다. 마라나타.

[요한 계시록 22:18-20]--96년경

만일 누구든지 이 것들 외에 더하면. . . .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3). Gerhard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v. “maranatha”.

4).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분도출판사, 1993), 10:6.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 .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만일 ~ 마라나타”가 성만찬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원하는 성만찬 기도의 틀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란 점을 읽을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은총과 평화를 비는 인사말(1:5-6)에서부터 ‘마라나타’라는 끝맺는 기도와 마지막 축사(22:20-21)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의 예배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도 평화의 입맞춤과 마라나타 그리고 축도로 구성된 마지막 인사말로 맺고 있다. 그래서 로빈슨(J. A. T. Robinson), 리츠만(H. Lietzmann), 보른캄(G. Bornkamm), 그리고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같은 학자들은 이를 두고 “최초의 기독교 예배순서의 흔적” 즉 “서신의 결미를 장식하는 상투적인 용법일 뿐 아니라, 한 예배 공동체가 다른 예배 공동체에 보내는 인사, 즉 성찬을 들기 위해 모인 성도들 간의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만일 성만찬이 매주일 예배순서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56~100년 사이에 기록된 이들 책들 속에 동일한 형태의 기도문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매주일 성만찬은 사도들의 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1세기 말엽 로마교회의 감독 클레멘트(Clement)는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 40장과 44장에서 감독의 임무를 성만찬을 집례(ministration)하는 자로 언급하면서 이것이 그의 고유한 임무라고 말하고 있다.<sup>6)</sup> 이그나시우스도 서머나교회에 보낸 107년경의 편지 8장에서 클레멘트와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감독의 고유한 임무가 성만찬의 집례라고 주장하고 있다.<sup>7)</sup> 여기서 성만찬의 집례를 감독의 고유한 임무로 정한 것은 성만찬이 주일 예배

5). 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pp. 50-51.

6). J. B. Lightfoot, *The Apostolic Fathers*(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pp. 30-32; 네메세기, 『주의 만찬』(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86), pp. 86.

7). J. B. Lightfoot, *op. cit.*, p. 84.

그 자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 14장 1절은 “먼저 여러분의 과실을 회개함으로써 여러분의 봉헌물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자신의 날에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sup>8)</sup> 여기서 봉헌물은 떡과 포도주를 말하며 헌물이나 헌금도 포함될 수 있다. 주후 112년경에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로마 지방장관이었던 소(小) 플리니(Pliny the Younger)는 트라잔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지역의 교회가 정한 날 새벽 미명에 모여 연도형식(alternate verses)의 찬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며, 십계명과 같은 엄숙한 맹세를 했으며, 흠뻑 젖었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 “보통의 흠 없는 음식에 참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sup>9)</sup> 여기서도 “떡을 떼며”라든지 혹은 “흠 없는 음식”이 성만찬과 애찬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가 애찬 형식의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거행했다는 점이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거행했다는 사실은 순교자 저스틴(Justin)의 글 속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저스틴은 그가 쓴 『첫 번째 변증서』 65-67장에서 2세기 중반의 교회들이 주일날 모여서, 성경을 봉독하고, 집례자로부터 설교를 듣고, 모두 일어서서 기도한 후에, 집례자에 의해서 빵과 물로 희석된 포도주의 봉헌과 성별의 기도와 분병례와 헌금과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sup>10)</sup> 예배 후 노약자들이나 환자들을 위해서 집사들이 축성된 성찬을 배달하였다.

#### 4) 성만찬 예배의 교회전통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사도들의 예배전통 즉 성경정통이었다. 그러면 이 성경정통이 교회전통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다.

성경정통(Biblical orthodoxy)과 교회전통(ecclesiastical tradition)의

8). *Ibid.*, p. 128.

9). Everett Ferguson, *Early Christians Speak*(Abilene, Texas: Biblical Research Press, 1981), p. 81.

10). *Ibid.*, pp. 81-117; 네메세기, *op. cit.*, pp. 90-91.

차이는 원본(original)과 사본(manuscript)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성경정통(Biblical orthodoxy)은 성경원본(original)에 비교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글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저자들의 문서는 원본이란 점에서 정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성이 입증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전통(ecclesiastical tradition)은 필사본(manuscript)에 비교될 수 있다. 필사본의 단점은 원본과 상이한 점이 있고, 필사본에서 필사본을 만들게 되면 오류가 축적되어 변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리서들이나 신앙고백서들은 성경해석의 결과물이고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체계화시킨 교리서나 전통에 의존하기보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전통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질 또는 이교문화와의 혼합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성경으로 특히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매주 성찬(weekly observance of the Lord's Supper)의 전통이 연 1~2회 성찬(annual or semiannual observance of the Lord's Supper)으로 바뀐 것은 전적으로 군인이었던 종교개혁가 쾰링의 때문이었다. 쾰링은 주일 예배에서 성만찬을 분리시킨 최초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성만찬을 은총의 채널로 생각지도 않았고, 기독교 예배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는 한 달에 한번 이상의 성만찬을 주장한 루터나 칼뱅과는 달리 한 해에 네 번 정도로 고정시켜 버렸다.<sup>11)</sup>

이것이 성경정통(Biblical orthodoxy)과 교회전통(ecclesiastical tradition)의 차이들이다. 그러나 모든 교회전통들이 다 성경정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사도들의 전통들을 이어 받고 있는 교회전통들도 많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교회전통들이 구원에는 아무런 악영향을 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정통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개혁의 여지

11).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대한 기독교 서회, 1992), p. 33. 쾰링은 종교개혁 이전에, 매 주일 예배는 성만찬예배로 드러졌으나, 신자들이 일 년에 한 번 정도 받던 성찬을 일 년에 네 번 받도록 배려를 했고, 성만찬을 거행하기 전 주일에 미리 신자들을 교리문답 등을 통해서 준비시켰다. 이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구원의 축제』 p. 181.

가 없지 않다.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성공회 등의 장엄한 성만찬 예배의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들 장엄한 예전들은 상당부분 후대에 첨가된 교회전통이지 성경 전통은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장엄한 의식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알렉산더 캠벨이 문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들의 예배전통으로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을 강조한다면,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전통, 사도들의 전통, 혹은 초대교회의 전통들이 전해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비록 원시적인 방법들일지라도, 그대로 해야 한다. 그밖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이면 일치를 추구해야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이면 개 교회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푸는 열쇠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신약교회의 문제는 신약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착용하였고,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해도 그것이 만일 신약성경의 전통이 아니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니란 점이다(안식일 예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없고 구약성경에 있어서 그대로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신약성경에도 없고 구약성경에도 없지만, 교회전통에 있어서 그대로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님이 사도들의 예배전통으로의 회복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기독교 역사도 교회전통도 아니고, 잘 나가는 교회나 교단도 아니고, 오로지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예배전통뿐이다. 비록 그것들이 원시적일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닌 인위적인 것들이라면 철저히 배제시키겠다는 것이 환원정신이다. 미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되는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이 정신을 제대로 알리고 바로 실천해 가는데 있다. 비록 그것들이 원시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원시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

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5) 사도들의 예배전통에로의 회복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분야의 개척자이자 선봉자였던 알렉산더 캠벨의 도움을 받아 설명해야 옳을 것 같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1788-1866)은 1823년 7월 4일부터 1830년 7월 5일까지 만 7년 동안 발행한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지에 1825년 2월 7일부터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에로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이라는 제목아래 일련의 기사들을 게재(掲載)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는 초대교회의 신조(creeds), 명칭(nomenclature), 예배질서(the order of worship), 성만찬, 장로직, 집사직, 찬양, 친교 및 징계(discipline) 등에 대해서 논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에로의 회복」을 1824년 9월 11일 토요일 웨이엣 군(Fayette county) 타운폴크 교회(Town-Fork Meeting House)에서 개최되었던 켈터키주 침례인선교사협의회의 회의록을 발췌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캠벨은 이때 침례교 소속 목사였다).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종교상태와 개혁에 관한 주제로 전반적인 협의를 위해서 침례교 목회자들의 모임을 갖기로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독교와 신약성경교회의 상태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이 결핍이 구성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제되어질 수 있는가 또는 정말 구제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가 발견되어지고 결정되어야할 요점들인 그 표준에로 기독교와 오늘날의 교회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가장 피상적인 관찰자에게조차도 그것은 분명하다.<sup>12)</sup>

알렉산더 캠벨은 이 부분 가운데 특히 침례교 목회자들이 기독교

12). Alexander Campbell, "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No. 1," *The Christian Baptist*, February 7, 1825.

와 오늘날의 교회를 신약성경의 표준에까지 가져오는 것을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면서 다른 한편 비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어 캠벨은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에 대한 공과(功過)를 평가하면서 신조(human creeds)와 사제(clergy)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에로의 회복」의 첫 글을 실었다.

캠벨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에로의 회복」은 부정적인 면에서 버려야 할 것과 긍정적인 면에서 회복해야 할 것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인위적인 신조들은 버려야 할 것이고, 성만찬은 회복되어야 할 초대교회의 질서들이다.

캠벨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에로의 회복」 5번에서 예배질서를 논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기독교집회들 안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기독교예배질서가 있다”(There is a divinely authorized order of Christian worship in Christian assemblies.)는 첫째 입장에 이어서 “기독교집회들 안에 기독교예배는 형식이 동일하다”(The Christian worship in Christian assemblies is uniformly the same.)는 둘째 입장을 밝히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They continued ste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They continued stedfastly IN fellowship.

They continued stedfastly IN breaking of bread.

They continued stedfastly IN prayers.[KJV]

위의 영문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 떼와 기도에 꾸준히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예배는 예배질서의 다른 어느 요소들보다도 설교에 더 치중하고 있다.<sup>13)</sup>

이어서 알렉산더 캠벨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에로의 회복」

13). Alexander Campbell, "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No. V: Oder of Worship," *The Christian Baptist*, July 4, 1825.

6~9번까지에서 네 번에 걸쳐 「떡을 뭍에 관하여」(On the Breaking of Bread)라는 제목으로 매주 성만찬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떡을 뭍에 관하여-제3번」 기사에서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집회들 안에 신성하게 제정된(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기독교예배질서가 있다.

둘째, 예배의 이 질서는 형식이(한결같이) 동일하다.

셋째, 떡을 뭍의 본질과 목적은 떡 뭍을 기독교집회들 안에 기독교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들이다.

넷째, 예루살렘에 차례로 세워진 첫 교회는 다른 어떤 친목예배나 덕을 세우는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떡 떼기를 꾸준히 지속하였다.

다섯째,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주 첫날에 만났고, 최우선적으로 강조적으로 이 목적(떡 뭍)을 위함이었다.

여섯째, 이 목적을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교회의 설계 또는 최우선적인 목적이었다고 사도는 선언하였으며, 따라서 그가 차례로 세운 교회들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일곱째, 성만찬 예배를 일년에 네 번, 두 번 혹은 매주일 이외에 다른 시기에 행하는 현재의 방법은 어떤 법도, 규칙도, 이유도, 권위도 없다.

여덟째, 우리는 초대교회가 행한 것에 반대할만한 몇몇 더 월등한 반대들을 고려해 보았고, 제시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반대들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명시된 전례와 주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라는 명시된 명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들을 수용하는 기고자에 의해서 몇몇 반대들이 제안될 때까지 다른 증거들과 고려들을 유보할 것이다.<sup>14)</sup>

알렉산더 캠벨은 또한 『기독교 조직』에서도 「빵을 뭍」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매주 성만찬 예배의 중요성을 체계 있게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일곱 개의 명제를 설정하고 그 명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명제들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제 1, 하나님의 집(the house of God)이라 불리는 한 집이 지상에 있다.

14). Alexander Campbell, "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No. VIII: On the Breaking of Bread.--No.III," *Christian Baptist*, October 3, 1825.

명제 2, 하나님의 집에는 언제나 주님의 식탁(the table of the Lord)이 있다.

명제 3, 주님의 식탁 위에는 오직 한 덩어리의 떡(one loaf)이 필요하다.

명제 4,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members)이며 가족(family)이다. 그들은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고 간주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세주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하는 만큼 자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식탁의 떡과 잔에 두려움 없이 참여할 축복된 자들이다.

명제 5, 이 제정을 위해서 '떡을 쪼갬'(breaking the loaf)이란 칭호를 얻은 한 덩어리의 떡은 성도들이 그것을 먹기 전에 쪼개져야(broken) 한다.

명제 6,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명제 7, 언제나 '주의 만찬'(Lord's Supper)이라고 불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의 떡을 떼고, 주의 잔에 공동으로 동참하는 행위는 기독교 회중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행하는 제정된 예배와 덕세움의 일부분이다.<sup>15)</sup>

명제1에서 '하나님의 집'(ho oikos Theou=the house of God)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말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oikos Theou=a house of God)은 개 교회들을 말한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상에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집(the house of God)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하나님의 집은 한 집이다.

명제2에서 '주님의 식탁'(the table of the Lord)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사용한 '주의 상'(the Lord's table)에서 가져온 말이다. 캠벨은 구약시대의 성소에 상이 있었고, 그 상위에 주마다 12덩어리의 떡이 진설(陳設)되어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에도 언제나 바울이 말한 '주의 상'(the Lord's table)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 '주의 상'이 일년에 한두 차례 쓰이기 위해

15). Alexander Campbell, *The Christian System*(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9), pp. 266-294.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명제3에서 ‘오직 한 덩어리의 떡’(one loaf)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함이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말이다.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또 한 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지셨듯이 신약시대의 주의 상위에는 오직 한 덩어리의 떡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신약성경에 사용된 ‘떡 뺨’ 또는 ‘떡 쪼갬’(breaking of bread)이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한 덩어리의 떡’이 문자적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 덩어리의 떡으로 수십,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먹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만찬 예전에서 한 덩어리의 떡을 쪼개는 의식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이고 예전적이며 시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아진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분병의 준비를 미리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한 덩어리의 떡은 성만찬 시간에 집례자에 의해서 반드시 쪼개어져야 할 타당한 이유가 명제5에서 설명되고 있다.

명제4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members)이며 가족(family)이다.”는 히브리서 3장 6절의 “우리는 그의 집(God’s house)이라”는 말씀에서 가져온 말이다. “그들은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고 간주함을 받는 자들이다.”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a spiritual house)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에서 가져온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세주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하는 만큼 자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식탁의 떡과 잔에 두려움 없이 참여할 복된 자들이다.

명제5에서 “이 제정을 위해서 ‘떡을 쪼갬’(breaking the loaf)이란 칭호를 얻은 한 덩어리의 떡은 성도들이 그것을 먹기 전에 쪼개져야(broken) 한다.”는 고린도전서 11장 23-24절에 “. . .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took bread), 축사하시고(had given thanks), 떼어(broke it), 가라사대(and said) . . .”에서 가져온 말이다. 여기서 네 가지 예수님의 행동 즉 (1)‘떡을 가지사’(took bread),

(2)‘축사하시고’(had given thanks), (3)‘떼어’(broke it), (4)‘가라사대’(and said)는 성만찬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전통이자 사도들의 전통이며 교회의 전통이다. 이 전통으로 환원하는 것이 성만찬 예전을 바로 잡는 바로미터(barometer)이다. 명제3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떡 쪼갬’ 또한 시간관계상 예배시간 전에 미리 준비해 두지 않을 수 없다할지라도, 성만찬 예전에서 집례자가 한 덩어리의 떡을 취하고, 축사하고, 쪼개고, 성도들이 받아먹는 의식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전통이자 사도들의 전통이며 교회의 전통이므로 반드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명제6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함이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만찬을 행하는 신학적인 입장의 표명이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24-25절에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두 번씩이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Do this in remembrance of me)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다.

기념절을 취한다할지라도, 『리마문서』<sup>16)</sup>에 정리된 대로, 성만찬이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Eucharistia)이며,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Anamnesis)이며, 성령의 임재를 비는 제사(Epiklesis)이며,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대하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연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연대하는 교제와 화해와 나눔의 시간(Koinonia)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종말론적 식사(Anticipation)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초대교회가 예배를 제사와 물질의 성체화의식으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예수님이 주신 성만찬 제정의 말씀, “받아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막 14:22)라는 표현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 하신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거나, 떡과 포도주가

16). Faith and Order(WCC),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Geneva: WCC, 1982), s.v. “Eucharist.”

축성된 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성체를 먹고, 성혈을 마셨다는 증거가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념하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 드렸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고전 11:26)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성체신학이 일찍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원인은 영지주의 때문이었고, 봉헌신학의 발전의 원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제사문화 때문이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성만찬을 무용하게 보았고, 희생제사를 바치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성전도 없고 희생물도 없는 기독교 예배를 무신론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7)</sup> 그리고 4세기경 키릴과 암브로시우스에 의해서 급진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봉헌신학과 성체신학은 1545년에 열린 트레نت 공의회에서 명백한 가톨릭의 입장으로 표명되었다.

이에 종교개혁가들은 성만찬의 화체설, 희생 제사설(sacrifice), 그리고 떡 속에 피가 병존(concomitance)한다는 설에 반대하였고, 성만찬의 신성한 제정과 지속성,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을 축하하는 기념적 특성,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와 차원 높은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은총에 한결같이 동의했다.

명제 7에서 “언제나 ‘주의 만찬’(Lord’s Supper)이라고 불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의 떡을 떼고, 주의 잔에 공동으로 동참하는 행위는 기독교 회중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행하는 제정된 예배와 덕 세움의 일부분이다.”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다.

17). 95년에 도미티안(Domitian) 황제가 기독교인이었던 자신의 사촌 플라비우스 클레멘스(Flavius Clemens)를 ‘무신론’의 죄목으로 사형에 처했다. James B. North,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 A Short History of Christianity*(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p. 25.

## 6) 나오는 말

이상으로 「사도들의 예배전통에로의 회복: 성만찬 예배」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항상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도들의 예배전통에로의 회복」은 성만찬 예배를 포함하여 기독교 예배가 가야할 방향과 방법을 지시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일단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환원정신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가톨릭교회나 동방정교회와 같은 전통교회들의 장엄한 예전들은 상당부분 후대에 첨가된 교회전통이지 성경정통은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장엄한 의식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알렉산더 캠벨이 문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들의 예배전통에로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을 강조한다면,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전통, 사도들의 전통, 혹은 초대교회의 전통들이 전해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비록 원시적인 방법들이더라도, 그대로 해야 한다. 그밖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이면 일치를 추구해야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이면 개 교회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푸는 열쇠로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신약교회의 문제는 신약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착용하였고,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해도 만일 그것이 신약성경의 전통이 아니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니란 점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없고 구약성경에 있어서 그대로 행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신약성경에도 없고 구약성경에도 없지만, 교회전통에 있어서 그대로 행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념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에로의 환원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도 교회전통도 아니고, 잘 나가는 교회나 교단도 아니고, 오로지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통뿐이다. 비록 그것들이 원시적일

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닌 인위적인 것들이라면 철저히 배제시키겠다는 것이 환원정신이다. 미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되는 이유가 다른 아닌 바로 이 정신을 제대로 알리고 바로 실천해 가는데 있다. 비록 그것들이 원시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원시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에서 발견되는 바람직한 교회의 특징은, 첫째, 신약성경에 기초한 단순한 믿음(a simple faith based on the New Testament); 둘째, 신약성경 기독교의 회복(a restoration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 셋째, 이들 기초 위에서 별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연합운동(a movement for the unity of all Christians); 넷째, 침수에 의한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 by immersion)와 매주 성만찬(weekly celebration of the Lord's Supper)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에로의 회복(a restoration of ancient order of things)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2. 믿음과 침례와의 관계

믿음과 침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자칫 개신교의 두 가지 성례 가운데 하나인 침례를 소홀히 생각해도 좋을 것처럼 취급하는 이들이 있다. 구원에 관계가 있든 없든 침례는 교회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구원론과 종말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례이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받으셨고, 또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취급하겠는가?

교회는 보이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이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칭의에서 출발하여 성화의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도상의 나라이며,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지상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맞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선취적인 나라이다.

교회는 교인으로 구성되는데 교인은 통상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거나, 유아세례 후 견진례를 거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이 성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입교준비교육 또는 교리문답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자들인 셈이다. 3세기 말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는 입교준비기간을 통상 3년, 짧게는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지체 없이 침례를 받고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피침례자 대부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거나 유대교에 입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침례를 받아야 입교인의 자격이 주어지고, 또 다른 성례인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부탁하신 성례이다. 또 침례를 받아야 집사나 장로 또는 목사와 같은 성직을 받을 수 있다. 교인의 자격은 교회론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이나 다름이 없다.

침례의 행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침례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수정난이 먼저 만들어져야 출산이 가능해지는 것과 같다. 믿음을 수정난에, 침례를 출산에 비교할 수 있다. 또 믿음을 사랑에, 침례를 혼인에 비교할 수 있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출산보다는 수정 그 자체나 혼인보다는 사랑 그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아무리 중요하고, 수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혼인이나 출산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부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 출발할 수가 없다. 참고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침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침례 때의 서약을 선민서약 즉 신약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하나님과 부부서약을 행함으로써 구약의 선민이 되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서약을 통해서 신약의 선민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정난을 생명체로 인정하여 낙태를 금

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든 확신은 매우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다고 해도 수정난이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어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이 무시 될 수 없듯이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과정 또한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믿음으로부터 침례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한 과정이다. 수정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듯이 믿음부터 침례까지의 과정 또한 그러하다. 출산을 통해서 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 완전한 인간에로의 성장을 시작하듯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우리는 시작된 종말 또는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축복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침례는 별개의 것이거나 어느 것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구원의 한 과정 속에 있는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들인 것이다. 침례는 믿음에 의한 행위이자,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결과인 것이다.

참고로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총으로 인하여 된 것이다.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침례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회개와 신앙고백 그리고 침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이다. 믿음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려는 견해는 수정난을 출산한 아기가 성인으로 보려는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닐는지?

이제까지 우리가 말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 즉 신뢰의 믿음이다. 신뢰의 믿음은 대체로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믿음이다. 죄인에게 요구된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신뢰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실한 믿음을 강력하게 요구하신다. 믿음은 영원하다. 바울은 믿음을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침례는 신뢰의 믿음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이다. 복중의 태아를 험한 세상에로 내보는 것이 출산이듯이. . .

## 참고서적

- 네메세기. 『주의 만찬』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86.
- 박근원. “세례와 견신례의 의식적 가치.” 『기독교 사상』 1991년 8월호.
- , 『구원의 축제』 도서출판 진흥, 1993.
- , 『오늘의 예배론』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 이장식. “예배와 성찬 의식.” 『기독교 사상』 제 23권 제 2호. 1979년 2월.
-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분도 출판사, 1993. 10:6.
- 정용섭. “그리스도교 예배의 신학: 말씀과 성례전의 신학적 균형을 위하여.” 『기독교 사상』 제 22권 12호. 1978년 12월.
- Campbell, Alexander. *The Christian Baptist*. 1825.
- , *The Christian System*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89.
- , "The Sermon on the Law." *An Alexander Campbell Reader*. Edited by Lester G. McAllister. St. Louis, Missouri: CBP Press, 1988.
- Ferguson, Everett. *Early Christians Speak* Abilene, Texas: Biblical Research Press, 1981.
- Lightfoot, J. B. *The Apostolic Father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 Kittel, Gerhar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v. "maranatha".
- North, James B.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 A Short History of Christianit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 WCC.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 Geneva: WCC, 1982, s.v. "Eucharist."
- Webber, Robert E. *Worship Old and New*.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 제14장

##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서적인 이유

글 조동호 목사

### 1. '신약성경교회' 이기를 고집한다.

'탱크주의'란 광고 전략을 채택하여 선풍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자 대우전자 사장과 회장(91-97) 및 KAIST교수(72-74)를 역임한 배순훈 박사는 평소의 지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이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평소의 지론은 무엇인가? '단순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Simple New Testament) 이다. 이는 잘못된 교회전통을 고치고, 기독교의 기본인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은 구약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한데서 비롯되었다.)

### 2.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한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크다고 참된 교회인가? 역사가 길다고 참된 교회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친 때에 이미 기독교는 1,5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었고, 지중해와 흑해 연안의 온 동·서방 세계가 서방가톨릭교회와 동방정통교회를 국교로 하는 거대한 교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급히 요구됐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열쇠가 교회의 크기나 역사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통과 비정통의 잣대가 교회의 크기나 역사의 길

고 짧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참된 교회는 사도성에 있다. 사도성은 처음부터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잣대였을 뿐 아니라, 정경과 외경을 구별하는 잣대였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였다.

### 3. 사도들의 예배전통만을 따른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말씀이 나온다. 오순절 성령강림이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들이 전적으로 헌신했던 일은 네 가지였다. 이 네 가지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들 네 가지는 모두가 서로 동일하게 중요한 동등한 요소들이다. 사도들이 어느 것을 더 힘쓰고 어느 것은 덜 힘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동일하고 동등하게 힘썼던 예배의 내용들이며,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배를 완성시키는 네 모퉁이 돌들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교제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떡 떼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기도예 전혀 힘쓰니라.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이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배를 완성시키는 네 모퉁이 돌들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들 네 가지 요소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예배에서 소홀히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만찬이

빠진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성만찬을 자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주 하니까 경건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미국 사람들은 “too common”하다고 말한다. 매주일 설교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인가? 매주일 헌금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인가? 매주일 기도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인가?

#### 4.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 명칭만 사용한다.

‘그리스도인’(Christian), ‘제자들’(Disciples), ‘형제들,’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 ‘장로,’ ‘집사’ 등 신약성경에 나오는 명칭만을 사용한다(No name but the Divine).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은 성경적인 명칭일 뿐만 아니라(롬 16:16),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교회라 부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이다. 그리고 오직 이 명칭 아래서만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통일된 국가나 단체나 조직의 명칭이 여러 개일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명칭은 하나이어야 하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나 ‘방법론자 교회’(Methodist Church) 혹은 ‘침례자 교회’(Baptist Church) 등으로 부를 수 없다.

#### 5. 인위적인 신조나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오직 복음만 주장한다(No plea but the Gospel). 오직 그리스도만 신조로 삼는다(No creed but the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의 신조를 구원하는 믿음의 조건으로 삼는다. 이 신조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을 믿는 신앙고백이 나타나 있다.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에 이른다" 하였으므로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 이 신앙을 고백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해석의 결과물인 장문의 신앙고백서나 특정교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교리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이다(딤후 4:1,6; 유 3; 갈 1:23). 교리의 믿음은 '믿음의 내용', 즉 '지식의 믿음'을 말한다.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이다. 그러나 신학체계로써의 이 믿음은 종종 참 신앙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였다.

## 6. 신약성경의 명령을 지킨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창설되고, 성령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권능이 부여된 신성한 조직이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모여 예배하고, 교육하며, 교제하며, 흠어져 전도하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공동체의 목적은

첫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막 16:15; 행 8:4). 이 복음은 전도자와 개개인의 성도들에 의해서 전파되며, 어느 장소에서나 이루어진다(행 20:20; 5:42; 11:12-15).

둘째, 제자를 삼는 것이다(마 28:19). 제자 양육은 남녀노소 불신자들에게 접촉하여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신앙인으로 또는 전도자로 육성하는 일이다.

셋째, 침례를 베푸는 일이다. 침례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서 입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베푸는 성례이다(마 28:19).

넷째,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행 5:20; 마 28:20). 이는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결의 생활을 위한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7. 오직 성경만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믿음과 실천의 규범이라고 믿는다(No book but the Bible).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Where the Bible speaks, we speak;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 다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을 구약성경보다 우선시 한다. 총신대학교의 정훈택 교수의 지적대로, 구약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으로써 오실 메시야에 대한 예언과 예표로서 기능하며, 해석에 있어서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경에 제한 받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구약성경이 탄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읽는다면, 그는 구약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다.”<sup>1)</sup>

## 8.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 규정만을 지킨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성경의 규정만을 지킨다(No ordinances but the Divine).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성경의 규정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세운 교회의 조직, 치리, 예배 등의 전통을 말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세우는 방법에는 세 가지, 즉 ‘직접적인 명령,’ ‘승인된 사도의 모범,’ 그리고 ‘필요한 추론’을 적용한다. 직접적인 명령(direct command)은 충분히 명백하며, “침례를 받으라”(마 28:18-20)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승인된 사도의 모범(approved apostolic example)은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행 20:7)에 참례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날짜나 방법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추론(necessary inference)은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기"(마 3:16) 때문에, 그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셨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진술에 의해서 설

1) 정훈택, 『신약개론』(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15쪽.

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9.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뿐이다.” 고 믿는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순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Simple New Testament)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시작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정신을 받들어 잘못된 교회전통을 고치고, 기독교의 기본인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의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운동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약성경기독교에로의 환원은 자칫 남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배타성을 강하게 떨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19세기에 이미 이러한 경험을 겪었다. 그 결과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뿐이다.”(We are not the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라는 중대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10. 복음의 본질에는 일치를 주장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점을 상기하면서 분열이 난무하던 19세기 초 미국에서 교회일치와 연합을 사명으로 처음 출발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은 신약성경으로 돌아가는 문제와 성경해석의 문제들로 인해서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이다. 이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는 일치를 주장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할 것을 주장한다(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liberty, in all thing charity).

# 제15장

## 3세기에 걸친 스톤-캠벨 운동 역사: 조사와 분석

번역과 각주 조동호 목사

### 1. 서론

스톤-캠벨 운동은 미국 변경지역에서 발생한 두 개의 기독교 단체가 1832년에 연합함으로써 생겨났다. 이 두 개의 단체가 바로 발톤 스톤(Barton W. Stone)이 이끌었던 '그리스도인들'(Christians)과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이 주도했던 '개혁자들'(Reformers)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이다. 이 연합운동은 이름을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19세기 스톤-캠벨 운동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다양하게 알려졌고, 그들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로 확인되었다. 19세기 말에 이 연합운동은 두 줄기로 갈라졌다. 한 줄기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란 이름을 가졌고, 다른 줄기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과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이란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1920년대에 다시 분열이 진행되어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로 알려진 두 단체를 낳았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종종 제자들 교회(the Disciples)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때때로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independent Christian Churches)로 불리곤 한다.

## 2. 운동사 저술에의 도전

제1세대 스톤-캠벨 운동 지도자들은 실제적인 일과 당면한 개혁을 향한 도전들에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듬었던 역사나 그들이 다듬어갔던 역사를 충분히 반추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어도 M. 루터 때 시작된 교회개혁의 전통 속에 자신들이 서 있음을 확인하였다. 스톤과 캠벨 모두 다 목회지망생들에게 성서뿐 아니라 교회사를 공부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던 보편적 교리들과 실천사항들을 변호할 목적으로 초기 기독교 문헌을 참고하였다.

게다가 그들은 기대와 종종 자기비판이 혼재된 짧은 여러 논문에서 그들 자신의 일의 진행을 추적하려고 시도하였다. 발톤 스톤은 1827년 <그리스도인 전령>(Christian Messenger)지에 연재한 “서부지역 그리스도인의 교회사”란 제목의 글들에서 ‘그리스도인’ 운동의 발생을 기록하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성장에 대해 다수의 글들을 남겼다. 이 중, 일부는 수많은 순회 설교 때 적은 자서전적인 ‘수기’(手記)였고, 다른 일부는 ‘개혁의 진척’에 관한 간략한 초록이거나 요약들이었다. 여전히 다른 일부의 글들, 즉 1835년 <천년왕국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에 기고한 ‘위기’(The Crisis)에 관한 그의 짧은 소논문과 같은 글들은 스톤-캠벨 운동의 사명과 정체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었다. 또 캠벨과 다른 사람들은 스톤-캠벨 운동에 관한 역사적 신학적 이야기를 동시대에 미국에서 발행된 종교대사전들에 기고하였는데, 그 같은 대사전들에는 J. M. 브라운(Brown)의 <종교지식대사전>(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1836)과 존 와인브렌너(John Winebrenner)의 <미국의 제(諸) 교파들의 역사, 1849>(History of All Denominations in the United States)가 포함되었다.

가끔 캠벨은 객관성을 제대로 지닌 역사기술의 어려움을 숙고하였다. 그 같은 한 가지 사례를 “배도에 관한 글-혼재된 동기들”(Notes of Apostasy-Mixed Motives)이란 제목의 짧은 글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천년왕국의 선구자」 1837년 1월호에 실렸다. 이 글은 원래 가톨릭교회 신시내티 시(市) 주교 존 뱀티스트 퍼셀(John Baptist Purcell)과 펼친 토론을 위해 준비한 글이었다. 캠벨은 신뢰할만한 기독교 역사가 일찍이 기록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였다. “교회사의 가장 논쟁적인 시기에서조차 참되고 신실한 역사를 기술하려는 공정하고 숙달된 객관성이 없었고,” 덜 논쟁적인 시기에서도 “집권세력의 부도덕과 부패들을” 파헤친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캠벨은 말하였다. 그는 분명히 주장하기를,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합당치 못하므로” 스톤-캠벨 교회 개혁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를 기술할 수 없을 것이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반대자들은 “정통파”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서, “노바티안파(Novatians),<sup>1)</sup> 도나티스파(Donatists),<sup>2)</sup> 바울파(Paulicians),<sup>3)</sup> 발덴스파(Waldenses),<sup>4)</sup> 롤라드파(Lollard),<sup>5)</sup> 개신교파에게 과오자들과 이단자들과 분열주의자들이라는 걸출한 칭호들을 수여하였다. 동시에 캠벨은 “심지어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서도, 전혀 들뜨지 않고, 매우 침착한 기질로, 공정하여 꾸미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할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1)[역자 주] 노바티안파는 데키우스(Decius)와 발레리아누스(Valerian) 황제들의 박해시기(249-260년)에 배도했던 자들의 교회 내에서의 처리문제와 로마감독 선출문제로 파생된 강경개혁파였다. 북아프리카 칼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가 이들에 대항하였으며, 교회에 ‘가톨릭’(Catholic) 개념을 도입하였다.

2)[역자 주] 도나티스파는 312년 북아프리카 칼타고감독에 박해시기에 성경을 박해자에게 넘겨줬던 카이실리아누스가 선출되면서 파생된 강경개혁파였다. 어거스틴(354-430년)이 이들과 논쟁하였다.

3)[역자 주] 바울파는 660년경에 콘스탄틴 실바누스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들을 선물로 받고 그와 그의 동료들이 성서중심의 규칙을 삼았던 개혁파였다.

4)[역자 주] 프랑스 리옹의 발두스(Petrus Waldus, ?~1217)는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칭빈을 실천하였으며, 교황권위의 부정, 연옥의 부정, 평신도에 의한 사죄(赦罪)의 인정, 죄에 빠진 사제가 거행한 미사의 성사성(聖事性) 등을 부정한 개혁파였다.

5)[역자 주] 롤라드파는 1382년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다. 화체설에 반대하였으며,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였다.

캠벨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공정한 역사가들이 몇몇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비록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역사가들의 과제가 독특한 관점과 특정한 상황과 어떤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캠벨은 이것들이 우리가 하고자하는 이야기에서 포함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것과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는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거울을 통해서 [사물을] 희미하게 볼” 것이라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되새겼다.

### 3. 초기 역사들

그러나 캠벨은 적어도 자신의 운동에 대한 공정한 청문을 원했다. 그 같은 역사를 전달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곧 캠벨의 학문적 동료이자 내과 의사였으며, 가까운 친구였던 로버트 리처드슨(Robert Richardson, 1806-1876)이다. 그는 캠벨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알렉산더 캠벨의 회고록>(Memoirs of Alexander Campbell)을 썼다. ‘약속들’이란 부제를 단 두 권으로 된 이 책은 캠벨이 사망한 직후인 1868년과 1870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이 책은 캠벨 가문에 대한 전기 이상의 것으로서, “[캠벨이] 주창했던 종교[기독교]개혁의 기원, 진행, 원리들에 관한 견해”를 폭 넓게 담고 있다. 다른 중요한 전기들도 이 시기에 교회개혁 사역의 거대한 비전을 보여줄 목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알렉산더 캠벨이 자신의 부친에 대해 기록한 <토마스 캠벨 장로의 회고록>(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 1861), 존 로저스(John Rogers)의 <발톤 스톤 장로의 전기>(Biography of Elder Barton Warren Stone, 1847), 윌리엄 박스터(William Baxter)의 <월터 스코트의 생애>(Life of Walter Scott, 1874),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의 <존 스미스 장로의 생애>(Life of Elder John Smith, 1870), A. S. 해이든(Hayden)의 <오하이오 주 서부 보류지 제자들의 초기역사>(Early History of the Disciples in the Western Reserve, Ohio, 1875)가 포함된다. 대개는 전기들을 수집한 것에 불과하지만, 특정

지역의 스톤-캠벨 운동사를 기록하고자한 최초의 노력이다.

#### 4.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기술 Historiograph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스톤-캠벨 운동의 첫 번째 종합 역사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A History of the Disciples of Christ, 1894)로써 제자들 교회의 목사 B. B. 타일러(Tyler)가 ‘미국 교회사’(American Church History)에 연재한 짧은 책이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19세기의 교회개혁>(The Reformation of the Nineteenth Century, 1901)이다. 이 책은 제자들 교회의 저명한 목사와 지도층 선교사들이 쓴 일련의 역사 스케치를 <그리스도인-복음전도자>(Christian-Evangelist)지의 편집자인 J. H. 개리슨(Garrison, 1842-1931)이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다.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의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의 출판 100주년을 맞은 해인 1909년에 두 권의 종합 역사서들이 추가로 출판되었는데, 그 두 권 가운데 더 짧은 책인 <한 세기의 이야기>(The Story of a Century)를 J. H. 개리슨이 저술하였다. 개리슨은 이 책에 스톤-캠벨 운동의 성과에 대한 탐구를 담았을 뿐 아니라, 교회개혁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강한 도전을 피력하였으며, 그 도전을 전환시기로 삼고 또 그 도전의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하였다. 또 다른 책은 제자들의 목사 W. T. 무어(Moore)의 대표작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종합역사: 그 믿음, 교리, 삶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를 회복하려 했던 한 세기 동안의 과업에 대한 서술>(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Disciples of Christ: Being an Account of a Century’s Efforts to Restore Primitive Christianity in Its Faith, Doctrine, and Life)이다.

헤이든, 타일러, 개리슨, 무어, 리처드슨과 또 다른 초기 전기 작가들은 스톤-캠벨 운동을 19세기 미국인의 보편적 역사관이었던 “천년시대”를 개방시킬 섭리로 이해하였다. 이들 저자들은 스톤-캠벨 운동이 섭리에 의한 보다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택하고 부르신 것은 기독교를 그것 본래의 순수함과 능력으로 복원시키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들 저자들은 이 섭리에 의한

계획 속에서 미국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올바르게 선포할 중요한 역할을 떠맡고 있다고 자임하였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신생 국가 미국은 유럽의 기독교가 충분히 개혁되는 것을 방해한 국가간섭과 교권주의 전통들을 집어던져버릴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톤-캠벨 운동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소명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런 확신은 그 운동의 전통에 뿌리를 둔 세 줄기 모두에서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기술의 주제가 되었다.<sup>6)</sup>

20세기 들어, 학식 있는 설교자들과 편집자들의 초창기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 교회의 전문 역사가들은 스톤-캠벨 운동의 종합적인 역사기술의 과업을 수행하였다. 제자들 교회의 전문 역사가에 의하여 기술된 최초의 저술은 에레트 게이츠(Errett Gates)의 <그리스도의 제자들>(The Disciples of Christ, 1905)이다. 게이츠는 이 책에서, 스톤-캠벨 운동내의 여러 불일치와 논쟁을 토마스 캠벨이 반드시 “협동적이고, 상호 교정(矯正)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두 가지 원칙들, 곧 “초기 기독교의 권위와 그리스도인 일치의 의무”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스톤-캠벨 운동내의 여러 불일치와 논쟁이 환원(restoration)과 일치(unity)에 대한 두 가지 원칙 또는 이상들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였다는 게이츠의 해석적 입장은 이후 스톤-캠벨 역사기술에 하나의 큰 흐름이 된다.<sup>7)</sup> 그러나 20세기 제자들 교회의 전문 역사가들

6)[역자 주]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새 천년시대를 바라본 회개운동에서 비롯되었다(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 또한 새 천년시대를 예비하는 전령으로써 ‘회개’를 외쳤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여 년 전부터 메시야가 오셔서 이루실 신장국가인 ‘올람 하바’(Olam Ha-Ba),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다. 비슷한 케이스로 19세기 미국인들은 신대륙의 개척과 맞물려 ‘자유’를 화두로 한 새 천년시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이 전통에 매어 있었다면, 신대륙에는 모든 분야에서 자유가 물결치고 있었다. 동시대에 스톤-캠벨(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을 펼쳤던 선각자들은 기독교 본래의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새 천년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 운동을 전령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새 천년시대의 전령(Millennial Harbinger)을 자임하면서 개혁운동, 곧 신약성서교회(사도전통)로의 회복운동을 펼쳤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거룩한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7)[역자 주] 환원운동의 핵심논쟁을 이해하려면, 교회일치와 성서적 권위회복

가운데 어느 누구도 J. H. 개리슨의 아들 W. E. 개리슨(Garrison, 1874-1969)보다 영향력이 크지는 못하였다. 개리슨은 A. T. 드그루트(DeGroot)와 함께 종합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The Disciples of Christ: A History, 1948, 1958년에 개정편집)를 출판하기에 앞서 <변방을 좇는 종교>(Religion Follows the Frontier, 1931)와 <미국의 한 신앙운동>(An American Religious Movement, 1945)을 출판하였다. 개리슨의 저술들은 하나의 명백한 역사신학에 근거한 이야기들에서 역사가의 가설을 반영하는 이야기들로의 전환을 반영한다. 그 가설은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전(前)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대학교의 교회역사가인 피터 모드(Peter Mode)와 윌리엄 워렌 스위트(William Warren Sweet)의 동료인 개리슨은 역사가 프레드릭 잭슨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 1861-1932)의 변방지역 논문에 대한 관심을 그들과 공유했다. 서부의 '자유의 땅'으로의 확장은 독특한 미국의 특성과 제도들이 등장할 수 있는 필요조건들을 만들어냈다고 터너는 주장하였다.<sup>8)</sup> 개리슨은 터너의 논문을 따르면서, 어떻게 개척자의 삶이 전통을 통해 물려받은 방식과 장려된 자립의 관습들을 조절해갔는가를 기술하였다. 개척자는 "국가와 교회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제도들조차, 만일 그것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는 단언하였다. 스위트의 입장을 따르면서, 개리슨은 19세기 스톤-캠벨 운동의 성장을 개척자 정신과 그 운동의 개혁적 메시지의 양립성에서 설명하였다. 당시, 스톤-

---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알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환원운동은 종교개혁자들이 파괴한 우주적 단일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일치 운동이며, 성서의 권위를 회복하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 운동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이 환원운동을 지난 200년 동안 지속시켜 온 추진력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원칙의 맥락을 어떻게 조화와 균형 있게 이어 가느냐에 있다. 교회일치 쪽이 밀리면, 율법주의적이고, 분파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성서의 권위 쪽이 밀리면, 교리적 상대성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고로 '환원'(restoration)은 성서권위와 연관된 말이며, '일치'(unity)와 '연합'(union)은 교회연합에 연관된 말이다.

8)[역자 주] 여기서 서부(the West)란 캘리포니아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지역 오하이오 강(Ohio River)을 따라 형성된 변방개척지역을 말한다.

캠벨 운동의 개혁적 메시지는 복잡한 신학적 교리와 권위주의적 성직자들로부터 해방된 연합된 교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sup>9)</sup>

그러나 개리슨의 주된 관심은 변방지역의 정황에서 비롯된 스톤-캠벨 운동의 등장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문화, 지성적 사정들을 스톤-캠벨 운동이 채택한 데에 있었다. 개리슨이 잘 알고 있었던 대로 1930년대까지 스톤-캠벨 운동은 조직에 대한 논쟁, 예배 시 악기 사용문제, 성서 해석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그에 따르면 이때에 스톤-캠벨 운동은 위기국면을 넘기고 있었다. 그 운동의 미래는 개개인들이 성숙해 가는 미국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좌우되었다. “과거 30년 동안 제자들 교회의 화합을 방해해 온 모든 논쟁의 더 깊은 내막은, 다소 애매한 말을 쓰자면, ‘자유주의’(liberalism)로 호칭되는 것에 대한 여러 다양한 태도에서 찾아야 하며, 또한 이것은 차례로 변방지역을 함께 통과한 변화들, 즉 사회적, 문화적, 지성적 변화들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에 놓여있다”고 개리슨은 1931년에 썼다.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기술의 또 하나의 전환이 1931년에 출판된 개리슨의 <변방을 좇는 종교>와 1945년에 출판된 <미국의 한 신앙 운동> 사이에 생겨났다. 이 전환은 스톤-캠벨 운동의 형성에 끼친 B. 스톤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다. 로버트 리처드슨을 좇아서 그 운동의 이전 역사들은 최우선적으로 알렉산더 캠벨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했다. 리처드슨이 캠벨의 전기에서 스톤을 자연스럽게 소개한 시점은 스톤이 캠벨을 처음 만난 때이다. 스톤과 그의 추종자들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는 공화 감리교인들(Republican Methodists)과 아브너 존스(Abner Jones)와 엘리아스 스미스(Elias

9)[역자 주] 신약성서의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하지는 환원운동은 19세기의 개혁자정신과 유럽대륙의 전통중시보다는 자유를 찾아 미주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실용적 개혁노선과 그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환원운동의 기수들은 교파교회의 교조주의나 교권주의에서 가감하게 탈피할 수 있었고, 그 같은 정신을 가졌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하였다. 반면에 한국에서 환원운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런 개혁자정신과 실용적 개혁노선이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려받은 방법들”(inherited ways)에서 벗어나 “권장된 자기 의존의 습관들”(encouraged habits of self-reliance)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을 만큼 그 사고가 열려있지 못하다.

Smith)의 ‘그리스도인 운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뤄진다. 리처드슨은 캠벨 운동과 스톤 운동의 연합을 다룰 때 캠벨의 영향권에 들어온 스톤의 추종자들에 초점을 맞춘다. 리처드슨에게 있어서 스톤 운동은 캠벨의 개혁의 줄기에 흘러들어 온, 그러나 캠벨의 이야기에 서는 오히려 늦은, 하나의 중요한 지류에 불과하였다. J. H. 개리슨(Garrison)의 <한 세기 이야기>와 W. T. 무어(Moore)의 <종합 역사>(A Comprehensive History)는 리처드슨의 기본 개요를 따른다. 이 두 권의 책은 1909년에 출판되었다. 그 해는 토마스 캠벨이 “선언과 제언”을 선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더불어 스톤-캠벨 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로 널리 간주되었다. W. E. 개리슨의 『변방을 쫓는 종교』는 동일한 경향을 반영한다. 그 책은 유럽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스톤에 관해서는 “배경”이란 제목 아래서 “개척자들 중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과 연결해서 짧게 논의하며, 캠벨 부자(父子)의 이야기로 “개척자 시대”를 시작한다. 바꿔 말하면, 스톤은 캠벨의 개혁이 채택한 상황의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1945년 판 개리슨의 <미국의 한 신앙운동>은 스톤-캠벨 운동이 “두 개별 운동들의 연합으로 19세기 초에 시작되었다”는 진술로 시작한다. 캠벨은 주류, 스톤은 지류라는 그간의 함의(含意)가 포기된 것이다. 이것은 그 책의 구성에서도 명백하다. 미국의 무대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캠벨부자의 이주’에 관한 이야기보다 앞서 나온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개리슨(Garrison)과 드그루트(DeGroot)의 종합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에서도 이어졌다. 이 책에서 전반적인 교회와 그 교회의 영국과 미국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서술된 이후에, 스톤과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캠벨부자의 소개에 앞서서 한 장(章)에 할애되어 기술된다. 스톤-캠벨 운동의 형성에 끼친 스톤과 캠벨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동일한 접근이 개리슨과 드그루트의 계승자로서 1975년에 출판된 레스터 맥칼리스터 2세(Lester G. McAllister, Jr.)와 윌리엄 터커(William E. Tucker)의 <믿음의 여정>(Journey in Faith)에서도 나타난다.

스톤-캠벨 운동의 형성에 기여한 스톤의 역할에 대한 이런 인식의

전환은 시리즈로 소개된 미국 교회사의 일부로써 1894년에 출판된 B. B. 타일러(Tyler)의 짧은 책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에서도 드러났다. 타일러는 유럽과 캠벨부자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정황으로 시작하여 스톤 운동의 발전을 스케치하였다. 1931년에 출판된 <변방을 좇는 종교>와 1945년에 출판된 『미국의 한 신앙 운동』 사이에 생긴 개리슨의 사고(思考)의 변화는 하나의 결과물에 기인했음이 드러난다. 그 결과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러의 저술이 아니라, 발톤 스톤과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도드라지게 하는 출판된 두 권의 책이다. A. W. 포춘(Fortune)의 <켄터키의 제자들>(The Disciples in Kentucky)이, 1832년에 성사된 스톤과 캠벨 추종자들의 연합을 기념하여, 켄터키 주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 의해서 1932년에 출판되었다. 포춘은 이 책에서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가들이 켄터키 주가 끼친 기여에 “제대로 주목”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이 같은 간과(看過)를 수정하기 위해 포춘은 그의 역사에서 스톤 운동을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하였다.

동년에 베다니 출판사는 찰스 크로스필드 웨어(Charles Crossfield Ware)가 쓴 <발톤 워렌 스톤: 그리스도인 연합의 개척자 - 그의 생애와 시대에 관한 이야기>(Barton Warren Stone: Pathfinder of Christian Union - A Story of His Life and Times)를 출판하였다. C. 웨어의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엘머 엘즈워스 스노디(Elmer Ellsworth Snoddy)는 스톤-캠벨 운동의 기원이 두 단체 곧 캠벨과 스톤파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이 캠벨파의 영향권이었던) 북부의 뿌리가 그 운동의 문서들을 통해서 (스톤의 영향력이 강한) 남부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스톤과 그의 이상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다뤄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 같이 스톤을 가볍게 다루는 접근은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스톤이 캠벨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미국의 경험에서 앞서고, 일치에의 이상(理想)에서 앞서고, 전도에서 앞서고, 그의 운동의 독자성에서 앞서고, 칼빈신학체제의 완전 거부에서도 앞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대의명분에 전념한 희생적 헌신에서 앞서

기” 때문이다. 웨어의 전기는 스톤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스톤이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에서 캠벨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스노디(Snoddy)의 논문을 확증하려 했다.

스톤의 생애와 공헌에 관심을 집중시킨 포춘, 스노디, 웨어의 업적은,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인식된 알렉산더 캠벨과는 다른 어떤 창시자, 곧 ‘자유주의’(liberal) 제자들이 좀 더 자신들과 친밀하게 동일시 할 수 있는 창시자를 찾으려는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제자들은, 1931년 개리슨이 지적한 ‘자유주의,’ 곧 과거 30년 동안 스톤-캠벨 운동의 일치를 방해한 논쟁들의 핵심에 있었던 자유주의를 끌어안았다. 개리슨은 이 자유주의를 사회, 문화, 지성의 변화에의 대응으로 인식하였다. 이들 제자들은 한 창시자가 필요했는데, 그의 견해들이 ‘제자들의 학풍주의’에 굳어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했다. 또 그는 에큐메니즘의 창시자로서 그리스도인 일치에 헌신하지만, “옛 믿음과 일의 옛 질서”의 회복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다. 1948년은 한 권의 스톤-캠벨 운동의 종합 역사가 쓰이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 역사는 당대의 한 주도적인 자유주의자에 의해 쓰였고, 그 책에서 발돋움 스톤은 그 운동의 선구자로서가 아니라, 그 운동의 창시자로서 기술되었다.<sup>10)</sup>

10)[역자 주] 스톤-캠벨 운동을 세 파로 나눈다면, 보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진보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 중도(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이 펼치는 운동의 양 날개는 신약성서교회회복과 교회(그리스도인)일치 혹은 교회(그리스도인)연합이다. 보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약성서교회의 회복을 통한 교회일치를 기치로 삼고 있고, 진보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는 신약성서교회의 회복보다는 교회연합 또는 에큐메니즘을 기치로 삼고 있다. 중도(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약성서교회의 회복과 교회일치를 기치로 삼고 있다. 진보와 보수는 양 날개 가운데 어느 한 쪽의 날개에 기우는 경향이 있고, 중도(독립)는 균형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신학에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유입된 것은 18세기부터이다. 19세기에는 변증법에 근거한 진화론적 사고가 더해져 역사적 예수와 선포(신앙고백)적 예수를 구분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했고, 20세기 초에는 비교종교사 내지는 양식(forms)발전사적인 접근을 시도한 진보신학이 발전하였다. 예일 대학교나 시카고 대학교에서 수학한 제자(파)들이 20세기 초의 현대신학을 스톤-캠벨 운동에 유입시킴으로써 신약성서교회 운동을 약화시켰고, 일치보다는 에큐메니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맥락에서 왜 제자(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의 회복’을 주장한 알렉산더 캠벨보다

그 후에 스톤에 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연구에 두 권이 더 추가되었다. 윌리엄 개리트 웨스트(William Garrett West)의 <발톤 워렌 스톤, 그리스도인 일치의 초기 미국인 주창자>(Barton Warren Stone, Early American Advocate of Christian Unity, 1954)와 D. 뉴엘 윌리엄즈(D. Newell Williams)의 <발톤 스톤: 영적 전기>(Barton Stone: A Spiritual Biography, 2000)가 그것들이다. 웨스트의 책은 예일 대학교에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한 것으로서, 웨스트는 삼위일체와 대속고리에 관한 스톤의 비정통적 견해와 시민정부에 대한 그의 급진적 종파주의 견해들을 탐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 일치가 스톤의 삶의 “두드러진 열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윌리엄즈는 어떤 방법으로도 스톤의 그리스도인 일치에의 헌신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후대의 20세기 영적 깊이와 특수한 그리스도인의 전망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들에 반응하면서, 어떤 영향도 스톤의 신학 발전과 종교사회적 실천에서 그의 장로교의 영성보다 더 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스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시된 사랑과 은혜(은총)의 하나님을 섬겼고, 인간 본성이 징계를 받았다는 견해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즐거움과 봉사를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였다. 스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케인 릿지 예배당(Cane Ridge Meeting House) 건립 200주년기념에 때맞춰 스톤 운동사에서 1991년에 시작되는 일련의 200주년 행사들에 의해서 고무되었다. 1992년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사학회(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는 렉싱턴신학대학원(Lexington Theology Seminary)의 역사가 안토니 L. 두나번트(Anthony L. Dunnavant)가 편집한 <케인 릿지의 정황: 발톤 워렌 스톤과 부흥에 관한 전망들>(Barton W. Stone in Context: Perspectives on Barton W. Stone and the Revival)을 출판하였다. 두나번트의 독특한 공헌은 스톤의 지위에 대한 고찰을 스톤-캠벨 운

---

는 ‘그리스도인 운동’(혹은 교회연합운동)을 펼친 발톤 스톤을 단순한 스톤-캠벨 운동의 선구자가 아닌 창시자로 부각시키려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 제자(파)들은 다른 한편에서 알렉산더 캠벨의 이성적, 합리적 또는 과학적 신학방법론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동의 역사편찬에 개시한 것이다.

스톤에 대한 관심이 새로위짐과 동시에 또한 캠벨 연구의 르네상스를 맞기도 하였다. 캠벨에 대한 많은 새로운 관심이 1940년대에 예일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일어났다. 예일 신학대학원의 원장 루터 A. 위글(Luther A. Weigle)은 그 자신이 스톤-캠벨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도 캠벨 연구를 장려하였다.<sup>11)</sup> 그 결과 네 개의 박사학위논문이 출판되었다. 로버트 프레드릭 웨스트(Robert Frederick West)는 자신의 <알렉산더 캠벨과 자연종교>(Alexander Campbell and Natural Religion, 1948)에서 캠벨을 당대의 자연종교와의 싸움에서 이긴 성서 계시의 챔피언으로 인정하였다. 해롤드 L. 링거(Harold L. Linger)는 <알렉산더 캠벨의 정치윤리학>(The Political Ethics of Alexander Campbell, 1954)에서 캠벨이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활달한 관심을 보였고, 정치적 결정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책임감을 인정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캠벨은 설교 때 “광적으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이성에 호소하였다. 그랜빌 T. 워커(Granville T. Walker)는 <알렉산더 캠벨의 사상과 설교>(Preaching in the Thought of Alexander Campbell, 1954)에서 캠벨의 이성에의 호소가 변방에 거주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종교생활과 하나님 영접을 위한 정직한 탐구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주장하였다. D. 레이 린들리(D. Ray Lindley)는 <자유 의 사도>(Apostle of Freedom, 1957)에서 교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캠벨의 견해들을 그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던 “민주주의를 삶의 한 방식으로 재고(再考)하는 것”에 관련시켰다. 또 세실 K. 토마스(Cecil K. Thomas)가 프린스턴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알렉산더 캠벨과 그의 새 번역 성서>(Alexander Campbell and His New Version, 1958)가 출판되었다. 이 논문에서 토마스는 어떻게 캠벨의 번역 성서가 “표준개역성서(RSV)가 담고 있는 수많은 가장 인상적인 특징들”을 그보다 앞서서 담고 있는가를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11)[역자 주] 학문적으로 열린 미국의 대학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호서대, 한신대, 연세대 등의 대학들에서는 연구자가 소속된 단체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논문들을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

캠벨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와의 연관성에서 명백히 이뤄졌다. 20세기 중반의 주류 개신교의 특징은 계시로써의 성서에 대한 신정통주의 견해들, 교회의 사회-정치적 민주주의와의 관계, 성서의 역사-비평 연구의 급성장, 종교생활에 대한 대중의 추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대학원에서 공부한 목사들과 교사들의 세대, 곧 이 새로운 세대에 의한 연구에서 부각된 캠벨의 관심들은, 비록 약점이나 맹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류 미국 개신교의 관심들과 현저하게 일치한 것들이었다.

(캠벨이 1840년에 자신의 농장에 세웠던) 베다니(Bethany)대학교 그 대학의 학장인 페리 E. 그레삼(Perry E. Gresham)은 캠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장려하였다. 1966년 그 대학은 S. 모리스 임즈(S. Morris Eames)의 <알렉산더 캠벨의 철학>(The Philosophy of Alexander Campbell)을 출판하였는데, 그 책은 캠벨이 “본질적인 종교적 신념들과 그의 동시대인들의 철학적으로 참신한 개념들을 어떤 형태로든 지적으로 조화시켜보려고 힘썼다”고 주장하였다. 6년 전에 그레삼은 <베다니의 현인: 광복피륙의 개척자>(The Sage of Bethany: A Pioneer in Broadcloth)라는 에세이집을 편찬하였다. 에바 진 래더(Eva Jean Wrather)가 쓴 캠벨의 전기가 그녀가 사망한 2001년까지 출판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책의 마지막 에세이로 실리게 되었다. 전후(戰後)시대의 캠벨 르네상스에 관해 해설하면서 래더는 과학적 인문주의가 절정에 달하고 있고, 성서비평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시점에서 캠벨은 유행이 지났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950년대의 두들겨 맞고 상처 입은 세계에서, 인간의 오만한 자급자족의 추락한 우상의 폐허 속에서, 알렉산더 캠벨은 때때로 놀랄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1970년에 ‘그리스도인 출판위원회’(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의 지도부는 새롭고 종합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 서술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역사가인 레스터 G. 맥칼리스터 2세(Lester G. McAllister, Jr.)와 윌리엄 E. 터커(William E. Tucker)가

작가로서 선발되었다. 1975년에 출판된 <믿음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Journey in Faith: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가 제자들 교회의 권위 있는 보편적인 역사가 되었다. 개리슨과 드그루트의 1948년 역사의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를 채택하면서 맥칼리스터와 터커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형성(창립)에 귀착된 1968년의 조직 개편을 관통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써나갔다. 새 역사의 해석구조는 개리슨과 드그루트가 만든 패턴을 따랐다. 스톤-캠벨 운동에서 생긴 갈등은 미국인의 삶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동력에 대한 각기 다른 대응들의 결과에 크게 기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의 변화가 있었다. 앞서 기록된 역사들을 따르면서 개리슨과 드그루트는 스톤-캠벨 운동이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나뉘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가인 데이비드 에드윈 해럴 2세(David Edwin Harrell, Jr)의 저술에 영향을 받은 터커와 맥칼리스터는 기술적으로는 제자들 교회가 남북전쟁으로 인한 공식적 분열을 피했지만, “불협화음의 씨앗들이 뿌려져, 재배되었고, 한 세대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제자들 교회에서 분리될 만큼 자라서 만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맥칼리스터<sup>12)</sup>와 터커가 그들의 역사를 쓰기 시작할 때, 제자들 교회의 두 번째 공식적 분열이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sup>13)</sup> 제자들 교회에서 분리되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일치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망성에 대해 개리슨과 드그루트보다 더 적게 희망을 나타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자들 교회의 학자들은 자신들이 쓴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를 대담한 선언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교회일치가 이뤄질 때까지, 세상이 그것을 믿도록, 그

12)[역자 주] 맥칼리스터(Lester G. McAllister)가 편찬한 『알렉산더 캠벨의 글 모음』(An Alexander Campbell Reader. St. Louis, Missouri: CBP Press, 1988)이 조동호 목사의 번역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다음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번역된 책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http://kccs.pe.kr/main20.htm>

13)[역자 주] 중도노선의 독립교회들(유악기파)

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는 성서에 기초한 교회 일치(연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증언할 것이다.”

## 5.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기술 Historiography of the Churches of Christ

제자들 교회의 학자들이 20세기 전반기 동안 대부분의 스톤-캠벨 역사기술을 차지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도 역사가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발행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분열에 따른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독특한 입장들을 변호하는 것들이어서 보다 광범위한 역사적 이해에는 별반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기독교개혁에서 스톤-캠벨 운동이 갖는 섭리적인 역할에 관한 초기 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줄기가 그 운동의 이상(理想)과 특히 신약교회의 복음과 질서 회복에 대한 참되고 신실한 계승자라고 생각하였다. 명시적으로든 혹은 암시적으로든 이들 초기 역사는 제자들 교회가 환원이상(還元理想)을 포기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사역(使役)에 인정되지 않은 관행들을 첨가하거나 (교회)일치를 위해 타협을 강조하고 추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초기 분열 때 제자들 교회가 일치를 택했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신약교회)복원을 택했다는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캠벨 운동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초기 역사가들은 그들이 복원에 집중하는 당위성을 역사서술에 포함시킬 자신들의 임무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sup>14)</sup>

신시대티 교회 지도자이자, 출판가였던 존 F. 로우(John F. Rowe)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소속으로 명확히 확인된 저자로서 초기 역사를 저술하였다. 1877년에 이미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의

14)[역자 주] 이 글의 저자의 입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자(파)들은 신약성서교회의 회복운동, 또는 사도전통의 회복운동보다는 연합운동, 곧 에큐메니즘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며, 신학에 있어서도 보수신학보다는 진보신학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악기)은 제자(파)들과는 정 반대의 길을 걸었다. 폭넓은 개념의 연합보다는 신약성서교회의 회복운동, 또는 사도전통의 회복운동에 치우쳐 좁은 개념의 일치를 선호하였다. 연합보다는 진리에 더 가치를 둔 것이다. 이 두 입장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유악기/독립)이다.

시작과 발전에 관한 역사>(The Disciples of Christ: A Brief History of Their Rise and Progress)를 썼다. 그러나 그의 가장 중요한 저술은 1884년에 저술되고 출판되었다. 그리고 적어도 10판이 연이어 인쇄되었다. 그의 책, <개혁운동들의 역사: 열아홉 차례 교회협의회 총회들의 역사로 본 사도교회 환원예로의 귀착>(History of Reformatory Movements: Resulting in a Restoration of the Apostolic Church, With a History of the Nineteen General Church Councils)은 제목만으로도 책의 논지가 설명된다. 5년 후 로우는 위 책에 <제3세기이후 일어난 모든 쇄신들의 역사>(A History of All Innovations from the Third Century Down)라는 제목의 부록을 첨가하였다. 이 부록에서 로우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기본 줄거리를 상술한 후에 스톤-캠벨 운동을 모든 교회개혁노력들의 정점으로 기술하였다.

다른 초기 역사가들처럼 로우는 캠벨운동을 사도 기독교(Apostolic Christianity)의 복원을 위한 주된 원동력으로 기술하였다. 그는 서론에서 “믿음과 실천 모두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신앙인들의 단체를 실제로 일으킨” 사람은 알렉산더 캠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스톤에 관해서는 여섯 쪽만 다루고, 본질적으로는 스톤 신학을 캠벨 부자의 것과 하나로 통합해 버렸다. 스톤의 사상을 캠벨 부자의 것에다 함께 섞는 이런 경향은 19세기를 넘어서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가들에게 하나의 표준이었다. 두 사상의 차이를 식별하지 못한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요인들이 기여했던 것 같다. 이런 요인들 중 하나는 스톤이 쓴 일차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톤의 교리적 입장과 신념에 관한 거북스러움이었다. 그런 거북스러움은 특히 삼위일체와 대속에 관한 이해, 그리고 그가 인도했던 열광적인 부흥회들에서 나타났다.

로우는 그의 책에서 사도교회의 복원을 파괴할지 모를 자들에 대한 여러 암시를 제시하면서도, 스톤-캠벨 운동에서 이미 진행 중인 분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책은 스톤-캠벨 운동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와 이전 세기들에서 인위적으로 도입된 부패한 것들에서 벗어난 사도적인 공동체로서 묘사한다.

로우의 역사는 1929년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서 표준으로 남았다. 같은 해에 F. W. 셰퍼드(Shepherd)는 <교회, 타락, 그리고 환원>(The Church, the Falling Away, and the Restoration)을 저술하였다. 그는 1906년 종교 조사를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했던 인물이다. 존 F. 로우의 아들, F. L. 로우(Rowe)에 의해서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 책은, 더 간략하지만, 존 F. 로우의 초기의 책과 상당히 동일한 기초 위에서 쓰였다. F. W. 셰퍼드는 신약 교회의 기술로 시작하면서 로마 가톨릭주의의 출현을 배도(背道)란 말로 정의하였다. 비록, 로우처럼, 셰퍼드도 스톤의 사상을 알렉산더 캠벨의 것과 거의 동일하게 건전한 것으로 취급하였지만, 스톤-캠벨 운동의 이야기는 발톤 스톤의 업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책이 1832년 스톤과 캠벨 운동들의 연합 이야기로 갑자기 끝을 내고 있지만, 거기에 내포된 암시는 또 다시 스톤-캠벨 운동이 신약교회 복원의 임무를 성취했고,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들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로우와 셰퍼드의 책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출간되었다.

20세기 초 다른 중요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담론은 1939년과 1942년 사이에 <복음주창자>(Gospel Advocate)지에 실린 일련의 기사에서 나타났다. 프리드 하드만 대학(Freed Hardeman College)의 교수였던 L. L. 브리건스(Brigrance)가 쓴 “환원연구”(Studies in Restoration)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스톤-캠벨 운동의 진수로써 로우와 셰퍼드의 글에서 나타난 교리와 실천의 회복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심지어 셰퍼드 이상으로 브리건스는 그 운동에 있어서 스톤을 그의 신학이 본질적으로 캠벨의 것과 동일한 선구자로서 묘사하였다. 이전의 역사들과는 달리 브리건스의 역사는 스톤-캠벨 운동의 이상에서 일부 형제들의 이탈을 공공연히 비난하며 분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미 겪었던 것처럼, 1940년대 중반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서도 사역자(ministers)와 편집장들에 의해 쓰인 역사로부터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역사가들에 의해 저술된 역사에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전

환으로 인해, 역사기술은 스톤-캠벨 운동의 존재이유였던 환원(복원)에 대한 배타적 집중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승리주의(triumphalism)<sup>15)</sup>의 옛 형태를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이 전환기의 과도기적인 인물이 호머 하일레이(Homer Hailey)였다. 그는 에빌린기독교대학교(ACU)와 플로리다대학(Florida College)에서 성서를 가르친 교수였으며, 1944년 남감리교 대학교(SMU)에서 교회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다음 해 그는 <환원운동의 태도와 결과들>(Attitudes and Consequences in the Restoration Movement)이란 제목으로 그의 논문 수정판을 출판하였다. 비록 그의 저술이 종합역사로 기획된 것은 아닐지라도, H. 하일레이는 스톤-캠벨 운동의 기본적인 태도였다고 믿었던 것들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가장 초기의 추진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the union of Christians)이었으며, 신약성서를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의 전례(典例)로 삼고자 한 간절함이 초기 설립자들에게 옛 질서(사도전통)의 환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하일레이는 그 분열이 성서가 침묵하는 부분을 어떻게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의 결과라고 설명하였고, 선교회(교회협의회 성격)의 적법성과 예배 중 악기 사용하는 문제들에 집중하였다. 하일레이는 그가 인용한 개리슨(W. E. Garrison)의 1931년 저술, <변방을 좇는 종교>를 포함해서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를 폭넓게 섭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분명히 그로 하여금 일치의 이상(ideal of unity)을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이전 역사들의 사례에 있어서보다 좀 더 빼어난 위치로 옮겨놓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제도(noninstitutional)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지도자가 될 하일레이는 비록 캠벨이 자신의 강령(綱領)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연합)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고는 하나 그의 일차적인 헌신은 “대중성”보다는 오히려 교리적인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5)[역자 주] ‘승리주의’(triumphalism)는 특정 교리, 문화, 사회체제가 모든 다른 것들보다 우월하다거나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나 신념을 말한다. 승리주의는 통일을 꾀한 교리가 아니라, 정치해설가들이나 역사가들처럼 당파들의 특정 태도들이나 신념체계들을 특정 짓는 말이다.

얼 I. 웨스트(Earl Irvin West)가 쓴 4권짜리 역사 가운데 첫 권이 1949년 <옛 질서의 탐구: 1849-1906년의 환원운동의 역사>(The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1849-1906)란 제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E. 웨스트는 M.A.와 B.D. 학위를 버틀러대학교(Butler University)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했고, 일 년 전에는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Ph.D. 학위를 막 마친 상태였다. 웨스트의 저술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출신의 전문 역사가에 의해서 쓰인 스톤-캠벨 운동의 명실상부한 최초의 종합역사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J. F. 로우 이후에 나타난 해석의 경향들, 곧 환원운동의 진수와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위업으로써의 환원을 견지하였다. “옛 질서”(사도전통)가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복원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진리에 대한 모든 위협들을 물리치면서, 상대적으로 상처가 없는 환원운동의 진정한 유산을 보전하면서 19세기와 20세기를 통과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전체적으로 그 줄기와 운동의 자기 이해에 제각기 뜻 깊은 공헌을 하게 될 두 개의 서로 다른 역사가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학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첫 번째 것은 밴더빌트대학교에서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데이비드 에드윈 해럴 2세(David Edwin Harrell, Jr.)가 쓴 비판적 사회적 역사였다.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수행된 저술에 근거해서, 해럴의 <기독교 미국에 대한 탐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미국 사회>(Quest for a Christian America: The Disciples of Christ and American Society, 1966)와 <1865-1900년, 그리스도의 제자들 분열에 대한 사회적 사료들>(The Social Sources of Division in the Disciples of Christ, 1865-1900, 1973)은 분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취한 교리적 입장들이 스톤-캠벨 운동에 의해서 회복된 성서 진리들에 단지 완고하게 집착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굉장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대다수 그들 남부 시골 교회들이 직면했던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고, 남북전쟁과 지역파벌주의는 그들의 특질(ethos)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D. 해럴의 저술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와 스톤-캠벨 운동 전체

를 통해서 부각되는 학자들 사이에서 환원운동의 역사기술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어떤 면에서 해럴의 저술은 단순히 이전의 일치된(總意的) 해석들을 되풀이(模寫)하지 않는 전문적 역사적 사회적 탐구를 합법화 하였다. 그의 개인적인 신앙충절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하위그룹들의 하나인, 비제도(noninstitutional) 교회들에 바쳐지고 있다. 그의 연구의 초점은 어떤 면에서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특질들을 대조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충절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럴의 저술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변증적이거나 혹은 특정 교리를 절대화하려는 해석에서 멀어지는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의 “새로운 역사가”는 빌 J. 험블(Bill J. Humble)이었다. 험블의 1964년 아이오와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은 19세기 기독교선교회 논쟁의 역사였다. 그 글에서 그는, 해럴처럼, 이슈를 지역 파벌화하고 또 그것을 분열시키는 일에 남북전쟁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969년에 출판된 험블의 간략한 <환원 이야기>(Story of the Restoration)는 해럴의 학술적인 서적들과는 매우 다른 장르인 성인주일학교교재로 고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 책을 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험블의 책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해럴처럼, 험블은 분열과 이상 속에 있는 파벌적 이슈들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그 중요성은 일치와 환원이 대립되는 목표들이었다는 것이다.<sup>16)</sup>

16)[역자 주] 성서의 권위회복과 교회일치는 기독교선교의 지상 최대의 과제이다. 환원운동의 핵심논쟁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교회일치와 성서적 권위회복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알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환원운동은 종교 개혁자들이 파괴한 우주적 단일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일치운동이며, 성서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 운동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이 환원운동을 지난 200년 동안 지속시켜 온 추진력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원칙의 맥락을 어떻게 조화와 균형 있게 이어가느냐에 있다. 교회일치 쪽이 밀리면, 율법적이고, 분파적인 성향을 띄게 되고, 성서의 권위 쪽이 밀리면, 교리적 상대성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서의 권위에만 치중하고 연합을 소홀히 하는 탓으로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악기)이 다분히 분파적이며 율법적이다.[1966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악기)은 30여개 이상의 분파로 갈라져 있으며, 텍사스의 아빌렌(Abilene)에서만도 6개 파가 서

힘블의 해석을 특별히 중요하게 만든 것은 그 책에 쓰인 결론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복원된 사도교회(restored apostolic church)라고 주장한, 존 F. 로우로부터 이후 이전 역사들과 달리, 힘블은 하나님의 뜻에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이지, 완료된 과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립스콤(Lipscomb)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로버트 E. 후퍼(Robert E. Hooper)는 그의 1993년 역사 저술, <독특한 백성: 20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A Distinct People: A

로 공박을 일삼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30개 이상 되는 그룹들은 서로 교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1960년에 16,500개의 교회에 2백만 이상의 성도를 보유하고 있던 교회가 필립 영의 1987년 통계 자료에서는 13,485개 교회에 130만 성도로 감소되었다.[R. J. Kidwell,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The Seminary Review*(Cincinnati Christian Seminary, Summer 1966); James D. Murch,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d.), p. 309.] 1995년에는 13,020교회에 165만 5천 성도로 보고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연합에 치중하고 성서의 권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진보신학 노선을 취하고 있다.[제자들 교회도 필립 영의 1982년 자료에 의하면, 1971년부터 1982년까지 10년간 916명의 교인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역시 필립 영의 1987년 통계자료와 대조해 볼 때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는 4,036개 교회에 93만 성도로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환원운동의 핵심논쟁은 바로 이 두 가지 교회일치와 성서의 권위사이에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느냐로 집약될 수 있다.[James B. North, "The Current Challenge to the Restoration Movement," *The Seminary Review*(Cincinnati Christian Seminary, September 1986), pp. 105-122.] 그리스도인의 교회들(독립 또는 유약기)도 성서만이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길잡이이며 교회일치의 시금석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으며, 성서의 권위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교회 일치에 다소 소홀히 하는 편이다.

이 두 원칙에 추진력을 주기 위해서 환원운동가들은 세 가지 표준을 세웠는데, 그것들은 통일, 자유,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본질적인 것은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로 하되,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간에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무약기)은 비본질적인 요소로 믿어지는 신약성서가 침묵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으로 믿어 본질적인 문제로 쟁점화 시켰고('성서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침묵한다'에 비중에 둔), 회중예배 때의 교회에서의 악기사용, 급료목회자, 성가대, 교회공동체 사이의 협동, 교회 밖의 기구 구성문제(예: 선교회, 성서공회 등)등을 문제 삼음으로써 환원운동 100여년만인 1906년에 갈라서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1900년대 초 자유신학의 물결에 함류하면서 진리의 상대성을 인정하였고, 성서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진리의 통일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치로 연합운동을 전개하면서 결국 중도 그룹인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유약기)에서 갈라서게 되었다. [이상의 '역자 주'는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신학논문'에 실린 역자의 "그리스도의 교회와 환원운동"(<http://kccs.pe.kr/rm02.htm>)이란 글의 '환원운동의 쟁점'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20th Century)에서 이와 동일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십년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출간된, 리로이 개리트(Leroy Garrett)의 <스톤-캠벨 운동>(The Stone-Campbell Movement, 1981; 1994년 개정판)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소속 저자가 교회 일치를 무대 중심에 놓은 첫 번째 역사가 되었다. 그 책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소속 회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학출판사(College Press)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개리트는 환원이 스톤-캠벨 운동의 최우선의 신학적 동력이었다는 주장에 공공연하게 도전하였다. 그는 캠벨의 강조가 일치의 끈으로써 사도전통의 본질들 위에 있었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수많은 비본질 항목들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해석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논쟁적일지 모르지만, 그 운동의 참된 정체성이 신약교회의 믿음과 실천들을 세밀하게 복원하는 탐구였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한 세기동안이나 유지해온 경향을 극적으로 뒤엎는 것임을 말해준다. 어쩌면 의미심장한 일로써, 책 제목으로 개리트가 찍어 박은 “스톤-캠벨 운동”이란 용어는 대부분의 학술문헌에서 사용된 “제자들 운동”(Disciples Movement)과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을 대신해서 점진적으로 표준 학명이 되었다.

리처드 휴즈(Richard Hughes)의 <옛 신앙 되살리기: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이야기>(Reviving the Ancient Faith: The Story of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1996)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기술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R. 휴즈의 획기적인 연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단지 구별되는 분파 정도가 아니라, 그 운동의 어떤 줄기에 못지않게, 초기의 확실한 주류를 대표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다고 역설한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발톤 W. 스톤의 “묵시적 종파주의,” 곧 [스톤과 캠벨] 연합 이후에도 그 운동의 생존능력을 유지시켰던 일종의 긴장을 크게 구체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 긴장은 마침내 캠벨과 제자들 교회의 “합리적 종파주의”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일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물려받은 동일한 합리적 경향들에 의해서 짓밟혔다.

적어도 휴즈의 저술은 한 중요한 새로운 해석들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먼저 그는 스톤-캠벨 운동에서 스톤의 중요성을 고양시켰다. 하지만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제자들 교회의 역사가들이 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 그에 따르면, 스톤은 현 시대의 연합운동가(ecumenist)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는 반(反)문화적 급진주의자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스톤의 확실한 계승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례로 삼아서, 휴즈는 “역(逆) 승리주의” 방식에서 20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를 설명해 나갔다. 19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정의했던 “진정한” 종파적 목시적 기독교는 20세기의 논쟁들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 논쟁들은 전 천년설 갈등, 반(反)제도적 싸움들 그리고 1960년대의 위기였다. <옛 신앙 되살리기>에서 드러난 휴즈의 업적은 해럴(Harrell)의 연구로 시작된 한 경향을 지속시킨 것이었다. 그것은 스톤-캠벨 운동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를 더 넓은 세계의 학계와 신앙 단체들로 개방시킨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소속 학자들이 쓴 스톤-캠벨 운동의 가장 최근의 역사는 게리 할로웨이와 더글러스 A. 포스터(Gary Holloway and Douglas A. Foster)가 쓴 <하나님의 백성 새롭게 하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간결한 역사>(Renewing God's People: A Concise History of Churches of Christ, 2001)이다. 휴즈처럼, 이들 저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임무가 일종의 끝없는 과정이란 것을 암시한 책 제목의 어휘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 환원의 개념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할로웨이와 포스터는 주요 목표로써 교리와 실천을 율법적으로 되풀이(模寫)할 것을 강조한 환원에 대한 이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오히려 이 세상의 집에 결코 전적으로 머물지 않고, 그들의 참 본향을 향해서 늘 오름의 행진을 펼친다는 나그네 백성의 개념은 두드러진 은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한 세기 동안의 역사기술은 복원된 사도교회라는 보증으로부터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a picture)으로 옮겨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Christ's church)의 더 넓은 역사 속에 있는 모습이요, 그들의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나그네 백성을 새롭게 하는 모습이다. 그 시기에는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구성원들이 기여한 학문에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 6.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기술 Historiography of the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가들이 자기 집단을 위해 분열을 일으키는 분파 이야기만이 아닌 그 이상의 역사로써 한 지속적인 역사를 확인하려고 힘쓰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가들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또 그 이상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 내부에서 발생된 이념적 갈등과 제도적 분열을 언급하려고 힘썼다. 소위 '독립교회주의자들'(independents)에 속한 보수주의자들과 중도파들은 모두 스톤-캠벨 운동에서 주창해왔던 역사상 중요한 호소(plea)를 재고(再考)하였다. 이 재고는 역사적 성찰을 실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0세기에 발생한 제도적 신학적 갈등의 중심에 놓인 스톤-캠벨 운동의 미래 사명에 대한 그들 자신의 비전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관점에서 이뤄졌다. 신시내티 소재의 '스탠더드 출판사'(Standard Publishing)는 각 권이 그 자체로 약간의 독특한 관점들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학자들이 저술한 특별히 중요한 세 권의 스톤-캠벨 운동사들을 출판하였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의 <오직 그리스도인들: 환원운동사>(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1962)는 오랜 기간 스톤-캠벨 운동의 표준 역사였으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 대학 및 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J. 멀치는 제자들에게서 감지된 자유주의 경향을 철저히 반대한 비평가였고, '그리스도인의 환원 협의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1925년 설립)의 초대 회장이었다. 그는 스톤-캠벨 운동이 '자유 교회'(Free Church) 교회론의 정점이었다는 점을 피력한다. 로마 가톨릭의 신시내티 시(市)의 주교인 존 뱀티스트 퍼

셀(John Baptist Purcell)과 펼친 1837년 토론에서 알렉산더 캠벨이 추적인 논쟁의 여러 방식 중 하나에서 영감을 받은 멀치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서문에서 스톤과 캠벨부자(父子)의 환원운동은 권위와 의식을 존중하는 교권주의(high-church ecclesiasticism)와 배도를 무시한 다른 운동들의 계통 속에서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같은 운동들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가톨릭과 정교회를 회피하고 “사도전통의 계승”(apostolic succession) 곧 신약성서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증언한 (때때로 박해를 받았던) 증인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유서 깊은 프리실리안파(Priscillians)<sup>17)</sup>와 보고밀파(Bogomils)<sup>18)</sup>가 있었고, 종교개혁이전시대에 카타리파(Cathari)<sup>19)</sup>와 왈도파(Waldenses)<sup>20)</sup>가 있었으며, 종교개혁이후시대에 재침례파(Anabaptists)<sup>21)</sup>와 할데인(Haldane) 형제들<sup>22)</sup>이 시작한 스코

17)[역자 주] 프리실리아누스는 스페인 아빌라의 주교로서 ‘성경말씀에 따른 개혁’을 주장하다가 383년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글들과 가르침이 소각당하여 남은 것이 거의 없지만, 그의 사망 후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와 투르의 주교 마르티노 등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소한 재판기록이 1886년에 발견됐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교회가 교권과 형식에 치우쳐 가는 것을 경고하여 성경연구와 성만찬 준수를 강조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렀다. 프리실리안파(Priscillians)를 공박하기 위해서 주후 400년에 스페인 툴레도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기도 하였다.

18)[역자 주] 보고밀파는 8-9세기에 성경연구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남은 기록은 대부분이 재판기록뿐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레크의 그레고리(Gregory of Narek)라 불리었으며, 역시 무서운 핍박을 받아 죽었고 세상은 이들을 ‘하나님의 벗’(Friends of God)이라 불렀다. 이들은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우상을 반대하였다.

19)[역자 주] 카타리파는 9세기경 발칸반도와 그 주변 섬에서 형성되었고, 중세 유럽 여러 지역에서 발흥하다가 14~15세기경 소멸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순결한 사람’(Katharoi)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주장은 복음적이고 청빈적인 교회를 꿈꾸던 많은 개혁가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20)[역자 주] 프랑스 리옹의 발두스(Petrus Waldus, ?~1217)는 청빈(淸貧)을 실천하기 위해 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pauperes Christi) 혹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Poor men of Lyon)이라 불렀으며, 주교의 탄압에 대항하였다. 그의 사상은 청빈과 더불어 교황권위의 부정, 연옥의 부정, 평신도에 의한 사죄(赦罪)의 인정, 죄에 빠진 사제가 거행한 미사의 성사성(聖事性) 등을 부정하였다. 그의 사상은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지로 확산되어 종교개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틀랜드의 환원운동이 있었다.

멀치의 온건한 승리주의(triumphalism)의 관점에서 볼 때, 스톤-캠벨 운동은 이들 환원운동들의 정점에 선 계승자였다. 그러나 그 자체는 전적으로 환원운동의 참된 소명에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작금의 개혁’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정녕코 또 다른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고 멀치는 기술한다. 그는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sup>23)</sup>이 미국의 상황에서 환원사역을 위한 영역을 섭리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미국 기원을 가진 가장 위대한 신앙운동”을 무르익게 한 것은 “선언과 제언”과 더불어 토마스 캠벨과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와 더불어 알렉산더 캠벨이었다고 역설하였다. 그들의 노력은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교회론적으로 충실하며, 시기적으로 백퍼센트

21)[역자 주] 재침례자들은 유아세례, 이단자에게 받은 세례, 박해 때 배교했던 성직자에게 받은 세례 등을 부정하였고, 스스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침례(believer's baptism)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성서의 권위회복을 강조하였고, 신약성서 교회로의 환원을 역설하였다.

22)[역자 주] 로버트 할데인(Robert Haldane/1764-1842)은 스코틀랜드의 부흥목사요, 저술가요, 박애주의자였으며, 할데인 운동의 지도자였다. 그는 그의 형제 로버트 할데인과 함께 스코틀랜드 교회를 탈퇴하였고, 인위적인 가르침을 버리고 사도 시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임을 강조하였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교회의 머리로 섬겼으며, 교회정치로는 개 교회가 다수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중주의를 주장하였고, 유아세례를 배제하고 침수세례를 베풀었으며,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거행하였다.

23)[역자 주]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은 1720~40년대 사이에 미국의 영국식민주들에서 일어난 신앙부흥운동을 말한다. 이 부흥운동은 주로 칼뱅주의였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일부 성공회 등에서 일어났다. 이 운동을 이끈 주요 인물은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로서 성공회 사제였으며, 1739~40년에 미국을 방문하여 야영집회들을 열어 설교했다. 또 다른 주요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로서 회중교회 목사였으며, 학자이자 변증가였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다고 설교하여 호응을 얻었다. 제2차 대각성운동(the Second Great Awakening)으로 알려진 부흥운동은 1790년대 뉴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다. 제1차 대각성운동 때만큼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대학과 신학교들이 세워졌고 선교협회들이 조직되었다. 이 기간 동안 켄터키주에서도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야영집회 방식의 부흥운동이 발전했으며 19세기 내내 미국 개척지에 영향을 주었다. 켄터키주 부흥운동(the Kentucky revival)의 주역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Only Movement)을 펼친 발톤 스톤(Barton W. Stone)이다.

적절한 하나의 운동을 위해 기초를 놓은 것이었다. 멀치의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캠벨부자를 다루고 나서야 비로소 발튼 스톤을 다룬다. 멀치는 스톤에게 교리적으로 (특히 삼위일체와 대속의 교리에) 의심스런 견해들이 있었음을 감지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또 스톤의 주된 공헌이 “그의 평화 정신, 그의 실천적 일치에 대한 소질 그리고 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에 있었음을 주장한다. 캠벨의 환원신학과 관련하여 스톤의 제한적인 지도자 역할에 관한 멀치의 소감은 스톤-캠벨 운동의 형성에 기여한 스톤의 중요성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 퍼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국 복음주의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창립멤버로서 멀치는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특히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과 동일시된 자유주의 곧 인지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주의에 직면해서, 그리스도인 일치에의 더 큰 임무에 스톤-캠벨 원리들이 끼친 공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 복음주의 연맹’(International Evangelical Alliance)에 대한 알렉산더 캠벨의 초기 지지는 중요한 선례로 남았다. 그렇지만 또 교회조직, 침례, 등등의 이슈들을 성서대로 복원하는 일에서는 비타협적이고 고집스런 태도를 취하였다. 멀치는 비슷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제2세대 중에서 발전적 보수주의자인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의 지도력을 부각시켰다. 멀치에게 있어서 에레트(Errett)는 “고립주의 종파”(isolationist sect)가 되지 않도록 제자들을 구출한 인물이다. 동시에 에레트는 자신의 책, <우리의 입장>(Our Position, 1870)에서 ‘신약교회를 복원하자’는 호소(restoration plea)를 더 넓은 개신교 세계에 지적으로 세련되게 발표한 인물이었다.

멀치는 20세기 초중반에 일어난 ‘대배도’(Great Apostasy)의 결과로 인해 제자들 교회가 당한 재난을 분석한다. ‘대배도’는 ‘대논쟁’(Great Controversy)으로 이어졌다. ‘대논쟁’은 ‘신약교회를 복원하자’는 호소(restoration plea)를 놓고 윤곽이 뚜렷한 세 줄기가 총력을 기울여 마찰한 이념전쟁이었다. 멀치는 세 줄기를 미국 그리스도인 문화에 속한 남은 자들로부터 자신들을 크게 분리시킨 반동(보수)적

‘우파’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신(新) 복음’을 끌어들이 환원 강령을 전부 버린 ‘좌파’ 진보주의 제자들 그리고 발전적 보수주의에 헌신했던 “중도파” 신실한 자들로 나누었다. 멀치는 우파와 좌파 모두에 동정적 주변부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중도파를 직접적으로 신생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로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도파 근거의 제도적 구현을 기술했다면서, ‘연합 그리스도인 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에 대항하여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초기 교단화(교권주의)에 대항하여 결집한 성서대학들과 교회들을 네트워크로 빠르게 하나로 묶는 선교기획들을 주로 열거한다.

멀치는 진보주의 제자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개입하면서 보여준 타협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으로, 자기 자신이 전역(全域)의 스톤-캠벨 교회들에서 관심 있는 중도파(Centrists)를 이끌도록 도왔던 내부 일치협의회(Consultations of Internal Unity)에 대해서는 희망 섞인 진술로, 또 세계교회주의(ecumenism)의 현 상황이 오히려 ‘신약교회를 복원하자’고 호소(restoration plea)하기에 또 한 번의 적절한 기회란 것을 긴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끝을 맺는다. 멀치는 심지어 세계교회협의회(WCC) 안에도 환원 프로젝트에 열려있는 요소들이 있어왔다는 사실, 즉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신실하게 주창하는 자들이 성서적 진리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될 때, 에큐메니컬 운동의 협의들 속에서 그 날이 곧 도래할 것이 드러날 것이다”는 사실에 용기를 낸다.

멀치의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출판된 지 거의 30년 만인 1990년에 스탠더드 출판사가 헨리 웹(Henry Webb)의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찾아서: 환원운동사>(In Search of Christian Unit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를 세상에 내놓았다. H. 웹은 이 책이 더 새로운 역사적 관점들을 고려할 수 있는 신선한 접근을 제공할 것으로 믿었다. 밀리건 대학(Milligan College)의 교회사 교수를 역임한 웹은 멀치가 특징적으로 시도한 환원운동가의 재건(restorationist reconstruction)으로 첫 장을 시작한다. 환원운동가의 재건이란 “수세기에 걸쳐 역사 속에 있어왔던 ‘참 교회’를 추적하려는 시도가 이런

역사기술(work)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1세기이후로 교회는 언제나 참 교회의 구성원들로 정말 헌신적인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또 역설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역사관을 말한다. 그래서 웹은 스톤-캠벨 운동이 이런 독자적인 성취들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개혁’이란 더 큰 틀(work)의 일부로써, 스톤-캠벨 운동의 초기 지도자들의 공동 노력을 고찰한다. 멀치와는 달리 웹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화해라는 하나의 목적에 대한 일종의 수단으로써 그것의 실행 가능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동시에, 또 그것의 내재된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환원’ 이상 그 자체를 더 면밀히 비판적으로 기꺼이 검증받게 하려고 한다.

또 멀치와는 대조적으로 웹은 스톤-캠벨 운동의 형성과 역사를 해석할 때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예를 들면, 그는 옛 남서부지역에서의 발톤 스톤의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 Movement)을 솔직히 애팔래치아(Appalachia)<sup>24</sup> 지역을 가로지르는 변방의 종합적 종교문화에 얽여려 한다. 게다가 노예문제와 남북전쟁에 관한 제자들의 투쟁의 여파를 분석하면서 웹은 [데이비드 에드윈 해럴 2세(David Edwin Harrell, Jr.)에 동의하면서] 좀 더 풍성하고 도시 공업화된 북부와 더 가난하고 대부분 발전하지 못한 시골지역인 남부사이에서 제자들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 분열을 재촉하는 잔존하는 ‘문화적 갭’(cultural gap)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예배에서 악기사용과 같은 이슈는 전적으로 해석학적 갈등으로써가 아니라, 오르간이나 멜로디언들과 같은 호사를 솔직히 누릴 수 없는 남부지역 회중들의 견해를 달리한 표현으로써 이해되어질 수 있다.

웹의 역사서가 거둔 주요 공헌은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에 마침내 분열을 일으킨 개인과 제도적 반목을 상세하게 (그러면서도 멀치와

24)[역자 주] 미국의 동북부 뉴욕 주로부터 동남부 앨라배마, 미시시피, 조지아 주에까지 펼쳐진 미동부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산맥과 그 지역을 일컫는다.

비교했을 때 덜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것이다. 웹은, 멀치의 전례를 따르면서, 선교론, 교회론, 해석학의 근본적 차이와 좌우 분극화를 막기 위한 1940년대 ‘재검토 제자들 위원회’(Disciples’ Commission on Restudy)에서 드러난 온건파의 무능을 강조한다. 웹은 진보주의 자들과 초보수주의자들이 제자들을 또 다른 공개적 분열로 몰고 갔을 때 온건파들은 사실상 거기서 밀려 났다고 주장한다. 웹은 멀치보다 훨씬 더 기꺼이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sup>25</sup>지와 북미주 그리스도인 대회(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sup>26</sup>에 소속한 초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 제자들과 더불어 분열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웹의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찾아서>는 스톤-캠벨 전통의 세 가지 영속적인 지류들의 강점과 직면한 도전 모두를 공정하지만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결론에서 보여준다. 웹이 자신이 소속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내적 동력과 교회론의 특성들에 대해서 내린 분석은 특히 중요하다. 웹은 이들 교회들이 개 교회 자치에 쏟는 헌신을 조심스럽게 고찰하지만, 그들이 수많은 소속 선교단체들(parachurch organizations)<sup>27</sup>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비협조적’일 것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한

25) [역자 주] <크리스천 스탠더드>는 1866년에 창간된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Independent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의 대표적인 주간지이다. 제20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James A. Garfield), 필립스 석유회사의 소유주였던 T. W. 필립스(T. W. Phillips), 초대 편집자였던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 등이 창간멤버로 참여하였다.

26) [역자 주] 북미주 그리스도인 컨벤션(NACC)은 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의 반작용으로 1927년에 시작된 독립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Independent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이 매년 1회 여는 큰 모임이다.

27) [역자 주] 주변교회(parachurch)는 교파를 초월한 복음주의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교파시스템이 역동성을 잃고 경직화되면서 교파체도가 하나님의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선교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생기면서 등장한 운동이다. 미국에만 이런 주변교회가 10,000개가 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주변교회의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YFC(Youth for Christ), IVC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월드 비전(World Vision)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다. 웹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직면한 일부 첨예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뛰어난 식견을 제공한다. 이들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들에는 (일부 학자들과 교회들이 수용한 성서의 무오설과 같은) 근본주의의 유입, 여성목회자에 대한 찬반 토론, 그리고 신학적 사회학적 다양성의 유감스런 부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웹의 역사서의 결론은 교단화에 저항하면서 '독립(무소속)교회로 남아있는 중도와 대표자들에게 적어도 저자가 분명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독특한 공동체로써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출현에서는 승리주의의 표현이 덜했다는 것이다.

스탠더드 출판사는 1990년대에 신시내티기독교대학교(CCU)의 교회사 교수인 제임스 노스(James North)가 저술한 또 한 권의 역사개론서, <진리 안에서 연합: 환원운동의 해석사>(Union in Truth: An Interpretive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1994)를 출판하였다. 노스는 자신의 책보다 조금 먼저 출판된 저술들, 곧 리로이 개리트(Leroy Garrett)의 <스톤-캠벨 운동>(The Stone-Campbell Movement, 1981; 1994년 개정판)과 웹의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찾아서>(In Search of Christian Unity)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개리트의 『스톤-캠벨 운동』은 환원사상의 포기를 인정한 것 때문에, 웹의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찾아서>는 특징적으로 중도(中道)적인 관점 때문에 비판적이었다. 노스는 스톤-캠벨 운동이 일치와 환원이란 두 원칙들을 놓고 비극적인 분열을 겪었다는 해묵은 주제를 이용한다. 그는 그의 수정된 해석에서 스톤-캠벨 운동이 일치와 성서 권위라는 한 쌍의 관심들을 통합할 능력에 따라서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제시한다. 노스의 확신은 명확히 프로그램에 입각한 환원을 통해서만 오로지 성서의 참 권위가 그리스도인 일치의 토대로 존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노스는 환원이상이, 스톤-캠벨 운동만의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기독교 세기들에서 단지 제한된 표현에 그쳤다고 한 번 더 주장한다. 멀치가 그랬던 것처럼, 노스도 19세기의 환원운동을 교회사를 통틀어 일치와 성서 권위의 두 원칙이 결정적으로 결합된 최초의 개혁운동이자 정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스는 멀치보다 더

과감하게 “이[환원] 운동”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C)과 그리스도의 교회들(COC)의 역사가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단언한다. 그러나 노스는 사도시대말과 알렉산더 캠벨의 등장 사이에 끼인 보편적(catholic)인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은 거만이며 뻔뻔함이었다는 웹의 주장에 동의한다. 노스는 뻔뻔한 승리주의를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교회를 철저히 배제한 멀치의 사도전통을 신실히 계승한 ‘남은 자’ 교회의 재건론을 공공연히 비난한다. 캠벨부자는 사도들의 기독교를 다시 세우지는 않았으나, 이전의 개혁가들처럼, 사도들의 기독교를 힘써서 식별해내고, 복원시켜야 했다. 그러므로 노스는 캠벨운동에서의 환원사상에 대한 궁극적 표현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환원사상에 대한 지속적인 유산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지고 [교회]개혁에 대한 더 광범위한 역사적 전망에 감성을 결합한다.

노스는 캠벨부자가 그들의 개혁을 환원(restoration)운동으로써 모양을 갖추는데 있어서 발톤 스톤보다 더 우위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웹과 멀치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화해에 대한 스톤의 관심이 어떻든 간에, 스톤-캠벨 운동의 헌신을 “진리 안에서 연합”(union in truth)에 한정된 것은 캠벨부자의 덕분이였다. 다음으로 노스는 진행 중인 성서권위의 위기로써 분열이 스톤-캠벨 운동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악기들, 선교회 조직들, 전임(located) 설교자들은 다름이 일어난 이슈들의 상징들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슈는 성서 권위의 적용이였다.” 그 점에 있어서 양진영은 고전적인 사례인 예배에서의 악기사용을 허용으로 봐야할지, 금지로 봐야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서로 자기 진영의 주장이 성서적이라고 확인하였다. 차이점은 성서 권위의 상세한 적용, 이를테면, 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었다. 마침내, 노스의 견해에 따르면, “무악기 주창자들”은, 그들이 편의의 원칙(principle of expedience)<sup>28)</sup>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인 일치에 대한 관심

28)[역자 주] 환원운동가들이 의존한 세 가지 표준 가운데 비본질 문제에 대한 ‘자유’ 결정을 말한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은 비

사에서 성서의 권위를 깨뜨렸다.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음 국면의 분열은 진보주의자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서의 고등비평에 전념하면서 성서의 위상과 권위를 무너뜨렸고, 또한 그리스도인 일치에 대한 관심사에서 성서를 격리시켰다. 그러므로 진보적인 제자들 세계교회운동가들에게 일치의 추구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노스의 결론은 통명스럽다. 진보주의자들은 그들의 반대쪽 극단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들과는 달리, 성서권위에 대한 그 어떤 진정한 감각조차 없었다. 따라서 진보주의자들은 이미 성서에 신실한 보수주의자들과 일치하기보다는 세계교회운동의 화해를 끌어안았다. 모든 점에서, 제자들 사이, 즉 진보주의자들과 독립교회주의자들(independents)사이에서 일어난 제2차 분열이 1925년에는 하나의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노스는 선언한다. 이 점에서 노스는 제2차 분열이 1940년대 재검토 위원회(Commission on Restudy)가 실패한 후에 비로소 현실로 드러났다는 멀치와 웹의 판단과 의견을 달리한다.

만약 멀치, 웹, 노스의 역사서들 사이에 공통적인 맥락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독립교회주의자들, 곧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출현이 스톤-캠벨 전통에 선 '중도'를 통합할 합법적인 후계자들이었는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멀치와 노스와 더불어 중도적 입장에 선 자들은 복원에 전념한 보수주의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과격한 분리주의자 사고방식을 경계한다. 그러나 웹에게 있어서 참된 중도주의자들은 복원의 제약성과 복잡성을 이해해 왔고 또, 재검토 위원회의 정신에서, 스톤-캠벨 운동의 본래성과 일치를 위해서 좌파와 우파로 기운 극단들을 함께 아우르는 실현 가능한 총의(總意)를 바라본 저 독립교회주의자들이었다.

## 7. 미국 종교사 속에서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기술 Historiography of the Movement in American Religious History

본질에 속하는 신앙성서가 침묵하는 부분을 금지로 보았다("성서가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침묵한다."에서 침묵을 금지로 해석함).

스톤-캠벨 운동권 밖에 있으면서 각자의 서술 모델들을 적용하여 이룩한 학자들의 관찰과 분석들은 스톤-캠벨 운동의 전반적인 역사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서술들이 정확하고 공정한가에 대해 논의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톤-캠벨 운동권 내부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슈들을 보게 하고, 스톤-캠벨 전통에 선 교회들 속에서 자기이해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슈들에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나의 학문분야로써 미국 종교사는 19세기 미국 역사가들과 미국 교회역사가들 모두의 시도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 국가와 그 나라의 기독교가 겪은 체험의 역사와 운명에 담긴 모든 '섭리'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시드니 알스트롬(Sydney Ahlstrom)이 자신의 <미국 국민의 종교사>(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1972)에서 보는 것처럼, 주류 '개신교의 총의(總意)적 해석에 대한 갈망은 강했다. 20세기에 이 종합적인 추구는 시카고대학교의 역사가 윌리엄 워렌 스위트(William Warren Sweet)와 더불어 좀 더 비판적인 소리를 갖게 되었다. 스위트의 저술은 미국 종교발전에 있어서 '변방'의 문화역사적 중요성에 관한 프레더릭 잭슨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의 강조를 되풀이하였다. 스위트는 후에 제럴드 브라우어(Jerald Brauer), 로버트 핸디(Robert Handy), 윈드롭 허드슨(Winthrop Hudson), 시드니 미드(Sidney Mead), 마르틴 마르티(Martin Marty)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제자들 교회의 W. E. 개리슨(Garrison)과 같은 '시카고학파' 역사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 뛰어난 많은 수의 학자들은 스톤-캠벨 운동을 탁월하게 서술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들은 교회폭정에 저항하고 전통을 불신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원시주의 원동력과 천년왕국주의 원동력을 결합시킨 스톤-캠벨 운동을 미국의 변방종교(frontier religion)가 지녔던 특별히 빼어난 현상으로 기술하였다. 더구나 이들 역사가들은, 비록 스톤-캠벨 운동이 교파주의 상태에 '빠지는'(lapse) 순수 아이러니를 드러내었지만, 그 운동이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외침을 인정하였다. 스톤-캠벨 운동의 초기 구성요소들에

관해 제럴드 브라우어(Jerald Brauer)가 1953년에 논평한 다음의 글은 대표적이다: “그들의 전투적 외침은 ‘성서적 기독교로 돌아가 그 기독교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을 통합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들 원리들을 위해 진실하게 설교하고 힘쓰는 동안, 그들은 불행히도 일치를 위한 재집결지가 되지 못하고, 미국 현장에서 경쟁하는 또 하나의 교단이 되고 말았다.” 윈드롭 허드슨(Winthrop Hudson)도 1961년에 다음과 같이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 Movement)은 수많은 교인들로부터 의미심장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연합해야 할 그 운동의 목적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1830년대에는 단순히 또 하나의 교단이 되고 말았다.” 또 마르틴 마르티(Martin Marty)는 미국 종교의 아이러니들을 강조한 세련된 1986년 저술에서 스톤-캠벨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와 거기에 내재된 한 가지 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것이다. 그것은 매우 풍부한 아이러니들이고, 매우 대표적인 경향들이다. 세계교회운동(ecumenical)의 시대에서 교단 형성의 힘이 이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난 곳은 아무데에도 없다.”

스톤-캠벨 운동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 가지 혹은 또 다른 중심사상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시카고학파’의 접근과 일치하였다. ‘변방’ 논제는 단지 그 같은 것들의 한가지였을 뿐이다. 한 가지 부수적인 주테마는 ‘원시주의’(primitivism) 혹은 ‘환원운동사상’(restorationism)이었다. 1976년에 이뤄진 한 중요한 연구에서, 사무엘 힐(Samuel Hill)은 미국 땅에서 탄생한 종교 단체들을 특징지으려고 복원주의(restitutionism)의 전체 모형을 설명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모르몬교도들과 함께 “제도 복원주의”(institutional restitutionism)의 형태, 즉 참 교회를 재건하려는 십자군에 속한다고 하였다. 모르몬교도들은 참 교회를 재건함에 있어서 새롭고 특별한 계시(모르몬경)를 주장한 반면,<sup>29)</sup> 그리스도의 교회

29)[역자 주]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언어, 기적, 사건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모르몬교는 이 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신구약성서 66권만을 유일하고 충분하며 최종적인 계시로 보며, 더 이상의 계시

들은 대조적으로 신약성서의 청사진 위에서 엄격하게 참 교회를 재건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게 쉽게 꼬리표를 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저항적이었다. 동일한 요람의 제도 복원주의에서 태어났으므로, 제자들 교회는 결국,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갈라진 이후, 덜 전형적인 “관계 화해를 위한 복원”(restitution as relational reconciliation)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제도적으로 하나의 교단이 되었고, 또 스톤-캠벨 운동이 가진 복원주의의 원동력을 상실한 교단이 되었다.

그 아이러니의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이 시드니 미드(Sidney Mead)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S. 미드는 아이오와대학교의 교수로서 스톤-캠벨 운동에 소속한 많은 역사가들을 지도하였다. 미드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캠벨의 독특한 브랜드의 환원운동사상이 “일치와 환원을 충돌선상에 놓는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러니는 스톤-캠벨 집단 내부에 있었다. 더 큰 역사적 아이러니는 캠벨주의자들이 19세기의 한 종파를 완벽하게 전형(epitomized, 집약적)이 되게 한 것이었고, 그렇게 용인된 전형(arrangement)이 제자들 교회 자신의 유일성에 대한 주장을 철저히 상대화시킨 것을 발견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캠벨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희망을 미주(美洲)의 신(新) 공화국(共和國)의 정책에 걸었고, 그 정책은 다양한 종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파들의 다양한 ‘정설들’<sup>30)</sup>을 정교분리 정책에 따

---

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경과 위경을 신학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지 않으며, 단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따름이다. 그런데 모르몬교에서는 성경과는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모르몬경을 제2의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정통기독교와는 크게 다른 종교적 특색을 갖게 되었다.

30)[역자 주] 19세기경에 미국의 변방에서는 스톤-캠벨운동뿐만 아니라, 모르몬교(Latter-day Saints)와 같은 새로운 종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밖에도 19세기 무렵 생겨난 종파들을 보면, 자유의지 침례교회(Free Will Baptist), 원시 침례교회(Primitive Baptist), 제칠안식일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 Seventh Day), 앤더슨과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 Anderson, Indiana), 클리블랜드파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 Cleveland, TN), 제칠안식일 재림교회(Seventh-day Adventist), 여호와 증인(Jehovah’s Witnesses), 크리스천 사이언스(First Church of Christ, Scientist), 성결교회(Holiness) 등이 있다. 이들 종파들은 미국 정부의 종교정책, 즉 정교(政敎)분리정책에 따른 종교의 자유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라 동등하게 대우한 것이었다. 미드가 리처드 휴즈(Richard Hughes)의 견해와 같이한 것처럼, 만약 캠벨이 궁극적으로 세계복음화와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보급이 손에 손을 잡고 나갈 천년왕국의 비전을 품었다면, 그것은 교회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하도록 허용하는 한 가지 교회의 사례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파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독특한 단체가 좀 더 결정적으로 [미국의] 자유로운 제도들에 공헌했는가를 보여주려고 앞을 다투었다. 환원운동사상가인 캠벨도 “반(反)교파주의 종파”를 설립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그러했다고 미드는 평가한다.

복음주의 역사가인 나단 해치(Nathan Hatch)와 마크 놀(Mark Noll)은 환원운동사상가의 원동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스톤-캠벨 운동이 보여준 대중주의 혹은 민주화의 기풍에 집중하여 주목하였다. 특히 해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기술”(historiography from below)의 한 방법, 즉 주류 ‘개신교 총의(總意)적 해석들에 비판적인 한 방법을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서 해치는 애팔래치아 산맥을 가로지르는 변방에서 일어난 많은 종교운동들의 “종파적 열정”이 근대 “세계교회운동의 저명인사들”에 의해서 극복되어야할 단순한 하나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이 참된 영적 생명력을 드러내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다. 캠벨의 제자들과 스톤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분방하고 생기발랄함, 사제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그들의 힘으로 성서의 “명백한 사실들”(plain facts)을 읽을 수 있는 단순한 사람들의 손에 기독교를 되돌려 놓는 것에 대한 최상의 모델들이었다. 변방에서의 그 같은 대중주의 종교운동들의 지도자들과 설교자들은 “소외된 사람들(marginal people)에게까지 뻗어감에 있어서, 독학을 신장하고 엘리트 정설들의 교리화로부터 참여자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지지 공동체들의 사람들을 함께 묶음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보통 사람들의 대망들을 서로 동일시함에 있어서 현상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해치는 주장한다.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의 옳음에 가치가 있다고 해치는 주장한다. 비록 해치는 자신이 스톤-캠벨 운동을 돋보이게 묘사한 것으로 알지만, 그가 스톤-캠벨 운동을 철저히 대중주의적으로 묘사한 것은 명백히 과장하여 그린 것이다. 특히 해

치는 스톤과 캠벨 모두의 기독교가 지닌 교회적 전통적 측면들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보다 앞선 사무엘 힐(Samuel Hill)처럼, 분명히 해치는 변방의 다른 종교단체들과 관련하여 스톤-캠벨 운동을 평가할 때 ‘비교 환원 운동사상’에 의존하여왔다. 그러나 또 다른 미국 종교사가인 미국 성공회의 리처드 웬츠(Richard Wentz)는 스톤-캠벨 운동을 “환원사상가의 전통들”의 범주와 더 나아가 “성서주의자와 합리주의자 그리스도인주의”의 종속 범주아래 포괄시켰다. 이것으로 그는 오히려 엄격한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환원주의(reductionism, 단순한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는 스톤-캠벨의 환원사상)에 관하여 말하려고 한다. 스톤-캠벨 운동은 그 자체의 뿌리인 칼빈주의를 비롯해서 이전의 모든 교회 전통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하고 합리적인 신앙을 규정하였고, “자체 동봉(同封)된 합리적 진리의 보고(寶庫)”로써 신약성서에 의존하였으며, 또 “독특하게 미국인의 정신”에 입각해서, 믿음과 실천에서 오로지 실용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R. 웬츠는 자신의 책의 서문에서 일반화에 대한 자기 자신의 성향을 고백한다. 그 성향은 스톤-캠벨 운동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다. 그에게서 스톤-캠벨 운동은 미묘한 차이가 무시되고 총체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다.

그러나 웬츠의 장점은 그가 ‘전통’의 이슈에 집중한 것이다. 스톤-캠벨 운동은 둘 다 전통에 영향을 받았고, 그 자체의 전통들을 만들어냈다. 이 점은, 간략하게 말하면, 스톤-캠벨 운동에 대한 시드니 알스트롬(Sydney Ahlstrom)의 설명에서 강력하게 제기된다. 알스트롬은 ‘변방’이 그 운동 자체의 동력을 만들어냈거나(터너와 스위트) 혹은 민주적인 환원운동사상이 스스로 죽어(per se in the dust) 전통을 떠났다는 논제에 신중을 기한다. “정반대의 현상은 보다 더 충격적이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이든, 영국 침례교의 유산이든, 존 웨슬리의 말씀과 방법이든, 혹은 스코틀랜드의 할데인(Haldane) 형제들의 환원운동사상이든, 거기엔 실행되어 왔고, 교회론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개정된 전통의 유산들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미래는 실로 과거(혹은 “과거들”)의 것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었지, 과거의 것들 없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다.

스톤-캠벨 운동과 미국의 다른 종교단체들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들은 미국 종교사 분야에서 항상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일부 모델은 틀림없이 다른 모델들보다 좀 더 희망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수년간 역사가들은 변방 종교 “운동들”이 지닌 사회와 교회의 정황(configuration)에, 또 그 운동들이 어떻게 “교단들”로 형성되었는지, 나아가 어떻게 그 교단들이 미국 문화의 국면조성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주목하였다. 1994년에 릴리기금재단(Lilly Endowment)에서 제공한 기금으로 이뤄진 한 연구서가 <교단주의 재고(再考): 해석적 에세이집>(Reimagining Denominationalism: Interpretive Essays)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다른 것들 속에서 이 기획은 교단주의에 관한 더 폭넓은 종합적 해석들을 단념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교단에 공감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자들이 전한 교단들의 독특성과 이야기에 주목하도록 격려했다. 그와 같은 시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리로이 개리트(Leroy Garrett)와 같은 일부 스톤-캠벨 역사가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소식으로 다가온다. L. 개리트의 저술 <스톤-캠벨 운동>은 하나의 해석적 모델로써 전기와 ‘일화’(逸話, anecdotal) 역사를 훌륭하게 개발한다.

릴리의 기획은 또한 교단 역사에 관한 신선한 재해석들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들에는 회중 연구, 인류학, 사회학, 종교사, 문학적 연구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새로운 탐구 방법들의 일부가 스톤-캠벨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미 관심을 얻고 있다. 회중역사는 작고한 제자들 교회의 역사가인 안토니 두나번트(Anthony Dunnavant)가 열정을 쏟았던 분야였다. 그는 사망하기 전까지 이 대사전의 총괄 편집자의 한 사람으로 헌신하였다. 두나번트가 잘 알고 있었듯이, 대역사(macro-history)는 소역사들(micro-histories)없이 효과적으로 구성될 수 없다. “예배에 참석한 자들”(people in the pew)이 무엇을 해왔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공동체(지역사회)에서 상호간에 그들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는지가 어떻게 스톤-캠벨 운동이 더 다양한 그리스도인 대중에게 자신을 제시해왔고, 또 제시할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 8. 요약과 분석 Summary and Analysis

몇 가지 뛰어난 주제와 경향들이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와 연결된다. 그 운동의 형성에서 발돋움 스톤의 역할은 초기부터 하나의 주된 이슈였다. 스톤은 스톤-캠벨 운동의 실재적 기초로써 간주되는 캠벨의 개혁보다 먼저 그 운동을 시작한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다. 그 대신에 스톤은 그의 신학적 입장에 관한 종종 알렉산더 캠벨과 사실상 하나로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A. W. 포춘과 C. C. 웨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리처드 휴즈와 다른 이들 사이에서, 스톤은 충분히 제몫을 다한, 캠벨부자만큼 중요한, 그러나 그들 부자(父子)와는 현저하게 다른 창시자로 다뤄졌다. 스톤의 이 같은 부활은 대단히 다른 양상을 띠게 하였다. 제자들 교회는 스톤을 그들 교회가 근대 에큐메니컬 운동에 진출할 수 있는 정당성을 더욱 더 제공한 초기 에큐메니컬 운동가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휴즈에게 있어서는 스톤이 도저히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사의 진보적인 에큐메니컬 운동가라고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스톤은 “목시문학적” 세계관을 구현시킴으로써 일치를 위한 모든 인위적인 조직을 경시하였고, 따라서 동시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비평할 수 있는 근거(목시문학적 세계관)를 마련한 인물이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가들은 스톤-캠벨 운동의 창설에 기여한 스톤의 역할과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필요한 스톤의 중요성 모두를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가들을 통틀어서 또 다른 한 가지 공통적인 맥락은 승리주의(triumphalism)<sup>31)</sup>이다. 가장 초기에 표명된 승리주의

31)[역자 주] ‘승리주의’(triumphalism)와 비슷한 표현으로 배타주의(Exclusivism)가 있다. 승리주의가 좁은 파당간의 개념인 반면, 배타주의는 포용주의(Inclusivism) 및 다원주의(Pluralism)와 함께 넓은 종교간의 개념으로 쓰인다. 승리주의는 특정 교리나 주의(主義)가 절대적이란 식의 당파적 태도나 신념을 말하고, 배타주의는 특정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식의 신념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승리주의나 배타주의가 전적으로 다 내버려야 할 나쁜 것인가라는 점이다. 마치 승리

는 스톤-캠벨 운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초상이었다. 그것은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부합하게 교회를 회복하려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항상 귀에 거슬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 승리주의는 스톤-캠벨 운동이 분열되었을 때 다른 형태들을 띄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가들은 기독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으로 제시된 스톤-캠벨 운동을 갈수록 희미하게 서술하면서, 주장하기를, 다른 지류(支流)들(첫째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스톤-캠벨 운동의 핵심을 놓쳤고, 당파심을 동반한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탈선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각각의 지류는 자신들이 그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참된 후계자라는 생각을 표명했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 중에서는 다른 모든 기독교단들을 이겼다는 승리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소속 구성원들은 그들이 쓴 가장 최근의 역사들에서 스톤-캠벨 운동에 속한 자신들의 지류에 강한 충성심을 표명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논의함으로써 앞선 세대들의 승리주의를 완화시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스톤-캠벨 운동의 정신과 기독교

주의나 배타주의가 보수파에만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신념은 중도파나 진보파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만일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념이 전혀 무가치한 것이거나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전략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승리주의나 배타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거나 신념체계를 힘써 전달하게 하는 당파적 동력(dynamism)이다. 그런 당파적 동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집단이 진보파이고, 그 다음이 보수파이다. 신념이나 신념체계에 관한 보수파도 문제이지만, 진보파일수록 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 만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가 중도파이거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크고 작은 종교집단들, 심지어 그것이 정통개혁주의이든지, 민중신학 및 여성신학과 같은 진보주의이든지, 또는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모르몬교나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 종파들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될 때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 동력이 바로 이 승리주의나 배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느 종교 집단이나 정치집단이든지 간에 승리주의나 배타주의 없이 집단을 제대로 형성한 사례는 없다. 칭찬을 듣는 포용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일수록 발전이 더딘 이유는 그 집단을 이끄는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꼴통'이란 악담을 듣는 배타주의 집단일수록 발전이 빠른 이유는 그 집단을 움직이는 동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모쪼록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내다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를 전체적으로 유일하고 참되게 구현(one authentic embodiment)한 것으로 생각한다. 앞선 세대들의 승리주의를 약화(弱化)시킨 비슷한 사례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소속한 헨리 웹의 저술에서 나타난다. 그의 개정판,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찾아서>는 2003년 에빌링기독교대학교(ACU) 출판부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세 번째 우세한 역사기술의 경향은 일치[연합]과 환원[복원]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려는 노력이다. '환원'(restoration)이란 말이 스톤-캠벨 운동 초기에는 그 운동을 지칭하는 말로써, '개혁'(reformation)이란 말만큼 일반적으로 쓰이지 못한 반면, 초대교회의 믿음과 실천에 돌아가지는 사상은 시작 때부터 주된 주제이다. 처음 역사가들이 쓰일 때까지, 용어 그 자체는 폭넓게 사용되었다. 가장 초기 지도자들이 신약성서가 분명히 가르친 교리와 실천들을 복원하는(환원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근거로 알았다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 가설이었다. 환원과 일치에 관련된 개념들을 처음으로 제시한 역사는 제자들 교회의 역사가 에리트 게이츠의 것이었다. 게이츠의 분석은 제자들 교회와 스톤-캠벨 운동의 다른 지류들 사이의 차이점을 기술하는 표준방식이 되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지류들이 환원을 선택한 반면, 제자들 교회는 일치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가장 초기 역사가들은, 신약성서의 믿음과 실천을 복원하는 목표에 최우선 순위를 분명하게 두는 한편, 오직 그 같은 복원만이 진정한 일치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 입장을 스톤-캠벨 운동의 창시자들의 입장으로 이해하였고, 그들 자신들은 그 일치에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일치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주기적으로 통렬하게 비난받았다. 반면에 성서의 단순한 가르침으로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일치를 이루려는 목표는 공통적인 하나의 주제였다. 좀 더 최근에 리처드 휴즈와 레오나르드 알렌은 스톤-캠벨 운동의 환원운동사상을 미국 원시주의라는 보다 큰 정황 속에 놓고, 그 중요성이 미국 기독교에서 주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기술에서는 전반적인 합의가 있어왔다. 그 합의란 환원과 일치가 스톤-캠벨 운동의 본래적 호소에서 분리될 수 없고, 또 본래적 호소인 환원은 일치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특정한 실천적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에게 있어서 환원은 결정적이었다. 왜냐하면, 환원은 스톤-캠벨 운동이 사도 전례에 쏟는 절대적 헌신을 구체화할 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면면히 이어졌던 환원운동들의 가계(家系)에서 그 운동이 갖는 역사적 혈통을 특징 짓기 때문이었다. 좀 더 최근에 제임스 노스는 일치와 맞대고 있는 환원 대신에 “성서 권위”란 어휘를 사용했다. 성서 권위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과 주류 교회들 사이에서 더 큰 투쟁들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좀 더 그럴듯한 어휘일는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나온 주요한 역사 중 하나인 헨리 웹의 역사만이 환원의 실현 가능성을, 그것에 내재된 도전과 난관들을 지적하면서, 일치의 수단으로 평가한다.

몇 가지 다른 경향들도 또한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기술에서 눈에 띄었다. 그 운동을 기술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에서 전문가들로, 설교가들에서 학자들로 옮겨감으로써 세 지류 모두는 자기 이해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런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가끔은 학자들이 논제(agenda)를 변증하려는 듯이 계속해서 저술했던 반면, 세 지류 모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역사가들이 등장한 이후에는 균형 잡힌, 즉 덜 승리주의적인 접근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방식의 역사적 접근은 스톤-캠벨 운동사에 새로운 수확을 얻게 하였다.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발생들 가운데 한 가지가 20세기 중후반에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서 창조적 역사기술이 일제히 쏟아져 나온 일일 것이다. 이 활동은 두 가지 요인이 집중되면서 촉발되었다. 첫째, 스톤-캠벨 운동의 그 지류는 그 세기의 상당기간 “진로와 엇갈리게” 이동하고 있었다. 이미 1960년대에는, 비록 대부분이 성서학자들에 의한 것이었지만, 상당한 수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중심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우려 왔다. 그 결과

가 새로운 역사서들이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특출한 유산과 소명을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사한 현상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제자들 교회 사이에서 발생하였는데, 그들이 점증하는 도시와 다원론적 문화 속에서 그들 자신을 정의하도록 도전받고 있을 때였다.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에리트 게이츠와 W. E. 개리슨은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재해석하려고 힘썼다. 후대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학자들도 자신들의 지류를 위해서 동일한 노력을 기우렸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유산에 대한 이 뜨거운 관심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 일치의 지지자로서 발톤 스톤을 연구하였고, 알렉산더 캠벨에 대한 연구에서 하나의 문예부흥을 일으켰다.

## 9.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기술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상태 The Current and Future State of the Movement's Historiography

오늘날 스톤-캠벨 운동의 모든 지류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아마 대부분, 역사가들 사이에 하나의 분명한 의식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과거 20년 동안, 많은 회의와 저술들이 역사적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각의 지류에서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학회의 저널, <제자들>(Discipliana)지는 학회의 '포레스트 커크패트릭 역사가들 세미나'(Forrest Kirkpatrick Historians Seminar)로부터 얻어진 스톤-캠벨 운동의 세 지류들이 안고 있는 정체성의 이슈들에 관해 여러 논문들을 출판하였다. 또한 특정한 역사적 주제들을 공동으로 다룬 다음과 같은 저서들이 출판되었다: <알렉산더 캠벨 2백주년 기념 강연들>(Lectures in Honor of the Alexander Campbell Bicentennial, 1988), <맥락으로 본 케인 릿지>(Cane Ridge in Context, 1992), <소명과 미래 비전의 세움>(Founding Vocation and Future Vision, 1999) 그리고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에서 본 그리스도인의 일치, 평화와 순수성에 대한 탐구>(The Quest for Christian Unity, Peace and Purity in Thomas Campbell's

Declaration and Address, 2000).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사학회와 최근의 스톤-캠벨 대화(Stone-Campbell Dialogue)의 여러 노력은 역사가들의 네트워크들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인터넷은 또한 스톤-캠벨 운동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야의 학자들과 아마추어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다. 인터넷 매체로 인해서 본서 <스톤-캠벨 운동의 대사전>은 총괄 편집인들과 여러 위원회로부터 수백 명에 이르는 대사전의 기고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이뤄졌다.

스톤-캠벨 운동의 세 주요한 지류 각각의 학자들은 공동으로 하나의 종합역사를 썼고, 출판을 앞두고 있다. 공동의 이야기를 저술하는 것에 관한 합의점들이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이 역작에 참여한 역사가들은 믿음과 헌신과 통찰력을 지닌 인물들로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Christ' church)가 하나임을 사명으로 천명하기 시작한 스톤-캠벨 운동의 세 지류들의 이들 대표들은, 이런 공동 노력을 통해서, 그 꿈의 실현에 언젠가는 기여하게 될 것이다.

## 10. 참고자료

### BIBLIOGRAPHY Early Histories

- William Baxter, *Life of Walter Scott*(1874).  
 John Thomas Brown, *Churches of Christ*(1904).  
 Alexander Campbell, "The Disciples of Christ," pp. 462-64 in J. N. Brown,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1836).  
 Alexander Campbell, *Memoirs of Elder Thomas Campbell*(1861).  
 A. S. Hayden, *Early History of the Disciples in the Western Reserve, Ohio*(1875, 1972).  
 James S. Lamar, *Memoirs of Isaac Errett*(1893).  
 Robert Marshall, *A Brief Historical Account*(1811).  
 Richard McNemar, *The Kentucky Revival*(1808, 1846).  
 William Thomas Moore,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Disciples of Christ: Being an Account of a Century's Efforts to Restore Primitive*

- Christianity in Its Faith, Doctrine and Life*(1909).
- Robert Richardson,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1868-70)
- Robert Richardson, "History of the Disciples of Christ," pp. 223-36  
in John Winebrenner, ed., *History of All the Denominations in the  
United States*(1849).
- Robert Richardson, *The Principles and Objects of the Religious  
Reformation*(1853, 1860).
- John Rogers, *Biography of Elder Barton Warren Stone*(1847).
- Barton Warren Stone,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in the West, in  
Cane Ridge Reader*, ed. Hoke Dickenson(1972).
- John Williams, *Life of Elder John Smith*(1870).

#### **BIBLIOGRAPHY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 B. A. Abbott, *The Disciples: An Interpretation*(1924., 1926, 1964).
- Peter Ainslie, *The Message of the Disciples for the Union of the  
Church*(1913).
- M. Eugene Boring, *Disciples and the Bible: A History of Disciples  
Biblical Interpretation in North America*(1997).
- Edward Louis Cochran, *Captives of the Word*(1969).
- M. M. Davis, *How the Disciples Began and Grew*(1915, rev. ed.  
1947).
- M. M. Davis, *The Restoration Movement of the Nineteenth Century*  
(1913, repr. ed. 1966).
- A. T. DeGroot, *Disciples Thought: A History*(1965).
- A. T. DeGroot and W. E. Garrison, *The Disciples of Christ: A  
History*(1948, 1958).
- Stephen J. England, *We Disciples*(1946).
- Alonzo W. Fortun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Disciples*(1924,  
1944, 1947).
- Alonzo W. Fortune, *The Disciples in Kentucky*(1932).
- Alonzo W. Fortune, *Adventuring with Disciples Pioneers*(1942).

- J. H. Garrison, ed., *The Reformation of the Nineteenth Century*(1901).
- J. H. Garrison, *The Story of a Century*(1909).
- W. E. Garrison, *Religion Follows the Frontier*(1931).
- W. E. Garrison, *An American Religious Movement*(1945, 1946, 1951, 1957, 1966).
- W. E. Garrison, *The Disciples of Christ*(1948).
- W. E. Garrison, *Whence and Whither Disciples of Christ*(1948).
- W. E. Garrison, *Heritage and Destiny*(1961).
- Errett Gates, *The Disciples of Christ*(1905).
- Cloyd Goodnight, *A Century of Achievement*(1930).
- John Louis Hill, *As Others See Us, and As We Are*(1908).
- Walter Wilson Jennings, *Origin and Early History of the Disciples of Christ*(1919, repr. ed. 1966).
- W. W. Jennings, *A Short History of the Disciples of Christ*(1929).
- F. D. Kershner, *The Restoration Handbook*(1918-20, reprint 1960).
- F. D. Kershner, *Stars: New History of the Reformation Movement* (1940).
- Lester G. McAllister and William E. Tucker, *Journey in Faith: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1975).
- Vere Hudson Rogers, *The Disciples of Christ: A Study and Discussion Course*(1936, revised ed. 1942).
- Kenneth Leroy Teegarden, *We Call Ourselves Disciples*(1975, 1976, 1979, 1983).
- Mark G. Toulouse, *Joined in Discipleship: The Shaping of Contemporary Disciples Identity*(1992, revised ed. 1997).
- B. B. Tyler, *Concerning the Disciples of Christ*(1897).
- B. B. Tyler, *History of the Disciples of Christ, American Church History Series, vol. 12*(1894).
- Charles Crossfield Ware, *Barton Warren Stone: Pathfinder of Christian Union. The Story of His Life and Times*(1932).
- P. H. Welshimer, *Concerning the Disciples: A Brief Resume of the*

*Movement to Restore the New Testament Church*(1935).

Oliver Read Whitley, *Trumpet Call of Reformation*(1959).

D. Newell Williams, ed., *A Case Study of Mainstream Protestantism: The Disciples Relation to American Culture, 1880-1989*(1991).

#### **BIBLIOGRAPHY Churches of Christ**

C. Leonard Allen and Richard T. Hughes, *Discovering Our Roots: The Ancestry of Churches of Christ*(1988).

Michael W. Casey and Douglas A. Foster, eds., *The Stone-Campbell Movement: An International Religious Tradition*(2002).

Leroy Garrett, *The Stone-Campbell Movement: An Anecdotal History of Three Churches*(1981, rev. ed. 1994).

Homer Hailey, *Attitudes and Consequences in the Restoration Movement*(1975).

David Edwin Harrell, Jr.,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Twentieth Century: Homer Hailey's Personal Journey of Faith*(2000).

David Edwin Harrell, Jr., *Quest for a Christian America: The Disciples of Christ and American Society to 1866*(1966).

David Edwin Harrell, Jr., *The Social Sources of Division in the Disciples of Christ, 1865-1900*(1973).

Marvin Hastings, *The Saga of a Movement*(1981).

Monroe Hawley, *Redigging the Wells: Seeking Undenominational Christianity*(1976).

Gary Holloway and Douglas A. Foster, *Renewing God's People: A Concise History of Churches of Christ*(2001).

Robert E. Hooper, *A Distinct People: A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20th Century*(1993).

Richard T. Hughes, *Reviving the Ancient Faith: The Story of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1996).

Bill J. Humble, *The Story of the Restoration*(1969).

F. W. Mattox, *The Eternal Kingdom: A History of the Church of*

- Christ*(1961).
- C. A. Norred, *Seeking the Old Paths*(1933).
- Dabney Phillips, *A Medley of the Restoration*(1978).
- J. M. Powell, *The Cause We Plead: A 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1987).
- David Roper, *Voices Crying in the Wilderness: A History of the Lord's Church with Special Emphasis on Australia*(1979).
- John F. Rowe, *History of Reformation Movements: Resulting in a Restoration of the Apostolic Church, with a History of the Nineteen General Church Councils*(1884, 1890, 1892, 1894, numerous reprints).
- F. W. Shepherd, *The Church, the Falling Away, and the Restoration*(1929, 1958).
- Earl Irvin West, *Search for the Ancient Order: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4 vols.*(1949, 1950, 1979, 1987).
- Morris M. Womack, *Thirteen Lessons on Restoration History*(1988).

#### **BIBLIOGRAPHY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 Enos Dowling, *The Restoration Movement: Study Course for Youth & Adults*(1964).
- Harold W. Ford,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Plea*(1952).
- H. Eugene Johnson, *The Christian Church Plea*(1975).
- E. LeRoy Lawson, *The New Testament Church, Then and Now*(1981).
- Marshall James Leggett, *Introduction to the Restoration Ideal*(1986).
- Dean Mills, *Union on the King's Highway: The Campbell-Stone Heritage of Unity*(1987).
-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s Onl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1962).
- James Brownlee North, *The Church of the New Testament*(1984).
- James Brownlee North, *Union in Truth: An Interpretive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1994).

John W. Wade, *Pioneers of the Restoration Movement*(1966).

Dean E. Walker, *Adventuring for Christian Unity: A Survey of the History of Churches of Christ (Disciples)*(1935).

Henry E. Webb, *In Search of Christian Unity: A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1990).

### **BIBLIOGRAPHY The Movement in American Religious History**

Sydney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1972).

Jerald C. Brauer, *Protestantism in America: A Narrative History*(1953).

Nathan O. Hatch, *The Democratization of American Christianity*(1989).

Samuel Hill, "A Typology of American Restitutionis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4(1976): 65-76.

Windthrop Hudson, *American Protestantism*(1961).

Martin Marty, *Modern American Religion, vol-1: The Irony of It All, 1893-1919*(1986).

Sidney Mead, "The Theology of the Republic and the Orthodox Min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4(1976): 105-13.

Robert Bruce Mullin and Russell E. Richey eds., *Reimagining Denominationalism: Interpretive Essays*(1994).

Richard Wentz, *Religion in the New World: The Shaping of Religious Tradition in the United States*(1990).

**Paul M. Blowers,<sup>32)</sup>**

**Douglas A. Foster,<sup>33)</sup>**

**and**

**D. Newell Williams<sup>34)</sup>**

---

32)[역자 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소속으로 임마누엘 신학대학원(Emmanuel School of Religion)의 교수.

33)[역자 주]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으로 아빌린 크리스천 대학교(Abilene Christian University)의 교수.

---

34)[역자 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소속으로 브라이트 신학대학원(Brite Divinity School)의 교수.

# 제16장

## 환원운동에 관한 오해

글 조동호 목사

### 1. '환원운동' 의 개념에 대한 오해

'환원운동'이 무슨 운동인가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아마 십중팔구 '성서로 돌아가자' 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몇 가지 점에서 이 운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환원'의 좁은 의미, 곧 본래의 의미는 '신약성서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신약성서으로 돌아가 기독교를 그것 본래의 순수함과 능력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다. '신약성서로 돌아가자'와 '성서로 돌아가자' 사이에는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16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이지 환원운동이 아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결과가 무엇인가? 신조(신앙고백)주의 또는 교리(신학체계)주의이다. 17-18세기에 이르게 되면, 교리들, 신앙고백들, 신학체계들이 유행하게 되고, 상징숭배(symbolatry), 교리속박, 루터교 교부신학,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 교리적 전통주의 등 교회의 고백적 논쟁과 교리적 해석의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 시대의 해석은 단지 신학을 위한 시녀에 불과하였고, 결국 개신교에 끝 모를 분열과 교단화의 폐해를 가져왔다. 그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한 '신약성서교회운동'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스톤-캠벨 운동가들이다.

또 다른 '성서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폐해는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엄격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기독교를 그것 본래의

순수함과 능력으로 되돌려놓지를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의 틀 안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해석하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유대교적 기독교로 변질시켰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인기독교인들(Messianic Jews), 시대구분론자들(Dispensationalists), 여호와증인들, 제칠안식일재림론자들이며, 그밖에도 모세오경에 편중된 설교가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환원운동’은 ‘신약(New Testament)이란 핵심단어가 빠진 그냥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닐 뿐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도 아니다. ‘초대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의 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돌아가자’ 또는 ‘신약성서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여기서 ‘사도전통’이란 신약성서 27권을 지칭하는 제한적 의미이다. ‘초대교회’란 당대의 이단교회들, 곧 영지주의적 교회, 율법주의적 교회, 유대주의적 교회 등이 다 망라된 느낌을 줄뿐 아니라, 원시교회, 곧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웬지 과거지향적인 교회란 느낌을 주는 그런 용어이다.

둘째, 넓은 의미의 환원운동을 좁은 의미의 환원운동으로만 아는 것도 이 운동을 오해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환원운동은 두개의 축을 가진 운동이다. 그 두 개의 축이 ‘환원’(restoration)과 ‘일치’(unity)이다. 이 두 가지 ‘환원’과 ‘일치’는 스톤-캠벨운동의 이상(ideal)이자 원칙(principle)이며, 목표(end)이다.

좁은 의미의 환원운동에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신약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개혁운동’ 혹은 좀더 구체적으로 ‘신약성서교회운동’(New Testament Church Movement) 혹은 ‘성서 권위(Biblical Authority)회복운동’이라 부른다. 고전적인 표현으로는 ‘사도전통회복(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운동’이라 부른다. 직역하면 ‘옛 질서의 회복’이란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현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로 이해해 왔거나 ‘성서로 돌아가자’로 잘못알고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표현들은 환원운동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환원운동은 신약성서 교회 운동이지, 초대교회 운동이 아니며, 신약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지, 엄격한 의

미에서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狹意)의 환원운동은 넓은 의미(廣意)의 환원운동, 곧 손등과 손바닥처럼 두 개의 면 가운데 한 면에 불과하다. 넓은 의미의 환원운동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는 '진리 안에서의 연합'(Union in Truth)이다. 여기서 '진리'는 '환원'(restoration), 곧 신약성서권위회복과 사도전통의 회복에서 발견되어지는 진리이다. 따라서 신약성서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리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그리고 '연합'은 '일치'(unity)보다 율타리의 폭이 훨씬 넓은 개념이다. '일치'(unity)는 보수적인 개념이고, '연합'(union)은 에큐메니즘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진보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환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일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환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좁은 의미의 '일치'를 더 선호하고, '환원'보다는 '일치'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넓은 의미의 '연합'(union)을 선호한다. 어쨌든 간에 환원운동의 한 축인 '일치'와 '연합'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는 '그리스도인 일치'(Christian unity) 혹은 '교회연합'이다. 앞에서 언급한 '진리 안에서의 연합'(Union in Truth)은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리보다는 연합'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을 중재하는 개념이다. '일치'든지 '연합'이든지, 이 중재적이고 화해적인 개념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Only Movement)이다.

따라서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표어 두 가지는 '신약성서교회운동'(New Testament Church Movement)과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Only Movement)이다. '신약성서교회운동'은 '진리'(사도전통에로의 환원)를, '그리스도인 운동'은 '일치' 혹은 '연합'을 추구하는 스톤-캠벨운동의 이상(ideal)이자 원칙(principle)이며, 목표(end)이다.

셋째, '환원'이란 말이 앞에서 언급된 뉘앙스들 때문에 오늘날에는 '환원운동'이란 표현을 억제하고, '스톤-캠벨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이란 중립적인 호칭을 쓰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무악기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톤-캠벨운동'은 두 가지 원칙들, 곧 '사도 기독교권위'와 '그리

스도인 일치 의무'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을 아우르는 호칭이다. 따라서 '환원운동'이란 어휘가 이 운동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운동을 오해하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를 이 운동의 유일한 호칭으로 아는 것도 오해이다. 본래 환원운동은 이 운동권에 속한 성도들을 '제자들'(Disciples) 혹은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 불렀다. 영어권에서는 공동체를 호칭할 때, 구성원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단연 우세한데, 이 맥락에서 나온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이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Only Movement)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소유주 개념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울서신 로마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란 이름은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고, 그것을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자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이름은 '신약성서교회 운동'(New Testament Church Movement)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스톤-캠벨 운동은 세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은 각각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로 불린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를 단수(총회 개념)로 표기한다는 점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는 '교회'를 복수(개 교회 혹은 회중교회 개념)로 표기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보수진영인 무악기 교회들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보진영인 제자(파)들의 교회를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독립(중도) 교회들을 말한다. 보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약성서교회 회복을 통한 교회일치를 기치로 삼고 있고, 진보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신약성서교회의 회복보다는 교회연합 또는 에큐메니즘을 기치로 삼고 있다. 독립(중도)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약성서교회의 회

복과 교회일치의 균형유지를 기치로 삼고 있어서 ‘진리 안에서 연합’(union in truth)을 주장한다.

## 2. ‘환원운동’ 의 이슈들에 대한 오해

‘환원운동’의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치고, ‘환원운동’의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한다.

먼저 예배 시에 악기 쓰는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며,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이슈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한다.

예배 시에 악기사용을 금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만의 이상한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는 전통은 서방교회 즉 가톨릭교회 전통이다.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의 줄기에서 나왔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예배 시에 악기사용을 금하는 전통은 동방교회, 일부 개신교(북미주 개혁주의 장로교회 등), 유대교 정통파의 전통이다. 동방교회의 경우 희랍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모두에서 예배 시에 악기사용을 금한다. 미국과 캐나다에 산재한 북미주 개혁주의 장로교 교단과 스코틀랜드의 일부 개혁교회들, 특히 칼뱅과 닉스 전통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에 의하면, 예배용 찬송으로 시편에 고유한 운율을 사용하여 불렀고, 악기의 사용은 금하고 있다. 장로교회들의 경우, 19세기 이후 교회음악의 발전과 함께 예배 시 악기사용이 허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대교는 성전파괴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성전파괴이전에는 시편에 나타난 대로 예배 시에 악기사용이 허용되었으나 성전파괴이후 회당예배의 발전과 더불어 악기사용이 금지되었다. 오늘날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 유대교에서만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고, 정통파와 보수파에서는 아직도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악기사용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악기의 음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은 안식일 법에서 금하는 창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예배 시에 악기를 쓰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은 보수성향이 강한 미국 남부지역들, 특히 텍사스주와 테네시주 등지에 산재한 1만개 이상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다.

이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는 사회문화적 설명이다. 미국의 무악기 교회들은 대다수 그들 남부 시골교회들이 직면했던 19세기 사회상황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예문제에 연루된 남북전쟁과 지역파벌주의(sectionalism)가 그들의 특질(ethos)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좀더 풍성하고 도시 공업화된 북부와 더 가난하고 대부분 발전하지 못한 시골지역인 남부사이에서 '제자들'(Disciples, 제자파와 독립파가 갈라지기 이전 호칭)과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사이에 분열을 재촉하는 잔존하는 '문화적 갭'(cultural gap)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예배 시에 악기음악을 사용하는 이슈는 전적으로 해석학적 갈등으로써가 아니라, 오르간이나 멜로디언과 같은 호사를 솔직히 누릴 수 없는 남부지역 회중들의 견해를 달리한 표현으로써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 가지는 무악기의 진짜 이슈가 성서권위의 적용문제라는 것이다. 성서권위의 상세한 적용, 이를테면, 신약성서가 침묵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궁극적으로 '무악기 주창자들은 '편리의 원칙'(principle of expedience)을 거부하고, 침묵을 금지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편리의 원칙'이란 개혁가들이 의존한 세 가지 표준 가운데 비본질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을 말한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은 비본질에 속하는 신약성서가 침묵하는 부분을 금지로 보았다. "성서가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침묵한다."에서 침묵을 금지로 해석한 것이다.

둘째, 침례를 신앙고백의 하나로 보지 않고, 행위로 보는 것은 침례를 오해하는 것이다. 침례가 구원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하고, 교리적 시각에서 색안경을 쓰

고 보려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250년 키프리아노스 시대에 로마에서 병상침례가 있기는 하였어도, 오늘날의 약식세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십자군 전쟁 당시 군인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례를 행하려다보니까 생겨난 것이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때인 12세기경에 십자군을 모집함에 있어서 일일이 침례를 주기가 어려워 약식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한 『그리스도교 대사전』(1972)에도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그 후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유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헬라어가 모국어였던 동방교회 특히 희랍정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신념이 유독 강하다. 그들은 초기교회의 전통 그대로 물속에 세 번 담그는 침례를 시행하고 있다. 초기교회 때의 침례방식에 있어서 세 번 물속에 담갔다는 기록은 『사도전승』이란 책에도 있다.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침례대신에 세례를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침례가 성서적인 방법이었던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서나 역사 모두에 무지하거나 ‘작지만 순(順)한’ 집단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유아세례와 약식세례를 배제하고 성서적인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를 시행하였다.

침례의 행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침례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수정란이 먼저 만들어져야 출산이 가능해지는 것과 같다. 믿음을 수정란에, 침례를 출산에 비교할 수 있다. 또 믿음을 사랑에, 침례를 혼인에 비교할 수 있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출산보다는 수정 그 자체나 혼인보다는 사랑 그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아무리 중요하고, 수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혼인이나 출산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부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 출발할 수가 없다. 참고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침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성

서는 가르치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침례 때의 서약을 선민서약 즉 '신약'(new covenant)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하나님과 부부서약을 행함으로써 구약의 선민이 되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서약을 통해서 신약의 선민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정란을 생명체로 인정하여 낙태를 금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은 매우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다고 해도 수정란이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어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이 무시 될 수 없듯이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과정 또한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믿음으로부터 침례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한 과정이다. 수정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듯이 믿음부터 침례까지의 과정 또한 그러하다. 출산을 통해서 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 완전한 인간에로의 성장을 시작하듯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신학에서는 '시작된 종말' 또는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알렉산더 캠벨을 '물중생론자'로 보는 것은 그를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알렉산더에게 있어서는 침수세례와 약식세례의 차이가 구원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냐, 불완전하냐의 문제였다. 캠벨은 침수세례를 받은 자와 약식세례를 받은 자와의 차이를 온전한 신체를 가진 자와 생명(영생과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신체의 일부가 불구인 자로 비교하였다. 침례와 구원에 관한 캠벨의 이런 명확한 결론에서 나온 표어가 "우리만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뿐이다(We are not the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였다. '환원운동'의 두 가지 면들 가운데 한 면으로 펼쳐지는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Only Movement)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셋째, 매주일 행하는 주의 만찬을 가톨릭예배의 회귀로 보는 것은 오해이다. 매주 혹은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전통교회들이 많지만, 스톤-캠벨운동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

르다.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간략하고 단순하면서도 오로지 기념과 회상으로써만 주의 만찬을 행한다. 성체신학, 공존설, 임제설 등을 거부하고, 긴 전통적인 예전 또한 거부한다. 순교자 저스틴이 150년경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에게 보낸 '변증서'(The First Apology)에서 보듯이, 집례자가 간단하게 주의 만찬에 대해서 묵상메시지를 전하고, 떡과 물이 희석된 포도주에 대한 감사기도를 올린 후에 그것들을 참석자들에게 분배하고, 또 참석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배달한다.

넷째, 목회자의 호칭이 '목사'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목사'라는 호칭은 '사제'라는 말을 '목사'로 바꾼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Martin Bucer/1491-1551)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미사'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을 '성만찬상'으로 바꾼 개혁가였다.

성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지역교회의 불박이 목회자들은 '장로'들이었다. 이 '장로'가 나중에 가톨릭교회와 동방교회 등에서 '사제'(제사장)로 불리게 되었다. 목회자를 '사제'로 부른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떡과 포도주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예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톨릭교회, 동방교회, 성공회 등에서는 장로들이 목회자들이고, 그들에 대한 호칭이 '사제'들이고, 따라서 그들의 교회에서는 평신도 장로들이 없다. 집사들도 평신도급이 아니라, '부사제' 또는 '보사제'급으로 보면 틀림없다.

그리고 '장로'의 역할은 두 가지로 사도행전에 밝혀져 있는데, '목양'과 '치리'이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목자'이다. '목자'는 다시 '목사'라는 높임말로 불리게 된 것이다. 영어 'pastor'의 뉘앙스는 '목양자'이다.

그런데 '전도자'는 순회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지역교회 불박이 목회자인 '장로'와는 달리, 지역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떠돌이 목회자들 가운데 한 부류를 지칭하는 말이 '전도자'였다. 요즘처럼 목회자들이 개 교회들에 초빙을 받아서 일정기간 섬기다가 또 다른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고 하는 식의 상황이라면, '전도자'라는 호칭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가

장 초창기부터 사제의 권위가 그대로 답습된 ‘pastor’(목사) 혹은 ‘reverend’(성직자)란 호칭을 쓰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했고, 그 대신에 ‘minister’(섬기는 자)란 호칭을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안수에 관한 오해이다. 전통적으로 전통교회들에서 사제들(집사와 장로들)은 남성들이었다. 이 전통은 구약시대 제사장의 전통에서 그대로 답습되어진다. 예배의 제사개념(미사 곧 성만찬 예배를 제사로 보는 전통교회들의 견해)이 바뀐 16세기 종교개혁이후에도 이 전통에는 변화가 없었고, 시대가 바뀌고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증대된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성서해석상의 문제로 불거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 바울서신에 명시된 부분들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보수 정통주의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회당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전통이 하나님의 뜻인지, 유대교나 고대 그레코로만시대의 문화적 특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끝이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보수적인 스톤-캠벨운동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랫동안 여집사 조차도 인정치 않고 있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부터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 독립파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약 10%가 여집사를 두고 있으며, 그 수는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약 1%에 해당하는 교회가 100여명의 여장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약 38%의 교회가 960여명의 여교역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 여교역자들은 대부분 교육, 음악, 초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직 부목이나 원목으로 사역하는 여교역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여성의 교회에서의 위치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sup>1)</sup>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환원운동의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Glenn M. Zuber, "Results of a 1988 Survey: Women as Deacons, Elders, and Ministers," *The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6, 1989), pp. 8-9.

독자들 가운데는 필자의 의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견이나 답이 다르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만한 시간이 놓였기 때문이다. 주일학생이 자라면 학생부를 거쳐 성인이 되고 그가 교회의 중진이 되어 봉사하게 되듯이 지금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교회들과 당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실 것이라 믿는다.



# 제17장

##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

글 조동호 목사

교회를 국가조직에 비교해 볼 때, 교회의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헌법은 신약성서이다.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존재목적은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 호칭한 것이고, 구성원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Christian Church' 혹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라 부른다. 또 헌법이 신약성서이기 때문에 '신약성서교회'라고 부른다. 교회에 관한 호칭은 이렇게 머리가 중심일 때, '그리스도의 교회,' 구성원이 중심일 때, '그리스도인의 교회,' 헌법이 중심일 때, '신약성서교회'라 부른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Restore the Church of the Christ, by the Christ, for the Christ).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에 의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Restore the Church of the Christian, by the Christian, for the Christian). '신약성서의, 신약성서에 의한, 신약성서를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Restore the Church of the New Testament, by the New Testament, for the New Testament).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회복하자'(Restore the Church of the Gospel, by the Gospel, for the Gospel of Light and Life). 이 네 가지 가치 있는 회복운동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 네 가지 회복운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한다.

## 1.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사신 공동체이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안 보인다고해서 목사가 주인행세를 해도 안 되고, 장로와 집사가 주인행세를 해도 안 된다. 계시록이 분명하게 주는 교훈은 구원의 능력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다. 이 능력을 찬탈하고 모방하면서 자기를 높여 숭배케 하는 자를 계시록은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 또 이 짐승을 앞세우고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우매한 자들을 일컬어 거짓선지자 또는 666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이다.

## 2. 그리스도인의 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에 의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분열의 벽, 인종의 벽, 남녀의 벽, 신분의 벽, 계급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분열을 획책하는 인종의 벽, 남녀의 벽, 신분의 벽, 계급의 벽은 허물어져야 한다. 그때 비로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란 성막 지성소의 법궤 뚜껑을 일컫는 시온소를 두고 한 말이다. 히브리서 6장 19-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찢고 앞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성도의 희망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히브리서 10장 19-20절을 보면,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고 하였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였다. 하나님

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지상 성막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한 이유는 지상 성막이 하나님의 지시로 지어진 하늘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 막는 성막휘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상징한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것은 '휘장'이란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네 개의 뜰과 두 개의 성소가 다섯 개의 벽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크고 넓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유대인 여성의 뜰'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유대인 남성의 뜰'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인 '제사장의 뜰'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인 '성소' 다시 휘장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법궤가 놓인 '지성소'가 있었다. 이 유대교 성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인종의 벽'이 있었고, 유대인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남녀의 벽'이 있었으며, 유대인 남성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신분의 벽'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사이에 '계급의 벽'이 있었다. 그런데 원래 벽은 하나님의 영역인 성막 안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뜰의 장벽들은 다 유대교가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권위적인 벽들이다. 이 모든 벽, 심지어 신성의 상징인 성막휘장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신을 깨뜨리심으로 다 허물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민족, 남녀, 신분, 계급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법궤 앞 시은소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인 우리 조차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방해물 없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더 이상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신분이 있고, 계급이 있겠는가? 우리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만이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이기를 바란다면, 매우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 3. 신약성서교회 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은 신약성서의, 신약성서에 의한, 신약성서를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대우전자의 탱크주의 광고로 화제를 모았던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배순훈 박사의 평소의 지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였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여러 선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신 목사님은 그림에 재능을 가진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신데,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일 때면 언제나 '근본'이라는 글자를 적어놓고 그 다음 글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정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 '기본' 또는 '근본'이 바로 교회가 서야할 기반이고, 그 기반이 바로 신약성서이다.

사람들은 새것, 특히 실용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것, 큰 것,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통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잘 되지 않는 것에는 뭔가 모를 잘못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 가치일 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19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알렉산더 캠벨 목사가 '옛 질서를 회복하자'(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는 운동을 펼쳤다. '옛 질서'란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말한다. 그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이 신약성서이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회복하자고 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성서교회로 돌아갈 것을 외치고 있다. 교회가 왜곡되고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믿음에 상관없이 구약성서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구약성서와 연관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모두가 구약성서의 해석자들이다. 그분들이 해

석하고 이해한 방식을 떠나 제멋대로 구약성서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의 가르침이 될 수 없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주 다른 종교이다. 그 이유는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유대교인들은 신약성서가 구약성서를 이해한 영적인 방식과 모험적인 해석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인들의 문자적인 구약성서이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교를 인정할 수 없다. 바울은 유대교적 기독교를 분명한 어조로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하였다.

바울은 교회들에 보낸 서신들에서 ‘배운 것’과 ‘전한 것’이란 말을 여러 차례 썼다. 복음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와 누가 전하였는가와 그만큼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하였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3-25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의 전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올바른 계보요, 전통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주께 받아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외의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요한도, 사도의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자를 일컬어, 거짓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한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하였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교회가 주님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약성경 27권은 주님께 받은 것을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이요, 전통이요, 계보란 것을 알 수 있다.

#### 4. 빛과 생명의 복음회복 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은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크다고 참된 교회인가?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참된 교회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친 때에 이미 기독교는 1,5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고, 지중해와 흑해 연안의 운동·서방 세계가 천주교회와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하는 거대한 교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급히 요구됐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열쇠가 교회의 크기나 역사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고, 빛과 생명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셨고,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셨으며, 13절에서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하셨다.

여기서 ‘사람의 유전’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세운 랍비들의 전통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교회전통을 말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아는 지식과 행하는 일에 타의 추종

을 불허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분을 일컬어 '귀신들린 자'(요 7:20; 마 12:24)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요 7:24)고 하였고, 마태복음 7장 21-23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신약성서가 표준인 교회,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 빛과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이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개혁운동을 쉬지 말아야 한다.